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51 2026. 10

CONTENTS

A Preliminary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Iron Production Sites in the Inland Hoseo Region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e Baekje Hanseong Period
Park, Sang-Hyun

A New Study of Iron-Spiked Footwear of the Three Kingdoms-Unified Silla Period
Shin, Kwang-Cheol·Kim, Ha-Na

Local Groups in the Yesan Region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of Baekje: Relations with the Central Authority
Hwang-Bo, Eun

A Re-evaluation of the Bohai Qidaohezi Site in Jiaohe City, Jilin Province
Choi, Jung-Bum

Excavation of the Nangnang Tombs in Pye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se of Its Findings
Kim, Hai-Gyoung·Kim, Sun

The Realitie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Diagnosis of Its Key Issues: Focusing on the Jongmyo Controversy and the Tasks for Archaeological Heritage
Lee, Sungj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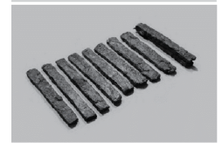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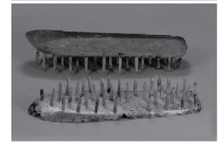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中央考古研究 第51號 2026·10 中央文化遺産研究院

eISSN 2713-8054

中央考古研究

第51號 | 20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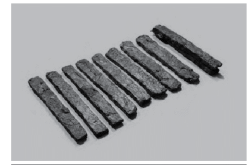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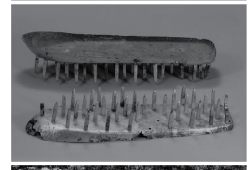

연구논문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 지역 철 생산유적의 공간조직에 관한 시론 | 박상현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에 대한 新고찰 | 신광철·김하나
백제 웅진 ·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 집단의 양상과 중앙과의 관계 | 황보은
吉林省 蛟河 渤海 七道河子 遺蹟의 再認識 | 崔正凡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 김해경·김선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실제와 주요 쟁점의 진단 | 이성준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中央考古研究

第51號 | 2026. 10




연구논문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 지역 철 생산유적의 공간조직에 관한 시론 | 박상현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에 대한 新고찰 | 신광철·김하나
백제 웅진 ·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 집단의 양상과 중앙과의 관계 | 황보은
吉林省 蛟河 渤海 七道河子 遺蹟의 再認識 | 崔正凡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 김해경·김선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실제와 주요 쟁점의 진단 | 이성준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中央文化遺産硏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硏究 -第 51 號-

인쇄일 2026년 10월 26일
발행일 2026년 10월 31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정디자인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中央考古研究

第 51 號 | 20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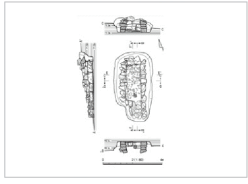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 지역 철 생산유적의 공간조직에 관한 시론 …… 1

박 상 현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에 대한 新고찰 …… 31

신 광 철 · 김 하 나



백제 웅진 ·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 집단의 양상과 중앙과의 관계 …… 75

황보 은



吉林省 蛟河 渤海 七道河子 遺蹟의 再認識 …… 107

崔 正 凡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 141

김 해 경 · 김 선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실제와 주요 쟁점의 진단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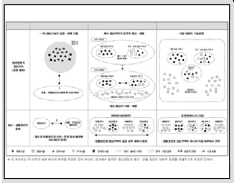
- 종묘의 현안과 고고유산의 과제를 중심으로 -

이 성 준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 지역 철 생산유적의 공간조직에 관한 시론

A Preliminary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Iron Production Sites in the Inland Hoseo Region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e Baekje Hanseong Period

박 상 현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Ⅰ. 서론

Ⅱ. 비교대상과 분석방법

Ⅲ. 대규모 철 생산거점의 공정구성과 공간배치

Ⅳ. 철 생산거점의 공간조직과 형성 배경

Ⅴ. 결론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연구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의 대표적인 철 생산거점인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유적을 대상으로 생산공정의 구성과 공간배치를 비교하고, 대규모 철 생산거점의 공간조직과 형성 배경을 검토하였다. 세 거점은 기본적인 제련기술을 공유하면서도 생산공정의 구성과 이를 조직하는 공간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칠금동에서는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기능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고 동일한 생산공간이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제련 · 정련 · 단야 등 복수의 공정이 여러 생산구역에 분산되며, 생산의 중심이 시기에 따라 이동 ·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거점 내부에서 지점별로 생산공정의 비중이 달라지는 기능분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적 우열이나 단선적인 발전과정보다 생산공정의 범위와 작업공간의 수요,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 장기간에 걸친 공간의 지속과 재편이 서로 다르게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철 생산유적과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고정된 유형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서 내륙의 대규모 철 생산거점은 유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도 생산공정과 작업공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치 · 조정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철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 철 생산 거점 · 공간배치 · 공간기능

Ⅰ. 서 론

철은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 생산력의 확대와 군사력 유지, 나아가 정치권력의 형성과 운영을 뒷받침한 핵심 자원이었다. 철 생산은 단순한 제련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와 연료의 확보, 제련 · 정련 · 단야로 이어지는 생산공정, 노동력의 조직과 생산품의 이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생산활동이었다(성정용 2019: 221). 따라서 고대 철 생산의 실체는 제철로[1]의 구조와 조업기술뿐 아니라 각 생산공정의 구성과 공간 조직을 함께 살필 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반도 고대 철 생산 연구는 철기와 슬래그 등의 금속학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철 생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제련로 · 정련로 · 단야로의 구조와 조업방식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손명조 1998 · 2001; 윤동석 1998; 이남규 2008 · 2019; 김권일 2012 · 2020; 최영민 2016). 최근에는 철 생산시설의 세부구조와 실제 조업방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이지은 2020; 정종호 2025), 지역별 철 생산거점의 형성과 변화, 기술의 계통과 확산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지선 2018; 정경화 2021; 박중국 2024; 김길식 · 정경화 2025).

특히 호서 내륙지역에서는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등 대규모 철 생산유적의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기에 이르는 철 생산의 구체적인 양상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호서 내륙의 철 생산 공방의 성립과 확산, 조업집단의 성격과 기술 수용과정을 검토하였다(김길식 · 정경화 2025). 또한 취락 연구에서는 철 생산시설을 주거 · 묘역 · 저장시설 등과 함께 취락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송절동과 송두리의 생산시설 분포를 취락의 위계와 공간구조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장덕원 2025: 101~113).

---

1) 철 생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사전적 의미에서 '제련(製鍊)'은 원광으로부터 금속을 추출 · 정제하는 공정을 의미하며, '제철(製鐵)'은 철을 생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선철을 생산하는 1차 공정을 '제철', 그 시설을 '제철로'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김경호 2019: 43). 그러나 2010년 이후 철 생산 공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면서 학계에서는 '제철'을 채광에서 제련 · 단야 · 용해 · 제강에 이르는 철 생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련'을 철광석이나 사철에서 철 성분을 추출하는 개별 공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김권일 · 이남규 2016: 75; 성정용 2019: 464; 김권일 2020: 18; 이지은 2020: 6; 박상현 2022: 115; 조록주 2026: 15 등).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따라 '제철'은 철 생산 전 과정을, '제련'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추출하는 공정을, 그 시설은 '제련로'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호서 내륙지역 철 생산의 기술적 특징과 시기적 전개, 철 생산과 취락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철 생산시설의 형식과 기술계통, 철 생산 공방의 성립과 확산, 또는 철 생산시설을 포함한 취락의 위계와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대규모 철 생산거점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련 · 정련 · 단야 등 각 생산공정이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이루며 조직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고고학에서 유적의 공간구조는 개별 유구의 위치나 종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개별 시설이 어떠한 구역에 집중되는지, 서로 다른 기능의 시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특정 공간이 생활 · 생산 · 의례 등 어떠한 기능으로 구획되는지를 함께 검토할 때 유적의 구성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대성동 환구유적 연구에서도 개별 환구의 형태 자체보다 환구의 내 · 외부에 분포하는 주거지 · 수혈 · 주혈 · 생산시설 등의 관계와 공간적 구획을 종합하여 중심촌락의 공간구조를 재검토한 바 있다(윤영석 2025). 특히 환구 내부와 외부의 시설구성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촌락권 안에서도 생활 · 의례 · 생산영역이 서로 다른 공간적 단위로 조직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철 생산거점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철 생산은 하나의 제련로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전처리, 제련, 정련과 단야, 생산물의 처리와 부산물의 폐기 등 여러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체계이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수량뿐 아니라 서로 다른 공정이 한 장소에 집중되는지, 복수의 작업구역으로 분산되는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 사이에 어떠한 구획과 연계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 운영된 생산거점에서는 시설의 중복과 작업공간의 이동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되는 분포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의 공간구조로 해석하는 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한 시기에 대규모 철 생산이 이루어진 생산거점이라 하더라도 생산공간의 조직방식까지 동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련기술이 적용되더라도 생산공정의 조합과 작업공간의 규모, 생활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 생산거점의 운영방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기에 이르는 호서 내륙의 대표적

인 철 생산거점인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유적을 대상으로 생산공정의 구성과 공간 조직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세 생산거점에서 확인되는 제련기술과 공정구성을 살펴보고, 제련 · 정련 · 단야 등 각 공정의 집중과 분산, 생산시설의 중복과 작업구역의 구획 양상을 검토한다. 이어 생산시설과 주거를 비롯한 생활공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철 생산이 개별 거점 또는 보다 넓은 생산권역 안에서 어떠한 공간적 단위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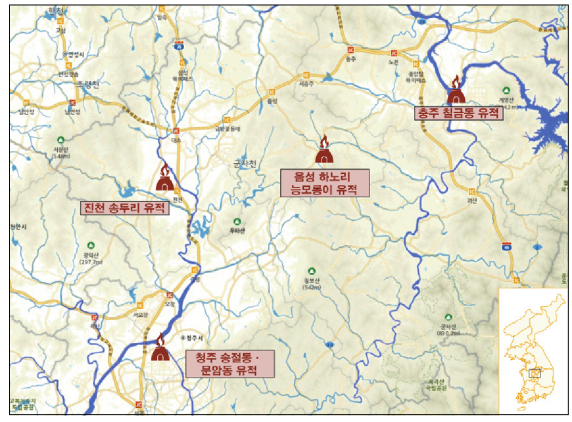
다만 세 유적은 조사범위와 조사강도, 보존상태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공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생산기능의 부재로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조사된 범위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상대적 구성과 시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또한 음성 하노리 능모롱이 유적은 소규모 철 생산과 생활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조 사례로 활용하여 생산규모에 따른 공간조직의 차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호서 내륙의 대규모 철 생산거점을 개별 생산시설의 형식이나 수량이 아니라 복수의 생산공정과 생활공간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조직되는가라는 공간적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Ⅱ. 비교대상과 분석방법

1. 비교대상

이번 연구의 비교대상은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철 생산유적이다. 세 지역은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기에 이르는 시기에 대규모 철 생산이 이루어진 호서 내륙의 대표적인 생산거점이며, 다수의 제련시설과 함께 전처리 · 정련 · 단야 등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도면 1] 호서 내륙 주요 철 생산유적의 위치

가 축적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제련로의 굴광과 하부구조 등 노 시설의 기본적인 구축원리에서 일정한 기술적 공통성이 확인되므로, 개별 노의 형식적 차이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생산공정이 어떠한 공간 구성 방식으로 조직되었는지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세 유적에서 파악되는 생산공간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칠금동은 일정한 구릉 범위에 다수의 생산시설이 집중된 개별 생산거점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청주 송절동 · 문암동은 서로 인접한 여러 조사구역에 생산시설과 주거군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므로 하나의 넓은 생산권역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송두리는 하나의 대규모 유적권 안에서 복수의 생산공정과 생활시설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양자와 또 다른 공간 구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의 비교단위는 행정적 유적명이나 개별 발굴조사 구역이 아니라, 생산시설이 분포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충주 칠금동 철 생산유적은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구릉 일대에 위치하며, 392-5번지와 400-1번지 등에서 철 생산시설이 조사되었다. 특히 392-5번지에서는 추정 배소로 9기와 제련로 34기, 공방지 및 폐기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업시기는 2세기 중엽에서 4세기 후엽에 걸친다(정태영 · 정락현 2025: 47~49). 다수의 제련로가 제한된 범위에 집중되고 동일한 공간에서 생산시설의 중복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칠금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칠금동은 대규모 철 생산이 일정한 작업영역에 집중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서, 생산공간의 지속성과 집약적 이용방식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다.

청주지역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 과정에서 조사된 송절동 · 문암동 유적군을 하나의 비교권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일대는 조사기관과 사업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적명으로 보고되었으나 공간적으로 연속된 충적대지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제련 · 정련 · 단야시설과 대규모 주거군이 여러 조사구역에 걸쳐 분포한다. 따라서 개별 발굴조사 구역만을 독립적인 생산유적으로 볼 경우 실제 생산공간의 범위와 공정 사이의 관계가 분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송절동 · 문암동 일대를 하나의 넓은 생산권역으로 파악하되, 이를 특정 시점에 동시에 운영된 단일 작업장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각 조사구역의 편년과 시설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생산시설의 중심 역시 시간에 따라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주지역에서는 공정의 공간적 분산과 함께 작업구역의 형성 ·

이동 · 재편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진천 송두리 유적에서는 철 생산 관련 노 62기가 확인되었으며, 제련뿐 아니라 정련 · 단야 관련 시설도 다수 조사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451). 이와 함께 대규모 주거와 저장 · 생활 관련 시설이 하나의 넓은 유적권 안에서 확인되어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관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철 생산시설이 단일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점에서 확인되며, 각 지점의 공정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생산거점 내부에서 작업공간이 어떻게 구획되고 기능적으로 배치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세 생산거점은 모두 대규모 철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생산공간의 범위와 시설배치에서는 서로 다른 조건을 보인다. 칠금동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제련시설이 집중되고, 청주에서는 복수의 생산구역이 넓은 권역에 걸쳐 분포하며,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유적 내부에서 여러 생산지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세 사례의 비교는 개별 제련시설의 기술적 차이를 넘어, 대규모 생산 시설을 수용하는 공간의 규모와 생산공정의 배치방식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다.

[표 1]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지역 대규모 철 생산거점 현황표

구 분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입지	남한강 · 달천 인접 구릉	무심천 하류 충적대지 · 구릉 말단	진천분지 구릉 말단
시기	2세기 중엽~4세기 후엽	2세기 후반~4세기 초	3세기 중엽~4세기
주요 공정	전처리 · 제련	제련 · 정련 · 단야	제련 · 정련 · 단야
제련로 하부구조	목조시설을 갖춘 복잡한 구조의 비중이 높음	목조 · 방습시설 확인	간략한 목조구조 및 할석 이용
생산 · 생활유구	생산시설 집중, 주변지역 주거	생산시설 · 대규모 주거군	생산시설 · 대규모 주거군

2. 주요 개념과 분석방법

철 생산유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의 범위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철 생산기술'은 제련로의 축조와 조업에 적용된 기술적 원리와 방식을 의미하며, '생산공정'은 원료의 전처리에서 제련 · 정련 · 단야로 이어지는 개별 생산단계를 지칭한다. '공정구성'은 하나의 유적 또는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확인되는 생산공정의 조합과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 생산기술이 개별 시설과 조업의 기술적 속성을 나타낸다면, 생산공정과 공정구성은 생산거점이 담당한 기능의 범위와 조합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공간과 관련해서는 분석단위와 그 관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생산시설'은 제련로 · 정련로 · 단야시설 등 개별 유구를, '생산구역'은 이러한 생산시설이 일정하게 군집하여 하나의 작업단위를 이루는 공간을 의미한다. '생산공간'은 생산시설과 작업장, 원료 · 연료의 적치 및 부산물 처리공간 등을 포괄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복수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구역이 결합하여 지속적인 철 생산이 이루어진 유적 단위를 '생산거점'으로 정의한다. 다만 청주 송절동 · 문암동과 같이 복수의 조사구역과 생산구역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는 상위의 공간단위로 '생산권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공간배치'와 '공간조직'은 구분하여 사용한다. 공간배치는 생산시설과 각 공정이 실제 공간상에 분포하는 양상을 의미하며, 공간조직은 이러한 배치에서 나타나는 공정 간의 관계와 생산구역의 집중 · 분산,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구획,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공간의 지속과 재편을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공간조직은 개별 생산시설의 위치나 수량 자체보다 복수의 생산공정과 생활공간이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공간조직은 개별 유구의 속성과 공간적 위치를 함께 검토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부여왕릉원 연구에서 능묘의 체적이라는 정량적 속성만으로 위계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등급이 묘역 내부의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공간조직을 해석하였다. 동일한 체적 준위에 속하는 능묘라도 묘역 내 위치에 따라 공간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계가 개별 속성 자체보다 속성과 위치의 결합으로 조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임영재 2026). 이러한 관점은 철 생산 유적에서도 개별 노의 수량이나 공정 종류만으로 생산거점의 성격을 판단하기보다 각 공정이 어떠한 위치와 관계를 이루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개념 구분을 바탕으로 세 생산거점의 공간조직을 공정구성, 집중과 분산, 기능적 구획, 공간의 지속과 재편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한다.

첫째, 공정구성은 각 생산거점에서 확인되는 전처리 · 제련 · 정련 · 단야 등 생산단계의 조합과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일한 제련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제

련 중심의 1차 생산 기능이 우세한지, 정련과 단야 등 후속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생산거점의 기능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정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조사된 생산시설 가운데 각 공정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집중과 분산은 생산시설이 어떠한 공간규모 안에 배치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제련로가 하나의 제한된 작업영역에 밀집되는지, 서로 다른 공정이 복수의 생산구역에 분산되는지, 또는 하나의 대규모 유적 내부에 여러 생산지점이 형성되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의 절대적인 수량과는 별개로 대규모 생산을 수용한 공간의 범위와 조직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기능적 구획은 생산공정 상호 간의 관계와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제련 · 정련 · 단야시설이 동일한 작업구역에 중첩되는지 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지, 그리고 주거 · 저장 등 생활시설과 생산시설 사이에 어떠한 공간적 구분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이때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사회집단의 분리로 해석하기보다 동일한 취락 또는 생산거점 내부에서 기능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공간의 지속과 재편은 현재 확인되는 생산시설의 분포가 하나의 시점에 형성된 고정된 공간구조가 아니라 장기간 조업과정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 장소에서 생산시설이 반복적으로 중복되거나 갱신되는 양상과 시기별 생산 중심의 이동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작업공간이 지속적으로 재사용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생산구역으로 이동 · 확장되었는지를 비교한다. 신라고분군의 공간조직 연구에서도 현재의 분포를 단일 시점의 결과로 보지 않고 시기별 군집과 분포범위의 변화를 통해 공간조직의 변화를 검토한 바 있다(이성주 · 손철 2005). 이와 같은 관점은 장기간 운영된 철 생산유적에서 동시적인 공간분화와 시간적 누적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세 유적의 조사범위와 편년자료의 정밀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공간분석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시설 간의 정확한 거리나 밀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시설의 분포, 중복관계, 공정별 위치, 주변 생활유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공간조직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개별 생산시설의 형식과 수량을 넘어 복수의 생산공정이 하나의 거점 또는 생산권역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 · 분산 · 재편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2] 철 생산거점 공간조직의 비교항목

분석범주	주요 검토항목	공간조직에서의 의미
공정구성	전처리 · 제련 · 정련 · 단야의 조합과 비중	생산거점의 기능적 범위
집중과 분산	시설의 밀집, 생산구역의 수와 범위	대규모 생산 시설을 수용한 공간규모
기능적 구획	공정별 위치, 생산 · 생활시설의 관계	작업공간과 생활공간의 분화
지속과 재편	시설중복, 반복조성, 생산중심의 이동	작업공간 이용의 시간적 변화와 방식

Ⅲ. 대규모 철 생산거점의 공정구성과 공간배치

1. 철 생산기술과 생산공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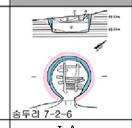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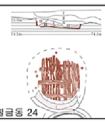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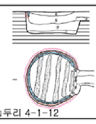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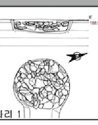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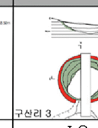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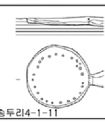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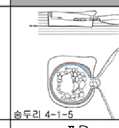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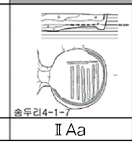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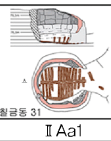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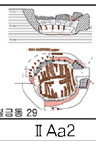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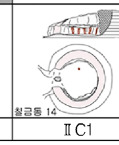
세 생산거점의 공간조직을 비교하기에 앞서 제련기술과 생산공정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시설의 공간적 차이가 기술적 기반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유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생산공정의 구성과 공간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세 거점에서 확인되는 제련로의 구축방식을 비교하여 기술적 공통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이어 전처리 · 제련 · 정련 · 단야 등 생산공정의 구성과 상대적 비중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철 생산기술

세 생산거점에서 확인되는 제련로는 세부적인 형태와 축조 방식에서 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지면을 굴착하여 노의 하부를 조성하고 내부에 일정한 하부구조를 마련한다는 기본 기술원리를 공유한다.

제련로 축조 방식은 하나의 노 하부 굴착 후 모래와 점토 등을 채우는 단일굴광과, 1차 굴착 후 내부를 다시 굴착하여 별도의 방습 및 기초시설을 마련하는 이중굴광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중굴광 구조는 칠금동 유적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송절동 · 문암동 · 송두리 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폭넓게 나타난다(정태영 · 정락현 2025: 59).

특히 칠금동 유적은 이중굴광과 결합된 정교한 목조 지하구조가 특징적이다. 노 하부에 목재를 배열하거나 외곽에 말뚝을 박아 설치한 구조가 다수 확인되며, 392-5번지 제련로 대부분에서 관찰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목조시설 상부

<table>
<tr><td>굴광방식</td><td colspan="6">Ⅰ(단일굴광)</td><td>Ⅱ(이중굴광)</td></tr>
<tr><td>지하구조</td><td colspan="3">A(목조구조)</td><td>B(활석구조)</td><td colspan="2">C(점토구조)</td><td>B(활석구조)</td></tr>
<tr><td>목조구조</td><td colspan="2">a(교차설치)</td><td>b(병렬설치)</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말뚝시설</td><td></td><td>1(1열)</td><td>1(1열)</td><td></td><td></td><td>1(1열)</td><td></td></tr>
<tr><td>제련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형식</td><td>ⅠAa</td><td>ⅠAa1</td><td>ⅠAb1</td><td>ⅠB</td><td>ⅠC</td><td>ⅠC1</td><td>ⅡB</td></tr>
<tr><td>굴광방식</td><td colspan="7">Ⅱ(이중굴광)</td></tr>
<tr><td>지하구조</td><td colspan="5">A(목조구조)</td><td colspan="2">C(점토구조)</td></tr>
<tr><td>목조구조</td><td colspan="3">a(교차설치)</td><td colspan="2">b(병렬설치)</td><td></td><td></td></tr>
<tr><td>말뚝시설</td><td></td><td>1(1열)</td><td>2(2열)</td><td></td><td>1(1열)</td><td></td><td>1(1열)</td></tr>
<tr><td>제련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형식</td><td>ⅡAa</td><td>ⅡAa1</td><td>ⅡAa2</td><td>ⅡAb</td><td>ⅡAb1</td><td>ⅡC</td><td>ⅡC1</td></tr>
</table>

[도면 2] 호서 내륙 지역 주요 제련로의 형식분류안(정태영 · 정락현 202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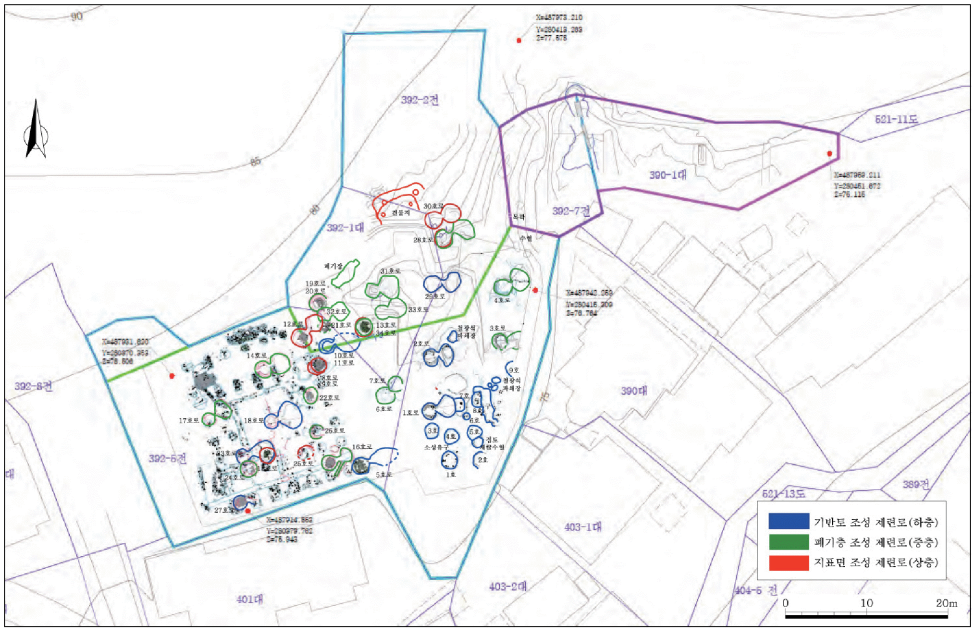
에는 모래 · 점토 · 숯 등을 충전하여 노의 바닥면을 조성하였고, 일부에서는 이전 조업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하부 충전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방습뿐 아니라 연약한 기반을 보강하고 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시설의 성격을 함께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정태영 · 정락현 2025: 71~72).

그러나 이러한 목조 지하구조를 칠금동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완전히 다른 기술계통으로 보기는 어렵다. 송두리와 문암동에서도 목조시설을 갖춘 제련로가 확인되고 송절동 역시 이중굴광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칠금동이 복잡하고 집약적인 목조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송두리는 상대적으로 간략화된 구조를 취하며 문암동 또한 세부 축조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결국 이들 제련로는 특정 고정 형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굴광 · 방습 · 지반보강이라는 기술 원리를 공유한 상태에서 각 현지의 지반 상태, 작업 환경, 조업 경험, 그리고 조업 시기별 변화에 맞춰 세부 축조 방식을 다변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생산공정의 구성

이처럼 세 거점에서는 제련로 구축에서 일정한 기술적 공통성이 확인되지만, 생산거점 전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련로의 구조보다 제련 전후의 생산공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 생산은 원료의 전처리에서 제련, 정련 및 단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이 가운데 어떠한 공

정이 유적 내부에서 수행되었는가는 해당 생산거점의 기능적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거점에서 확인되는 생산시설과 관련 유구를 바탕으로 공정구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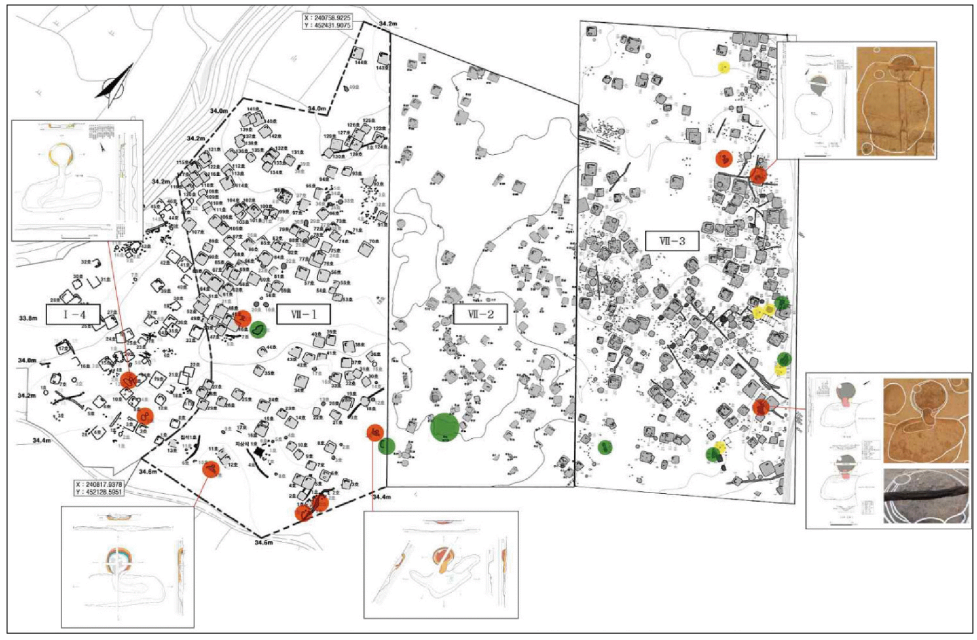


[도면 3]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층위별 제련로 현황도(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24: 48)

충주 칠금동에서는 추정 배소시설과 다수의 제련로가 확인되어 원료의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392-5번지 추정 배소로 9기와 제련로 34기가 확인된다는 점은 현재까지 조사된 생산시설 가운데 제련 이전의 원료처리와 제련공정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련과 단야 등 후속공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를 근거로 칠금동에서 후속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양상은 어디까지나 조사된 공간에서 확인되는 생산기능의 상대적 구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칠금동은 생산공정 전체가 확인되는 복합 생산거점이라기보다 현재 조사범위에서는 원료의 전처리와 제련 등 1차 생산기능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거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일대에서는 제련시설과 함께 정련 · 단야와 관련된 시설 및 유물이 여러 조사구역에서 확인되어 칠금동보다 다양한 생산공정이 하나의 생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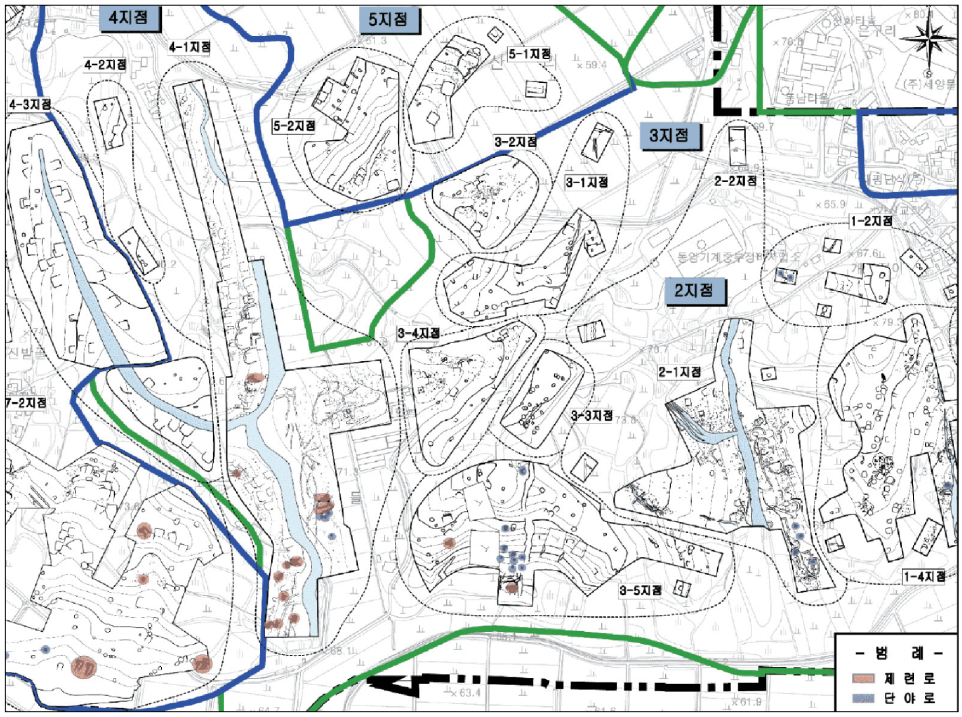
[도면 4] 청주 송절동유적 유구배치도 일부(이지은 2020: 16)

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철광석에서 철소재를 생산하는 제련공정뿐 아니라 제련생산물을 후속 처리하는 작업이 동일한 권역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공정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 공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여러 조사구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조사구역별 시설구성과 편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청주지역의 특징은 단순히 다양한 생산공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복수의 공정이 넓은 생산권역 안에서 서로 다른 작업구역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진천 송두리에서도 제련뿐 아니라 정련 · 단야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확인되어 하나의 대규모 생산거점 안에서 복수의 생산공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철 생산 관련 노가 62기에 이르고 공정별 시설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원료의 제련에서 후속가공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생산기능을 갖춘 거점으로 볼 수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451).

그러나 송두리의 공정구성은 각 지점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에 따라 특정 공정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송두리의 특징은 단순한 공정의 다양성뿐 아니라 하나의 대규모 유적권 안에서 복수의 생산공정이 서로 다른 비중으



[도면 5] 진천 송두리유적 철 생산유구 배치도(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530)

로 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뒤에서 살펴볼 생산공간의 기능적 구획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세 생산거점은 제련로의 굴광과 하부조성 등 기본적인 제련기술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지만, 생산공정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확인된다. 칠금동에서는 현재 조사범위에서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기능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송절동 · 문암동과 송두리에서는 제련과 함께 정련 · 단야 등 후속공정이 확인되어 보다 다양한 생산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공정의 다양성만으로 각 거점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동일하게 제련 · 정련 · 단야가 확인되는 송절동 · 문암동과 송두리에서도 각 공정이 배치되는 공간적 단위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거

[표 3] 주요 철 생산거점의 공정별 생산시설 구성

유적	전처리	제련	정련	단야	폐기장	합계
칠금동	9	34	–	–	1	44
송절동 1차	–	12	–	6	8	26
문암동 2차	–	2	4	2	2	10
송절동 3차	–	20	–	–	5	25
송두리	–	25	31	–	6	62

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정이 존재하는가뿐 아니라 각 공정이 어디에 위치하고 서로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이루는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생산공정의 공간적 배치

칠금동에서는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생산시설이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 집중된다. 특히 392-5번지에서 다수의 제련로가 서로 인접하거나 중복되어 있으며, 조업면 역시 상 · 중 · 하층으로 구분되어 생산활동이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추정 배소시설과 광석 파쇄 등 전처리 관련 시설, 제련로 및 폐기공간이 비교적 가까운 범위에 배치되어 있어 원료의 처리에서 제련과 부산물의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이 특정 생산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24: 183).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산시설의 높은 밀도 자체보다 동일한 장소에 제련시설이 반복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시설의 폐기 이후 그 주변 또는 상부에 새로운 생산시설이 설치되고 조업과정에서 형성된 폐기층 위에 다시 생산공간이 조성되는 양상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장소로 작업구역을 이동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생산구역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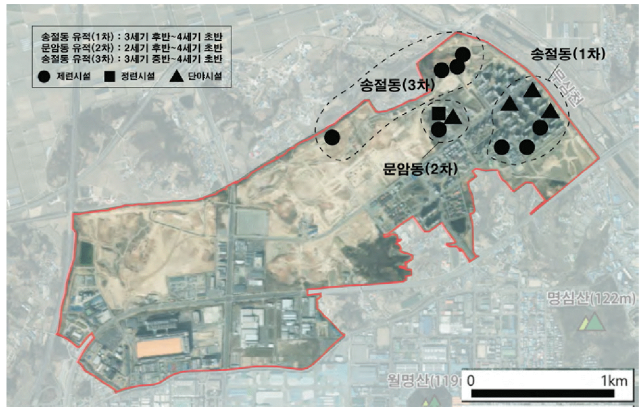
따라서 칠금동에서 현재 확인되는 높은 시설밀도는 단일 시점에 다수의 제련로가 동시에 가동되었다는 의미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포 상황에는 장기간의 생산활동이 누적된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노의 동시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시기의 생산시설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중첩된다는 것은 해당 공간이 장기간 생산구역으로 선택되고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칠금동에서는 전처리와 제련, 부산물의 폐기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범위 안에 배치된다. 이는 원료가 전처리된 이후 제련로로 이동하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와 노벽 등의 부산물이 다시 주변의 폐기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하나의 생산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칠금동의 공간배치는 개별 제련로의 밀집뿐 아니라 전처리 · 제련 · 폐기로 이어지는 작업동선이 비교적 압축된 형태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일대에서는 칠금동과 달리 생산시설이 하나의 제한된 공간

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조사구역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제련 · 정련 · 단야 등 복수의 생산공정이 확인되지만 각 공정의 구성과 비중은 조사구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규모 주거군 역시 생산시설과 함께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따라서 청주지역의 생산공간은 하나의 독립된 작업장이 확대된 형태라기보다 복수의 생산구역이 하나의 넓은 취락 · 생산권역 안에 배치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생산시설 전체가 동일한 시점에 하나의 생산체계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조사구역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편년에는 차이가 있으며, 생산시설이 집중되는 위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현재의 넓은 생산시설 분포에는 동일 시기의 공간적 분산과 장기간에 걸친 생산구역의 이동 · 확장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함께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6] 청주 테크노폴리스 송절동 · 문암동 철 생산 유적 위치 및 시기 표시

특히 특정 시기에 생산시설이 일부 구역으로 집중되거나 기존 작업구역의 이용이 감소하고 다른 지점에서 새로운 생산시설이 증가하는 양상은 청주지역의 생산공간이 고정된 형태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생산규모의 변화나 취락공간의 확대에 따라 생산 중심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주지역의 공간적 특징을 단순한 '분산'보다 분산된 작업구역의 형성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송두리에서는 제련 · 정련 · 단야 등 복수의 생산공정이 하나의 대규모 유적권 안에서 확인되지만, 각 공정은 모든 지점에 동일한 비율로 배치되지 않는다. 생산시설이 확인되는 여러 지점 가운데 제련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과 정련 · 단야 등 후속공정의 비중이 높은 곳이 구분되며,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의 구성 역시 지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송두리의 생산공간이 하나의 균질한 작업장으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유적권 안에 복수의 생산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점에 따

라 수행된 작업의 비중이 달랐다는 것은 생산거점 내부에 일정한 기능차가 있는 작업구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송두리의 공간적 특징은 생산시설의 단순한 집중 또는 분산보다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 공정별 기능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배치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점별 공정비중의 차이를 곧바로 고정된 전문 작업구역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각 지점의 조업시기와 시설의 존속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지점에서도 시간에 따라 수행된 생산공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특정 공정만을 담당한 독립적인 작업집단의 존재로 해석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공간분포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기능분화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비교 결과, 칠금동에서는 특정 생산구역의 반복적인 이용이,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복수 생산구역의 권역적 분포가,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유적권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점별 공정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즉, 세 거점의 차이는 생산시설의 수량이나 공정의 종류보다 복수의 생산공정이 조직된 공간적 규모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Ⅳ. 철 생산거점의 공간조직과 형성 배경

1.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와 공간조직의 차이

대규모 철 생산의 공간조직은 생산시설 상호 간의 배치뿐 아니라 주거를 비롯한 생활공간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노동력과 지속적인 조업을 전제로 하는 철 생산은 생산집단의 생활 및 지원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존 취락 연구에서는 철 생산시설의 존재와 규모를 취락의 기능과 위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 왔다. 특히 송절동과 송두리처럼 대규모 주거군과 철 생산시설이 함께 확인되는 유적에서는 철 생산이 상위취락이 수행한 전문적인 생산기능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었다(장덕원 2025: 66). 이러한 접근은 철 생산이 독립된 기술활동이 아니라 취락 사회의 구성과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취락의 위계 자체보다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어떠한 공간적 관계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생산거점별 공간조직의 차

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송절동 · 문암동이다.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주거군과 철 생산시설이 하나의 취락권을 구성하지만, 생산시설은 일정한 작업구역을 형성하여 생활공간과 구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철 생산과 일상생활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공간 이용에서는 일정한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제련 · 정련 · 단야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연기, 다량의 부산물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간구획에는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폐기물 처리 등의 조업조건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의 생산 · 생활공간은 이러한 점에서 '분리'보다는 '취락 내부의 기능적 구획'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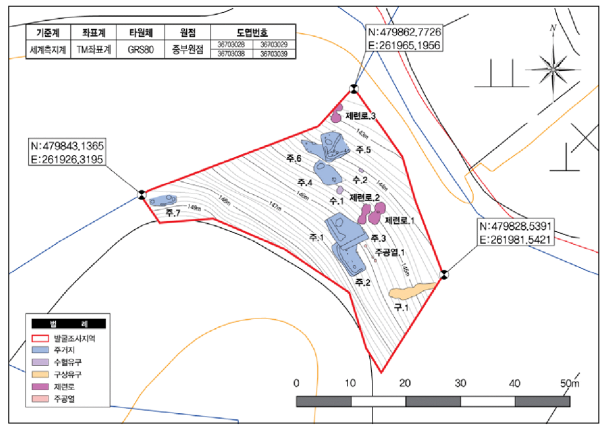
진천 송두리에서도 철 생산시설과 생활공간이 동일한 유적권에서 확인되지만, 청주와는 공간적 조직의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청주에서는 복수의 생산구역이 넓은 권역에 걸쳐 분포하고 생산의 중심이 시기에 따라 이동 · 재편되는 반면,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유적 내부에서 지점별로 제련과 후속공정의 비중이 달라진다. 따라서 송두리는 생산과 생활이 병존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 생산공정과 생활공간이 기능적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칠금동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관계에서 청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련시설은 구릉의 일정 범위에 고밀도로 집중되어 동일 공간이 반복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주변의 구릉 하부 충적지에서는 이와 시기적으로 관련되는 백제 주거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칠금동을 생활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생산유적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산과 생활이 하나의 지역적 체계 안에 존재하면서도, 제련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능이 특정 지형과 공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생산시설과 생활시설이 비교적 넓은 취락권에 함께 분포하는 청주와 달리, 생산기능과 생활기능이 공간적으로 구획된 구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성 하노리 능모롱이 유적은 생산규모와 생활공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이곳에서는 소규모 제련시설과 주거공간이 함께 확인되며, 일부 지점에서는 생활공간이 이후에 생산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가경고고학연구소 2021; 장덕원 2025). 이는 생산과 생활의 병존 자체가 대규모 생산거점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노리와 대규모 생산거점을 비교하면, 양자의 차이는 생산과 생활의 병존 여부보다 공간의 기능적 구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규모 조업에는 노뿐 아니라 원

료 · 연료의 적치, 작업공간, 부산물의 처리공간이 요구된다. 송절동 · 문암동과 송두리에서 생산시설이 대규모 주거군과 동일한 취락권에 속하면서도 별도의 작업구역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공간 확보와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생활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자의 공존 여부보다 생산공간이 생활영역 안에서 어떻게 구획되고 조직되었는가에 있다.



[도면 7] 음성 하노리 유적 2지점 유구배치도(가경고고학연구소 2021: 69)

이상의 비교에서 세 거점은 모두 대규모 철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양자가 결합되는 공간적 방식은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칠금동에서는 제련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능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고 생활공간과 일정하게 구획되는 양상이,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넓은 취락권 안에서 복수의 생산구역이 분산되고 재편되는 양상이,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거점 내부에서 생산공정과 생활공간이 기능적으로 구획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따라서 생산거점의 공간조직은 생산과 생활의 단순한 결합 또는 분리 여부보다, 어떠한 공정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점유하였으며 이를 기존 생활공간과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공간조직의 형성요인과 운영방식

앞서 살펴본 세 생산거점은 제련로의 기본적인 구조와 조업 원리를 공유하면서도 생산공정의 구성과 이를 배치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거점이 담당한 생산기능의 범위와 공정 간의 연계, 생산에 필요한 작업공간의 확보, 생활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장기간의 조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간의 지속과 재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생산공정의 구성은 각 거점의 공간조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칠금동에서는

현재 조사된 범위에서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기능의 비중이 높으며, 다수의 제련시설이 일정한 범위에 집중되고 동일한 생산공간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송절동 · 문암동과 송두리에서는 제련뿐 아니라 정련 · 단야 등 후속공정이 함께 확인된다. 복수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업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연료의 적치, 공정 사이의 생산물 이동, 작업 및 부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공정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각 기능을 수용하고 상호 조정하기 위한 공간구성이 중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칠금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구성의 특징을 개별 유적의 범위에 한정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생산시설은 전처리와 제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련 · 단야와 같은 후속공정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탄금대토성과 용교리 유적에서 확인된 철 생산 관련 자료는 충주지역의 철 생산이 복수의 장소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물론 현 단계에서 이들 유적과 칠금동 사이의 직접적인 생산물 이동이나 공급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련과 후속공정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칠금동의 기능은 하나의 유적 안에서 모든 공정이 완결되는 구조라기보다 더 넓은 지역적 생산체계 속에서 파악할 여지가 있다.

청주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복수의 공정이 조직되었다. 제련에서 정련 · 단야에 이르는 공정이 하나의 생산권역 안에서 확인되지만, 각각의 생산시설은 단일한 작업공간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생산구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대규모 조업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원료 · 연료의 반입과 생산물의 이동, 부산물의 처리 등 서로 다른 작업을 공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생산시설과 주거군이 넓은 범위에서 함께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구역의 분산은 철 생산만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 기존 생활공간과 생산활동을 함께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두리 역시 제련과 후속공정을 함께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청주와 공통되지만, 이를 조직한 공간적 단위에는 차이가 있다.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유적권 안에서 지점별로 제련과 후속공정의 비중이 달라지며, 생산시설과 생활공간 역시 일정한 구획을 이루고 있다. 이는 복수의 생산공정을 수용하는 방식이 반드시 넓은 권역으로의 분산만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도 작업구역을 구분함으로써 기능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청주에서는 복수의 생산구역이 넓은

권역에 분산되는 방식으로,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 작업구역별 기능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공정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규모의 확대가 곧 생산시설의 단순한 집적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철 생산에서는 생산공정의 구성과 작업공간의 수요, 생활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생산기능을 특정 공간에 집중하거나 여러 구역으로 분산하고,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 공정별 작업구역을 구획하는 등 서로 다른 공간적 대응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세 거점에서 확인되는 공간조직의 차이는 기술적 우열이나 단선적인 발전단계로 설명하기보다, 각 거점이 담당한 생산기능과 주어진 공간적 조건 속에서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된 서로 다른 운영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 대규모 철 생산거점의 생산공정과 공간조직 비교

유 적	공정 구성	생산공정의 공간적 조직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
충주 칠금동	전처리 제련	특정 생산구역에 1차 생산 기능 집중, 제련시설의 고밀도 분포와 생산공간의 반복 이용	생산공간이 집중되며 주변에 생활공간 분포
청주 송절동 문암동	제련 정련 단야	복수 생산구역에 공정별 시설이 분산되는 권역적 조직	취락권 내부에서 생산 · 생활공간이 기능적으로 구획
진천 송두리	제련 정련 단야	하나의 대규모 거점 내부에서 지점별 공정 비중이 달라지는 기능분화	유적권 내부에서 생산 · 생활공간이 기능적으로 구획

이와 함께 각 거점이 조성된 공간적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칠금동은 남한강과 달천에 인접한 구릉의 일정 범위에 생산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송절동 · 문암동 일대는 무심천 하류의 충적대지와 구릉 말단을 따라 생산공간이 넓게 전개된다. 송두리는 야트막한 구릉에 형성된 하나의 대규모 유적권 내부에 생산 · 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 차이가 각 거점의 공간조직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산시설과 작업구역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와 형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은 생산공간의 집중과 분산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간조직의 차이는 생산공간을 장기간 이용하고 재편하는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칠금동에서는 동일한 생산구역에 제련시설이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기존 작업공간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용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생산시설의 중심이 시기에 따라 이동하거나 새로운 생산구역이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청주의 넓은 분포에는 동시적인 공정분화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생산공간의 이동과 누적이 함께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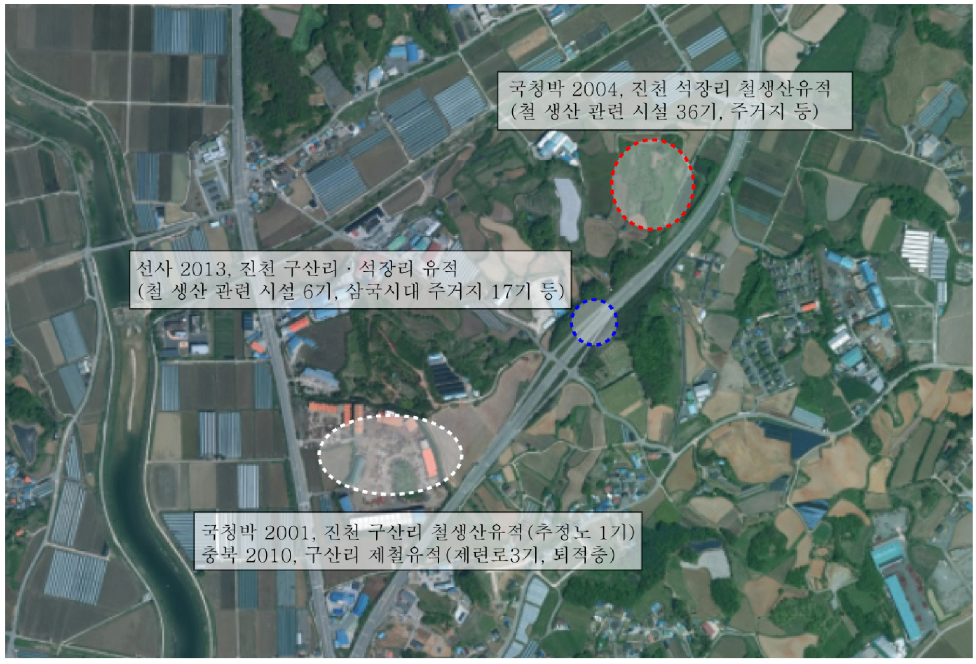
모 생산의 지속이 반드시 동일한 공간의 반복 이용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기존 생산구역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작업구역으로 이동 · 확장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상에서 확인한 공간조직의 차이를 전문적인 직능집단의 분화나 중앙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생산분업의 직접적인 증거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생산시설과 지속적인 작업구역의 존재는 일정한 숙련도와 조직성을 갖춘 생산집단을 상정하게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 이들의 사회적 소속이나 구체적인 관리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규모 철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업시설의 운영을 넘어 서로 다른 작업과 공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수의 생산시설을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제련과 후속공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의 축조와 보수, 작업공간의 이용, 공정 사이의 생산물 이동과 부산물 처리 등이 일정한 방식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특히 복수의 생산구역이 형성된 송절동 · 문암동과 지점별 기능차가 나타나는 송두리에서는 개별 작업구역 사이의 연계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관리주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세 거점에서 확인되는 공간조직은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여러 작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기 위한 운영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조직의 차이가 세 생산거점에 한정된 현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호서 내륙의 다른 철 생산유적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천 석장리 · 구산리, 충주 용교리, 괴산 대사리는 본고에서 주된 비교대상으로 삼은 생산거점과 시기적으로 중첩되면서도 생산공정의 구성과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유적은 조사범위와 생산시설의 규모가 서로 다르므로 세 생산거점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형화하기보다, 앞서 확인한 공간조직의 차이가 다른 유적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토하는 보완적인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천 석장리와 구산리는 하나의 개별 유적만으로 생산체계의 성격을 파악하기보다 인접한 철 생산유적의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석장리에서는 다수의 노적과 함께 송풍관 · 철광석뿐 아니라 용범편과 단조박편 등이 확인되어 제련 이외의 후속공정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적인 철 생산유적으로 파악되어 왔다. 특히 조사구역이 A · B구로 나뉘며 각 구역에 다수의 노가 분포한다는 점에서도 생산시설이



[도면 8] 진천 석장리 및 구산리 철 생산 유적

하나의 지점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석장리 발굴조사는 백제지역 철 생산공정과 제련로의 축조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보고서에서도 다양한 출토유물을 통해 제철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국립청주박물관 2004). 인접한 구산리에서는 제련로 3기와 대규모 제철 관련 폐기층이 확인되어 제련기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며, 보고서에서도 제련로와 폐기장을 주요 제철 관련 유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따라서 석장리와 구산리 일대의 자료는 제련과 후속공정이 반드시 하나의 작업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인접한 복수의 생산공간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배치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송두리에서 확인되는 거점 내부의 기능분화와는 공간적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복수의 공정을 공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규모 유적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충주지역에서도 칠금동 이외의 생산유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생산공정이 보다 넓은 공간범위에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용교리에서는 배소와 관련된 시설과 공방지가 확인되고, 송풍관 · 노벽 · 노바닥과 함께 단조박편과 입상재 등 철생산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원료의 전처리와 후속가공에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진 것

으로 파악된다(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또한 공방지로 보고된 시설 가운데 일부는 내부의 생활용기와 제철 부산물의 출토양상을 고려하여 실제 생산시설보다는 생산에 종사한 사람들의 임시적인 생활공간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용교리 자료는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과 생활공간의 관계가 하나의 유적 내부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칠금동에서 생산된 철소재가 용교리로 직접 이동하였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칠금동에서 전처리와 제련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주변 유적에서 이와 다른 철 생산 관련 활동이 확인된다는 점은 충주지역의 철 생산을 개별 유적 내부에서 완결된 생산체계로만 파악하기보다 복수의 생산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도면 9] 1. 충주 탄금대토성 출토 유물, 2. 충주 용교리 유적 배소 및 공방지

괴산 대사리는 생산과 생활공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비교자료가 된다. 이 유적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의 다수 주거지와 함께 단야작업장이 별도의 작업공간을 이루며 확인되었다(국토문화유산연구원 2025). 단야작업장에서는 노 시설과 소구경 송풍관, 입상재와 단조박편 등 철기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어 제련보다는 후속가공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다수의 주거지와 생산시설이 동일한 유적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단야작업장이 별도의 작업단위로 존재한다는 점은 철 생산과 생활공간의 병존이 곧 양자의 무질서한 혼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송절동 · 문암동과 송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활공간 안에서도 생산기능의 성격과 작업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능적 구획이 형성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생산 · 생활공간의 기능적 구획은 대규모 제련거점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 철 생산이 취락 내부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조직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앞서 세 생산거점에서 확인한 공간조직의 차이는 특정 유적에만 한정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진천 석장리 · 구산리 일대에서는 복수의 생산공정이 인접한 생산공간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나타나며, 충주지역에서는 칠금동과 용교리 등에서 서로 다른 철 생산 관련 기능이 확인된다. 또한 괴산 대사리에서는 생활공간과 후속 철기생산이 하나의 유적권 안에 포함되면서도 작업공간이 일정하게 구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하나의 정형화된 공간유형을 반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련 · 정련 · 단야 등 수행된 공정의 범위와 생산규모, 생활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작업공간을 서로 다른 공간적 단위로 배치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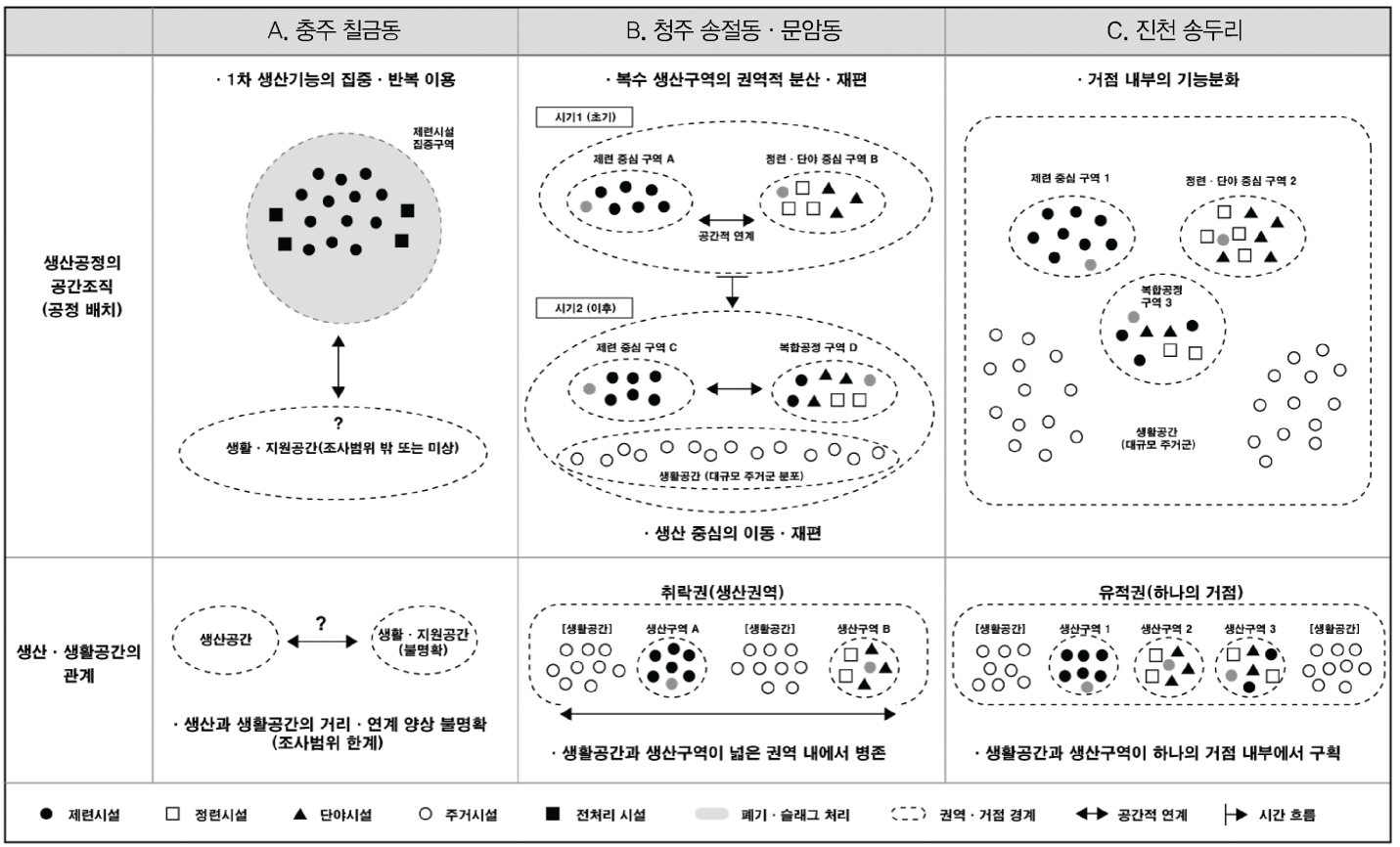
결국 호서 내륙의 철 생산유적은 유사한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생산공정이 조직되는 공간의 규모와 방식에서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칠금동과 같이 특정 생산기능과 작업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송절동 · 문암동과 같이 복수의 생산구역을 넓은 권역에 배치하고 재편하는 방식, 송두리와 같이 하나의 거점 내부에서 공정별 기능을 구획하는 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유형이라기보다 각 생산거점이 수행한 기능과 공간적 조건에 따라 나타난 상대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주변 유적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철 생산의 공간조직은 기술적 우열이나 단선적인 발전과정보다 생산공정과 작업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운영방식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 론

이번 연구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의 대표적인 철 생산거점인 충주 칠금동, 청주 송절동 · 문암동, 진천 송두리 유적을 대상으로 생산공정의 구성과 공간배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철 생산이 어떠한 공간조직을 형성하며 운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가 제련기술이나 개별 생산시설의 구조, 생산규모를 중심으로 철 생산유적의 성격을 파악해 왔다면, 본고에서는 제련 · 정련 · 단야 등 생산공정의 조합과 생산시설의 집중 · 분산,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관계, 그리고 생산공간의 지속과 재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생산거점은 제련로의 굴광과 하부구조 등 기본적인 제련기술을 공유하면서도

[표 5] 대규모 철 생산거점의 생산공간 조직 비교 모식도



※ 본 모식도는 각 유적의 실제 배치와 축척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 검토한 생산공정과 생산 · 생활 공간의 상대적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생산공정의 구성과 이를 배치하는 공간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충주 칠금동에서는 원료의 전처리와 제련을 중심으로 한 1차 생산기능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고 동일한 생산공간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 청주 송절동 · 문암동에서는 제련과 정련 · 단야가 복수의 생산구역에 분산되어 나타나며, 생산의 중심이 시기에 따라 이동하거나 재편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진천 송두리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생산거점 안에 제련과 정련 · 단야가 함께 구성되면서도 지점에 따라 공정의 비중이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세 거점의 차이는 단순히 생산시설의 수량이나 공정의 종류보다는 생산공정이 어떠한 공간적 단위로 조직되었는가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기술 자체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철 생산에서는 원료와 연료의 확보 · 적치, 송풍과 장입을 위한 작업공간, 철재와 폐기물의 처리, 후속공정의 수행 등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요구되며, 생산규모와 수행되는 공정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와 조정 역시 중요해진다. 또한 생산시설이 기존 생활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동일한 생산공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 · 확장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생산시설의 배치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세 생산거점에서 확인되는 공간조직의 차이는 생산공정의 범위와 작업공간의 수요, 생산 · 생활공간의 관계, 장기간에 걸친 공간 이용방식이 서로 다르게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호서 내륙의 다른 철 생산유적과의 비교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진천 석장리 · 구산리 일대에서는 제련과 후속공정이 인접한 복수의 생산공간에서 서로 다른 비중으로 나타나며, 충주 용교리에서는 원료의 전처리와 철 생산 관련 작업뿐 아니라 생산에 종사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함께 확인된다. 괴산 대사리에서는 다수의 주거지와 단야작업장이 하나의 유적권에 포함되면서도 생산활동이 일정한 작업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사리 보고서에서 주거지와 단야작업장이 각각 별도의 유구군으로 집계된 점은 생산과 생활의 병존 속에서도 기능적 공간구분이 존재했음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진천 구산리에서도 제철로와 제철 관련 폐기장이 주요 생산유구로 확인되어, 인접한 석장리 자료와 함께 진천 일대 철 생산공간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을 몇 가지 고정된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모든 철 생산유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발전과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호서 내륙의 철 생산유적

에서는 제련 · 정련 · 단야 등 수행된 공정의 범위와 생산규모, 생산과 생활공간의 관계에 따라 필요한 작업공간을 서로 다른 공간적 단위로 배치하고 조정한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칠금동의 생산기능 집중과 지속적 공간 이용, 송절동 · 문암동의 복수 생산구역과 시기별 재편, 송두리의 거점 내부 공정별 기능분화는 서로 배타적인 유형이라기보다 각 생산거점의 조건에 대응하여 나타난 상대적인 공간조직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검토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호서 내륙의 대규모 철 생산을 개별 제련로의 구조나 생산시설의 수량만으로 파악하기보다, 복수의 생산공정과 작업공간, 생활공간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조직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의 조사자료만으로 각 생산거점 사이의 직접적인 생산물 이동이나 분업관계, 이를 조정한 구체적인 운영주체까지 밝히기는 어렵다. 향후 철광석과 목탄 등 원료 · 연료의 공급망, 생산물의 이동, 주변 취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축적된다면 개별 생산거점을 넘어 호서 내륙 철 생산체계의 조직과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6. 8. 31 | **심사완료일** 2026. 9. 18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21, 『음성 하노리 능모롱이 유적』.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24,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Ⅲ』.

국립청주박물관, 2004, 『진천 석장리 철 생산유적』.

국토문화유산연구원, 2025, 「괴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김경호, 2019, 「중원지역 백제의 남한강 진출과 그 과정 -제철기술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새로운 이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김권일, 2012, 「중원지역 제철로의 검토」, 『중원의 제철문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학술대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_____, 2020, 『고대 영남지역 제철기술의 고고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권일 · 이남규, 2016, 「제철유물 금속분석의 고고학적 해석 및 활용방안 연구」, 『고문화』8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길식 · 정경화, 2025, 「호서 내륙지역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제철 집단의 동향」, 『중앙고고연구』47, 중앙문화유산연구원.

박상현, 2022, 「보은 대원리 유적으로 보는 조선시대 제철수공업」, 『중앙고고연구』37, 중앙문화재연구원.

박중국, 2024, 「원삼국시대 화성 기안리 제철공방의 조성배경」, 『한국고고학보』131, 한국고고학회.

성정용, 2019, 「쇠를 두드리다: 우리 역사를 바꾼 혁신적인 이기, 철」, 『한국 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 김종일 · 성정용 · 성춘택 · 이한상 공저, 들녘.

손명조, 1998, 「한반도 중 · 남부지방 철기생산유적의 현상」, 『영남고고학』22, 영남고고학회.

_____, 2001, 「낙동강 하류역의 고대 철 생산」, 『동원학술논문집』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윤동석, 1998, 『고대 철 생산에 관한 일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석, 2025,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고 김해만 중심촌락 집단 공간구조 연구」, 『한국고고학보』136호, 한국고고학회.

이남규, 2008, 「철기 생산 프로세스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④,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9, 「한국 고대 제철공정의 재검토-중국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한국고고학보』111, 한국고고학회.

이성주 · 손철, 2005, 「GIS를 이용한 신라고분군 공간조직의 분석」, 『한국고고학보』55, 한국고고학회.

이지은, 2020, 『남한지역 고대 철제련로의 변천과 지역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영재, 2026, 「부여왕릉원 능묘의 체적 위계와 공간 조직」, 『고문화』10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장덕원, 2025, 『호서지역 마한 소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정경화, 2021,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119, 한국고고학회.

정종호, 2025, 「한반도 고대 제련로의 변천양상과 그 배경」, 『백제연구』8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정태영 · 정락현, 2025,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조성과 운영 주체의 변천에 관한 고찰」, 『백제학보』, 제54호.

조록주, 2026, 『충북지역 제철유적과 철 생산의 역사적 변천』,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충주 하담리 · 잠병리 · 용교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진천 송두리유적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최영민, 2016,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기술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한지선, 2018, 「백제 제철조업의 공정별 연구 현황과 과제」, 『백제학보』25, 백제학회.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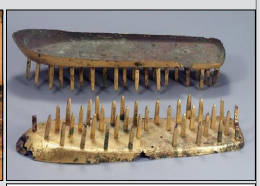
A Preliminary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Iron Production Sites in the Inland Hoseo Region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e Baekje Hanseong Period

Park, Sang-Hyun(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on processes and spatial organization of major iron production centers in the inland Hoseo region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e Baekje Hanseong period, focusing on Chilgeum-dong in Chungju, Songjeol-dong and Munam-dong in Cheongju, and Songdu-ri in Jincheon. Although the three centers shared basic smelting technologies, they differed in their production processes and spatial organization. At Chilgeum-dong, primary production activities, particularly raw-material preparation and smelting, were concentrated within a limited area that was repeatedly used. At Songjeol-dong and Munam-dong, multiple processes were distributed across several production zones, with production centers shifting and being reorganized over time. At Songdu-ri, functional differentiation occurred within a single large production center, with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processes varying among different sectors. These differences reflect varying combinations of production processes, workspace requirements,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nd residential spaces, and the long-term use and reorganization of production spaces, rather than technological hierarchy or a linear developmental sequence. Comparisons with other iron production sites also suggest that these patterns did not form fixed spatial types. Thus, large-scale iron production centers in the inland Hoseo region adopted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production processes and workspaces to sustain iron production.

Key words : Iron production hub, Spatial layout, Spatial function

http://doi.org/10.20292/jcich.2026.51.31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에 대한 新고찰

A New Study of Iron-Spiked Footwear of the Three Kingdoms-Unified Silla Period

신 광 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하 나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후 연구생

Ⅰ. 머리말

Ⅱ. 연구사

Ⅲ.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 개요

Ⅳ. 철제못신의 의의와 성격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본고는 삼국~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탈착식 철제못신의 실물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합하고, 관련 문헌 · 비교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기능과 용도,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서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철제못신은 출토 사례가 적고 금동못신에 비해 관심이 낮아, 발굴보고서에 '불명철기', '미상철기'로 처리되거나 '등자', '편자' 등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誤認 · 누락 사례를 재검토하여 총 72점(중국 27점, 한국 43점, 일본 2점)의 철제못신을 새롭게 정리하고, 형태 · 못 길이 · 결착 방식 등의 속성에 근거해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검토 결과, 철제못신은 권역별로 출토 맥락과 사회적 인식에 차이는 있으나, 실용기이면서 동시에 부장품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구려 · 백제권에서는 실용적 성격이 두드러진 반면, 부여 · 신라권에서는 분묘 출토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철제못신의 변천과 확산 양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주제어 : 탈착식 철제못신, 스파이크,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장품, 금동못신

Ⅰ. 머리말

발바닥 전면에 못이 박힌 '금동못신'은 일찍부터 高句麗의 대표적인 기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기능과 용도를 두고 '실용기'와 '의례용기'라는 상반된 해석이 병존하고 있다. 고분벽화를 보면 실용기로 볼 수 있지만, 금동제 실물의 강도와 구조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의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고구려 사회에서 못신이 단일한 용도로만 쓰이지는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1. 〈삼실총〉 수문장, 2. 〈통구 12호분〉의 적장 참수도,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못신(덕수5193-1)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실용기'로서의 못신, 그중에서도 '脫着式 못신'이다. 고분벽화에서 못신은 軍中에서 사용하던 武裝의 일부로 표현되며, 전투 시 身體를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 무기로 묘사된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못신은 아직 철제 실물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발바닥의 일부만 받치는 형태의 철제못신만 적지 않게 출토되어 주목된다(그림 1).

탈착식 못신은 신발 바닥에 징을 박은 油鞋와 기능 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개념은 전혀 다르다. 유혜는 말 그대로 가죽을 기름에 절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 신발

로, 오뚝 징을 바닥에 박아 넣어 비가 오는 날이나 진땅에서 신는 용도로만 쓰였다.[1] 이와 달리 탈착식 못신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일반 신발에 덧대는 휴대용 부속구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못신은 전부 탈착식이며, 바닥 전면을 감싼 형태(이하 全面형)와 일부만 받치는 형태(이하 局部형)로 나뉜다.[2] 전면형의 경우, 고분벽화를 보면 실용기(특히 武具)였던 것 같은데, 현재 실물 자료는 의례용으로 쓰였을 법한 청동 · 금동제만 확인되고 있다. 그와 달리 국부형은 철제만 확인되며, 출토 사례를 보면 실용기와 의례용기 모두 확인된다. 그동안 국부형은 형태상 '편자[蹄鐵]'[3] 또는 답부 일부만 잔존한 '등자(鐙子)'[4]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관련 자료가 증가하면서 이를 주목한 새로운 시각들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탈착식 철제못신 사례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수합한 뒤, 문헌사료 및 비교 자료를 종합하여 그 기능과 용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철제못신이 한국 고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

---

1) 유혜는 징을 박았다 하여 '징신', 진땅에서 신어도 진흙이 묻지 않는다고 하여 '진신' · '泥鞋', 놋으로 만든 징을 박아서 '놋신' · '놋갓신' · '鍮鞋' 등으로 불린다. 나막신[木屐] 또는 반장화 형태의 套(兒)도 비슷한 용도의 신발이다. 단, 이는 모두 특정 용도에 한정한 신발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철제못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26.3.28. 검색).

2) 본고에서 다루는 철제못신의 속성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Ⅳ장에서 다루겠다.

형태(대분류)			못 길이(중분류)		결착 방식(소분류)	
Ⅰ	평면: 환형/삼각형/방형		A	1.9㎝ 이하	a	被覆형: 천/끈으로 발 전체를 감싸듯이 고정
Ⅱ	단면: 'ㄴ'자형	하단: 刺形	B	2.0~3.9㎝	b	捲環형: 신부 끝단을 구부려 고리를 형성
Ⅲ		하단: 못	C	4.0㎝ 이상	c	捲連環형: b형 끝단에 별도의 고리를 연결
					d	穿孔형: 신부 끝단에 1~2개의 구멍을 뚫음

3) 편자는 보통 타원형에 발굽 뒷부분이 열려 있는 형태('Ω'형)로 말과 노새, 당나귀, 소 등 모든 有蹄類에 부착된다. 특히, 말발굽에 비해 노새 발굽은 앞뒤가 조금 더 길고 좌우가 바깥쪽으로 퍼진 형태를 띠고 있어 장타원형에 가깝다(A.F.Souza 외 2016). 평면 형태상 일반 말편자와 다를뿐이지만, 못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못신과 노새용 편자를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다.

4) 강정무(2010: 107~108)가 지적했듯이 등자는 발을 지지해 주어야 하므로 踏部鋲이 위로 솟아 있지만, 못신은 반대로 바닥 면과의 접지력을 위해 답부병이 아래로 향해야 한다. 발과 접촉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답부병의 위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사

1. 동아시아의 연구 경향

중국에서 이를 처음 주목한 이는 張雪岩이다. 孫仁杰과 함께 조사한 채석장유적[勝利遺址](동북아역사재단 2021: 338~341) 조사 내용을 학계에 발표한 그는 채석장에서 얼음과 눈을 이용해 대형 석재를 옮길 때와 겨울 전투 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鐵釘履'를 착용했다고 보았다. 더불어, 환도산성과 만보정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못신도 같이 언급하였다(張雪岩 1992: 71~72).

이듬해 耿鐵華(1993: 108)는 철정리를 방어무기로 분류하고, 1976년 환도산성 출토품과 만보정 151호묘 출토품을 소개하였다. 2001~2003년에는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총 5점의 철정리가 수습 보고되었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 그중 1점에 대한 자연과학분석도 이루어졌다(张玉春 2009).

이후 못신은 산성 · 고분벽화와 함께 고구려를 대표하는 문화 요소로 인지되기 시작했다(徐秉琨 · 孙守道 1996: 151~154). 王鹏勇(2000)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출토된 고구려 钉履를 鐵製와 铜质鎏金製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陈爽(2010)은 금동못신과 철제못신의 출토지 편중이 심한 것을 근거로 후자를 산성이나 산악지형에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신었을 것으로 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兵器의 하나로 인식해 實戰用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郑春颖(2013)은 환도산성 조사단의 분류 기준에 따라 A형('U'자형)과 B형(말굽형), C형(방형)으로 못신을 분류하고 A형은 등반용, B형은 땅이나 얼음 위의 미끄럼 방지용, C형은 A형과 짝을 이루는 기물로 이해하였으며, 귀족이나 군사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와 평민도 썼을 것으로 보았다.[5)]

전면형 금동못신은 현대 축구화 및 패션(평크스타일)과 연결해 이해하기도 했으며(田小弘 · 吴春艳 2014), 郑春颖은 후속 연구(2015)에서 최초로 고구려 복식 전반을 다루면서 고분벽화 속 996명의 복식을 분석하고, 120개 유적에서 출토된 400여 점의 유물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래 영향을 강조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Jung Wanjin 2021), 신발과 관련해 이전 견해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

5) 그는 앞서 사용되었던 '履' 대신에 '鞋'를 사용하여 연구자별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万欣 등(2020)은 라마동 ⅠM17호묘 내 갑주 퇴적양상을 고찰하면서 철제못신[屣釘][6] 2점의 형태와 출토 지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장기병용 갑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1998년도 발굴 결과를 참고한 것인데, 당시 고구려권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王瑞 · 韩容洙(2021)는 겹창 신발[舃]과 홑창 신발[履]을 구분하며, 중국에서 오래 서 있거나, 진흙 · 습기를 피하려고 나무를 덧댄 신발이 만들어졌음을 살폈다. 그 외 나무 이가 2개 달린 목제 신발[(木)屐]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일찍부터 서로 다른 2개의 재료로 만든 겹창 신발을 인지했음을 지적한 셈이다. 단, 본고에서 다루는 철제못신을 特記하지는 않았다.

이상 중국 내 인식을 보면, 일찍부터 고분벽화와 발굴품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구려의 특징적인 복식문화로 인식하고, 집안 지역의 지형 및 날씨를 토대로 등산용, 빙상용, 전투용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이를 현대 복식문화 및 패션 디자인과도 연계해 이해하고, 종래에는 중국 복식문화 속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7]

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다. 2004년 환도산성 발굴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金性泰(2004; 2005)가 '철정리'를 국내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8] 이후 황오동 고분군 출토품을 정리하던 강정무(2009: 53~55)가 'ㄩ'자형의 불명철기 5점을 처음으로 '탈착식 철제못신'이라고 명명하고 소개하였다. 이후 보다 많은 사례를 정리하였는데(姜廷武 2010), 이것이 현재까지 철제못신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달리 금동못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아 최근까지도 신라 · 백제 금속공예 및 매장 문화의 일부로 다룬 연구(전정은 2023; 김재열 2024)[10]가 나온 바 있다. 한편, 박수동(2012; 2015)은 이를 고구려의 특징적인 신발로 규정하였다. 금동못

---

6) 그동안 통용되었던 '履'釘 대신 '屣'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주목된다.

7) 최근 중국 측 인식을 보면 금동못신은 王公貴族, 철제못신은 장수나 병사가 사용했다고 해석해 재료에 따른 신분 · 계층 차이를 두기도 한다(中国文化报 '25.11.13. 기사 〈铜鎏金钉鞋: 古人的 "防滑神器"〉 참조).

8) 김성태의 후속 연구(2010)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9) 강정무(2024: 193~200)는 최근 발굴보고서에 선행 연구와 동일한 내용의 고찰을 수록하였다.

10) 금동신발은 주로 특별전시 도록이나 자료집의 형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국립대구박물관 2024).

신은 귀족 군인의 착장품이 부장품화한 것으로 근접 전투 시 무기로 쓰였다고 했는데, 못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고구려 금동못신을 통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에 더 주목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학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철제못신[11]은 최근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한성475: 두 왕의 승부수〉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박물관 측은 이를 신발에 장착하는 부속구인 크램폰(Crampons)처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하고(국립공주박물관 2025: 125) 관련 실물 자료를 처음 전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즈마 우시오(東潮 1997)가 한국 출토품을 중심으로 철제못신을 다룬 바 있으며,[12] 그후 일본에서 철제못신 2점이 출토되었으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高木 18호분[13]에서 출토된 '스파이크상 철제품(スパイク状鉄製品)' 1쌍이 그것인데, 당시에는 용도 불명으로 정리되었다(三木市教育委員会 2000: 66).

고바야시 세이지는 이를 일본 각지에서 출토된 20여 점의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力士埴輪]'의 발에 달린 부착구와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스모선수가 격투 시 착용하는 '스파이크상 타격구'로 해석한 셈인데, 발 위아래에 같이 부착했을 가능성 제시, 고구려 벽화고분의 무기와 연결시킨 점, 격투기뿐 아니라 제사와 연관시켜 이해한 점 등이 특징이다(小林青樹 2016; 2017: 264~265; 2019: 441~443).

이처럼 한중일에서 꾸준히 유물이 출토되면서 점차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단, 출토 수량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주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며, 향후 용어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유럽의 연구 경향

유럽에서의 철제못신 연구는 초기철기시대인 할슈타트 C · D기(B.C.8~5세기) 무덤 조사와 궤를 같이 한다. Eduard von Sacken(1868)은 할슈타트고분군 제92호묘를 발굴하면서 Steigeisen을 처음 확인하였고, Joseph Déchelette(1914: 1393)는 이를

11) 그사이 고구려 철기에 대한 자료집이 발간되었지만, 선행 연구 검토 미비, 원보고서 인용 시 오류, 유물 내용 누락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국내 학계는 물론 국립기관에서의 당시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90~91).

12) 단, 그가 제시한 몽촌토성 2호 주거지 · 옥전 M3호분 · 강화도 문수산성 출토품은 모두 편자 또는 불명철기로서 철제못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강정무 2010: 99~100).

13) 高木 18호분은 당초 TA-II구 1호분으로 분류됐으나 보고서 작업 시 18호분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본고에서는 최종 정리된 18호분으로 명명하였다.

'빙상용 크램폰(crampon à glace)'으로 명명하였다(그림 2).[14] 이후 켈트인 광부 또는 로마시대 갈리아인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박차(spur)나 원시 등자와 같은 마구류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를 두고 연구 초반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J. Monroe Thorington 1934: 266~268).



[그림 2] 할슈타트 무덤 출토 철제못신 삽화

Петров, М. И.(2006)는 노브고로드에서 출토된 세 갈래형(Triangular studs) 철제못신을 연구해 삼각형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지만, 세 갈래형은 12~14세기의 더 넓은 연대 폭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는 이를 대개 빙판용 보행 도구로 이해했지만, 논자는 오히려 여름에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어 용도를 폭넓게 볼 것을 제안하였다.

10~13세기경으로 편년되는 볼가 불가르 지역의 빌야르성(Булат Хамидуллин редкол. 2006: 1016)과 13~14세기 흐멜레프카 I 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철제못신이 확인되었다(Недашковский, Л.Ф. · Шигапов, М.Б. 2018).

한편, VLASATÝ, Tomáš.(2017)는 바이킹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스웨덴 · 노르웨이 출토품을 총 4개의 유형[15]으로 나누고 실험고고학을 통해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못신은 풀숲을 걷거나 등산 시에는 유용했지만, 전투 시에는 불편했을 것이며, 여름보다는 겨울에 주로 쓰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Ștefan Vasilache(2019)에 의하면, 할슈타트문화부터 확인되는 유럽의 청동제 · 철제못신은 주로 금속생산과 연관된 산악지역에서 출토된다고 한다. 험한 지면에서 착용자의 안전성과 접지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목재 벌채와 운반용으로도 쓰였지만, 귀금속 장인 또는 전사의 무덤에 부장품으로도 들어가 있다는 지적은

14) 당초 Joseph Déchelette(1914: 1395)는 이를 청동제로 소개했지만, 이후 Mahr, A(1935: 15)가 철제에 4개의 돌기가 있다고 바로잡았다. 실제 [그림 2] 왼쪽의 철제못신 답부면 아래에 3개의 돌기가 묘사되어 있지만, 위치상 4개의 돌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Mahr가 몇가지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 소개한 Sacken의 잘못된 연구가 이후 계속 답습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Mahr, A(1935: 21)는 이를 기마용 초기 박차와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15) Arwidsson, Greta(1986: 111)는 비르카유적 출토 못신을 총 5개 형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철제못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르웨이 중부 Lendbreen의 산악 통로에서는 1,000년 전후 바이킹 시대에 이곳이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는데(Lars Pilø 외 2020), 자연환경과 생업 경제, 그리고 그에 걸맞은 기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16]

라트비아의 체시스성 출토 철제못신을 연구한 Plankājs, Eduards(2022)는 이를 대체로 11~16세기로 편년하면서, 겨울철 어부나 약탈자, 사냥꾼뿐만 아니라 기사단과 각 성의 시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수평으로 미끄러운 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깊은 눈이 쌓인 가파른 경사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여름에 자갈길과 잔디밭, 미끄러운 나무판자 위에서도 대체로 유용했다고 하여 비단 겨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절과 환경에서 유용했음을 논증하였다.



[그림 3] 1. Tønsberg 출토 철제못신, 2. 오슬로 중세공원 출토 철제못신

Espen Kutschera는 Tønsberg에서 출토된 철제못신 복제품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는데,[17] 이는 2022년 오슬로 중세공원에서 가죽 끈과 결합한 세 갈래형 못신과도 비교 가능하다(그림 3). 한편, 말용 못신 또한 700년 이후 중세시대 내내 삼각형, 세 갈래형, 'X'자형, 고리형 등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18]

최근에 ANNE-SOFIE GRÄSLUND(2025)는 11세기 무렵, 스웨덴의 바이킹 고분군에서 출토된 말과 사람용 못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못신이 실용기이면서도 망

16)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뼈 스케이트는 기원전 2천년 기에 처음 등장하며, 북흑해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헝가리 대평원에 이르는 지역이 초기 중심지였다. 이후 2천여 년간 사라졌던 뼈 스케이트는 초기 중세와 바이킹 시대에 다시 爆增한다(Hans Christian Küchelmann · Petar Zidarov 2003). 이는 도구가 지형이나 기후와도 관련이 있지만, 특정 생태환경에 적응한 집단의 선택적 수용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려준다.

17) Forskning.no 2025.1.21. 기사 「Også vikingene brukte brodder for ikke å gå på trynet på glatta」 검색('26.3.30.)

18) sciencenorway.no 2022.6.8. 기사 「Medieval excavation greatest hits: 800 years ago a fashion queen strolled the streets of Oslo in this elegant shoe」 검색('26.3.30.)

자가 저승[발할라]으로 가는 도보 여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helskor)로 기능했음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바이킹 사회에서 못신이 실용기와 의례용기, 두 가지 용도로 쓰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레닌그라드주의 여러 박물관[19]에는 8~15세기에 해당하는 철제못신(ледох одныйшип)이 다수 전시 중인데, 단면 'ㄴ'자형에 아래에는 징이 박힌 형태의 못신과 세 갈래로 갈라진 끝단에 징이 박힌 형태 등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알타이 지역의 텔레츠코예 호수 주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복수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발견된 빙판용 부속구(ледос тупы)는 단조 철판에 6개의 발톱이 달린 형태인데(아래 4개는 얼음 접지용, 위 2개는 가죽 끈 고정용) 배를 물가까지 끌어 올리거나 썰매로 물건을 나르는 등 얼음 위에서 작업할 때 쓰인다고 한다. 정확한 편년은 어렵지만,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기물이 쓰였음을 알려준다.[20]

이상 북유럽부터 남러시아와 알타이 지역 등에서 빙상용 철제못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실물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부장품보다는 실용기로서의 의미에 穿鑿하여, 기능과 성격, 편년, 제작기법, 실험고고학까지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시공간을 떠나 기능과 형태 등이 한정된 기물인 만큼 유럽의 연구 성과는 향후 동아시아의 철제못신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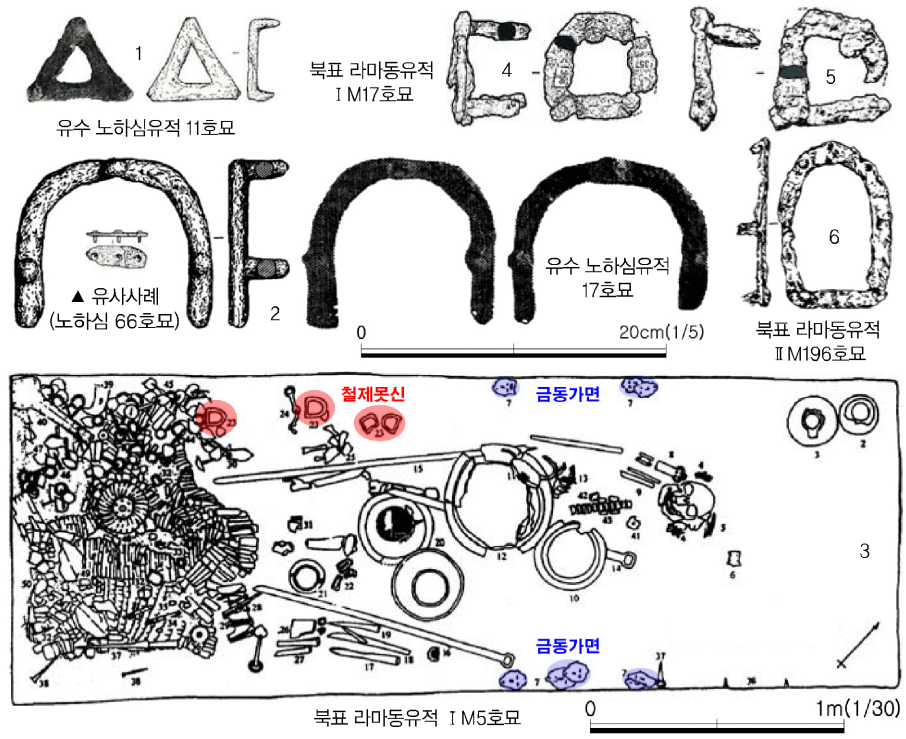
Ⅲ. 삼국~통일신라시대 철제못신 개요

1. 중국 동북지역 출토 자료

1) 부여·삼연문화권(그림 4)

楡樹 老河深유적 출토품은 모두 Ⅰ형으로 11호묘에서는 평면 '△'형 1점, 17호묘에서는 평면 '∩'형이 3점 수습되었다.[21] 4점 모두 상부와 좌우에 각 1개씩, 총 3개의

19) 레닌그라드주 박물관(Музе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홈페이지 검색('26.3.31.)
20) 알타이 국립자연생태계 보호구역(https://altzapoved.ru/arkheologiya) 검색('26.3.31.)
21) 강정무(2010: 114~116)는 환형 못신만 언급했으나, 三角形器 또한 못신으로 판단된다. 형태 차이는 부착



[그림 4] 중국 소재 못신 일괄: 선비/부여

못이 나와 있다. 보고자는 이를 '半环形器'와 '三角形器'라고 기록하고, 기본적인 제원 정도만 남겼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85).[22]

北票 喇嘛洞古墳群 Ⅰ지구 M5호묘에서 출토된 '鐵履釘'은 피장자의 우측 발치에서 4점이 수습되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14). 上圓下方形(3점)과 方形(1점)으로, 유구 도면으로 추산한 못신의 크기는 7~9㎝ 내외이다. 서로 다른 못신 2개가 쌍을 이루어 앞뒤에 부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M17호묘에서는 3점의 '履釘'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2점에 대한 제원이 보고되었다. 상원하방형[23]에 1점, 또는 3점

부위 또는 사용 주체(선비/부여)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2) 66호묘에서 半月形器 1점이 출토되었다(文物出版社 1987: 85). 형태상으로는 못신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단, 크기는 작은데(길이 4.3㎝) 못이 많이 박혀 있으며, 두께도 너무 얇은데다가(0.2㎝) 출토 위치 또한 上肢骨 부근인 점 등이 고민이 된다. 하지만, 경주 쪽샘 41호 부곽 출토품처럼 典型에서 벗어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유사 사례로만 언급해 두겠다.

23) 보고자는 이를 납작한 말각방형의 고리〔扁四棱体环〕로 서술했지만(万欣 외 2020: 350), 도면을 보면 상단과 하단의 굴곡이 다른 상원하방형임을 알 수 있다.

의 못이 부착된 단조품이다. 3점 중 2점이 甲片 사이에서 발견된 탓에,[24] 보고자는 중장기병[甲騎具裝]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중장기병 관련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에서도 해당 기물이 출토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용도 해석에 신중을 기하였다(万欣 외 2020: 350 · 379).

한편, Ⅱ지구 M196호묘에서도 '铁屣钉' 4점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모두 같았으며, 한쪽 변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혀 모양[舌形]으로 묘사하고 있다. 길이는 10.1㎝,[25] 너비는 7.5㎝로 길이 1.2~1.6㎝의 못 5개가 붙어 있다(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12~213; 226~227).[26]

2) 고구려권(그림 5)

集安 採石場유적에서 출토된 상원하방형 못신은 '鐵釘履'로 명명됐으며, 겨울철 채석장에서 채석된 석재 운반 시 쓰인 것으로 해석됐다(張雪岩 1992: 71).

集安 萬寶汀 151호에서는 앞 · 뒤쪽 '철정리' 2쌍이 출토되었다. 앞쪽 못신은 상원하방형으로 좌우 측면에 2개씩, 상부 가운데에 1개의 못이 나와 있고, 뒤쪽 못신 역시 상원하방형으로 네 모서리에 등간격으로 4개의 못이 나와 있다(耿鐵華 1993: 108). 2점 1쌍의 도면만 제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1쌍의 규격도 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編著 2010: 179).[27]

마지막으로 集安 丸都山城에서 다수의 '철정리'가 출토되었다. 耿鐵華(1993)가 소개한 못신은 라마동유적과 마찬가지로 평면 상원하방형과 방형이 1쌍을 이루고 있다. 전자는 상부와 측면에 등간격으로 5개의 못이 나와 있고, 후자는 네 모서리에 각 1개씩, 그리고 한쪽 면의 가운데에 못이 1개 더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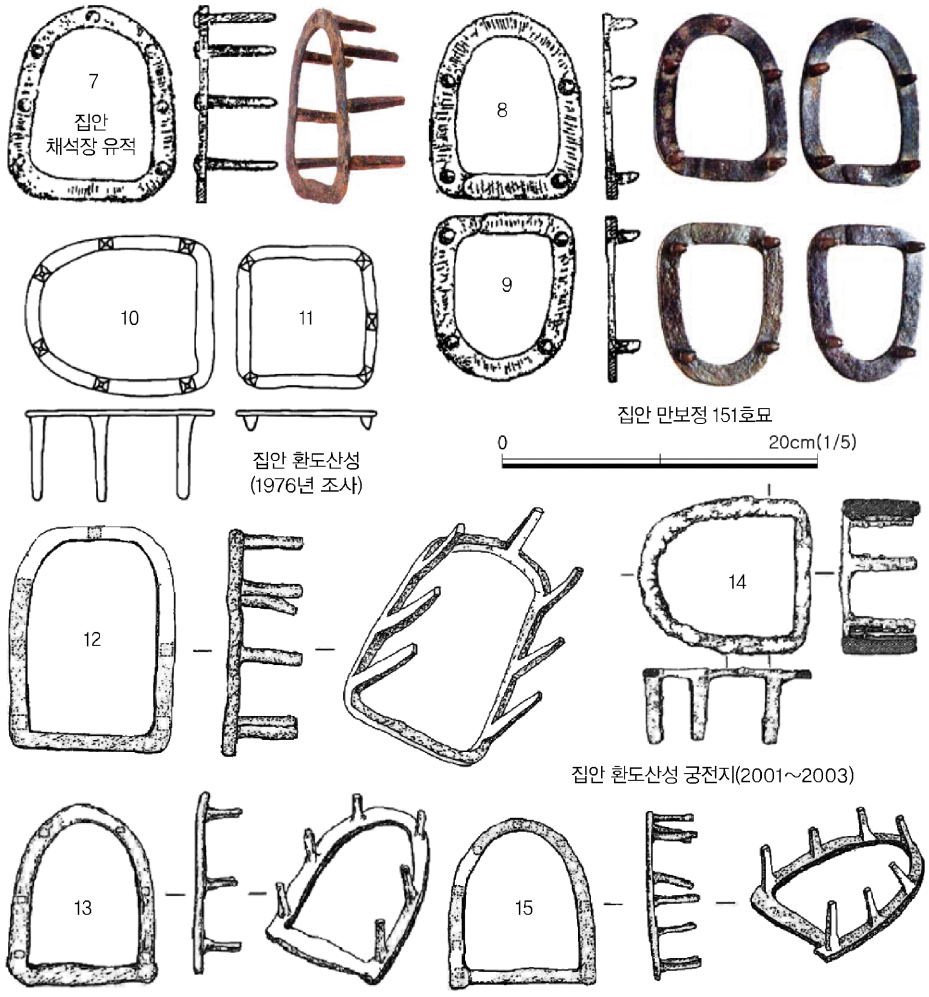
또한, 2001~2003년 환도산성 조사 결과, 철제못신 5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吉

24) 보고서에는 3점 중 2점(Z358, a370)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도면을 보면 Z357과 Z358 2점이 하나로 복원되어 Z358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단, 보고서 내에 일괄적으로 3점이 출토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ⅠM17호묘 출토 수량은 일단 3점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25) 보고자는 못신의 길이를 10.1㎝라고 했지만, 본문에 기재된 너비 및 못의 길이, 도면의 축적 등을 고려해 다시 계산하면 길이는 11.1㎝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겠다(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27).

26) 유물 설명에는 6점으로 되어 있지만(遼宁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 240), 도면을 보면 ⅡM196호묘 피장자의 발치에 4점이 그려져 있어 일단 4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7) 해당 자료에는 출토지가 山城下 151호묘로 적혀 있지만, 앞선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만보정 151호묘의 오기로 보인다(張雪岩 1992; 耿鐵華 1993).



[그림 5] 중국 소재 못신 일괄: 고구려

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 93). 조사단은 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었는데, A형(3점)은 닫힌 'U'자형에 발판[踏面] · 못의 단면이 모두 방형이며, B형(2점)은 말굽형이라 하였다. 보고서에는 A형 2점, B형 2점에 대한 제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형태는 대체로 상원하방형이며, 못의 개수는 6~7개이다.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조 성형 후 재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28)]

28) 张玉春(2009: 37)은 환도산성 출토품을 '주조 성형 후 풀림 처리한 탈탄강 제품(주철탈탄강)'으로 보았다. 기원전 6세기에 중국에서 확인되는 이 기술은 燕 문화의 확산과 함께 遼西의 鮮卑를 통해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본 등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陈建立 2017).

[표 1] 중국 동북지역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29]						결착 방식	유구	비고
			몸체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노하심11호/17호[30] (기원전후)	三角形器 (1점)	Ⅰ형	5.5	5.9	1.9	1.4(A)	3	a	분묘	선비?
2		半环形器 (3점)	Ⅰ형	11.2	13.0	1.7	2.7(B)	3	a		부여
3	라마동 Ⅰ M5호 (4세기 전~중)	鐵履釘 (4점)	Ⅰ형	8~9	7~8	?	?	3/5[31]	a	분묘	부여
4	라마동 Ⅰ M17호 (4세기 전~중)	屣釘 (3점)	Ⅰ형	7.1	6.9	0.8	3.6(B)	3	a	분묘	
5			Ⅰ형	6.6	5.6	0.8	3.5(B)	3	a		
6	라마동 Ⅱ M196호 (4세기 중엽)	履釘 (4점)	Ⅰ형	10.1	7.5	0.6	1.2(A)	5	a	분묘	
7	채석장유적 (4~5세기)	鐵釘履 (1점)	Ⅰ형	12.5	11.0	0.7	4.7(C)	7	a	생산	채석용 /고구려
8	만보정151호 (4~6세기)	鐵釘履 (4점/2쌍)	Ⅰ형	12.0	9.8	0.6	1.6(A)	5	a	분묘	앞뒤부착 /고구려
9			Ⅰ형	10.9	9.3	0.6	1.6(A)	4	a		
10	환도산성 (4~6세기)	鐵釘履 (7점)[32]	Ⅰ형	12.0	10.2	0.3	5.3(C)	6	a	관방	1976년 수습
11			Ⅰ형	8.8	8.8	0.3	0.8(A)	5	a		
12			Ⅰ형	14.4	10.4	1.0	4.0(C)	7	a		2001~ 2003년 등산용[33] /고구려
13			Ⅰ형	12.0	10.0	0.8	2.4(B)	6	a		
14			Ⅰ형	11.2	10.0	0.5	4.2(C)	6	a		
15			Ⅰ형	11.2	9.6	0.5	2.9(B)	7	a		

이상 중국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은 총 27점으로,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삼각형이 1점, 한쪽이 열린 환형이 3점, 말각방형에 가까운 상원하방형 3점, 상원하방형 18점 및, 방형 2점이다. 또한, 채석장유적 출토품만 鋲頭가 튀어나왔을 뿐 나머지는 전부 주물 후 재가공 시 踏面을 편평하게 마감하였다(표 1).

29) 기본적으로 제원은 개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되 수치가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 가장 확실한 평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규격을 계측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0) 보고서 내 도면에 제시된 1점에 대해서만 제원을 정리하였다.

31) Ⅰ M5호묘 출토품의 못 개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대체로 3개, 5개가 모두 확인된다고 한다(万欣 외 2020: 379). 유구 도면을 참고했을 때, 3개는 Ⅰ M17호묘 출토품, 5개는 Ⅱ M196호묘 출토품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겠다.

32) A형 3점 중 2점에 대한 내용(도면, 사진, 제원)만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33) 张玉春(2009: 37)은 해당 기물에 대해 집안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철기로서 등산용이며, 이를 신발의 뒷부분에 부착했다고 해석했다. 크기 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큰데, 부착 부위에 대해서는 못의 길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철제못신이 나온 유수 노하심 중층은 서한 말~동한 초(B.C.1세기 말~A.D.1세기 초)에 해당하는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107~119), 중국 측에서는 중층을 모두 鮮卑 문화층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묘역의 조성 시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한다고 했을 때(정상석 2012), 北區의 중심 묘제인 11호묘보다 남쪽에 있는 17호묘는 상대적으로 뒤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호묘의 '쌍이호+소형관' 토기 조합을 보면 '쌍이호 단독 부장' 무덤과 달리 이질적이다. 이는 11호묘에서 출토된 삼각형 못신과 17호묘에서 출토된 환형 못신 사이에 시기 · 종족적 차이점을 담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삼각형 못신이 내륙 유라시아부터 북유럽까지 폭넓게 확인된 것을 보면, 계통상 유목 집단을 통한 동서 문화 전파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해 17호묘[34]에서 출토된 환형은 아랫부분의 開閉 차이가 있지만, 뒤이어 등장할 상원하방형 또는 방형 못신과 계통상 연결 가능한 부여계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마동유적은 조사를 담당한 田立坤(2003)이 처음 부여 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지, 무덤 배치, 두향(東向), 무덤 평면 형태, 매장 방식, 부장품 매납 위치, 유물 훼기 현상, 금동 가면과 금귀고리 등 諸 요소가 부여 문화와 연결되며, 보통 이를 전연에 의한 부여 사민 집단의 墓域으로 보고 있다(이종수 2024).[35]

그중 ⅠM5호묘는 묘역 내 대형묘 중 하나로서 170여 점에 달하는 부장품 중 금동 가면이 8점이나 매납되어 주목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36] 또한, 라마동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가 유수 노하심 중층묘지 목곽묘와 매우 유사하며, 내몽골 동부지역의 선비 관곽과는 다른 점(田立坤 2003: 263~267), 라마동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자연과학분석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요서지역 초기 토착민의 후예와 일부 선비인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제2쑹화강 유역에서 온 부여인을 주체로 한 혼합집단으로 봐도 무방한 점(朱泓 외 2012) 등이 참고된다.

이 같은 중국 동북지역의 복합적인 인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4세기대 라마동유

34) 조사단은 중층에서 확인된 무덤 129기 중 〈중앙 매장지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로 집중된 무덤 23기〉만이 頭向이 동향이며, 나머지는 모두 서향이라고 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11~12). 유구 분포도를 보면, 17호묘가 23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렇다면 환형 못신이 선비/부여 문화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35) 선비 무덤 특유의 평면 頭廣足狹과 감실, 이차장의 흔적은 ⅠM7호묘 하나에서만 확인되고 있어(이종수 2024: 76) 이를 선비/부여계 무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36) 라마동유적 내 삼연 무덤은 420기로 부장품의 총수량은 5천여 점이다. 그중에서 ⅠM5호묘 하나에서만 다량의 부장품이 나와 해당 피장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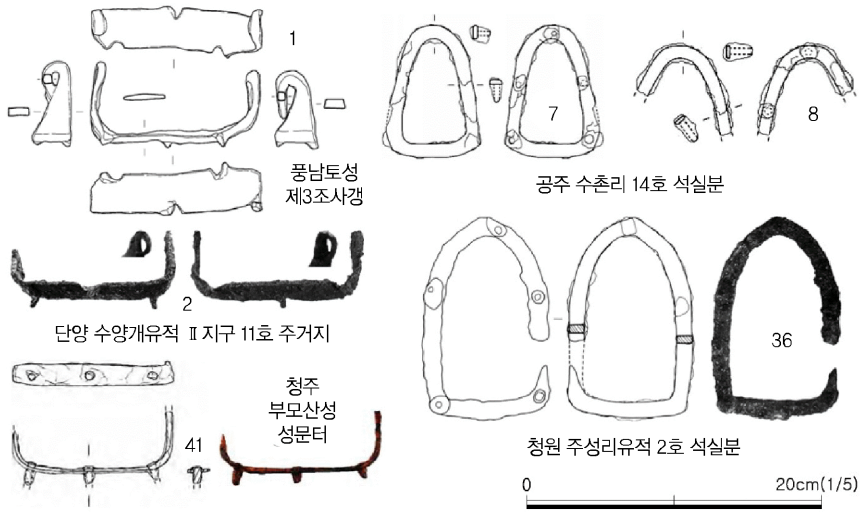
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Ⅰ형 철제못신이 확인되고 있다. 그중 Ⅱ M196호묘 출토품이 보인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철제못신과의 형태적 유사성은 향후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37]

2. 한반도 중남부 출토 자료

1) 백제권(그림 6)

수양개 Ⅱ지구 11호 주거지에서 '발걸이모양 철기'가 수습되었는데, 身部 끝단을 구부려 고리를 만든 Ⅱ형이다(이융조 · 우종윤 1995: 200; 강정무 2010: 116).

청원 주성리유적 2호 석실분 출토품은 '불명철기'로 적혀 있는데(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158), 형태상 부여 라마동 Ⅱ M196-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38] 풍납토성 제3조사갱 12층 출토품은 '격쇠형 철기'로 적혀 있으며(國立文化財硏究所 2005: 65~66), 수양개유적 출토품과 형태상 동일하다.



[그림 6] 한국 소재 못신 일괄: 백제

37) 단, 고구려 철제못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못의 길이가 긴 C형이 부여대부터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고구려에서 발전된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더불어 부여의 못 개수가 3개 또는 5개인 것과 달리 고구려에서는 5~7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형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용처나 기능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38) 보통 고구려의 상원하방형 철제못신은 장단비가 1.2 안팎이다. 그와 달리 부여의 라마동 Ⅱ M196호묘 출토품은 약 1.5로 보다 더 세장하다. 한편, 백제의 수촌리 14호 석실 출토품(1.4), 주성리 2호 석실분 출토품(1.6)을 봤을 때, 형태상 부여 · 고구려와 모두 연결될 수 있지만, 세장도만 놓고 본다면 부여와의 연관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청주 부모산성 출토품은 '미상철기'로 보고되었으며, 리벳 접합 기법이 잘 확인된다. 정확한 출토 지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성문 근처의 문화층에서 확인되었으며((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206), 등산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공주 수촌리고분군(6차) 14호 석실분에서도 '미상철기' 2점이 보고되었는데, 조사단은 성시구의 부속품으로 이해했다. 평면 이등변삼각형으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212~215) 주성리유적 출토품과 비교할만하나 형태와 크기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2) 신라·통일신라권(그림 7~8)

황오동 16호분 5곽에서 '용도불명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울두'나 '청동합' 등의 받침대로 추정하면서 경산 조영 C Ⅰ-1호분에서 출토된 3脚 異形鐵器와 비교하였다(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財團法人東洋文庫 20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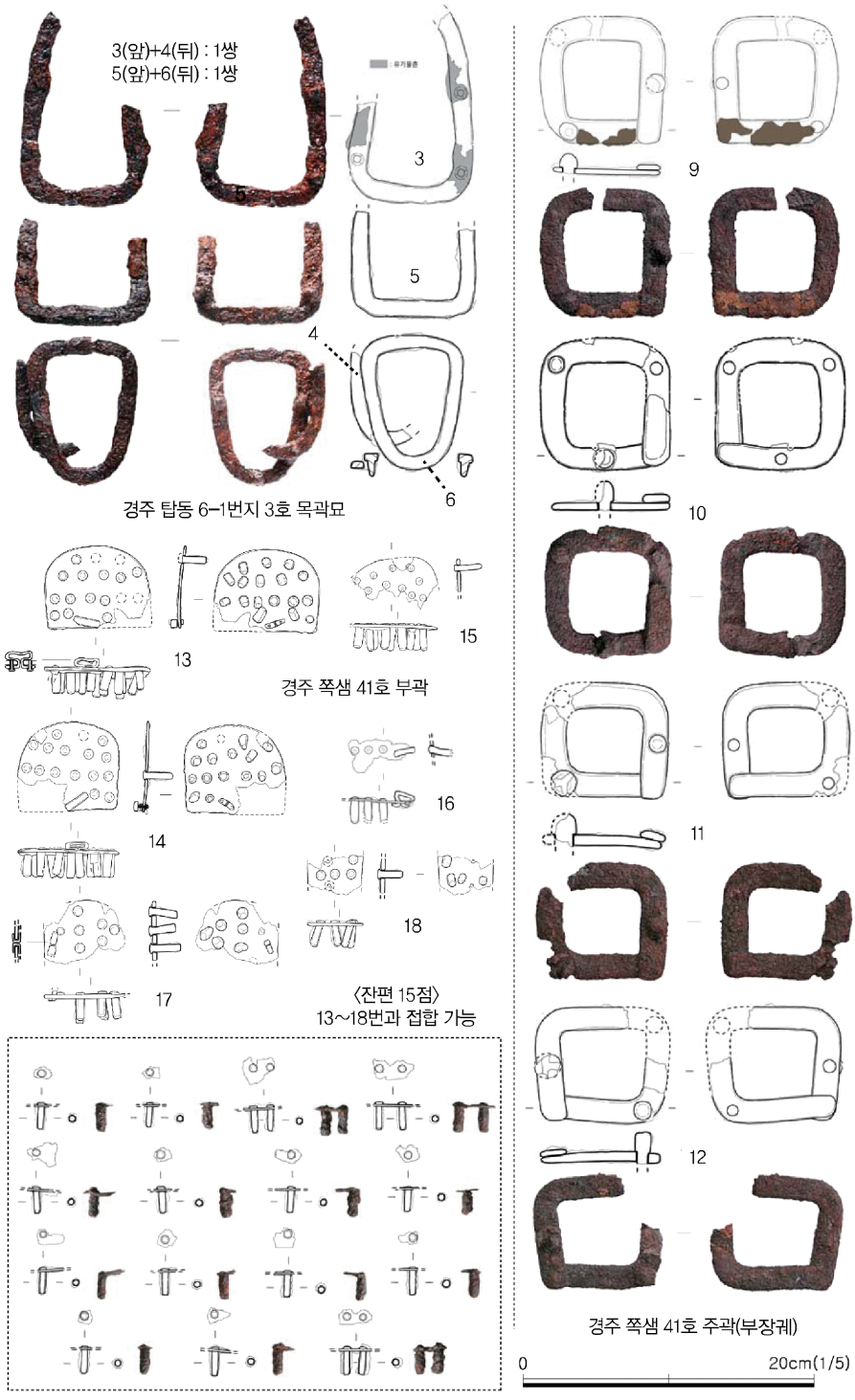
용인 언남리유적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출토품은 '用途不明器'로 표기되어 있다. 지그재그로 투공 3개가 뚫려 있고, 그중 하나에만 못이 남아 있어 형태상 앞선 시기의 기물과 약간 차이가 있다(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245).

춘천 근화동유적 3호 수혈건물지 내부 퇴적토에서 출토된 '용도미상철기'는 기존에 알려진 못신과 형태가 매우 다르다. 답면 자체를 '冂'자형으로 구부린 뒤 波狀을 띠게끔 전후면을 마감하였다. 건물지는 7~8세기로 편년된다((재)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a: 27; 2011b: 8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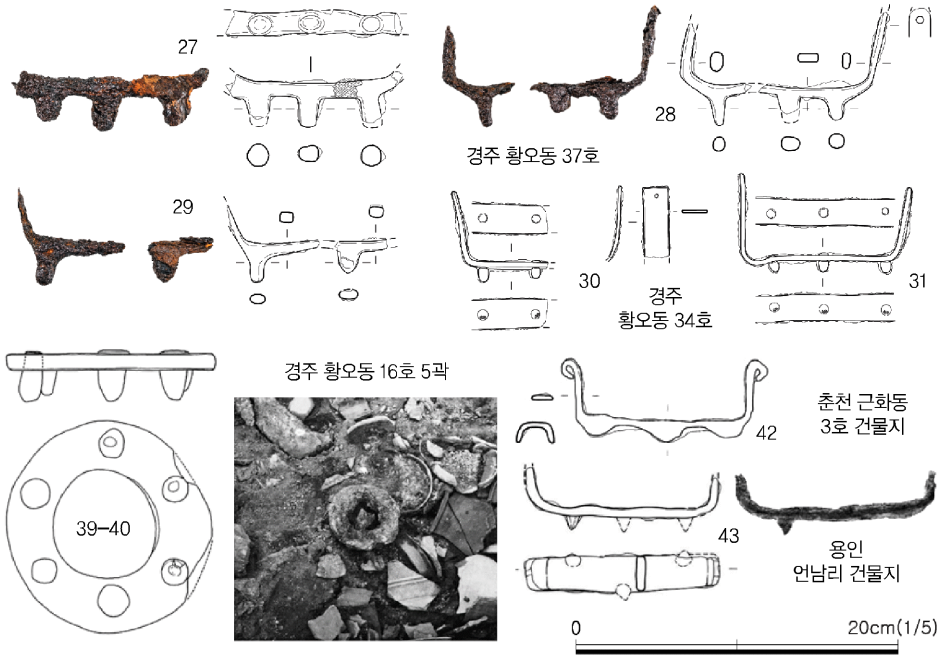
탑동 6-1번지 유적 3호 목곽묘(부곽)에서 '못신' 2쌍이 확인되었다. 앞쪽의 긴 이등변삼각형과 뒤쪽의 짧은 말각이등변삼각형 못신이 1쌍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결실이 되었지만, 잔존 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기준으로 대략의 형태와 규격을 추정할 수 있다(한국문화재재단 2020: 49).

쪽샘 41호 주곽의 부장 궤에서 4점, 부곽에서 6점의 '불명철기'가 수습되었다.[39] 주곽 출토품은 평면 '□'형으로 원래 3개의 못이 있었으나 2개만 확인된다. 부곽에서 수습된 못신은 상원하방형으로 답면의 상단에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리벳이 박혀 있는데, 못의 개수는 제각각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183;

39) 보고서에는 부곽 출토 불명철기를 5점이라고 했지만, 본문을 보면 6점의 독립 개체가 확인되며, 상기 6점에 부착됐을 법한 잔편 15점이 확인된다.



[그림 7]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신라(경주)



[그림 8]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신라(경주/외곽)

704~705).[40] 형태가 다른 못신과 많이 달라 주목된다.[41]

경주 황오동 34 · 37호분은 '철제못신'으로 정리되어 있다. 모두 단면 '凵'형으로 34호분 출토품은 답부 아래에 리벳 접합 부위가 그대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 반면, 37호분 출토품은 못을 돌출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했는데(경북대학교박물관 2024a: 64; 2024c: 151),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것이 시기차 때문인지, 양자의 제작 전통 차이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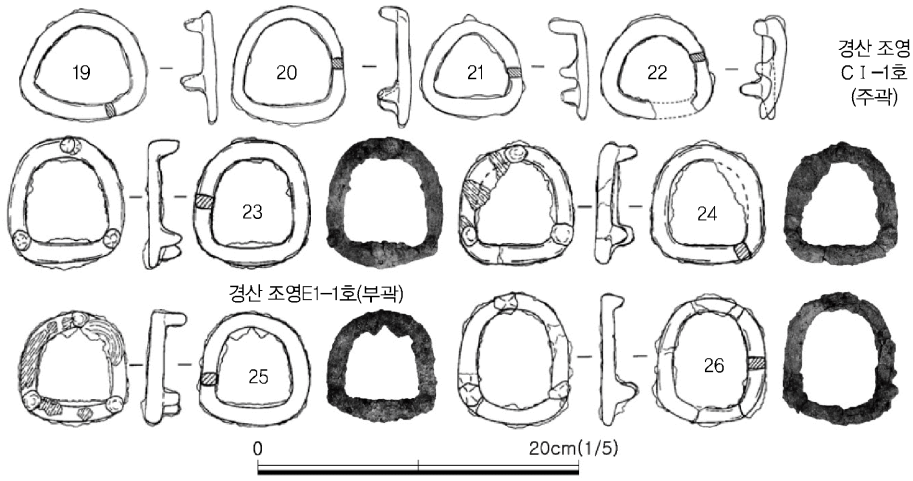
3) 압독권(그림 9)

경산 조영 CⅠ-1호 주곽에서 '三足附鐵環' 4점이 수습되었다. 삼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의 고리를 만든 후 모서리에 못 3개를 내었다. 고리의 단면은 납작하게 두드린

40) 답면의 크기가 작고, 상단에 고리가 달려 있다는 점, 못의 개수와 배치가 다른 못신과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단도 우선 불명철기로 정리하고, 그 기능을 못신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41) 형태상 방형이기는 하지만,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방형의 철대를 주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一'자형 철대를 방형으로 구부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접합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기법상 고구려의 방형 철제못신과 직접 연결됐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방형이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99a: 83~84). 경산 조영 ＥⅠ-1호 부곽에서 출토된 삼족부철환 역시 4점으로 ＣⅠ-1호 주곽에서 출토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조사단은 마구의 일종으로 보았다(嶺南大學校博物館 2000a: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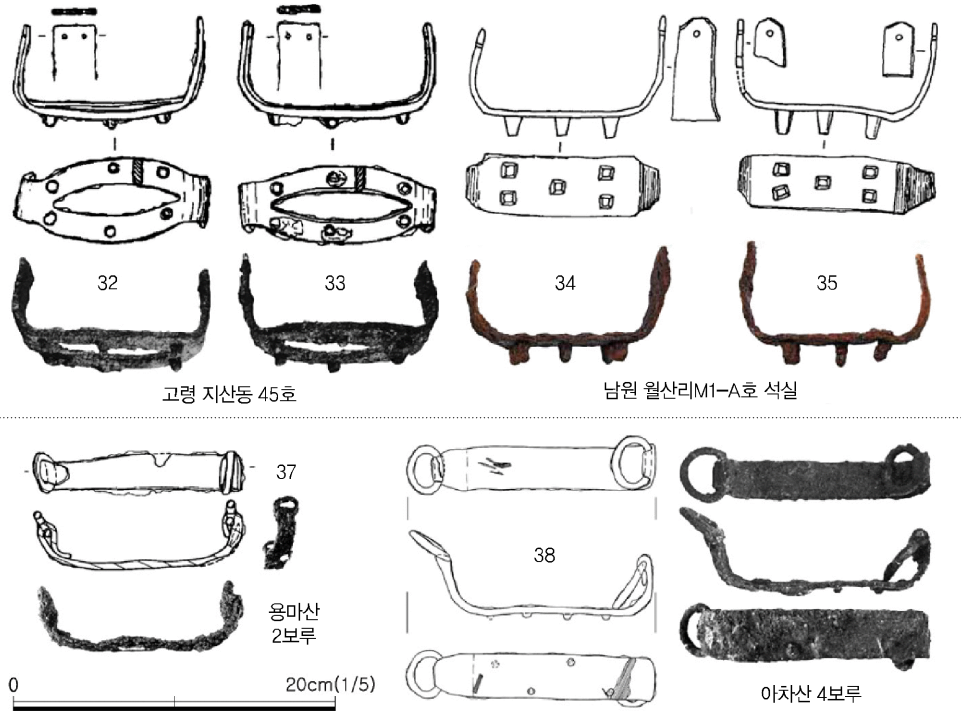
[그림 9] 한국 소재 못신 일괄: 압독

4) 대가야권(그림 10)

고령 지산동 45호분의 경우, 본문에는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도판에는 이를 '鐵製鐙子'라고 적고 있다(경북대학교 박물관 1978: 220 · 281). 하지만, 무덤 내부의 부장품 배치 양상을 보면, 피장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갑주류와 무구류, 반대쪽에 마구류가 배치됨을 알 수 있는데, 철제못신은 갑주류 · 무구류와 함께 장신구류가 놓인 쪽에서 출토되었다. 남원 월산리 M1-A호 석실 조사단 역시 출토된 못신을 등자로 이해하고, 이를 輪燈과 구분하기 위해 '板鐙'으로 명명하였다(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46).

5) 한강유역 고구려권(그림 10)

아차산 4보루 4호 건물지에서 '用度不明 鐵器' 1점이 수습되었다. 신부의 양끝단을 한번 말은 후 별도의 고리를 연결하였다(서울대학교박물관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185). 동일한 형태의 '이형철기' 1점이 용마산 2보루 2호 건물지에서도 수습되었다(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130). 아차산 4보루 출토품은 답면의 못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용마산 2보루 출토품은 X-ray를 활용해 총 4개의 못을



[그림 10] 한국 소재 못신 일괄: 대가야(계) · 고구려

확인하였다.

이상 국내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을 보면, 백제 6점, 신라(통일신라) 23점, 압독 8점, 대가야(계) 4점, 고구려 2점 등 총 43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표 2).

이처럼 국내에서는 중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철제못신이 출토되었으며, 삼국시대 모든 권역에서 출토됐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 백제권에서 독특한 형태(Ⅱ형)의 철제못신이 확인되는 점, 부여-고구려 계통의 철제못신(Ⅰ형)이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권 철제못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식(Ⅲ형)으로 파생된 점, 이 3개의 형식이 6세기대까지 장시간 병존하면서, 못신의 기능과 성격도 변화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철제못신이 단순히 북쪽 → 남쪽,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의 단선적인 전파 양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물임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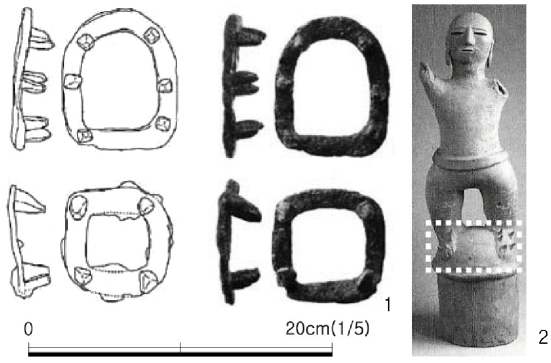
[표 2] 한반도 중남부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						결착방식	유구	비고
			몸체[42]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풍납3조사갱 /2중~3중	꺾쇠형 철기 (1점)	Ⅱ형	11.6	3.0	0.6	0.4(A)	3	b	관방	백제
2	수양개11호 /3세기초~말	발걸이모양 철기(1점)	Ⅱ형	?	?	?	?(A)	3	b	생활	
3	탑동3호 목곽(부곽) /4후~5전	못신(앞뒤) (1쌍/2점)	Ⅰ형	12.6	8.5	0.5	1.0(A)	(5)	a	분묘	신라
4			Ⅰ형	?	?	0.5	1.0(A)	(3)	a		
5		못신(앞뒤) (1쌍/2점)	Ⅰ형	?	8.5	0.5	1.0(A)	(5)	a		
6			Ⅰ형	9.3	7.0	0.5	1.0(A)	(3)	a		
7	수촌리14호석실 /5세기중반	미상철기 (2점)	Ⅰ형	10.3	7.6	0.4	1.2(A)	5	a	분묘	백제
8			Ⅰ형	?	?	0.3	1.5(A)	(5)	a		
9	쪽샘41호 /5세기중반	불명철기 (ㅁ형)/(4점)	Ⅰ형	8.6	8.6	0.7	1.1(A)	3	a?	분묘 (주곽)	잔편15점 확인/ 신라
10			Ⅰ형	9.2	9.1	0.7	1.4(A)	3	a?		
11			Ⅰ형	7.8	8.7	0.7	1.4(A)	3	a?		
12			Ⅰ형	8.0	(9.2)	0.7	1.4(A)	3	a?		
13		불명철기 (상원하방형) (6점)	Ⅰ형	5.8	7.3	1.9	1.5(A)	(16)	a?	분묘 (부곽)	
14			Ⅰ형	6.2	7.0	2.1	1.7(A)	(15)	a?		
15			Ⅰ형	(3.9)	(5.8)	2.0	1.6(A)	(9)	a?		
16			Ⅰ형	(2.1)	(4.6)	1.9	1.6(A)	(3)	a?		
17			Ⅰ형	(4.0)	(5.6)	2.1	1.5(A)	(6)	a?		
18			Ⅰ형	(1.5)	3.8	2.1	1.5(A)	(4)	a?		
19	조영 C Ⅰ-1(주곽) /5세기3/4분기	三足附鐵環 (4점)	Ⅰ형	6.7	7.9	0.7	1.3(A)	3	a	분묘	압독
20			Ⅰ형	7.3	7.0	0.8	1.2(A)	3	a		
21			Ⅰ형	6.0	6.4	0.6	1.7(A)	3	a		
22			Ⅰ형	6.4	7.0	0.7	1.3(A)	3	a		
23	조영 E Ⅰ-1(부곽) /5세기3/4분기	三足附鐵環 (4점)	Ⅰ형	7.9	7.3	0.8	1.2(A)	3	a	분묘	
24			Ⅰ형	7.4	7.0	0.9	1.2(A)	3	a		
25			Ⅰ형	7.0	6.9	1.0	1.3(A)	3	a		
26			Ⅰ형	7.8	6.8	0.8	1.3(A)	3	a		
27	황오동37호 /5후~말	철제못신 (3점)	Ⅲ형	1.2	11.2	0.7	1.9(A)	3	?	분묘	신라
28			Ⅲ형	1.0	10.3	0.3	1.7(A)	3	?		
29			Ⅲ형	0.8	?	0.4	1.4(A)	3?	?		
30	황오동34호 /5세기말	철제못신 (2점)	Ⅲ형	1.8	?	0.2	0.8(A)	3	d	분묘	
31			Ⅲ형	1.8	9.7	0.3	0.7(A)	3	d		
32	지산동45호 /5말~6초[43]	鐵製楴子 (2점)	Ⅲ형	5.4	11.9	0.5	0.7(A)	6	d	분묘	대가야
33			Ⅲ형	4.9	12.1	0.6	0.7(A)	6	d		
34	월산리M1-A /6세기초반	板鐙 (2점)	Ⅲ형	0.4	12.1	0.4	1.2(A)	5	d	분묘	대가야계
35			Ⅲ형	0.4	12.3	0.4	1.3(A)	5	d		
36	주성리2호 /6전~후	불명철기 (1점)	Ⅰ형	13.4	8.4	?	?	5	a	분묘	백제
37	용마산2보루 /6세기초중반	이형철기 (1점)	Ⅲ형	13.8	2.5	0.4	0.3(A)	4	c	관방	고구려
38	아차산4보루 /6세기초중반	用途不明 鐵器 (1점)	Ⅲ형	12.8	2.1	0.5	?	?	c	관방	
39	황오동16호5곽 /6세기후반	용도미상철기 (2점)	Ⅰ형	12.3	12.3	1.0	3.0(C)	6	a	분묘	신라
40			Ⅰ형	13.0	13.0	1.0	3.0(C)	6	a		
41	부모산성 /6후~7중	미상철기 (1점)	Ⅲ형	0.9	10.9	0.2	1.5(A)	3	?	관방	백제[44]
42	근화동3호건 물지/7중~8전	용도미상철기 (1점)	Ⅱ형[45]	5.2	13.0	0.4	0.9(A)	6	b	생활	신라~통신
43	언남리건물지 /9중~10중	用途不明器 (1점)	Ⅱ형	2.2	11.8	0.6	0.9(A)	3	?	생활	통일신라[46]

3. 일본 출토 자료

일본 高木 18호분에서 '스파이크상 철제품(スパイク状鉄製品)' 1쌍이 출토되었다. 해당 무덤은 고훈시대 중기(5세기 중반~후반)로 편년되는 木棺直葬형 圓墳인데, 내부에서는 鐵劍 3점과 鐵鉾 1점을 비롯하여 鉄鋌, 刀子, 句玉 · 管玉 · 小玉, 粟玉 등이 공반 출토되었다.

상원하방형 1점과 방형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못신과 연결시켜 스모선수의 격투용 타격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보통 이 시기는 백제계 이주민들이 가와치호[河內湖] 연안을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지역에 정착해 세력을 형성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최영주 2020). 즉, 이는 당시 한반도 · 왜의 국제 교류에 있어 고구려계 요소도 포함되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림 11 · 표 3).[47]



[그림 11] 1. 高木 18호분 출토 スパイク状鉄製品,
2. 飯山登山 1호분 출토 力士埴輪

---

42) Ⅱ형의 '길이'는 정면을 기준으로 踏面의 전후를, '너비'는 踏面의 좌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43) 조사단은 이를 4세기대로 편년했으나(慶北大學校博物館 · 啓明大學校博物館 1979: 276~278), 최근 대가야 고분 편년의 기조에 맞춰 본고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초로 보았다.

44) 6세기 중반까지 금현성을 둘러싼 청주 일대는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7세기 전반이 되어야 신라의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신광철 2019: 272~276). 그렇게 봤을 때, 부모산성에서 확인된 신라의 흔적을 신라 진출 및 영역화의 근거로 이해하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5) 답면을 잘라서 구부린 형태는 아니지만, 답면에 별도의 못을 부착하지 않았기에 Ⅱ형으로 분류하였다. 백제의 독창적인 Ⅱ형 철제못신의 또 다른 특징은 단일한 원재료를 자르거나 구부려서 만든다는 점이다(현재 ⅡAb형만 확인). 별도의 고리를 달거나, 못을 부착하는 식의 추가 공정을 최소화한 것인데, 제작 시간 · 기간 단축에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46) 강정무(2010: 116~117)는 해당 기물이 비록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에서 수습되었으나 주변에서 백제 토기편이 함께 수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단양 수양개 · 풍납토성 출토품과 비슷한 시기로 편년했다. 그러나 출토 맥락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시기차는 있지만 특정 철제못신 제작 전통이 후대까지 제한된 지역에 남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7) 고구려와 왜 사이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실물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李炳魯 2002). 하지만 7세기대 기나이[畿內]지역 내 횡구식 석곽의 성립 · 확산에 고구려가 연결된다는 연구(山本孝文(杨萌 譯) 2016)를 보면, 당시 한반도와 왜의 문화교류에 있어 고구려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표 3] 일본 출토 철제못신 제원(길이:㎝)

연번	유적(시기)	보고용 명칭	제원						결착 방식	유구	비고
			몸체				못				
			형태	길이	너비	두께	길이	개수			
1	高木 18호분	スパイク状鉄製品(2점)	Ⅰ형	9.8	7.9	0.9	1.7(A)	6	a	분묘	고구려(?)
2			Ⅰ형	7.5	7.2	0.5	2.2(B)	4	a		

Ⅳ. 철제못신의 의의와 성격

1. 철제못신의 편년과 계통

1) 철제못신의 속성 및 분류

국부형 탈착식 철제못신은 크게 발바닥에 부착하는 평면 環形 또는 方形의 철대 아래에 못이 있는 형태(Ⅰ형), 발바닥과 좌우 측면을 'ㄴ'자형으로 감싸는 철대 하단의 답면 양옆을 잘라서 밑으로 구부린 형태(Ⅱ형),[48] 답면에 못이 나 있는 형태(Ⅲ형)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못 길이를 기준으로 1.9㎝ 이하(A)와 2.0~3.9㎝(B), 4.0㎝ 이상(C)으로 나눌 수 있으며,[49] 마지막으로 결착 방식은 被覆형(a), 捲環형(b), 捲連環형(c), 穿孔형(d)로 구분된다(각주 2 · 표 4).

우선 한중일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을 분류하면,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Ⅰ형이 가장 始原的인 형태이자 보편적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못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Ⅰ형의 경우 A · B · C형이 골고루 확인된다. ⅠAa型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압독, 왜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ⅠBa型은 부여와 고구려, 왜, ⅠCa型은 고구려, 신라에서만 확인된다. 못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나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각국이 처한 자연지리적인 요소,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못신의 용도와 관련이 클 것이다.

출토 유적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관방 및 생활유적에서 주로 나오는 반면, 부여

48) 강정무(2010: 120~121)는 이러한 형태를 '刺形'으로 구분하고, 이를 백제 못신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듯했다. 논자 역시 그에 동의하며, 이를 Ⅲ형과 다른 별개의 제작 전통이 적용된 결과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49) 출토 수량을 감안했을 때, 편의상 2㎝ 간격으로 구분한 기술적 범주로서, 그 자체가 특정 기능적 형식과 등치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와 신라 등은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와 달리 Ⅱ형과 Ⅲ형은 못 길이가 1.9㎝ 이하인 A형만 확인된다. 못 길이가 못신의 용도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Ⅰ형과 달리 Ⅱ · Ⅲ형은 비슷하면서도 한정된 용도로 쓰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표 4] 삼국시대 철제못신의 분류

속성			출토 유적					
대	중	소	관방		생활		분묘	
Ⅰ	A	a	환도산성	고구려			라마동 ⅡM196호 만보정151호 수촌리14호 주성리2호 탑동3호, 쪽샘41호 조영CⅠ-1 · EⅠ-1 高木18호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압독 왜(고구려?)
	B						노하심17호 라마동ⅠM17호(M5호?) 高木18호	부여 왜(고구려?)
	C				채석장유적	고구려	황오동16호5곽	신라
Ⅱ	A	b	풍납3조사갱	백제	수양개11호 언남리건물 근화동3호	백제 신라 ~통신		
Ⅲ	A	c	용마산2보루 아차산4보루	고구려				
		d	(부모산성)	(백제)			황오동 34호(37호?) 지산동45호 월산리M1-A	신라 대가야 대가야계
출토비율[51]			11점(15.5%)		4점(5.6%)		**56점(78.9%)**	

이처럼 Ⅰ형의 이른 사례가 부여권에서 확인되고, 이후 고구려권과 한반도 남부, 왜에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한편, Ⅱ형이 3세기대 백제에 보인다는 점은 단면 'ㄴ'자 형이 한반도 내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물론, 4세기 이전 고구려 또는 중원에서 이와 같은 못신이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철제못신의 지역적 특수성과 부여 · 고구려권의 출토 양상을 참작했을 때, 과연 Ⅱ · Ⅲ형의 이른 형태가 향후 중국에서 확인될지는 의문이다.[51]

50) 유수 노하심 11호묘 출토 삼각형 철제못신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1) 라마동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형 못신을 보면, 부여 이외 유목민 계통의 철제못신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낙랑을 통해 중원문화권의 철제못신이 이른 시기에 전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관련 실물 자료가 없는 이상, 단면 'ㄴ'자형은 백제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이후 고구려와의 접촉으로 인해 Ⅲ형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Ⅲ형의 경우, 못 길이는 모두 A형으로 결착 방식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A형의 쓰임새는 거의 같고, 결착 방식만 다른 이유를 시기차 또는 지역 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Ⅲ형은 Ⅰ형과 마찬가지로 백제 · 고구려의 관방 및 생활유적, 신라의 분묘유적에서 나오는데, 이를 보면 철제못신의 형태는 달랐어도 각국의 쓰임새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철제못신이 가장 많이 확인된 나라는 신라이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Ⅰ · Ⅲ형이 모두 확인되지만(통일신라 제외) 전부 분묘 부장품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고구려의 경우, 철제못신과 달리 청동 · 금동못신은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는데, 고구려의 墓葬制 영향을 강하게 받은 마립간기 신라에서도 금동못신이 주요 부장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 철제못신까지도 부장용으로 중요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보면 철제못신의 형태 또는 속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고, 못신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부장품으로서의 '용도'가 특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52] 그리고 이는 신라식 금속장신구 · 착장품 부장을 동반한 고총고분 문화의 확산과 함께, 또는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 諸國에 미친 군사 ·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여러 사회적 변동에 따라 압독이나 대가야, 바다 건너 왜 등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표 5).

한편, 5세기 후반이 되면 Ⅰ형(못신)과 Ⅱ형(철대)의 요소를 함께 갖춘 Ⅲ형(철대+못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이 고구려가 한반도에 진출하기 시작해 백제와 雌雄을 겨루기 시작한 무렵인지, 아니면 한성을 점령해 백제의 舊왕도 일대를 점유한 무렵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성 일대에서 수백 년간 존속했던 Ⅱ형의 제작 전통이 통일신라시대까지 남았다는 것 또한 Ⅱ형의 시원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단, 백제에서 Ⅱ형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Ⅱ · Ⅲ형이 형태상 등자와 유사하다고 했을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점의 철제등자가 몽골 Khukh Nuur유적(3세기 말~4세기 초) 출토품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른 시기 등자가 표현된 도용(271/302)이 중국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Jamsranjav Bayarsaikhan 외 2024), 재질을 떠나 등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Ⅱ형 못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尙存하므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그 기원과 계통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보류하도록 하겠다.

52) 4세기 3/4분기에 고구려를 경유한 허리띠가 쪽샘 L17호에서 출토된 이래 경산 · 경주 일대에서 귀걸이와 과판, 성시구, 귀걸이, 금동신발 등 다양한 장신구들이 4~6세기에 걸쳐 확인된다(김재열 2024: 70~105). 금동못신은 철제못신보다 늦게 무덤에 부장되는데, 철제 · 금동못신 부장 풍습이 고구려에서 같이 전해졌으나 신라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주목됐을 가능성, 양자가 시차를 두고 신라로 전해졌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표 5] 삼국시대 철제못신의 권역별 특징

		수량	출토지	시기	형식	특징
부여		14(+1)	분묘	기원전후~4세기	Ⅰ	선비(삼각형)와 다른 계통
백제		6	관방 분묘, 생활	2~7세기	Ⅰ, Ⅱ, Ⅲ	실용기 》 의례용기 독창적인 **Ⅱ형** 제작
고구려		14	관방, 분묘	4~6세기	Ⅰ, Ⅲ	실용기 》》 의례용기 철제(실용기)/금동제(부장용)
신라	삼국	21	분묘	4~6세기	Ⅰ, Ⅲ	실용기 〈〈〈 의례용기 철제 · 금동제(부장용) **통일 이후 성격 변화** **– 백제의 영향 /舊 백제권**
	통신	2	생활	7~10세기	Ⅱ	
압독		8	분묘	5세기	Ⅰ	신라의 영향/고구려의 영향?
대가야(계)		4	분묘	5~6세기	Ⅲ	신라의 영향/자체 발전
왜		2	분묘	5세기 중후엽	Ⅰ	고구려의 영향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쇠발걸이[鐵製鐙子]로 등록된 소장품(수집품)이 있는데, 형태는 모두 Ⅱ형이다(그림 12). 길이는 대략 너비 11.6~13.5㎝ 규모로 출토지 不明이다. 하지만, 상기 내용을 감안한다면, 백제에서 제작되었거나, 통일기 이후 舊백제권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다.[54]



[그림 12] 쇠발걸이(고적27695)[53]

2) 철제못신의 분포 및 전개 양상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출토된 못신이 한국에서 출토된 것보다 시기가 빠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북쪽 → 남쪽으로의 문화 전파를 상정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특정 시점(2~3세기대/4세기 후반 이후)에 철제못신 제작 · 사용이 집중되고 있어 단순한 문화 교류 · 전파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물이 특정 시점에, 특정한 연유로 전파/수용 · 변형되었음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

---

53) 현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보면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 향후 해당 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면,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54) 고적품 특성상 등록 순서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앞뒤 번호의 소장품을 통해 해당 유물의 제작 주체 및 시점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못신의 결착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든데, 만약 철대 신부를 구부린 b형이라면 삼국시대 백제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고, 철대 신부에 구멍을 뚫은 d형이라면, 신라와의 문화 접변의 결과물로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舊백제권 제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출토 양상을 보면 이른 시기에 부여권(Ⅰ형)과 백제권(Ⅱ형)에서는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형태의 철제못신이 등장하는데, 두 형식은 서로 상관성이 있다기보다 각자 별개의 발생-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적이 적절할 것이다.

Ⅰ형은 신발 바닥에 못이 부착된 형태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못의 길이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Ⅱ형은 답면 일부를 잘라 아래로 구부렸기 때문에 못의 길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길이가 채 1.0㎝도 되지 않아 실용기로 쓰였다면 발이 깊게 빠지는 진창이나 습지, 산지보다는 빙상과 같은 단단한 지반에서의 미끄럼 방지용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4세기대에 접어들면 고구려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삼국 각지에서 철제못신이 사용되는데, 중국 출토 고구려 철제못신만 못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 황오동 16호 5곽 출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A형이다. 못신의 형태와 상관없이 못 길이가 전부 짧다는 점을 통해 첫째, 다양한 용도로 못신을 사용했던 고구려와 달리 한반도 남부에서는 '단일한 용도'로만 사용했을 가능성, 둘째, 집안지역과 달리 한반도 남부에서는 못의 길이가 '짧은 못신만 사용'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못신이 출토된 유적의 성격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진다. 신라권은 모두 분묘 유적 출토품[55]으로 통일기가 되어야 생활유적에서 Ⅱ형이 소량 확인된다. 하지만 백제 · 고구려권에서는 관방 · 생활유적에서 못신이 주로 출토되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북쪽에서 A~C형을 고르게 사용했던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A형만 사용했던 것을 보면, 실용기로서의 못신의 용도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고구려가 남하한 이래 북쪽과 다른 남쪽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56]

한편, Ⅰ형과 함께 백제와의 문화 접변을 통해 발생한 Ⅲ형도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함께 남쪽으로 전파되는데, 이후 6세기를 기점으로 한반도에서는 Ⅰ형 대신 Ⅲ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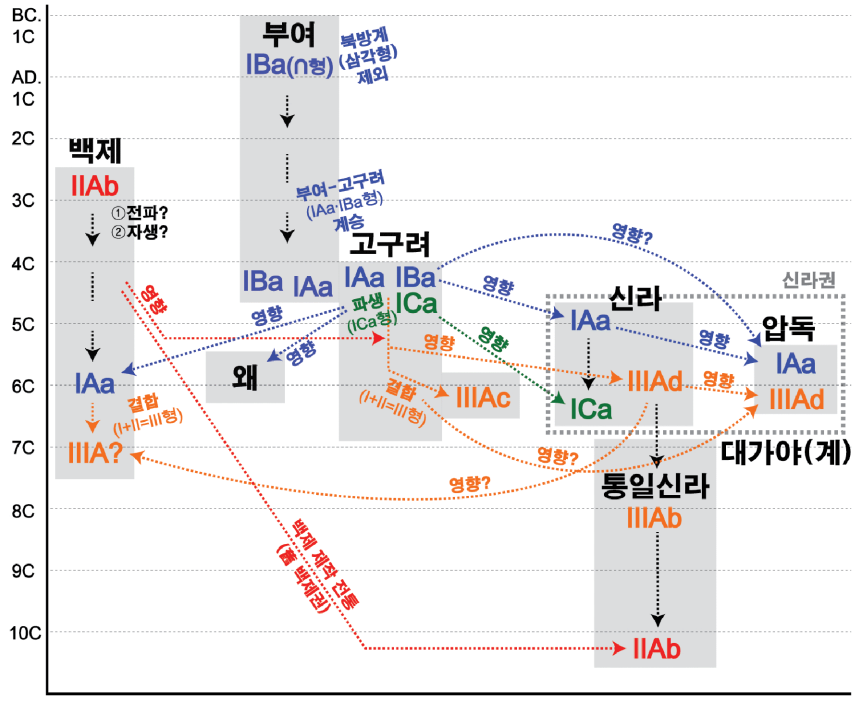
55) 못신에 난 못의 크기를 보면 처음에는 3개로 시작해 3개 · 5개가 공존하다가, 5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신라권에서 부장품으로 쓰인 못신을 보면 3개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제작 기법상 3개가 안정적인 Ⅱ형과 달리 Ⅰ · Ⅲ형은 못이 많을수록 접지력이 늘어났을 텐데도 3개를 유지했다는 점은 실용기보다는 부장품으로서의 용도로 못신이 인식되었음을 방증한다.

56) 유럽의 경우, 할슈타트문화 또는 라텐문화의 철제못신은 금속 생산과 연관된 산악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초기에는 주조기법(청동제)이, 후기에는 리벳접합과 철판 절곡기술(철제)이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복잡한 형식이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철제못신이 제작 · 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알프스형 문화 모델'을 만들어낼 정도로 풍부한 자원과 숙련된 제작기술 전통을 갖춘 지역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금속가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후대 제철기술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Vasilache, S. 2019). 이러한 도식은 동아시아 철제못신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이 일본 출토품이다. 4세기 말부터 河内평야에 유입되기 시작한 한반도계 문물에는 가야를 중심으로 백제 · 신라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5세기 전엽 이후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유물이 증가하고 뒤이어 중 · 소형 분묘에서도 한반도계 부장품이 확인되기 시작한다(井上主税 2021). 이는 백제 · 영산강유역 · 서부가야 등지에서 건너온 한반도계 이주민이 近畿지역에 정착해 재지사회와 융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中久保辰夫 2019).

즉, 高木 18호분에서 한반도계 문물이 나오면, 인근의 여타 유적을 참고했을 때 한반도 남부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출토 기물을 보면, 고구려 출토품과 계통적 유사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하여 전쟁과 별개로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당시 한반도에서 다양한 계통의 문화가 뒤섞여 왜로 건너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그림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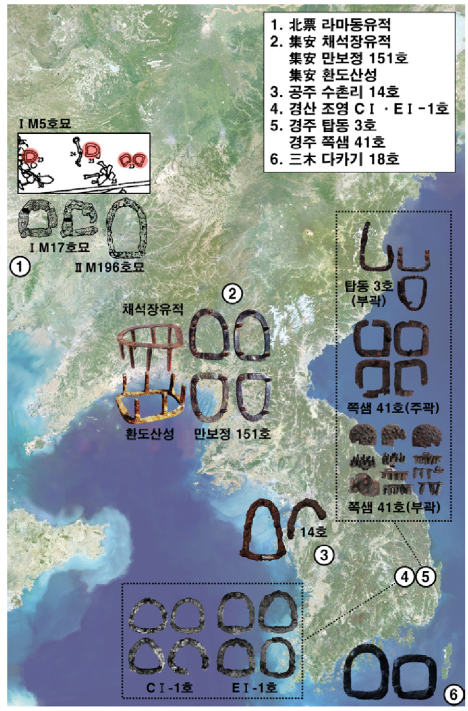


[그림 13] 삼국시대 철제못신 전파 추정 경로

57)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의 발에 차는 타격구가 한반도계(고구려계) 철제못신을 變容한 것이라면, 6세기 전반까지 그와 관련된 문화요소가 왜에 남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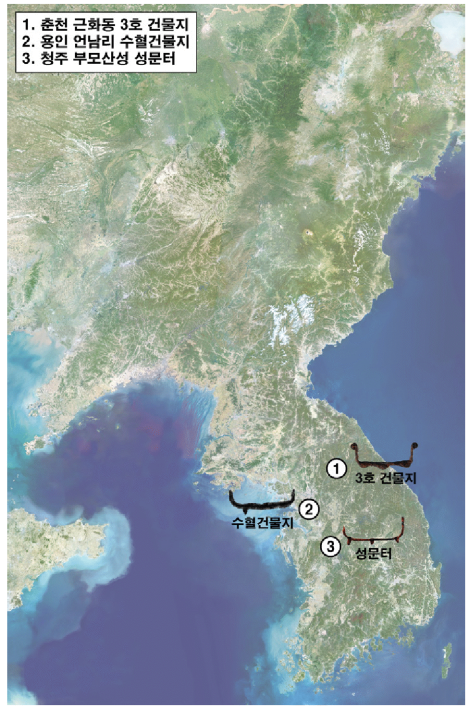
기원전후~3세기대 철제못신 사례



4세기 초반~5세기 후반 철제못신 사례



5세기 말~6세기대 철제못신 사례



6세기 후반 이후 철제못신 사례

[그림 14] 삼국시대 철제못신 분포 현황

정리하면, 고대 한국의 철제못신은 크게 **'부여-고구려 계통(Ⅰ형)'**과 **'백제 계통(Ⅱ형)'**으로 나뉜다. 4세기 중후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에서 두 형식이 竝存하게 되고, 5세기 중후반에는 Ⅰ형이 바다 건너 왜에까지 전파된다. 5세기 후반에는 양자(철대+못신)가 결합해 **'한반도 남부 계통(Ⅲ형)'**으로 변형되면서 두 형식의 제작 전통이 신라를 매개로 영남지역 각지에 전파됐다고 할 수 있다.[58] 단, 통일신라 이후에도 지역별로 철제못신 제작 전통은 남아 있었으나, 철제못신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차 소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한편, 철제못신의 機能이 '미끄럼 방지용'이라는 것에는 대개 이견이 없으나 用途에 대해서는 등산용, 우천용, 진창용, 채석용, 빙상용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 실제 중국 소재 부여 · 고구려 철제못신은 못 길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에 쓰였을 법하지만, 한반도에서 출토된 기물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며, 용도 역시 점차 제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철제못신의 역사적 의의

1) 철제못신의 용도와 기능: 문헌사료 검토

중국 문헌에는 삼 · 칡 · 풀 · 가죽 등으로 만든 홑창 신발인 '屨', 귀하게 취급되던 겹창 신발인 '舃', 비단 · 가죽 · 나무 · 포 등으로 만든 홑창 신발이자 漢代 이후 신발의 총칭으로 쓰이는 '履', 바닥은 나무, 윗부분은 나무나 삼 · 천 · 가죽 등으로 만든 '屐' 등 다양한 신발 명칭이 등장한다(王瑞 · 韩容洙 2021).

그중 본고에서 다룰 것은 '나막신[屐]'이다. 『康熙字典』에는 이를 '받침 또는 굽이 달린 신발'로 정의하고 있는데,[59] 본고에서 다루는 못신의 개념과 가장 부합한다.[60]

---

58) 고구려에서 신라로의 철제못신 문화 전파와 달리, 압독 · 대가야권 등으로의 문화 전파가 고구려에 의한 것인지, 신라에 의한 것인지는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계 아래 이루어진 문화 전파에 있어 양국의 비중을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59) 『康熙字典』, "【廣韻】【集韻】奇逆切, 【韻會】【正韻】蹻戟切, 音劇. 【說文】屩也. 从履省, 支聲. 【增韻】木屐也. 【晉書 · 宣帝紀】懿使軍士三千人, 著軟材平底木屐前行, 然後馬步俱進. 或作蹏. 【莊子 · 天地篇】蹏屩爲服."

60) 『漢書』 卷29, 溝洫志9, "夏書: 禹堙洪水十三年, 過家不入門. 陸行載車, 水行乘舟, 泥行乘毳, 山行則**梮**, 【如淳曰: 「梮謂以鐵如錐頭, 長半寸, 施之履下, 以上山, 不蹉跌也.」 韋昭曰: 「梮, 木器, 如今輿床, 人舉以行也.」 師古曰: 「如說是也. 梮音居足反.」】以別九州." 夏禹가 13년간 治水에 힘쓰면서 돌아다닐 때 산길에서는 '梮'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如淳은 '길이 반촌 정도의 철을 송곳 끝처럼 만들어 신발 밑에 부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韋昭는 이를 나무로 만든 가마로 해석했지만, 顔師古는 여순의 견해를 따랐다. 이는 징신과 비슷한 형태로서 일찍부터 신발 바닥에 마찰을 주어 등산시 미끄럼을 방지하는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례

문헌을 살펴보면, 나막신은 크게 '일상용품', '상징물 및 비유 대상', '군사용품'의 3가지 개념으로 이해 가능하다.

먼저 본래의 기능인 신발로서의 의미이다. 이는 다시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박한 신발[61]이나 서민의 혼수품[62]과 같은 ①'일상용품', 관리들이 官府에서 갈아 신는 실내용 신발[63]이나 부장용 신발,[64] 왕족[65] 또는 권세가의 상징물[高屐][66] 같은 ②'위세품', 진창을 밟거나 비가 내릴 때,[67] 산에 오를 때 신는 ③'특수용도'[68]의 신발이 그러하다.

그중 謝靈運(385~433)의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가 산을 오르내릴 때 늘 목제나막신[木屐]을 신었는데, 올라갈 때에는 앞쪽 받침[前齒]을 떼어내고, 내려올 때에는 뒤쪽 받침[後齒]을 떼어냈다[69]고 한다. 나막신이 필요에 따라 기존 신발에 부착하는 형태의 탈착식 부속구임을 알 수 있다.[70] 한편, 唐 朱放(8세기 후반)의 시를 보면, 눈 속에서 신는 등산용 나막신[登山屐][71]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連齒木屐'이라 하여 굽이 여러 개인 나막신의 존재[72]도 눈에 띈다.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진 나막신이 있었

라고 할 수 있다.

61) 『急就篇』 卷2, "**屐**屨手寫字麤麤窶貧."

62) 『後漢書』 卷83, 逸民列傳73, "戴良 … 初, 良伍女並賢, 每有求婚, 輒便許嫁, 疏裳布被, 竹笥**木屐**以遣之. 伍女能遵其訓, 皆有隱者之風焉."

63) 『宋書』 卷15, 志5, 禮2, "史臣按: 「今朝士詣三公, 尚書丞 · 郎詣令 · 僕射 · 尚書, **並門外下車, 履, 度門閾乃納屐.**"

64) 『南齊書』 卷21, 列傳2, 文惠太子, "時襄陽有盜發古塚者, 相傳雲是楚王塚, 大獲寶物**玉屐** · 玉屏風 · 竹簡書 · 青絲編."

65) 『南史』 卷44, 列傳34, "南海王子罕 … **秀後輒取子罕屐** · 繖 · 飮器等供其兒昏."

66) 『南史』 卷78, 列傳68, 夷貊上, "天竺 … 元嘉中, 遂參權要, 朝廷大事皆與議焉. … 琳著**高屐**, 披貂裘, 置通呈書佐, 權侔宰輔." 『顔氏家訓 · 勉學』, "梁朝全盛之時 , 貴遊子弟 … **跟高齒屐**, 坐棋子方褥 , 憑斑絲隱囊 , 列器玩於左右 , 從容出入 望若神仙."

67) 『釋名』 釋衣服, "**屐**, 搳也. 為兩足搳以**踐泥也**." 『新唐書』 卷154, 列傳88, 孔穆崔柳楊馬 "郾 … 室處庳漏, 無步廡, 至霖淖, **則客蓋而屐以就外位**."

68) 『農書』 卷13, "**耘盪**, 江浙之間新制也, **形如木屐**, 而實長尺餘, 闊約三寸, 底列短釘二十餘枚. 簨其上, 以貫竹柄, 柄長伍尺餘." 元代에는 '운탕'이라는 농기구가 개발되는데, 나막신과 비슷하다고 묘사했지만, 위에 자루를 끼워 쓰는 도구로 신발 부속구로 볼 수 없다.

69) 『南史』 卷19, 列傳9, "謝靈運 … 尋山陟嶺, 必造幽峻, 巖嶂數十重, 莫不備盡. **登躡常著木屐, 上山則去其前齒, 下山去其後齒**."

70) 사령운이 신었던 '등산극'은 이후 '謝(公)屐', '山屐' 등으로 불렸다. 唐 李白의 시 「夢游天姥吟留別」(謝屐), 劉長卿의 시 「送嚴維赴河南」와 朱景玄의 시 「華山南望春」(山屐)에 용례가 나오는데, 기능성 신발보다는 隱逸 · 山水遊覽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 주목된다.

71) 「經故賀賓客鏡湖道士觀」, "**雪裏登山屐**, 林間漉酒巾."

72) 『南史』 卷1, 宋本紀上1, "宋高祖武皇帝, … 性尤簡易, **嘗著連齒木屐**, 好出神武門內左右逍遙, 從者不過十餘人."

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둘째, 특정 상징물 또는 비유의 대상이다. 延熹 연간(158~167) 당고의 금[黨事]과 관련된 혼란과 구속의 징조,[73] 太康 초기(280~289) 남녀 나막신에 구별이 없어진 점을 국가 질서 붕괴로 해석한 사례,[74] 과거에는 나막신의 굽[齒]을 답면[楅] 위에 드러나도록 만들다가[露卯] 太元 연간(376~396)에 이를 감추기 시작했는데[陰卯], 이를 사회적 혼란과 연결 지은 사례,[75] 나막신을 신고 다른 이를 방문하는 행위[屐而候之]가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된 사례,[76] 元康 5년(395), 화재로 사라진 聖人의 유물(공자의 나막신),[77] 일상의 사소한 일[履屐間]이라는 의미,[78] 神仙 · 道術과 관련된 神異한 존재,[79] 꿈에 나온 '뽕나무 나막신[桑屐]'을 제위 등극의 예언적 상징으로 해석한 일,[80] 밟혀도 말이 없는 존재, 비굴하게 권세에 빌붙는 태도를 풍자,[81]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젊은이라는 뜻의 비하,[82] 개성 및 허세의 상징[83]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지막은 특수한 기능을 지닌 군사용품으로서의 의미이다. 234년, 사마의가 부드러운 재질의 편평한 바닥을 가진 '목제나막신[平底 · 太平木屐]'을 신고 進軍路 상의 남가새[蒺藜]를 제거한 뒤 병력을 이동시킨 사례,[84] 328년, 후조의 석륵이 유요를 공

---

73) 『後漢書』 志13, 五行1, "延熹中, 京都長者皆著木屐. … 此服妖也. 到九年, 黨事始發, 傳黃門北寺, … 九族拘繫, 及所過歷, 長少婦女皆被桎梏, 應木屐之象也."

74) 『晉書』 卷27, 志17, 伍行, "初作屐者, 婦人頭圓, 男子頭方. … 至太康初, 婦人屐乃頭方, 與男無別. 此賈后專妒之徵也."

75) 『晉書』 卷27, 志17, 伍行, "舊為屐者, 齒皆達楅上, 名曰露卯. 太元中忽不徹, 名曰陰卯. 識者以為卯, 謀也, 必有陰謀之事." 『宋書』 卷30, 志20, 伍行1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6) 『晉書』 卷67, 列傳37, 愔子超, "王獻之兄弟, 自超未亡, 見愔, 常躡履問訊, 甚修舅甥之禮. 及超死, 見愔慢怠, 屐而候之, 命席便遷延辭避."

77) 『晉書』 卷27, 志17, 伍行, "惠帝元康5年閏月庚寅, 武庫火. … 是以累代異寶, 王莽頭, 孔子屐." 『晉書』 卷36, 列傳6, 張華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8) 『晉書』 卷79, 列傳49, "超曰: 「吳嘗與玄共在桓公府, 見其使才, 雖履屐間亦得其任, 所以知之」"

79) 『太平御覽』에는 동진대 저서인 『神仙傳』 및 유송대 저서인 『異苑』, 당대 저서인 『集異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나막신이 神異를 상징하는 기물로 등장하고 있다.

80) 『南齊書』 卷18, 志10, 祥瑞, "夢著桑屐行度太極殿階. … 謂著屐為木行也. 屐有兩齒有聲, 是為明兩之齒至四十二而行即真矣." 『南史』 卷7, 梁本紀中7 武帝下에도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

81) 『梁書』 卷53, 列傳47, 良吏, "孫謙, … 爽嘗有求不稱意, 乃為屐謎以喻廉曰: 「刺鼻不知嚏, 蹋面不知瞋, 齧齒作步數, 持此得勝人」 譏其不計恥辱, 以此取名位也."

82) 『魏書』 卷65, 列傳53, "邢巒 … 巒表曰: 「… 蕭淵藻是裙屐少年 …」" 『北史』 卷43, 列傳31, 邢巒전에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다.

83) 『北史』 卷82, 列傳70, 儒林下, "… 道暉好著高翅帽·大屐."

84) 『晉書』 卷1, 帝紀1, 宣帝, "關中多蒺藜, 帝使軍士二千人著軟材平底木屐前行, 蒺藜悉著屐, 然後馬步俱進." 『太平御覽』 卷698, 服章部15, "屐 … 【晉宣帝雜教】云: 「當五作太平木屐遇踐 時有蒺藜屐行, 蒺藜悉著屐底.」"

격할 때 '철제나막신'에 못을 박아[鐵屐施釘] 성을 오르게 한 사례,[85] 454년, 경릉왕 劉誕의 군대가 '죽제나막신[篾屐]'을 신고 늪지 일대[菰葑]에서 전투를 벌인 사례[86] 등을 꼽을 수 있다.[87]

상기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추려낼 수 있다.

첫째, 나막신이 서민 또는 상위 계층의 신발이자 부장용 · 등산용 · 雪霜용 · 雨天용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박한 신발 또는 우천 시 진창에서 신는 신발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의미가 점차 넓어져 唐代에는 隱逸과 山水遊覽의 상징으로까지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漢代 이래로『진서』,『송서』,『남제서』,『양서』,『남사』 등 南朝계(한족) 사서에서 다수의 용례가 확인되고 있다. 기능상 北朝(이민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을 텐데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기록이 偏在한 탓도 있겠으나, 남북조가 서로 다른 신발 문화를 영유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동북지역 및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문헌상 나막신은 대부분 목제로 후조의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희소하지만 철제신발[鐵履/鐵鞋] 또는 鐵屐의 존재가 인지됐었고,[88] 탈착식 못신 또한 완전 새로운 기물은 아니었기에 석륵(갈족)이 鐵屐을 처음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철극을 군사적으로 활용한 가장 이른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며, 非漢族 관련 사례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나막신 관련 기록의 등장 시점이다. 대략 3~6세기 후반으로 추려지는데, 이는 중국과 국내에서 출토된 철제못신의 편년과도 맞물린다. 재질

---

85)『太平御覽』卷698, 服章部15, "屐 … 又曰:「石勒擊劉曜, 使人著鐵屐施釘登城.」"『태평어람』에는『晉書』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 저본으로 삼은 臧榮緖의『진서』혹은 당시 晉史를 다룬 십수 종의 사료에 전하던 기록으로 판단된다.

86)『宋書』卷79, 列傳39, 文伍王, "竟陵王誕, … 與彬之等相逢於曲阿之奔牛塘, 路甚狹, 左右皆悉入菰葑, 彬之軍人多齎篾屐, 於菰葑中夾射之, 欽等大敗."

87)『資治通鑑』卷232, 唐紀48, 唐德宗貞元三年七月條, "上入駱谷, 值霖雨, 道途險滑 … 相與齧臂爲盟, 著行縢 · 釘鞾,【三省曰:「釘鞾, 以皮爲之, 外施油蠟, 底著鐵釘.】更乾上馬以至梁州, 他人皆不得近." 호삼성은 釘鞾를 '쇠못을 박은 기름 먹은 가죽신'으로 注解하였는데, 탈착식 못신이 후대에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군용품으로 보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88)『太平御覽』卷47, 地部12, 會稽東越諸山, "宋元嘉中, 有人於船側掘, 得鐵屐一雙." 이는 남송대(1201~1204) 저서인『嘉泰會稽志』卷13,〈石船 · 石帆 · 鐵履 · 鐵屐〉조에도 수록되어 있다. 塗山에 禹가 탔다고 하는 돌배[石船]가 있는데, 그 옆을 파보니 鐵履 11量이 나왔으며, 송 元嘉(424~453) 중에는 그 옆을 파서 鐵屐 1雙을 얻었다고도 한다. 기이담 또는 도가류의 전승이기는 하지만 중원문화권에서 해당 기물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듯하다.

은 다르지만, 그 용도가 각 문화권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석륵의 사례처럼 고구려 역시 공성전에 철제못신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시기 동아시아에는 중장기병 문화가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었는데(신광철 2020), 고구려 중장기병의 도입 시점과 기원에 대해 전연(모용선비) 이 외에 후조를 주목하는 시각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余昊奎 1999: 64). 당시 전연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오히려 후조로부터 중장기병이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정동민 2017: 24~26), 고구려와 화북 각지의 문화 요소가 접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 하나만을 주목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만, 후조와 고구려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석륵의 사례가 전해졌고, 그와 관련된 기물이 고구려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즉, 일찍이 한대부터 목제나막신을 활용해 왔던 중원문화권과 달리 타 문화권에서는 철제못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원에서는 신발의 기능은 유지한 채 그 용도와 의미가 점차 확산했지만, 타 문화권에서는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것으로 생각한다. 고구려 · 백제와 달리, 신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마립간기 적석목곽묘 축조에 따른 부장 풍습 확립 및 고구려 · 중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록 재료는 달랐어도 등산용 · 우천용 · 빙상용 · 군사용 등 각 문화권에서의 쓰임새는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다만, 철제못신을 공성전에 활용한 후조의 사례는 特記할 만한 것으로서, 고구려에 있어 土城이 주축인 백제 공략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攻城무기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6세기 화북 諸 왕조와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장기병 및 마구류 등이 전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석륵의 사례는 非漢族 계통의 군사문화에서 철제못신이 공성전 등 특수 용도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고구려 철제못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라 또는 가야 諸國의 부장 양상을 살펴봤을 때, 철제못신이 武具類와 같이 출토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철제못신의 변형: 용도 변환과 금동못신의 전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철제못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Ⅰ형 철제못신을 부장품으로 사용한 부여 및 Ⅱ형 철제못신을 사용했던 백제(Ⅰ기), 부여의 전통을 계

승한 고구려의 남하로 전해진 고구려 철제못신 문화의 '1차 전파'(Ⅱ기), 고구려의 남하 이후 Ⅰ·Ⅱ형이 결합해 새롭게 발생한 Ⅲ형 및 그에 따른 '2차 전파'(Ⅲ기)로 나눠볼 수 있겠다.

Ⅰ·Ⅱ기의 분기점은 4세기 중후반 고구려의 본격적인 남하, Ⅱ·Ⅲ기의 분기점은 '475년 漢城 戰役' 등 한강 유역의 정치적 변동이 급격해지던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고구려의 남진과 연쇄적인 이주민의 발생, 한반도계 문물의 일본열도 정착·재지화 과정 속에서 고구려계 철제못신이 왜에 移入, 부장품으로 남겨지게 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4~6세기 한반도계 문물의 전파 과정 속에서 백제, 가야,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고구려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89]

더불어, 5세기대에는 고구려의 副葬 專用 금동못신이 남쪽에 전해지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금동못신 부장 풍습이 빠르게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주에 Ⅰ형 철제못신의 부장 풍습이 지속되는 와중에 Ⅲ형이 도입되었지만, 전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는 점, 4~6세기 마립간기 최상위층 적석목곽묘에는 철제못신 대신 금동못신이 부장된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식 금동못신 문화에 백제의 제작 전통을 받아들여 신라만의 독자적인 금동못신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박수동 2015).

신라 금동신발의 표준형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透彫 亅 亠 紋式'이며, 투조 문양이 생략된 '無紋樣式'(금령총)과 고구려 제작 전통의 영향을 받은 '底板式'(경산 조영 EⅡ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황남대총 북분에는 고구려産,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 식리총에서는 백제産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김재열 2024: 62~65). 금동못신이 신라 내에서 중요한 부장품이자 최고위층의 위신재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알려주는 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5세기 중반 이후 백제에서도 고구려 사상 체계 및 장식무늬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금동못신을 제작하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백제산 금동못신이 타 문화권으로 확산하기에 이른다(전정은 2023: 131~169).

---

89)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의 발에 표현된 돌출부가 철제못신을 거꾸로 발등에 부착해 타격구로 변용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일본 全国古墳データベース 사이트(https://zenkoku-kofun.nara-hgis.jp)에서 검색 가능한 인물형 하니와 출토지는 총 369개소이다('26.8.25. 검색). 그중 스모선수 형상 하니와는 40개 정도이며, 그나마 足部 확인이 가능한 개체는 채 10개도 되지 않는다. 향후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의 탈착식 못신이 사라지면서 신발에 직접 못신 또는 장식을 고정한 형식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백제에서는 바닥 전면 또는 바닥의 앞부분에 못신을 박았으며, 신라에서는 못신 대신 花紋 장식을 박거나 영락을 신발 전면에 다는 식으로 변화하다가 종래에는 장식이 퇴화하였다. 또한, 경주 중심부의 무덤에서는 외래산 부장품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금동신발의 경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 금동신발 자체가 갖는 의미가 신라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김재열 2024: 82).

마무리하면, 삼국 후반(6세기 후반)이 되면 철제못신은 실용기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해 금동못신과 함께 부장용으로 인식되었고, 7세기대가 되면 사회 변동, 묘제의 변화에 따른 묘장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금동못신과 함께 위세품으로서의 가치마저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관련 사료를 대조하여 철제못신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국 소재 27점, 한국 소재 43점, 일본 소재 2점 등 총 72점을 추출하였으며, 출토 맥락을 알 수 없는 소장품 사례까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철제못신은 미끄럼 방지 등 실용적 목적뿐 아니라 의례용기 · 부장품으로도 기능하였다. 다만 삼국~통일신라시대 각 권역에서의 수용 양상은 동일하지 않았다. 고구려 · 백제에서는 실용기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신라 및 기타 지역(압독 · 대가야권)에서는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철제못신의 변천과 확산을 단선적 전파로 환원하기보다, 각 정치체의 묘장제와 위신재 체계, 그리고 실용 도구의 의례화 과정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집안시 출토품을 보면 청동못신 중에도 실용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송산리고분 출토품(고적23227)[90]이나 96년 구입품(신수13710 · 신수13711)을 보면, 금동못신 역시 형태가 다양해서 의례용기라 하더라도 단일한 시각으로 살펴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91]

---

90) 정확한 출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무령왕릉을 제외한 송산리 고분군에서 금동식리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국립공주박물관 · 공주시 2012: 166).

91) 철제 탈착식 못신과 금동못신 사이에는 '못이 달린 신발(부속구)'이라는 관념적 · 형태적 공통성이 존재하지



[그림 15] 집안시 출토 청동못신(左)과 송산리고분군 출토품(右上), 96년 구입품(右下)

끝으로 본고는 제한된 자료 여건 속에서 철제못신의 유형 분류와 성격을 해석하였으나, 출토 정황 · 결착 방식[92] · 사용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확보된다면 보다 정밀한 논증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축적과 과학적 분석(마모 · 변형, 재질, 제작 공정)이 병행된다면, 철제못신의 용도와 기능, 사회문화적 의미를 한층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에서 확인된 철제못신 관련 자료, 통일신라 이후 철제못신의 역할을 대신한 기물과 문화, 철제못신의 전 세계적 상관관계[93] 등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게 되리라 생각한다.

투고일 2026. 4. 28 | **심사완료일** 2026. 9. 15 | **게재확정일** 2026. 10. 1

만, 현재 자료만으로 양자를 직접적인 기술 계보 관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에서 양자가 모두 부장품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못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금동못신은 철제못신과 재질 ·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작 의도나 성격, 의미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92)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Ⅰ형 철제못신을 고정시키는 가죽 끈(유기질)이 공반 출토된 적이 없다. 향후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는 바이다.

93) 동아시아와 내륙 유라시아 · 북유럽 철제못신의 분포도를 보면 전자는 대부분 냉대동계지대(Dwa · Dwb), 후자는 모두 냉대습윤지대(Dfb · Dfc · Dfd)에서 출토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기후 분포와 연결해 해석한 것이지만, 철제못신이 지형 및 기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기에는 충분하다. 단, 현재의 쾨펜-가이거 기후 분포는 고대~중세의 실제 기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대응은 시론적 가설에 머문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로마~바이킹시대 사이에 철제못신 실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못신의 사용이 자연지리적인 요소 이외에 사회 · 문화적 요인에도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아시아 사례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고기후 자료와의 정밀한 대조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그림 16).

[그림 16] 현대 쾨펜–가이거 기후 분포와 철제못신 분포도(참고적 비교)

참고문헌

- 문헌사료 -

『急就篇』, 『釋名』, 『康熙字典』, 『漢書』, 『後漢書』,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南史』, 『北史』, 『資治通鑑』, 『太平御覽』, 『嘉泰會稽志』, 『農書』

강경무, 2009, 「경주 황오동 고분군 출토 탈착식 철제 못신 소고」, 『경북대학교 박물관 年報』 7, 慶北大學校博物館.

_____, 2010, 「三國時代 脫着式 鐵製 못신 硏究」, 『韓國考古學報』 76, 韓國考古學會.

_____, 2024, 「7. 황오동 34 · 37호 출토 탈착식철제못신 소고」, 『慶州 皇吳洞 37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 경북대학교박물관 ·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경북대학교박물관, 2024a, 『慶州 皇吳洞 34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본문-』.

_____, 2024b, 『慶州 皇吳洞 34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사진-』.

_____, 2024c, 『慶州 皇吳洞 37號 新羅古墳 發掘調査報告書-사진-』.

慶北大學校博物館 · 啓明大學校博物館, 1979,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慶尙大學校博物館, 1990, 『陜川玉田古墳群II-M3號墳』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 유적 X Ⅳ-41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공주박물관, 2025, 『한성475: 두 왕의 승부수』 특별전시도록.

국립공주박물관 · 공주시, 2012, 『松山里 古墳群 基礎資料集 解說』.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마한 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 특별전시 도록.

국립대구박물관, 2024, 『한국의 신발, 발과 신』 특별전시 도록.

國立文化財硏究所, 2005, 『풍납토성 V-삼표산업 사옥 신축예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고구려의 철기』.

金性泰, 2004, 「환인 · 집안에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 병기 연구」, 『환인 · 집안지역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의 검토』 고구려연구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高句麗硏究會.

_____, 2005, 「최근 보고된 고구려무기의 검토」, 『高句麗硏究』 20, 高句麗硏究會.

_____, 2010, 「제1장 고대의 무기와 무예」,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한국문화사 14권, 국사편찬위원회.

김재열, 2024, 「4~6세기 신라 귀금속 장신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Ⅱ :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_____,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Ⅵ : 통구분지 3 성곽-기타 유적-유물』.

박수동, 2012,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5, 「경주 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 『蔚山史學』 19, 蔚山大學校 史學會.

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龍馬山 第2堡壘-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신광철, 2019, 「금이성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대외정책」, 『韓國史學報』 74, 高麗史學會.

_____, 2020, 「4~6세기 중장기병 문화의 유행과 신라 · 가야의 대응 전략」, 『한국 고대의 말갑옷』, 국립김해박물관.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古墳壁畵를 중심으로-」, 『韓國軍事史硏究』 2, 國防軍事硏究所.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a,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Ⅳ-造永C Ⅰ · Ⅱ 號墳-(本文)』.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b,『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Ⅳ-造永CⅠ · Ⅱ號墳-(圖版)』.
_____, 2000a,『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造永EⅠ號墳-(本文)』.
_____, 2000b,『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造永EⅠ號墳-(圖版)』.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財團法人東洋文庫, 2000,『朝鮮古蹟硏究會遺稿I』.
李炳魯, 2002,「高句麗와 倭의 文化交流-日本의 남아있는 遺蹟 · 遺物을 中心으로-」,『高句麗硏究』14, 高句麗硏究會.
이융조 · 우종윤, 1995,「단양 수양개유적 발굴조사 개보」,『한국 고고학의 반세기』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이재돈, 2007,「남한강유역 삼한시대 집터의 전개-단양 수양개유적을 중심으로-」,『중앙고고연구』3, 중앙문화재연구원.
전정은, 2023,「백제 금동신발 무늬의 변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동민, 2017,「고구려 騎乘用 馬具의 출토 양상과 계통」,『역사문화연구』6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정상석, 2012「『楡樹 老河深』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찰」,『고고학』11-1, 중부고고학회.
(재)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a,『春川 槿花洞遺蹟-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3권〉.
_____, 2011b,『春川 槿花洞遺蹟(A區域)-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8,『淸州 父母山城Ⅰ 1 · 2차발굴조사 종합보고서-북문지 · 수구부 일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公州 水村里 古墳群Ⅵ-공주 수촌리고분군 주변지역 시굴조사』.
최영주, 2020,「일본 긴키지역의 생산유적으로 본 백제계 도래인의 정착양상」,『歷史學硏究』77, 호남사학회.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原 主城里遺蹟』.
한국문화재재단, 2020,『81. 경주 탑동 6-1번지 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龍仁 彦南里一統一新羅 生活遺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編, 1987,『楡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04,『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 吉林省博物館 編著, 2010,『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耿鐵華, 1993,「高句麗兵機初論」,『遼海文物學刊』1993-2, 遼海文物學刊編輯部.
東潮, 1997,『高句麗考古學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山本孝文(杨萌 譯), 2016,「日本列岛封土石室墓的展开与连云港石室墓」,『东南文化』2016-4, 南京博物院.
三木市教育委員会, 2000,『高木古墳群 · 高木多重土塁 1』.
徐秉琨 · 孙守道, 1996,『東北文化: 白山黑水中的农牧文明』, 上海: 上海远東出版社.
王鹏勇, 2000,「高句丽之钉履」,『博物馆硏究』2000-1, 吉林省博物馆学会 · 吉林省文物局.
王瑞 · 韩容洙, 2021,「中国上古足类服饰名词词汇与文化硏究」,『철학 · 사상 · 문화』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編, 2002,『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遼宁省文物考古硏究所 · 朝阳市博物馆 · 北票市文物管理所, 2004,「遼宁北票喇嘛洞墓地1998年发掘报告」,『考古学报』2004-2.

張雪岩, 1992,「集安高句麗時期採石場」,『博物館研究』1992-1, 吉林省博物館學會 · 吉林省考古學會.
张玉春, 2009,「用显微镜和电镜观测高句丽时期丸都山城宫殿址部分铁器的腐蚀状况」,『文物保护与考古科学』21-2, 上海博物馆.
田立坤, 2003,「關于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田小弘 · 吴春艳, 2014,「高句丽民族服饰元素在现代服饰设计中的应用」,『艺术与设计: 学术版』2014-4, 经济日报社.
鄭春穎, 2013,「高句丽的钉鞋」,『东北史地』2013-5, 吉林省社會科学院.
_____, 2015,『高句丽服饰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朱泓 · 曾雯 · 张全超 · 陈山 · 周慧, 2012,「喇嘛洞三燕文化居民族属问题的生物考古学考察」,『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52-1.
陈建立, 2017,「中国中原制铁技术向周边地区的传播」,『동북아시아 제철기술의 흐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陳爽, 2010,「高句麗兵器研究」, 吉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万欣 · 白云燕 · 赵代盈 · 肖俊涛, 2020,「辽宁北票市喇嘛洞墓地ⅠM17铁甲堆积的室内清理」,『東アジア考古学論叢Ⅱ ー遼西地域の東晋十六国期都城文化の研究ー』, 奈良文化財研究所.
小林青樹, 2016,「古墳時代における力士埴輪足背部裝着のスパイク状打擊具」,『スポーツ史學會30周年記念大會發表抄錄集』, スポーツ史學會.
_____, 2017,『倭人の祭祀考古學』, 東京: 新泉社.
_____, 2019,「古墳時代のスパイク状鉄製品と相撲の起源」,『古墳と国家形成期の諸問題』, 山川出版社.
井上主税, 2021,「古墳時代中期前半の河内平野における朝鮮半島系遺物の流入に関する考察」,『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54,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
中久保辰夫, 2019,「百済 · 栄山江流域と倭の相互交流とその歴史的役割」,『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7, 国立歴史民俗博物館.
A.F.Souza · J.R.Kunz · R.Laus · M.A.Moreira · T.R.Muller · J.H.Fonteque, 2016, Biometrics of hoof balance in equids, *Arq. Bras. Med. Vet. Zootec*. 68-4,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ANNE-SOFIE GRÄSLUND, 2025, Crampons – Late Iron-age everyday items and/or artefacts with sacred meaning?, *AmS-Skrifter 29*, Museum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Stavanger.
ARWIDSSON, Greta (ed.), 1986, *Birka. Vol.II. 2.Systematische Analysen der Gräberfunde*, Stockholm.
Déchelette, Joseph. 1914. *Manuel d'archéologie préhistorique, celtique et gallo-romaine*, vol. II, troisième partie: *Second Âge du Fer ou Époque de La Tène*. Paris: Auguste Picard.
Булат Хамидуллин редкол., 2006, История татар. Том II. Волжская Булгария и Великая Степь, Казань: РухИЛ.
Hans Christian Küchelmann · Petar Zidarov, 2003, Eislaufen auf Schlittknochenin der Vergangenheit und heute, Proceedings of the 4th Meeting of the ICAZ Worked Bone Research Group, 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aeozoology.
Недашковский, Л.Ф.·Шигапов, М.Б. 2018. Металл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и керамика с Хмелевского I селища», *Нижневолж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17-1*,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втоном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олгогра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J. Monroe Thorington, 1934, A Note on Ancient Crampons, *American Alpine Journal 2-2*, American

Alpine Club.

Jamsranjav Bayarsaikhan, Tsagaan Turbat, Chinbold Bayandelger, Tumurbaatar Tuvshinjargal, Juan Wang, Igor Chechushkov, Manabu Uetsuki, Naoto Isahaya, Mark Hudson, Noriyuki Shiraishi, Yue Li, Chengrui Zhang, Gelegdorj Eregzen, Gino Caspari, Paula López-Calle, Joshua L. Convert, Gaëtan Tressières, Lorelei Chauvey, Julie Birgel, Nasan-Ochir Erdene-Ochir, Jan Bemmann, Gregory Hodgins, Kristine K. Richter, Ludovic Orlando, Christina Warinner and William Timothy Treal Taylor, 2024, The origins of saddles and riding technology in East Asia: discoveries from the Mongolian Altai, *Antiquity 98(3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ng Wanjin, 2021, A Chinese Scholar's View on the Costume of Goguryeo: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 한국학중앙연구원.

Lars Pilø · Espen Finstad · James H. Barrett, 2020, Crossing the ice: an Iron Age to medieval mountain pass at Lendbreen, Norway, *Antiquity 2020-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hr, A. 1935. *Zu den sogenannten prähistorischen Steigeisen. Suomen Muinaismuistoyhdistyksen Aikakauskirja – Finska Fornminnesföreningens Tidskrift 39(2)*. Helsinki: Suomen Muinaismuistoyhdistys.

Петров, М. И. 2006, Обувные шипы из новгородских раскопок, *Новгород и Новгородская земля.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Вып. 20: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 конференции*,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Plankājs, Eduards., 2022, Cēsu pilī atrastie leduspieši, *In Cēsu pils raksti IV: arheoloģija, arhitektūra, vēsture*, Cēsu Kultūras un Tūrisma centrs.

Sacken, E. von., 1868. *Das Grabfeld von Hallstatt in Oberösterreich und dessen Alterthümer*. Wien: W. Braumüller.

Vasilache, Ş. 2019. Standing Their Ground: European Iron Age Crampons. *Instrumentum: Bulletin du Groupe de travail européen sur l'artisanat et les productions manufacturées de l'Antiquité à l'époque moderne 49*.

VLASATÝ, Tomáš., 2017, Viking Age crampons, *Project Forlǫg: Reenactment and science*[online]. Available at: https://www.sagy.vikingove.cz. DOI: https://doi.org/10.59500/forlog. .ISSN 2788-3000.

http://doi.org/10.20292/jcich.2026.51.31

A New Study of Iron-Spiked Footwear of the Three Kingdoms-Unified Silla Period

Shin, Kwang-Cheol(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Kim, Ha-Na(ABD, Dong-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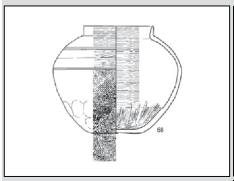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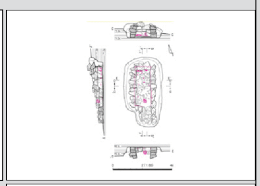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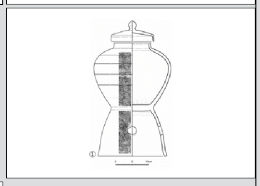
This study reassesses detachable iron-spiked footwear from East Asia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to the Unified Silla period, examining its function, use, and significance through archaeological remains, textual sources, and comparative evidence.

Because such objects are rare and often overlooked or misidentified, this study re-examines 72 specimens—27 from China, 43 from Korea, and 2 from Japan—and proposes a typology based on form, spike length, and attachment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iron-spiked footwear served both utilitarian and funerary purposes. Practical use is more evident in the Goguryeo and Baekje spheres, whereas finds from the Buyeo and Silla spheres occur mainly in funerary contexts. These differences help clarif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ron-spiked footwear in ancient East Asia.

Key words : Detachable Iron-Spiked Footwear Fittings, spikes, Three Kingdoms to Unified Silla period, Grave Goods, gilt-bronze spiked shoes

http://doi.org/10.20292/jcich.2026.51.75


백제 웅진 ·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 집단의 양상과 중앙과의 관계

Local Groups in the Yesan Region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of Baekje: Relations with the Central Authority

황보 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Ⅰ. 머리말

Ⅱ. 예산 서부지역의 백제유적 분포 양상

Ⅲ. 웅진기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

Ⅳ. 사비기 고분에 나타난 지역 집단과 중앙의 관계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백제 사비기 지방의 묘제는 중앙의 묘제에 해당하는 횡혈식석실묘로 대체되며, 규격화와 정형화 과정을 겪는다. 이때 중앙에서 확인되는 묘제 형식을 얼마나 충실히 수용했는가는 백제 중앙과 각 지역 집단 간 관계의 밀접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확인되는 여러 유형의 횡혈식석실의 존재 양상을 통해 해당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지역 집단은 웅진기부터 그 등장이 확인된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웅진기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이 축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당 횡혈식석실의 피장자 집단이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웅진 천도 이후 충청남도 일대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의 석축 고분 축조는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된다. 동시에 목리 · 신리유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에 해당하는 석곡리 2호분이 축조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장속이 확인되는 반면 석곡리유적은 고분군 조영에 있어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며, 고분의 형식에서 중앙의 묘제와의 큰 유사성이 보인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현지의 매장 전통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적 인물, 즉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석곡리유적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백제 중앙과 유사한, 규격화된 석실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앙에 의해 파견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예산 서부지역 내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갖는 집단이 동시기에 지배세력으로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지방지배에 있어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백제, 사비기, 예산, 지방지배, 횡혈식석실, 능산리식 석실

Ⅰ. 머리말

백제의 지방지배가 관철되어 가는 과정은 지방사회가 영위하던 장묘문화가 중앙의 묘제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웅진기에 왕릉을 위시한 지배층의 주 묘제로 자리 잡은 횡혈식석실묘는 공주와 금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지방으로 확산된다. 사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백제 지방 전역에서 보편적인 묘제가 된다. 이때, 백제 중앙의 횡혈식석실묘를 구성하는 요소의 수용 정도 차이는 백제 중앙세력과 각 지역 집단 간 관계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에서는 백제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백제의 지방지배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2018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에서 백제 중앙에 비견될 정도로 정교하게 축조된 능산리식 석실묘가 발견되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석실 내부에서는 금동이식, 토기와 같은 부장품과 더불어 목관재와 인골이 함께 발견되어 백제 사비기 묘장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서현주 2020; 김동균 2022; 강원표 2021; 이나은 2022). 이처럼 가공도가 매우 높은 석실의 경우 지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역에 이러한 석실이 축조된 역사적 맥락에 대해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서정석 2023; 강연준 2024).

예산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방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변 유적과의 관계를 살펴 지역 속에서 석실 피장자의 정치 · 사회적 위치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석곡리유적의 인근에는 마찬가지로 횡혈식석실묘로 구성된 예산 사리고분군이 존재하며, 남쪽으로 약 7km 거리에는 대규모 고분군인 예산 목리 · 신리유적이 자리한다. 해당 유적들은 같은 시기에 조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분 조영 양상과 墓葬制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각 유적의 고분 피장자가 속한 집단이 지역 내에서 갖는 사회적 위계,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에 차이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고분 조영 양상은 백제 사비기 지방 지배 방식의 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일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배력 강화와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백제가 두 차례의 천도를 겪는 동안 백제 각 지방의 역할과

중요도도 함께 변화했다. 충남 지역은 왕도와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그 위상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석곡리 고분군을 포함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고분군 분석을 통해 지역 집단의 동향을 밝히고, 각 집단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의 통치 방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을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위상과 연관지어 해석해보고자 한다.

Ⅱ. 예산 서부지역의 백제유적 분포 양상

예산군의 서부와 동부는 현 행정구역상 예산군에 속해 있지만 과거에는 서로 다른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과거 예산군 일대에는 해수가 깊숙이 만입하였으며, 강폭이 현재보다 넓어 예산군 서부와 동부 사이에 자연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는 예산군의 서부, 가야산의 동편으로, 과거 馬尸山郡, 今勿縣의 영역이다. 현 행정구역상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삽교읍에 해당한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는 백제 당시의 분묘군, 관방유적, 불교유적 등이 확인되는데, 유적의 종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웅진기를 기점으로 생활유적과 분묘군이 조영되기 시작하여 사비기까지 이어진다. 사비기가 되면 불교유적이 축조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일대의 시기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은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대규모 유적이다.[1] 백제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유적으로 저장수혈 103기, 석축고분 213기, 건물지 2동, 주거지 7기, 토광묘 1기, 옹관묘 8기 등이 조사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목리 · 신리 유적 내 3-2지점, 3-4지점, 3-5지점, 추가고분조사지역에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석축고분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백제 고분은 3-2지점에서 106기, 3-4지점에서 93기, 추가고분 조사지역에서 14기로 총 213

1) 홍성 석택리유적이 위치한 홍북읍과 예산 목리 · 신리유적이 위치한 삽교읍은 현 행정구역상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남북으로 접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서부지역 인근에서 확인되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유적으로 홍성 석택리유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택리유적은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환호, 주거지, 분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두 유적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양 유적에 존재했던 세력 간의 연관성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기가 확인되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훼손되지 않아 석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고분 123기 가운데 46기가 횡혈식석실묘이다.

사비기가 되면 목리 · 신리유적 내에 사비기 형식을 갖춘 고분들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유적 내 군집 가운데 3-4 E지점의 고분이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3-4 E지점의 고분들은 유적에서 규모가 큰 고분들에 속하며, 대형 판석으로 벽석을 축조한 고분이 주를 이룬다. 이 중 개석이 잔존하는 184호분은 사비기 석실의 구조적 특징인 단면 육각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같은 시기에 목리 · 신리유적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7km 지점에 위치한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에서도 사비기 형식의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된다. 석곡리유적은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옹관묘 1기, 백제 석실묘 6기, 백제 옹관묘 6기 등 총 2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곡리유적에서 확인된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은 서산, 아산 등 인근 지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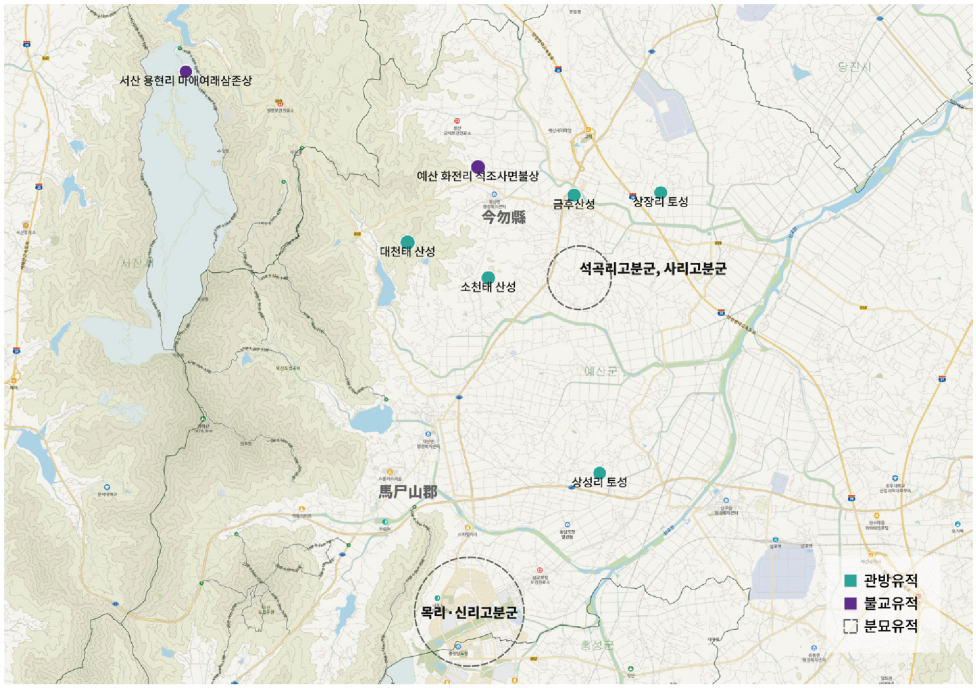
사리유적은 석곡리유적과 마찬가지로 고덕면에 위치한다. 유적은 3개의 지점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는데, 백제 석실묘가 1지점에서 1기, 2지점에서 2기, 3지점에서 1기 조사되었다(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이 중 1지점과 2지점은 약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3지점은 1 · 2지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데, 오히려 석곡리고분군과 지근거리에 있다.

각 유적의 위치 관계와 고분군 내 조영 양상은 발굴조사 범위를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은 대규모 고분군으로 고분이 확인된 조사범위가 석곡리유적, 사리유적에 비해 넓다. 3-2지점과 추가고분조사지역이 직선거리 약 8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3-2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3-4 J지점이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은 발굴조사 과정과 별개로 동일한 권역 내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의 고분 사이에는 시기적 유사성이 보이며, 조영 주체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산 서부지역의 불교유적으로는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석조사면석불이 있으며, 가야산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석불은 착의법에 대한 불교미술사적 분석 결과 조성 시기가 6세기 후반(정은우 2005: 231), 혹은 6세기 말~7세기 초로 추정되었다(소현숙 2019: 88~89). 한편 석불이 대중 교

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6세기 중반 축조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정재윤 2007: 50). 화전리 사면석불은 석곡리고분군 · 사리고분군의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 고분군과 불상의 조성시기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10개소 이상의 산성이 분포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축조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상성리 토성, 대천태 산성, 소천태 산성, 금후산성, 상장리 토성에서는 정밀 지표조사 과정에서 백제 유물이 확인되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 바 있다(최병화 2017: 42; 가경고고학연구소 2017: 211; 심정보 외 1984: 243~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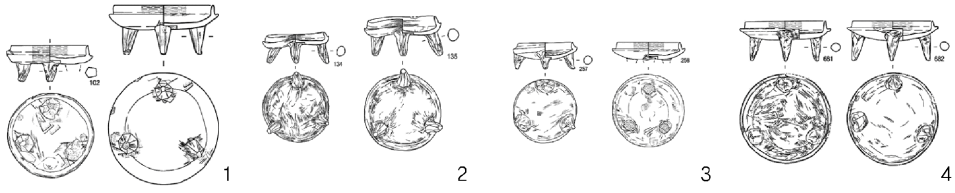
[그림 1] 예산 서부지역 유적분포도

Ⅲ. 웅진기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

예산 서부지역에서는 한성기에 대규모 지역 집단의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유적이나 분묘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산 · 홍성 등지에서

백제 한성기에 조성된 대규모 분묘유적 혹은 취락유적이 확인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2] 예산 서부 지역 세력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웅진기부터이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저장수혈군과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예산 서부 지역 일대에 한성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던 분묘군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횡혈식석실묘가 웅진기 백제 지배층의 지배적 묘제로 정착된 이후, 후기로 갈수록 점차 지방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지역에 석축 고분을 조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고분이 웅진기에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은 부장된 토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호분, 31호분, 62호분 출토 삼족기는 다리가 八자형으로 벌어져 있다. 특히 24호분, 62호분 출토 삼족기는 다리 끝이 외반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는 웅진기에 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土田純子 2014: 242~243). 또한 전체적으로 배신부가 비교적 깊고 평평하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어 웅진기 형식임을 알 수 있다. 24호분의 경우 족부가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지만 길이가 비교적 길어, 웅진기 중에서도 사비기에 가까운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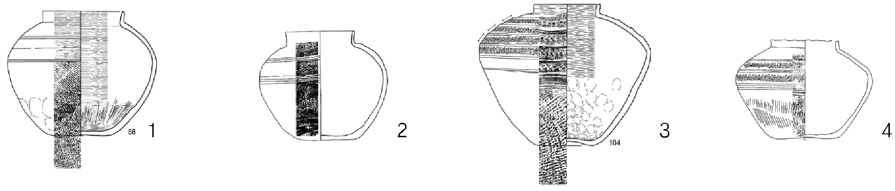
[그림 2] 목리 · 신리 고분 출토 삼족기 형태 비교
(1. 목리 · 신리 24호분, 2. 목리 · 신리 31호분, 3. 목리 · 신리 62호분, 4. 목리 · 신리 150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일부 석축 고분에서는 직구단경호가 출토되었다. 20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회청색 경질 소성의 토기이다. 견부와 동최대경의 가운데에 횡침선을 2조 돌려 구획하였으며, 동체 중하단부터 저부까지 타날문이 확인된다. 24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회청색 경질 소성의 토기이다. 동최대경은 동체의 중상부에 있으며, 구연 아래에서 동

2) 서산 부장리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 44기, 수혈유구 15기, 분구묘 13기,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분구묘에서 위세품으로 보이는 금동관모와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이를 통해 백제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을 사여받을 정도로 유력한 세력이 4~5세기 이 일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홍성 신금성유적은 5세기 전반 백제에 의해 초축된 성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혁희 2017). 또한 서산 언암리 낫머리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 62기, 분묘 56기가 발견되어 비교적 대규모 집단이 이 일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최대경 바로 아래까지 횡침선을 돌려 구획하여 4단에 걸쳐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중하단부에서 저부 바닥까지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직구단경호는 저부 형태가 원저, 말각평저, 평저 순으로 변화하는데, 평저는 사비기에 나타나는 형태이다(土田純子 2014: 217). 20호분과 24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모두 말각평저 형태를 띠고 있다. 20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음각으로 된 횡선대가 동최대경을 기준으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비기 이전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속성에 해당한다. 24호분 출토품은 2조의 횡침선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사비기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문양이다(土田純子 2014: 219). [그림 3]에서 웅진기로 편년되는 익산 웅포리 출토 직구단경호, 공주 산의리 출토 직구단경호와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목리 · 신리 고분 출토 직구단경호 형태 비교
(1. 목리 · 신리 20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2. 익산 웅포리 93-13호분(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3. 목리 · 신리 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4. 공주 산의리유적 40호분(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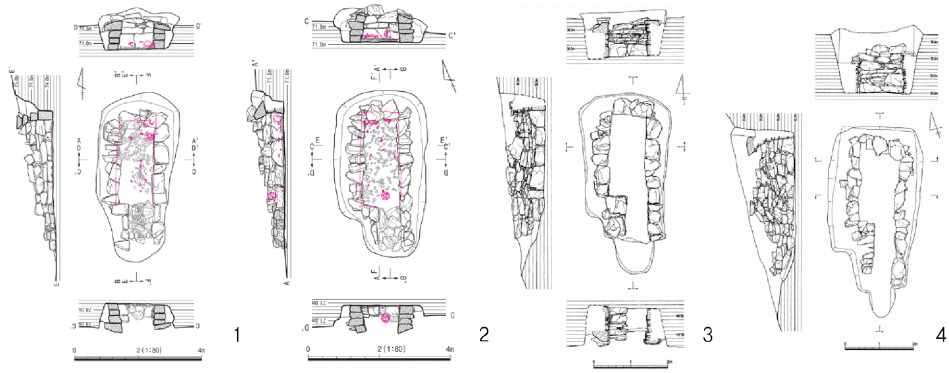
부장 토기 분석을 통해 웅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고분 가운데 20호분과 24호분은 석실의 형태 면에서 금학동식 석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할석조에 평면 장방형, 변형의 궁륭상 형식인 금학동식 석실은 귀족 무덤으로, 하남 감일동 석실묘와 같이 한성기 중앙에서 유행한 석실묘와 유사한 형식이다(김낙중 2021a: 375). 축조집단은 하남 감일동 · 판교동의 판교형석실 축조집단과 계통적으로 상호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박신영 · 성정용 2020: 88).[3)]

목리 · 신리유적 20호분, 24호분은 서천 추동리유적의 석실묘와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한다. [그림 4]에 제시된 서천 추동리의 횡혈식석실묘는 금학동식 석실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 단면은 아치형, 단축 단면은 사다리꼴인 변형의 궁륭상 형태이다(김낙중 2021a: 459). 조영 시기는 6세기 전반~중반으로 편년되었다.

3) 금학동식 석실은 왕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송산리식 석실과는 구별되는 형식이다. 웅진기 왕릉의 석실 평면은 방형과 장방형이 대다수이지만, 금학동 고분군의 석실은 세장방형이다(오동선 2024: 71~72).

A-16호분과 A-24호분을 포함한 변형궁륭식, 할석조, 우편재 연도 석실들은 석실의 장단비가 1.47~2.2로 상당히 세장한 편으로, 지방 석실로서 공주 · 부여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천 추동리 유적은 웅진기 후반부터 사비기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백제 중앙권력이 개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되었다(권오영 2007: 264~265). 서천 추동리가 위치한 금강 하구 일대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당시부터 중앙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결과로 해석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433~435).

목리 · 신리유적의 두 고분 모두 평면 장방형에 우편재 연도를 갖고 있으며, 현문은 문틀구조가 없는 개구식이다. 네 벽은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다. 양 측벽에 후벽을 기대어 쌓는 축조 기법이 확인된다. 이는 웅진기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되는 석실 형태이다. 이때, 할석으로 축조한 벽면 1단은 비교적 큰 판석 형태의 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비기가 되면 석실 벽석의 판석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비기에 가까운 웅진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예산 목리 · 신리, 서천 추동리 횡혈식석실 비교
(1. 목리 · 신리 20호분, 2. 목리 · 신리 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3. 서천 추동리 A-16호분, 4. 서천 추동리 A-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장단비는 20호분이 2.17, 24호분은 2.47로 세장한 편이라는 점, 24호분의 경우 고분에서 출토된 웅진기 삼족기의 형태가 한성기보다 사비기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웅진기 후반의 석실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리 · 신리유적 석실의 피장자는 웅진기 후반부터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을 조성한다.

웅진기 금학동식 석실 축조를 계기로 횡혈식석실묘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는 양상은 남원 초촌리고분군과 정읍 은선리고분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읍 은선리고분군의 경우 정읍 영원면 일원에 270기의 고분이 대체로 반경 2km 내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분은 웅진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후벽이 안쪽으로 조금씩 조여드는 아치식 천장구조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어 공주 금학동 · 웅진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와의 유사성을 상정할 수 있다(전주대학교박물관 2024: 44). 남원 초촌리고분군의 경우 약 200기 이상의 고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이 또한 웅진기 후반에 조영되기 시작하여 사비기까지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웅진기 후반, 백제의 지방지배 재편에 따라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역에 중앙의 석실 형식이 이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중앙의 무덤 형식 가운데에서도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 형식이 백제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금학동식 석실의 축조를 시작으로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지역 세력의 성장이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지역 지배와 지방 재편의 과정에 중앙 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4)]

예산 서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지역 세력의 성장은 웅진기 당시 백제의 정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에서 웅진으로의 천도로 인해 충청남도 일대는 백제 중앙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로 인해 백제 중앙에 있어 지역의 중요도는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웅진~사비기에 걸친 대중교역의 변화도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5)]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중요도가 상승하였고, 웅진기 이후 지역 집단이 백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사비기에 들어서면 정읍 은선리 고분군의 경우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남원 초촌리의 경우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김낙중 2018: 64). 이는 웅진기 후반 금학동식 석실 축조를 계기로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앙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판석조 단면육각형의 능산리식 석실이 일부 조영되기는 하나 그 수가 적으며 규격에서 벗어나 있어 중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웅진기 후반 이후 목리 · 신리 일대의 세력이 중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지 정체성을 유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예산 서부지역 일대는 공주와 부여로부터 아산만 혹은 태안반도로 통할 수 있는 교통로로 추측되었다(정재윤 2007; 박지현 2018).

Ⅳ. 사비기 고분에 나타난 지역 집단과 중앙의 관계

1. 대규모 고분군의 형성과 능산리식 석실의 조영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웅진기부터 석축 고분 축조가 시작되어 사비기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 약 200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된다. 동시기에 목리 · 신리유적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지점에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이 조성된다. 목리 · 신리유적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 석곡리유적 2호분, 사리유적 1지점 1호분은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어 사비기 횡혈식석실묘로서의 유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지만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피장자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 유적 내 사비기 석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사비기 석실의 특성을 갖춘 3-4 E지점 석실들 가운데 개석이 잔존하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184호분을 중심으로 비교할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석곡리 2호 석실분과 사리 1지점 1호 석실분, 목리 · 신리 184호분은 모두 단면 육각형 구조를 갖고 있다. 석곡리 2호 석실분은 문주석, 문인방석, 문지방석을 갖추고 있으며 판석을 문비석으로 이용하였다. 사리 1호 석실분은 입구부가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판형 석재를 세워 조성한 문주석 1매와 문지방석 1매가 남아있어 문틀식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리 · 신리의 182호분은 문주석, 184호분은 문주석과 문인방석이 확인되어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입구시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곡리 2호분과 사리 1호분, 목리 · 신리 184호분 모두 평사천장, 문틀식 입구시설을 갖춘 사비기 횡혈식석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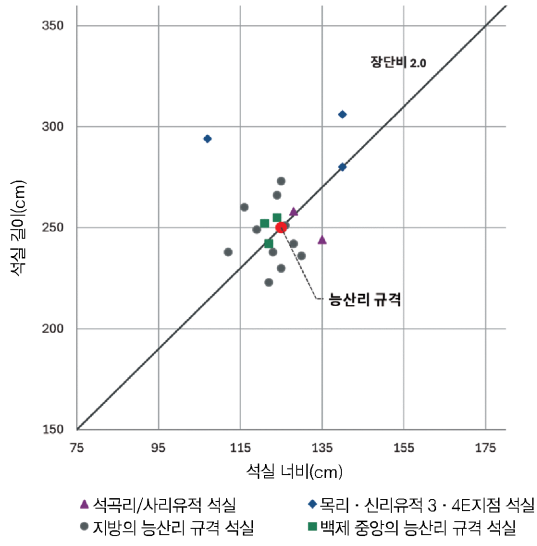
사비기 횡혈식석실묘 형식에서는 구조와 더불어 규모와 규격도 매우 중요한 분류 기준이다. 사비기가 되면 왕릉을 제외한 백제 중앙의 고분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석실이 규격화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중앙에 위치한 능산리고분군의 석실을 기본 형태로 하는 '능산리식 석실'이 성립되고, 더불어 백제지역 내 고분이 정형화, 서열화되기 시작된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吉井秀夫 2010: 202~204).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능산리 규격'이 제시되었다. 그 규모는 대체로 현실 길이 250cm, 너비 125cm 안팎이며, 장단비는 대략 2:1이다(山本孝文 2002).

[표 1] 주요 석실묘 구조 및 특징 일람표

	천장형태	입구시설 (현문)	평면형태 (연도 위치)	출토 유물	특징
석곡리 2호 석실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인방석, 문지방석, 문비석 (점토 밀봉)	1자형	금동이식, 관고리, 관정, 유개대부직구단경호	인골 1개체, 묘도, 배수로
사리 1호 석실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지방석	1자형 추정	관정	배수로
목리 · 신리 182호분	–	문주석	ㄱ자형 (우편재)	이식, 철겸, 미상철기, 관정	주구, 묘도
목리 · 신리 184호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인방석	甲자형 (중앙)	관정, 관고리	인골 6개체, 주구, 묘도
목리 · 신리 185호분	–	–	–	–	묘도

이러한 규격이 석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 또한 백제 영역 내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분포한다는 점을 미루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이 지적되었다(山本孝文 2002: 102). 그러나 지방에서 능산리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석실이 다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석실 가운데에서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림 5]와 같이 능산리 규격을 중심으로 유사한 규격이 중앙과 지방에서 고루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부터 사비기 석실에서 중앙의 석실구조와 규격을 위시한 '백제적 전형'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석곡리 2호분의 석실 크기는 258cm × 128cm, 장단비가 2.01이며, 사리 1지점 1호분은 244cm × 135cm로 장단비가 1.80이다. 석곡리 2호분은 매우 적은 오차로 능산리 규격에 부합하며, 사리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지만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3-4 E지점의 고분을 살펴보면, 182호분의 석실길이는 280cm, 184호분은 306cm, 185호분 294cm로 상당히 길다. 단, 182호분과



[그림 5] 유적별 석실 규격 분포 그래프

184호분의 경우 장단비가 약 2:1인데, 이는 능산리 규격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185호분의 장단비는 2.74로 상당히 세장한 것으로 보아, 같은 군집 내의 고분이라도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석실묘 축조 재료 및 규모 일람표

	벽석	바닥	묘광(cm) ('')는 잔존 너비)			석실(cm)			현실 장단비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높이	
석곡리 2호 석실분	판석	판석	456	336	230	258	128	142	2.01
사리 1호 석실분	판석	생토면 정지	'360'	'316'	216	244	135	120	1.80
목리 · 신리 182호분	판석	할석	520	280	125	280	140	120	2.00
목리 · 신리 184호분	판석	치석된 할석	420	272	188	306	140	150	2.18
목리 · 신리 185호분	판석	치석된 할석	354	278	86	294	107	62	2.74

석곡리 2호 석실분과 사리 1호 석실분, 목리 · 신리 고분군의 182호분, 184호분, 185호분은 모두 벽석으로 판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목리 · 신리유적의 대부분의 석축고분이 할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모습이다.[6] 그런데 판석조 석실들 간에도 석재의 가공정도에 차이가 상당함은 [그림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곡리 2호 석실분의 경우 다른 고분에 비해 사용 석재의 가공도가 매우 높다.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들어맞아 크기가 작은 판석이나 소형 할석으로 사이를 메우지 않았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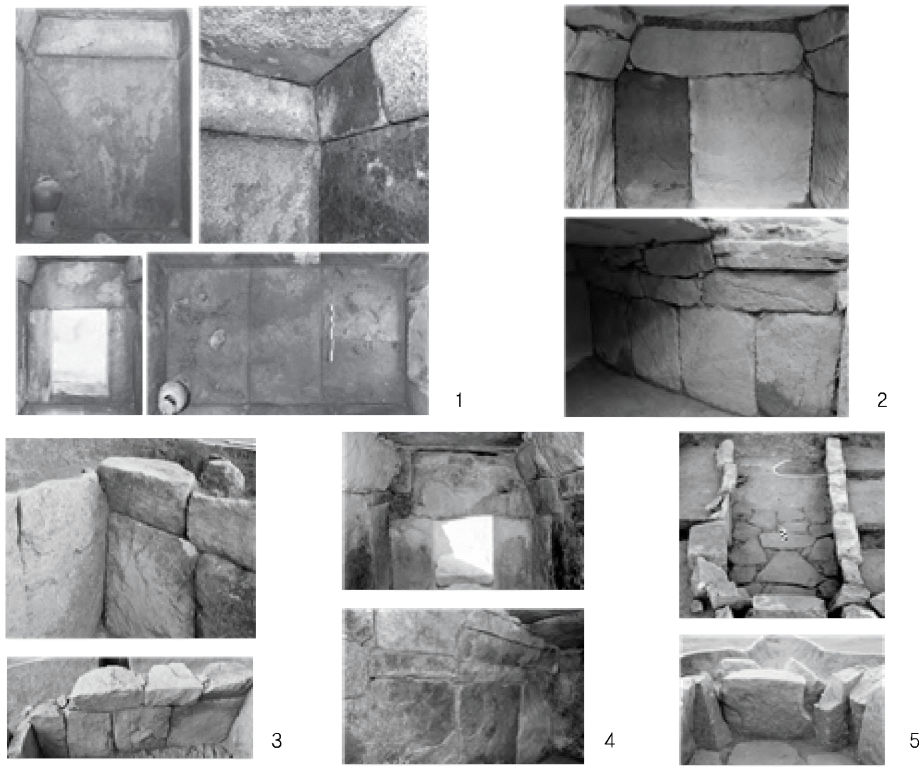
석재의 크기를 통해서도 가공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석곡리 2호분의 북단벽과 동 · 서벽은 1단의 벽석 위에 1단의 고임돌을 쌓아 만들었다. 북단벽은 높이 115cm, 너비 128cm의 판석을 세운 후 그 위로 고임돌을 얹어 세웠다. 동벽과 서벽의 경우도 하부 벽석의 높이가 115cm로 북 · 동 · 서단벽 모두 높이가 동일하다. 동벽은 너비 146cm와 106cm인 2매의 판석을, 서벽은 너비 91~118cm 가량의 3매의 판석을 연접시켜 세웠다.

184호분의 경우 북벽은 3매의 석재로 축조하였다. 서벽은 너비 20~90cm, 높이

6) 목리 · 신리유적의 백제고분 213기 가운데 157 · 159 · 182 · 184 · 185 · 188 · 추가9 · 추가10호분, 8기를 제외한 석축 고분은 모두 할석조 고분이다.

7) 이처럼 가공이 잘된 판석의 석재형태를 두고 석실 축조에 필요한 석재형태를 공유한 결과라고 추정한 견해가 있어 참조할 만하다(김동균 2022: 521).

90cm의 판석 5매로 1단을 축조하고 2단은 너비 80cm, 높이 30cm 내외의 판석 3매를 쌓았다. 동벽은 서벽과 유사하나, 총 3단으로 서벽의 윗단을 두 단으로 나누어 쌓은 형태이다. 석재의 크기가 대체로 석곡리 2호 석실분에 비해 작으며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여러 단으로 벽석을 축조한 모습이 보인다. 석곡리 2호분의 경우가 석재 가공에 더 많은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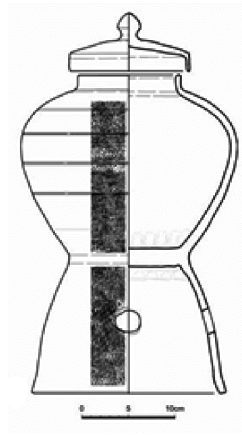
[그림 6] 석곡리, 사리, 목리 · 신리 횡혈식석실 현실 내부
(1. 석곡리 백제 2호 석실묘(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2. 사리 1지점 1호 석실분(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3. 목리 · 신리 182호분, 4. 목리 · 신리 184호분, 5. 목리 · 신리 185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석곡리유적, 사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의 주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주구의 유무이다.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의 횡혈식석실묘에서는 주구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3-4 E지점의 182 · 184호분에서는 주구가 발견된다. 주구는 충청도 일대의 지역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8] 최근 호서지역

8) 부여 능산리 능안골고분군이나 염창리고분군, 합정리 문냉이골 분묘군 등 도성 인근지역에서는 고분에서 주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서현주 2020: 159). 반면,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사비기 석실묘까지 주구를 시설한 흔

에서 고분 외곽에 주구를 시설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큰 규모의 석실묘 외곽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서현주 2020: 159).

석곡리 2호 석실묘의 부장품으로는 금동이식 1점과 유개대부직구단경호 1점이 석실 내 남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석곡리 2호분의 유개대부직구단경호는 회색의 경질토기로, 臺附에 원형 투공 4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외면에는 전면에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문양대를 분리하여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횡침선과 파상문이 시문된 동체부는 사비기 직구호와 유사하나, 투공이 있는 대각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림 7] 석곡리 2호분 출토 유개대부직구단경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토기와 함께 착장품도 출토되었다. 석곡리 2호분에서는 두부의 전면을 덮은 천과 전두골에 둘러진 끈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해당 끈은 베를 꼬아서 만든 '곡'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무령왕릉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이요한 2018: 202). 이마를 덮는 천에서는 매우 작은 금속편이 관찰되었는데, 분석 결과 금(Au)에 은(Ag)이 일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9] 직금으로 된 머리장식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피장자의 높은 위계를 짐작케 한다.

석곡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간에는 장법의 차이도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석곡리 2호분에서는 인골과 목관재가 출토되었다. 인골은 안쪽부터 두개골, 관골, 대퇴골의 순서로 총 3점이 확인되었다. 치아분석을 통해 비교적 양호한 유소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128). 관 부속구로는 석실묘 내부에서 관정 53점, 관고리 4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총 5편의 판형 목관재와 관의 모서리를 마감하는 마구리로 보이는 목재 1편이 중앙을 기준으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확인되었는데 수종분석 결과, 비자나무로 밝혀졌다.

한 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된 점과 목관재의 배치 양상으로 보아 석곡리 2호분은

적이 확인된다. 사비기 유적인 서천 추동리유적에서는 10기의 석실묘에 주구가 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9) 『舊唐書』에 따르면 관을 金花로 장식하는 것은 왕의 복식에 해당한다(『舊唐書』 東夷列傳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그러나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에서 금으로 된 머리장식이 출토된 바 있어 실제로 금제 장식을 사용한 것이 왕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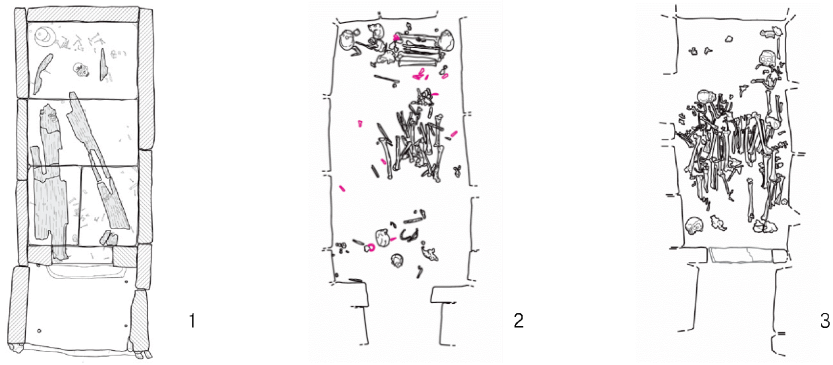
단인장으로 추정된다. 목관재가 중앙부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목관이 배치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목관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장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석실 내부가 침수 피해를 입어 인골이 원위치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장 당시의 모습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목관의 흔적과 석실의 규모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伸展 자세로 목관에 안치되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 부속구의 출토 위치와 목질흔을 검토하여 목관 형식을 복원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이나은 2022: 141~143). 석곡리 2호분에서는 부여 능산리고분군, 익산 쌍릉 대왕묘 목관과 같이 마구리장식이 확인되며, 관재 두께가 3.4cm 내외로 두꺼운 편이고, 결구못의 개수가 6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점을 들어 왕족의 목관으로 추정되는 B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석곡리 2호분 피장자가 당시 백제 사회에서 상당히 위계가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된다. 매장이 1회 이루어진 후 추가로 매장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구조인 수혈식 묘제와 달리, 횡혈식 묘제는 본질적으로는 추가장을 전제로 한 구조이다(권오영 2009: 1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산리고분군의 왕릉급 고분과 능안골고분군 등 도성 인근과 외곽 지역의 주요 고분에서는 단세대의 2인 합장이 이루어지다가, 사비기 후반이 되면 횡혈식석실의 규모 축소와 함께 단인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인다(서현주 2020: 172). 지방에서 7세기까지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되는 것은 중앙과는 구별되는 묘장제 전통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184호분에서는 최소 6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인골은 안쪽과 중앙에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다. 인골 가운데 긴 뼈가 중앙에서는 양 측벽과 나란히, 안쪽에서는 후벽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유적 내 또 다른 인골 출토 석실인 추가고분 조사지역 9호분에서도 확인된다. 추가-9호분에서는 최소 5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인골은 석실 중앙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긴 뼈들은 양 측벽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184호분은 50세 이상의 남성 2명, 35~40세의 여성 1명, 아동 3명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가-9호분은 50~60세의 남성 2명, 42~50세의 남성 1명, 14~16세의 남성 2명과 미상인 한 명이 확인되었다.

184호분에서는 관 부속구로 관고리 2점, 관정 19점, 추가-9호분에서는 관정 23점이 출토되었다. 부식으로 인해 결실된 관정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5~6개체



[그림 8] 인골 출토 고분 인골 배치 양상
(1. 석곡리 2호분(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2. 목리 · 신리 184호분, 3. 목리 · 신리 추가 9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분의 목관 부속구로는 수량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인골의 배치양상을 볼 때 일정한 구역에 밀집되어 있어 5~6인을 각각 목관에 안치하여 伸展葬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골 배치 양상을 볼 때 우선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184호분에서는 여러 개체의 두개골이 후벽 앞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추가로 매장할 때 기존의 인골을 한쪽으로 밀어 두고 새로운 인골을 안치했을 수 있다.[10] 이러한 경우, 목관을 사용한 첫 번째 차례를 제외하고는 시신 자체를 매장하기 보다는 洗骨, 즉 2차장을 하여 인골만을 안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골 과정을 거친 여러 개체 분의 인골을 목관 내지 목함에 함께 넣어 안치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인골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한 목함 내에 안치되었기 때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4호분과 추가-9호분의 긴 뼈들이 나란히 안치된 것도 세장한 목관 내에서 세로로 안치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러 개체 분의 인골이 담긴 목함의 경우 한 차례에 일괄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인골 출토 양상을 통해 목리 · 신리유적의 일부 고분에서는 다인장이 확인

10) 추가장에 의해 기존 인골이 재배치된 사례는 다른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완주 은하리유적 석실묘에서는 4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여러 부위의 뼈들이 뒤섞여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사체를 석실묘 내에 매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육탈이 이루어진 후 자리를 이동하여 재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준정 외 2006: 73~76).

되며, 여러 차례 매장의례를 행하는 추가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인골이 출토되지 않은 고분 가운데에서도 2차 굴광 흔적 혹은 경사방향과 역행하는 토층을 통해 추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고분이 있다. 3 · 47 · 63 · 185 · 188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표 3] 목리 · 신리 추가장 · 다인장 추정 고분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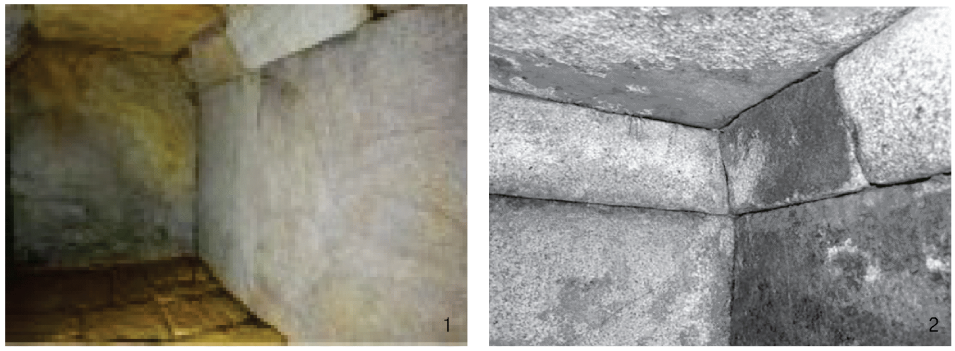
지점	유구 번호	형식	석실(곽)(cm)			벽석 석재	추가장/다인장 여부	출토 유물	특징
			길이	너비	높이				
3-2	3	횡혈식	243	130	106	할석	추가장	–	–
3-2	47	횡구식	184	70	42	할석	추가장	개, 배	–
3-2	63	횡혈식	240	142	78	할석	추가장	–	–
3-4 E	184	횡혈식	306	140	150	판석	추가장, 다인장 (6인)	관고리, 관정	인골 출토
3-4 E	185	횡혈식	294	107	62	판석	추가장	–	–
3-4 K	188	횡혈식	227	90	122	판석	추가장	관정	–
추가	5	횡혈식	252	128	126	할석	다인장	–	인골 출토
추가	9	횡혈식	232	152	158	판석	다인장 (5인), 추가장	관정	인골 출토

2. 중앙 지배력의 강화와 지역적 특색의 유지

석곡리유적, 사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곡리 2호분과 사리 1호분의 경우 중앙에서 널리 쓰이는 능산리 규격에 부합하는 석실인데 반해, 목리 · 신리는 이보다 크기가 커 규격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다인장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84호분은 능산리 중앙 3호분의 크기인 288cm를 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왕릉급에 해당한다. 이는 목리 · 신리유적의 석실묘 축조에 있어 백제 중앙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모두 판석을 사용해 축조하였지만, 석곡리 2호분만이 매우 정밀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정연하게 가공한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축조했다는 점에서 석곡리 2호분은 목리 · 신리의 고분에 비해 축조에 더 많은 공력이 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장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짐작케 한다. 웅진기 무덤이 구조의

차이에 기반하여 왕실과 유력세력의 무덤을 구분하였다면, 사비기에는 무덤 구조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치석된 석재의 사용이 계층구분에 영향을 미쳤다(이현숙 2019: 151). [그림 9]에서와 같이 석곡리 2호분의 이러한 특징은 백제 중앙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에 비견된다.



[그림 9] 횡혈식석실 현실 내부 비교
(1. 능산리 서고분군 백제 4호분(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2. 석곡리 2호 석실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석곡리와 목리 · 신리 횡혈식석실묘에서 확인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장법이다. 석곡리 2호분의 경우 단인장 혹은 2인 합장을 염두에 두고 축조된 고분으로, 인골 출토 양상으로 보면 실제로 단인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인장에서 합장 그리고 단인장으로 변화하는 사비기 묘장제의 경향성과도 합치한다. 반면 목리 · 신리유적 184호분에서는 6개체 분의 인골이 발견되어 3인 이상의 다인장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장의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유적 내 다른 고분들에서도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되어 이러한 장법은 목리 · 신리유적 축조 집단 내에서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인 이상의 개체가 합장되는 현상은 도성 인근지역에 비해 외곽지역과 지방에서 빈번하게 보인다(서현주 2020: 165). 따라서 목리 · 신리유적의 석실묘에서 확인되는 장법 또한 중앙과는 구별되는 지방 특유 장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11)]

이러한 차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유적의 피장자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던 것으

11) 추가장과 다인장의 사례는 충남 당진지역의 채운동, 우두동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당진 일대에서는 사망한 피장자를 곧바로 매장주체부에 안치하기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육탈된 인골을 옮겨 와 집골하거나 재배치하는 2차장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최정범 2024: 106~111).

로 보인다. 두 유적의 석실에서 보이는 차이는 중앙과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12] 석곡리유적의 경우 규격화된 석실과, 치석된 석재 등을 통해 중앙과의 깊은 관련성이 상정된다. 특히 석실의 정교함으로 보아 중앙으로부터 온 고분 조영 전문 기술자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13] 또한 목관의 형태와 착장 유물을 통해 피장자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리유적 횡혈식석실묘의 피장자는 석곡리유적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석곡리유적을 조영한 집단과 같은 집단, 혹은 깊은 관련이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석실 단면 형태가 육각형일 뿐만 아니라, 평면형태도 석곡리 2호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석실 축조 석재가 석곡리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석곡리 2호분과 동일하게 중앙과의 친연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사리유적의 석실묘에 나타나는 구조와 형식은 중앙과의 관련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석곡리 2호분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사리유적 피장자는 석곡리유적의 피장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집단에 속한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웅진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금학동식 석실과 같은 권역 내에 대규모 고분군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웅진기 후반부터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 온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3-4 E지점의 184호분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평사천장, 문틀식 석실 구조와 토기 부장이 소멸하는 점 등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특징을 대체로 수용하였지만, 다인장을 하는 장제는 유지되었다. 또한 석실 규모가 상당히 크며, 주구를 시설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되는 시점에 목리 · 신리고분군의 피장자는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횡혈식석실묘 양식을 수용하여 축조할 역량이 있는 지역 집단에 소속된 인물로 보인다.

그간 사비기 횡혈식석실묘는 지배계층의 무덤이자,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해되어 왔다. 또한 횡혈식석실묘의 확산, 축조 현상은 백제 중

12)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백제 사회 내부에서의 관등이나 지방통치체제 상의 위계 차이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형성과 석재 가공도로 보아 보다 높은 위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곡리 고분군의 경우 과거 今勿縣으로 편제된 영역에 위치하고, 목리 · 신리 고분군의 경우 馬尸山郡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즉 군현간의 위계와 석실에서 보이는 위계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13) 정교하고 정형화된 석실의 축조 시 중앙에서 기술자들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山本孝文 2007: 3~4).

앙의 지배력 확대와 연결지어 해석되었다(이남석 1995: 466~467; 吉井秀夫 1997: 187; 山本孝文 2006: 98; 김낙중 2024: 15). 예산 서부지역의 각 고분군 축조 집단 또한 해당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지배집단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비기의 지역 지배집단으로는 우선 지방관, 즉 백제 중앙에 의해 임명된 官人이 있다. 사비기에는 方-郡-城制의 시행으로 전국이 5방 37군 200성으로 편제된다.[14] 方에는 方領 1인, 郡에는 郡將 3인이 있었으며, 여러 城이 方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때 방령은 達率, 군장 3인은 德率이 임명되었다고 한다.[15] 또한 방령을 方佐가 보좌하며, 方마다 6 · 7~10개의 군이 배속되어 있었으며, 郡縣에는 道使(城主)가 파견되었다.[16] 이처럼 각 행정단위에 지방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횡혈식석실의 피장자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관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중앙과 지방의 석실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이다. 『隋書』에 따르면 奈率 이상의 관료는 은화로 장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7] 따라서 은화관식의 출토는 피장자의 관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은화관식은 지방에서는 능산리식 석실에서 출토되는 빈도가 높아 능산리식 석실 피장자의 정치적 위계를 짐작하게 한다(권오영 2007: 281). 지방에서 출토되는 경우 백제 중앙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논산 육곡리 7호분은 능산리식 석실로 내부에서 은화관식이 출토되었다(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남원 초촌리고분군에서도 은화관식의 출토가 확인되었다(이문형 2025). 이러한 경우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歸葬되었을 가능성, 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해당 지역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능산리식 석실이 아닌 지역색이 강한 고분에서 출토된

14) 『北史』 列傳 百濟,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 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 ;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20年, "國本有五部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

15) 『周書』 異域傳上 百濟,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 統兵五百人.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16) 『隋書』 東夷列傳 百濟,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 ; 『翰苑』 蕃夷部 百濟,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 每方管郡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 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名城主."

17) 『隋書』 東夷列傳 百濟, "官有十六品長曰左平. 次大率, 次恩率, 次德率, 次杆率, 次奈率, 次將德, 服紫帶, 次施德, 皂帶, 次固德, 赤帶, 次李德, 靑帶, 次對德以下, 皆黃帶, 次文督, 次武督, 次佐軍, 次振武, 次剋虜, 皆用白帶. 其冠制並同. 唯奈率以上飾以銀花. 長史三年一交代. 畿內爲五部, 部有五巷, 士人居焉.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

사례도 존재한다. 나주 복암리 3호분 5 · 16호 석실에서 은화관식이 그 사례이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1). 그러나 나주 복암리 3호분은 묘역 조성의 지속성이 확인되며, 석실이 백제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구조와 묘장제에서 지역색을 여전히 유지하였다(김낙중 2009a: 158). 따라서 나주 복암리 지역의 경우 토착세력이 관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김낙중 2009b: 102~103; 오동선 2019: 231).

이에 따라 지방의 횡혈식석실묘 피장자가 관인일 경우,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歸葬되었을 수 있다.[18] 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任地에서 매장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 의해 지방관으로 임명된 후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19]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에 있어 지역에 따른 세부적 차이를 인정하며, 토착적 전통이 강한 지역 수장 세력을 통치체제 내에 편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견해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최영은 2026: 71).

또 다른 지역 지배 집단으로는 현지 기반을 가진 지역 토착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역에 존속하면서 토착적 기반을 형성한 세력으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이다. 파견된 지방관이 현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집단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군현제가 시행되어도 지방의 독자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김영심 2018: 100). 따라서 국가 권력이 일반 民에게 관철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현지의 유력자와 협력관계를 맺어 지방지배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홍승우 2009: 229; 김영심 2015: 31).

목리 · 신리유적과 석곡리유적의 횡혈식석실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위의 유형과 같은 집단과 연결될 것이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지의 매장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역색을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은 백

18) 고대사회에서 歸葬이 보편적이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김영심 1990: 95). 마찬가지로 귀장되었을 가능성과 어떠한 이유로 귀장이 불가능한 경우 任地埋葬되었을 가능성을 둘 다 제시한 연구가 있다(山本孝文 2007: 6). 또한 지방에서 출토된 금동관 부장 피장자를 해당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다가 사후 자신의 인적 기반이 있는 곳에 귀장된 귀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2018: 204).

19) 이러한 지역 토착세력의 官人化 가능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권오영 2007: 286; 이한상 2009: 212~227; 강종원 2012: 369~373; 최미경 2020; 허윤영 2025: 137).

제 사비기까지 여전히 지방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덤의 규모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山本孝文 2006: 99), 중앙의 것보다 큰 고분이 여러 기 존재하는 점에서도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들이 백제의 통치체제에 관료로서 직접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었다는 근거가 된다.

석곡리유적은 소규모 고분군으로 고분군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토착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석곡리유적의 석실묘의 경우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으며, 석재 가공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고분 조영에 백제 중앙의 관여가 있었을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서부지역 내에서 지방지배와 관련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토착적 기반이 보이지 않는 소규모 고분군 내에 백제 중앙 형식의 석실이 조영되는 현상은 백제가 지방지배력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점에 백제와 친연성이 강한 세력을 파견했던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완주, 함평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백제 지방 곳곳에 파견된 관료적 성격의 인물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20]

그렇다면 사비기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이러한 지배의 강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비기는 방-군-성제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지배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이다. 사비 천도 시기인 6세기 전 · 중반 백제는 체제 정비 과정을 거치며,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西方 하에 馬尸山郡과 今勿縣이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1]

또한 사비기 백제의 국경 문제로 인한 충남 내륙 지역의 정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왕 28년(550) 백제가 故土 회복을 위해 고구려의 道薩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22] 이에 고구려가 백제 金峴城을 공격하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여 두

---

20) 완주 둔산리 석실묘는 길이 251cm, 너비 126cm, 장단비 1.99로 상당히 높은 규격성을 가지며 판석으로 축소되었다(국립전주박물관 2000). 함평 신덕 2호분 또한 길이 250cm, 너비 125cm, 장단비 2.0으로 규격성이 높으며 판석으로 축조되었다(국립광주박물관 2021). 두 고분 모두 대규모 고분군 내에 조영된 것이 아니라, 1~2기의 고분과 함께 조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능산리 규격을 갖춘 석실의 피장자는 백제 중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山本孝文 2007: 13~14). 특히, 함평 신덕 2호분의 피장자는 백제 중앙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산강 유역권에 대한 지역지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김낙중 2021b: 20).

21) 西方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대체로 충남의 서북부 일원으로 비정되고 있다. 제시된 견해로는 예산 대흥 지역(박현숙 1997; 서정석 2000; 지원구 2018), 홍성지역(김영관 2012), 서산지역(김영심 1997; 김근영 2021; 장미애 2021; 강유나 2025) 등이 있다.

2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28年, "二十八年, 春五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성을 빼앗았다.[23] 도살성은 충북 증평군,[24] 금현성은 충북 진천군으로 추정된다.[25]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6세기 이후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충청남도 일대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이전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산만 수계권에 1군 3성 편제를 배치한 것 또한 방어 체계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유나 2026: 270~271). 이는 천안, 아산, 예산 등 국경과 접한 인근지역 전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속에서도 7세기 대에 예산 서부지역에 지방지배 강화가 확인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6~7세기 대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마애불이 조성되었다.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태안의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서산의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같은 마애불은 충청남도 내포 일대의 특수한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주목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의 유일한 사면석불로, 예산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이를 교통로와 연결지어, 예산 서부지역 또한 웅진기부터 교통로 상 중요한 지역으로 역할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정재윤 2007; 신소연 2015; 박지현 2018; 소현숙 2019). 예산 일대에 이러한 종교 시설의 존재는 대중항로와 관련된 교통로와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북조와 활발히 교류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6]

이러한 석불이 백제 중앙 형식 석실인 예산 석곡리 2호분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석불 조영을 위해서는 돌을 가공하는 기술자의 존재가 상정되며 이러한 기술자는 중앙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27] 또한 대형 석불

---

2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七 陽原王 6年, "三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取二城."

24) 도살성의 위치를 충남 천안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77), 충북 증평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민덕식 1983; 양기석 1991)가 있다. 그중에서도 道薩城과 『三國史記』 地理志에 기록된 道西縣이 통한다는 점에서, 증평군 도안면으로 비정되는 道西縣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5) 금현성의 위치를 세종시 전의면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77; 전덕재 2018), 세종시 전동면으로 보는 견해(양기석 1991), 충북 진천군 일대로 보는 견해(민덕식 1983)가 있다. 당시 신라가 진천 지역을 영역화한 것은 분명하지만, 세종시 전의 지역을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금현성은 진천 지역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박성현 2011).

26) 실제로 위덕왕대를 기점으로 대중 교류의 기조가 남조 일변도에서 남북조 양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三國史記』에 기록된 무령왕에서 성왕대까지 백제의 대중 교류 기사는 모두 남조 梁과의 조공 책봉 기사이다. 그런데 위덕왕대에 들어서 백제는 남조의 陳과 북조의 齊 그리고 周와 동시에 교류한다.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第5 威德王). 이는 589년 수나라가 진나라를 통일하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중국 정세에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충남에 분포하는 석불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석공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강우방 1997: 170; 진정환 2007: 482).

조영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도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6~7세기 대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진 사면석불 조영은 중앙의 기술과 현지의 자원이 더해져 이루어진 공공사업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중앙과의 친연성이 깊은 예산 석곡리 고분군 축조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백제 중앙이 이 일대의 관리와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보이는 웅진기 이후의 횡혈식석실의 축조와 사비기 석실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28] 백제는 사비기가 되어 지방지배 체제를 정비하고, 충청남도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백제는 중앙과 친연성이 강한 집단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세력과 협력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지방지배에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거리를 두고 거점을 형성하여 공존하는 예산지역의 양상은 사비기 지방 지배의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사비기에 횡혈식석실묘는 재래의 묘제를 대체하며 백제 지방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 가운데 정형화된 형식의 능산리식 석실의 전국적 분포는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 확대 양상과 연결되는 현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예산 서부지역 일대 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 분석을 통해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위상 변화와 연관지어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는 한성기까지 분묘유적이나 주거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집단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웅진기부터 석축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이 확인된다. 웅진기 형식 부장품과 석실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웅진기 후반이 되면 백제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이 축조되는 것을 통해, 목리 · 신리유적 석실의 피장자는 지방세력으로서 웅진

28) 이와 관련하여 신의도 상서고분군의 축조 기간이 서남해 도서지역에 설치된 郡縣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7세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문안식 2014: 102~103). 또한 남해안 지역에 조영된 사비기 석실을 두고 연안항로 상에 위치하는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김낙중 2016: 87~88).

기부터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석축고분의 축조는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한다. 또한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인 석곡리 2호분이 축조된다. 석곡리유적의 경우 규격화된 석실과, 치석된 석재로 축조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높은 위계를 보여주는 목관과 착장 유물이 확인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 온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이며,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다인장 · 추가장이 확인된다.

두 유적의 석실묘에서 고분 조영 양상과 묘장제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는 중앙과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석곡리유적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해당 지역보다도 백제 중앙과 깊은 친연성을 가졌으며, 또한 예산 서부지역 내에서 지방지배와 관련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지의 매장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병존을 통해 중간적 인물, 즉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산 서부지역 내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갖는 집단이 동시기에 존재했다. 백제는 지방지배에 있어 지방세력과 협력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과 친연성이 높은 집단을 지방에 파견하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비기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이러한 지배의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지배체제의 정비, 국경 문제, 교통로로서의 중요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은 예산 서부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가 실제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피장자의 성격을 백제 중앙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를 지방지배와 연결지어 보았다. 한 지역 내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두 집단이 거리를 두고 존재하며 지방지배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예산 서부지역의 사례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지방지배에 있어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6. 8. 25 | **심사완료일** 2026. 9. 19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三國史記』『周書』『北史』『隋書』『舊唐書』『翰苑』

가경고고학연구소, 2017, 『예산지역 백제한성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강연준, 2024, 「백제 사비기 금물현 지역의 고대사회와 예산 사면석불의 조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우방, 1997, 「泰安白華山의 磨崖觀音三尊佛攷」,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강원표, 2021, 「목관 부속금구를 통한 백제 송산리고분군의 위계성 분석」, 『호서고고학』 49, 호서고고학회.

강유나, 2025, 「百濟 西方 硏究 -地域史 硏究를 위한 試論-」,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6, 「백제 사비기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군 · 성 편제와 그 특징」, 『백제학보』 56, 백제학회.

강종원, 2012,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예산 석곡리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公州)山儀里遺蹟』.

국립광주박물관, 2021,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국립전주박물관, 2000, 『完州 花山里 石室墳 移轉 · 復原 報告』.

권오영, 2007, 「고고자료로 본 지방사회」,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_____, 2009,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吉井秀夫, 1997, 「橫穴式石室墳의 受容樣相으로 본 百濟의 中央과 지방」,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0, 『古代朝鮮墳墓にみる国家形成』, 京都大学学術出版会.

김근영, 2021, 「백제 서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03, 한국고대사학회.

김낙중, 2009a,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확산 및 지역성의 유지 –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71, 한국고고학회.

_____, 2009b, 「榮山江流域政治體와 百濟王權의 關係變化 -金屬製服飾遺物을 中心으로-」, 『백제연구』 5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_____, 2018,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1-2.

_____, 2021a,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_____, 2021b, 「함평 신덕 1 · 2호분의 분구와 석실」,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논고-』.

_____, 2024,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 한성백제박물관.

김동찬, 2022,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매장 프로세스 검토」, 『한국고고학보』 123, 한국고고학회.

김영관, 2012, 「백제 부흥운동기 흥성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1-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영심,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복암리 목간을 통한 접근-」, 『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_____,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체」,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禮山 四里 遺蹟』.
문안식, 2014, 「백제의 해상활동과 신의도 상서고분의 축조 배경」, 『백제문화』 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민덕식,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사학연구』 36, 한국사학회.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 · 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박신영 · 성정용, 2020, 「河南 甘一洞 古墳群의 石室構造와 被葬者集團의 性格」, 『고고학』 19-1, 중부고고학회.
박지현, 2018, 「백제의 대중국 교류길과 마애불의 조영」, 『충청남도의 백제유적』,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박현숙,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論山 六谷里 百濟古墳 發掘調査報告書 -1986年度 發掘調査-』.
_____, 1995, 『益山 笠浦里 百濟古墳群 : 1992, 1993年度 發掘調査』.
山本孝文, 2002, 「百濟 泗沘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 『한국고고학보』 47, 한국고고학회.
_____,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문화사.
_____, 2007, 「百濟 泗沘期 石室의 設計와 構造系統論」, 『한국고고학보』 63, 한국고고학회.
서정석, 2000, 「百濟 5方城의 位置에 대한 試考」, 『호서고고학』 3, 호서고고학회.
_____, 2023, 「禮山 石谷里 古墳群과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 양태」, 『역사와 담론』 108, 호서사학회.
서현주, 2020, 「백제 사비기 호서지역 고분과 매장의례」, 『선사와 고대』 64, 한국고대학회.
소현숙, 2019, 「禮山 四面石佛의 제작 時期와 性格, 그리고 百濟의 對中交涉 -四面像의 형식과 착의법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신소연, 2015, 「한국 삼국시대의 불상」, 『고대불교조각대전』, 국립중앙박물관.
심정보 · 유원재 · 이달훈 · 서오선 · 서태일 · 이정우 · 강희천 · 공석구, 1984, 「禮山郡管內 古代山城 分布調査報告」, 『백제연구』 1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양기석, 1991,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 · 12 · 13, 한국문화사학회.
오동선, 2019,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변천과 의미」, 『한국고고학보』 112, 한국고고학회.
_____, 2024, 「웅진기 왕릉과 귀족묘의 구조 변천과 규제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115, 한국고대사학회.
이나은, 2022, 「백제 사비기 목관과 부속구의 변천과 위계」, 『한국고고학보』 122, 한국고고학회.
이남석, 1995, 『百濟 石室墳 硏究』, 학연문화사.
이문형, 2025, 「남원 초촌리 고분군의 축조 연대와 그 성격」, 『호남고고학』 79, 호남고고학회.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이요한, 2018, 「예산 석곡리 유적」, 『한국고고학저널』,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준정 · 김종일 · 최철희 · 한영희 · 이세민 · 조유복 · 하대룡 · 김상인 · 김승옥 · 이승태, 2006, 「DNA 분석을 통한 백제 葬法의 연구 -완주 은하리 고분 출토 인골의 예-」, 『한국고고학보』 61, 한국고고학회.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이혁희, 2017, 「홍성 신금성의 구조와 성격 재검토」, 『야외고고학』 30, 한국문화유산협회.
이현숙, 2019,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판석재 도입과 치석기술에 반영된 계층화」, 『백제 건축 치석과 결구를 보다』, 서경문화사.
장미애, 2021, 「백제 5方의 성격과 설치 시점 논의 -『括地志』를 바탕으로-」,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發掘調査報告書』.
전덕재, 2018,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남원시 초촌리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_____, 2013, 『永元 隱仙里 一元 百濟 古墳群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전주대학교박물관, 2024, 『2024년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시 ·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정은우, 2005, 「예산 사면석불의 미술사적 검토」, 『백제문화』 3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정재윤, 2007, 「禮山 四面石佛의 조성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지원구, 2018, 「百濟 西方城의 位置와 性格」,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진정환, 2007, 「井邑地域 百濟系 佛像 考察」, 『문화사학』, 한국문화사학회.
최미경, 2020,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와 南方城」, 『한국고대사탐구』.
최병화, 2017, 「禮山地域 山城現況과 地域性」, 『예산지역 백제시대 산성연구: 예산지역 백제산성 학술대회 자료집』, 가경고고학연구소.
최영은, 2026, 「고대 영산강유역권 지역 수장(首長)의 성격에 대한 시론」, 『인문논총』 83-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최정범, 2024, 「忠南 唐津 人骨 出土 泗沘期 百濟古墳의 再認識」, 『야외고고학』 49, 한국문화유산협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瑞山 富長里遺蹟』.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舒川 楸洞里 遺蹟 : I 地域』.
_____, 2010,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
_____, 2014, 『禮山 沐里 · 新里 遺蹟』.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研究』, 서경문화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 Ⅱ (서고분군) : 제5~7차 발굴조사』.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유적』.
허윤영, 2025, 「순화리 석실분의 조사성과와 백제 사비기 순창지역의 위상」, 『백제학보』 52, 백제학회.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학회.

http://doi.org/10.20292/jcich.2026.51.75

Local Groups in the Yesan Region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of Baekje:

Relations with the Central Authority

Hwang-Bo, Eun(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Sabi period, local burial practices in Baekje were replaced by stone-chamber tombs that mirrored the burial forms of the central elite, undergoing processes of standardization and formalization. The extent to which local groups faithfully adopted burial forms originating from the capital likely reflects the closenes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Baekje central authority.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stone-chamber tombs in the western Yesan reg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ature of local groups in the are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Baekje state center.

Local groups in the western Yesan region can be identified from the Ungjin period onward.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stone chambers of the Geumhak-dong type—burial forms associated with Ungjin-period elites-have been documented. This suggests that the groups interred in these stone-chamber tombs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Baekje center and developed as local elites.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Chungcheongnam-do region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Ungjin is presumed to have contributed to thi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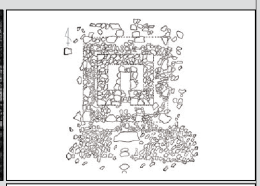
The construction of stone-built tombs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continued into the Sabi period, forming a large-scale burial complex. At the same time, Tomb No. 2 at the Seokgok-ri site—characterized by a refined Neungsan-ri－type stone chamber-was constructed separately from the Mok-ri and Sin-ri sites. At Mok-ri and Sin-ri,

burial customs that appear to preserve indigenous traditions are evident, indicating that the burial complex was formed by a group that maintained its power locally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In contrast, the Seokgok-ri site lacks continuity in burial construction, and its tomb form closely resembles the burial practices of the central Baekje elite.

The group interred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appears to have adopted the structural elements of Sabi-period stone-chamber tombs while partially maintaining local burial traditions. This suggests that they may have been intermediary actors—local elites who cooperated with provincial administrators and contributed to regional governance. Conversely, the group associated with the Seokgok-ri site, which constructed standardized stone chamber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Baekje center, may have been a bureaucratic group newly deployed to the region by the central author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wo groups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coexisted contemporaneously within the western Yesan region.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 dual system of local governance operated during the Sabi period of Baekje.

Key words : Baekje, Sabi Period, Yesan, Local Governance, Stone-Chamber Tombs, Neungsan-ri–Type Stone Chambers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07



吉林省 蛟河 渤海 七道河子 遺蹟의 再認識

A Re-evaluation of the Bohai Qidaohezi Site in Jiaohe City, Jilin Province

崔 正 凡 한빛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

Ⅰ. 머리말

Ⅱ.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구조와 특질

Ⅲ.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 검토

Ⅳ.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牤牛河 북안의 北大山 자락에 단독 조성되었다. 유적의 성격은 현재까지 역참, 사찰지, 고분 등으로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발굴조사 간보의 내용을 토대로 유적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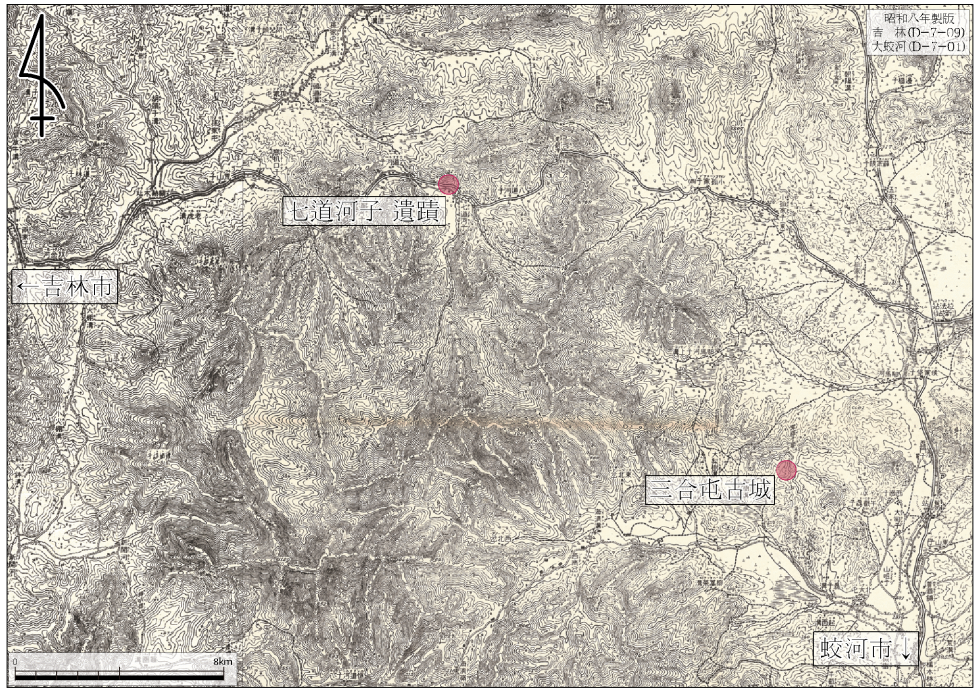
유구는 평면 回子形의 건물지로 내부는 석실 형태의 중심시설이 반지하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를 담장과 초석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 자연 경사면을 따라 계단 시설이 조성되었다. 유물은 암막새 · 수막새 · 치미편 · 杯 · 풍탁 등이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대체로 8세기 중엽~9세기 전반경으로 비정된다. 특히 계단 주변에서 '行業淨神…'의 비석 편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형태와 출토유물의 성격을 참고할 때 칠도하자 유적은 敦化 六頂山 Ⅰ-ST11, 龍頭山 龍海古墳群 J1과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다. 더욱이 출토 유물의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殯葬의 장소 혹은 祀廟등과 같은 의례적 성격의 유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渤海, 七道河子 遺蹟, 古墳, 寺刹, 殯葬, 祀廟

Ⅰ. 머리말

中國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七道河村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七道河와 冰葫蘆溝河가 牤牛河로 합수하는 북안의 높게 솟은 산기슭 사이 작은 산등성이인 北大山 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은 鄕道에 인접하며 그 북쪽은 老爺嶺 지맥의 남쪽 변두리에 해당한다. 유적의 남쪽으로 5m 떨어져 松花江의 지류인 牤牛河가 흐른다. 이를 따라 동-서 방향의 협곡평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 吉林市, 동쪽으로 蛟河市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도면 1] 칠도하자 유적의 위치(1933년 지형도, 일본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유적의 존재는 1940년대에 발견되었고, 1985년 길림성의 문물조사 당시 사찰지 북쪽이 동-서 방향으로 뻗은 너비 16m의 마을 길로 파괴된 것이 발견되었다. 유적의 면적은 약 500㎡이며 도로공사로 절개된 단애면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문화층은 0.6m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 이에서 연화문 · 권초문 와당 각 1점씩과 지압문 · 사선각문 · 원문 · 십자문 등의 여막새[句滴] 8점도 수습되었다. 수습된 기와의 유형이 吉林省 汪清縣 鷄冠 · 中大肚川 · 紅云 · 幸福 · 駱駝山 등의 발해 사찰지에서 출토된

동일 유형의 유물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보고자는 칠도하자 유적을 발해 京 · 府 · 州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불교사찰 유적으로 인식(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 114~116)하였다. 사찰의 중심에서 약 25㎡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간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 7월 길림시박물관에 의한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규모와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유적의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이며 天井 · 地面鋪石 · 柱础石 · 級石 · 護坡石으로 구분되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수막새 · 수키와 · 암키와 등과 치미로 추정되는 잔편 등의 와전류 · 도기 발 · 구연부편 · 주조철부 · 철제 풍탁 · 철정 등의 생활유물이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건축부재 등이 발해 유물에 근사하므로 칠도하자촌 유적을 발해의 건축유적으로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상경용천부에서 遼의 臨潢都城으로 향하는 거란도상에 유적이 위치하므로 역참[亭站] 혹은 종교적 성격의 건축유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시(吉林市博物館 1993)되었다. 이후 칠도하촌 유적을 거란도 노선상에 위치한 건축물로 이해하는 시각(魏存成 2008: 167~168)이 우세하였다.



[도면 2] 칠도하자 유적의 위치(Google Earth 위성영상)

그러다가 이 유적을 생활유적으로서의 건물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유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彭善國은 건물의 주체부에 해당하는 중심시설의 면적이 7㎡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깊이 60㎝, 면적 2㎡의 구덩이가 추가로 조성된 구조이므로 역참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발해의 사찰임이 명확한 유적에서는 평면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 중심부에 구덩이를 파는 방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찰로도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吉林省 敦化 六頂山 Ⅰ-M5호 · 安圖 東淸 M8호 · 黑龍江省 寧安 虹鱒漁場 M2308호 등과 같이 상부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계단식의 석축묘(彭善國 2010)로 보았다.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견해는 이후 王志剛의 冢上作屋 연구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이에서는 칠도하자 유적을 묘상건축이 부가된 고분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장주체부의 지면 상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형태로 매장주체부와 건물의 층위가 동일하여 양자의 조성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건물지[房址] C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대는 출토 와당의 비교를 통해 발해 중기보다는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칠도하자 유적의 배치가 홍운유적과 유사함을 지적(王志剛 2014)하였다.

더 나아가 宋玉彬은 칠도하자 유적 출토 와당이 裂瓣文 · 四分法 구도의 형식으로 늦어도 성왕 대화여의 상경 환도시점(794년)보다 늦지 않으며, 속말말갈인이면서도 등급이 높은 사람의 고분으로 보았다. 이는 즙와[瓦構]가 이루어진 고분은 모두 발해 귀족 가문의 묘지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宋玉彬 2023: 245~246)와 상통하는데,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彭善國의 견해를 수용함을 전제로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인 접근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양은경은 칠도하자 유적을 사찰지로 분류(양은경 2010: 91)하였고, 구난희는 이 유적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을 정리한 다음 잠정 무덤으로 간주하면서 돌담형의 외곽조형물을 갖춘 고분으로 인식(구난희 2019: 76~78)하였다.[1] 또한 박유정은 상부에 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탑지의 평면 구조와는 차이가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석실 혹은 석곽으로 추정(박유정 2025: 140)하고 있다.[2] 한편 발해고고학 개설서에는 이 유적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다(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21).

---

1) 영안 홍준어장 M2308호, 안도 동청 M8호와 유사함이 지적되었다.

2) 이에서는 돈화 육정산 Ⅰ-M1 · 4호와 유사함이 지적되었다.

이상과 같이 교하 칠도하자 유적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 이래로 유적의 성격을 두고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사찰 등의 종교건축 · 역참 · 고분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나름의 추론을 시도했으나 해명되지 못한 맹점들도 상존한다. 사찰로 본다면 가람배치가 불분명하고 중심시설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르지 못했다. 역참으로 보더라도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묘상건축을 갖춘 고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중심시설의 내부에서 葬具나 人骨 등 매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처럼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에 대한 추론은 나름의 근거와 약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작업이 녹록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특히 기왕의 선행연구에서 칠도하자 유적에 대한 언급은 유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위한 하나의 사례 정도로서 다루어졌을 뿐, 유적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적의 성격에 대한 異論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칠도하자 유적의 재검토 시도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칠도하자 유적의 조사 내용 자체를 재검토하여 유구의 구조와 특질을 살피고,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을 검토해 봄으로써 유적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자칫 유적의 성격과 그 해석을 두고 혼란만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요컨대 한정된 자료를 두고 비교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여 논리적 모순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따름은 자명하다.

그러나 기약 없는 신출 자료의 등장만을 손 놓고 기다리며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기존에 조사 보고된 유적들의 보고서를 현재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의 화두로 재점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발해고고학의 방법론 · 역사고고학적 논의가 한층 더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구조와 특질

보고문에 따르면 칠도하자 유적은 크게 天井 · 地面鋪石 · 柱础石 · 級石 · 護坡石으로 구분된다. 天井은 유적의 중앙에 조성된 유사 석실과 그를 回字形으로 둘러싼

내부 단을 지칭하는데, 유적의 중심시설에 해당한다. 이를 둘러싼 地面鋪石은 기단부에 해당하며, 외연에 등간격으로 놓여진 柱礎石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기단부의 남쪽으로 덧대어 조성된 護坡石은 유수에 의한 토사의 유실 등으로부터 건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반보강시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국 보고문에서 구분한 유적의 구분 명칭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유적의 성격과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굳이 중심시설[天井] · 기단부[地面鋪石] · 초석[柱礎石] · 계단[級石] · 지반보강시설[護坡石]로 환치하여 칭하기로 한다.



[도면 3] 칠도하자 유적 조사현황과 평면도(吉林市博物館 1993 에서 재편집)

중심시설은 남쪽으로 입구가 트여 있으며 규모는 길이 160㎝ · 너비 100㎝ · 깊이 60㎝이다. 이를 둘러싼 담장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동-서 5m · 남-북 4.5m의 규모이다. 담장의 폭은 동-서 80㎝ · 남-북 1.3m 정도인데, 남쪽 담장의 중앙은 중심시설로 진입하기 위해 60㎝의 폭으로 트여 있다. 중심시설과 담장의 사이는 흙으로 채워져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40㎝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심시설의 상부를 기준으로 할 때 담장의 높이와 중심시설의 깊이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애초 유적의 조성 당시 중심시설을 먼저 조성했음을 의미하는데, 원지형을 반지하상으로 20㎝가량 굴착한 다음 석실과 유사한 중심시설을 조성하였다. 그와 동시에 외연에 回字形의 담장을 두른 후 사이를 흙으로 채워 넣었고 남쪽은 출입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림 3]의 左上에서 보듯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촬영된 사진을 살피면 중심시설은 담장 중앙의 출입부와 유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덧붙여 중심시설과 관련하여 보고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중심시설의 출입부이자 기단부의 남쪽에서 발견된 할석의 용도 추론에 관한 문제이다. 중심시설을 정리하던 중 남쪽 담장의 바깥에서 2매의 석재가 발견되었는데 단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길이 · 너비는 약 40㎝, 높이 1.2m 정도의 크기이다. 보고문에서는 석재의 규모와 위치로 보아 중심시설 남쪽의 통로 상단에 놓여진 楣石으로 추정하였다.

보고자의 견해와 같이 장방형의 할석이 통로 상단에 놓여진 개석이라면 중심시설 내부에도 개석의 기능을 하는 할석이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 혹은 발견되어야 함에도 그에 견줄만한 석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출입구의 상면에만 미석이 부가되었다는 점인데, 통로에만 개석이 덮여졌다는 점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특히 이 2매의 할석은 단면이 한 변 40㎝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잘 다듬어졌는데, 중심시설의 벽석이 가공되지 않은 화강암을 사용했다는 점과도 배치된다. 벽석과 담장에 사용된 할석의 형태, 중심시설의 상부에서 개석과 같은 할석이 부재한 현상 등은 이 할석이 미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和龍 龍頭山 龍海古墳群 조사 당시 발견된 石柱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M10호의 남쪽 입구를 중심으로 좌 · 우측에 각각 위치하며 각각의 크기는 42×36×123㎝ · 36×34×108㎝이다(鄭永振 1983: 72). 실제로 M10호의 묘도 좌 · 우측으로 직경 40㎝ 안팎의 주혈이 확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 86)된 점으로 미루어 길이 1.2m 내외의 석주는 묘도 좌우에 주혈을 굴착한 다음 세워졌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안도 동청 8호에서는 출입구 양측에 8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돌기둥의 형태로 장방형의 할석을 세워두었는데, 발견 당시 동쪽 기둥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서쪽의 기둥은 왼편으로 옮겨져 원상이 훼손된 상태(연변박물관 1993)였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의 중심시설 출입부의 남쪽 좌우에도 수습된 할석이 세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그림 3]의 右에서 보듯 평면도 상에도 기단부의 전면에 할석이 부석되어 있음에도 중심시설 입구의 남측 바깥은 할석이 부석되지 않았다. 주혈과 같은 부가 시설의 조사 내용이 기재되진 않았으나, 수습된 할석 2매는 단면의 한 변 40㎝로 잘 다듬어졌으며 애초에 출입부의 좌우측에 세워진 상태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기단부는 중심시설을 둘러싼 담장 외연의 바닥에 덧대어 조성되었는데, 길이 7.4m · 너비 7.4m의 평면 방형의 형태이며 중심시설 담장 바닥과 외연까지의 폭은 남쪽과 북쪽 1.5m, 동쪽과 서쪽 1.25m 정도로 협소한 편이다. 특히 중심시설의 외연을 따라 폭 0.6~1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여 초석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된다. 각 초석 간의 거리는 2.1~2.5m 정도로 비교적 등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면 3칸-측면 3칸의 규모로 복원 가능하다.

기단부의 초석열에서 북쪽으로 1.1m, 동쪽으로 1.3m 정도의 폭으로 할석들이 부가적으로 놓여져 있다. 동쪽은 후대 유실 등으로 원상이 명확하게 복원되지는 않는다. 반면 북쪽은 초석으로 짐작되는 할석 2매가 1조를 이루고 등간격을 유지하며 놓여있다. 이 구조물의 위치는 북쪽의 중앙에 해당한다. 바깥은 의도적으로 북쪽면을 향해 열을 이루어 조성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유적의 북쪽은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추가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기단부의 북서쪽으로 초석과 중심시설 담장의 북면 사이에는 황갈색 니질 杯가 3단위의 군집을 이룬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북쪽의 출입시설을 통해 유입되어 놓여졌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동쪽에는 부가적인 할석군이 열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동 · 북 · 서쪽의 양상과 규모에 견주어 보면 이는 낙수받이 등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보강시설은 기단부의 남쪽 외연에 덧대어 동-서 11.5m · 남-북 3.6m 규모로 소형 화강암과 천석을 부석하여 조성하였다. 이 구간은 낙수받이 기능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서 · 북 · 동쪽과 달리 남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낮아지는 지점에 해당한다. 집석은 이러한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남쪽으로 낮아지는 자연 경사면의 인위적인 기반 정지나 절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자는 이를 유수에 의한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보았는데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남쪽의 급경사면으로부터 유적의 유실을 막기 위한 기능과 함께 낙수받이의 기능도 동시에 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지반보강시설로 보아도 좋다.

계단은 지반보강시설의 중앙에 위치하며 자연 경사면을 따라 기단부의 중앙으로 연결된다. 폭 2m의 대형 할석과 40~85㎝ 가량의 소형 할석을 사용하여 계단을 조성하였다. 주축방향은 남-북이며, 전체 범위는 남쪽으로 5.6m 정도이다. 건물 외부에서 중심시설까지 장축이 일치되게 조성되었다는 특징이 관찰되며, 가장 남쪽의 계단석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이격되어 망우하와 연결된다.

한편 계단석의 주변에서 비석의 파편이 일부 출토되었는데, 단편적으로나마 식별

가능한 문자가 확인되어서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비석의 파편으로 미루어 본래 비석이 놓여진 위치가 어디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발굴조사 당시부터 비석은 계단 주변에서 파편의 형태로 수습되었기 때문에 최초 세워진 지점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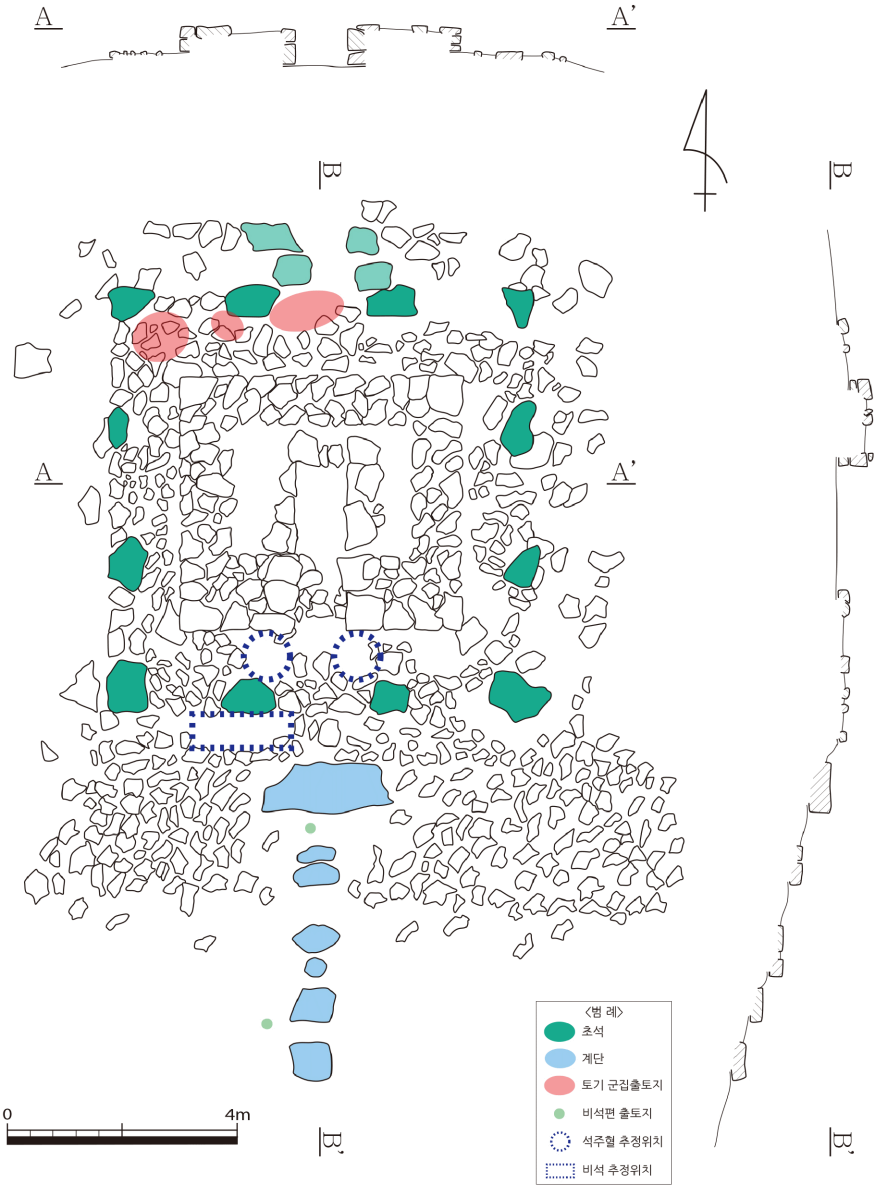
다만 비석 파편의 출토 위치가 계단석 주변이며, 계단석의 좌우로 자연 경사면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기단과 가까운 어느 지점에 최초 비석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기단부 남쪽 중앙에서 왼쪽 초석 전면부의 지반보강시설 연접 부분에 할석이 부석되지 않은 구간이 일부 확인된다.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 1.7m · 너비 0.6m 정도의 범위가 상정되는데, 비석의 파편은 그 아래의 경사면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살핀다면 기단의 중앙에서 왼편으로 치우친 지점이며 건물의 입구 바깥이자 최상단 계단석의 좌측 지점을 비석의 입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고문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칠도하자 유적의 구조를 검토해 보았다. 발굴조사 당시 보고자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적의 노출 정황과 석재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시설은 기반층을 반지하식으로 굴광한 다음 먼저 석곽과 유사한 형태의 작은 공간을 조성한다. 이 때 이를 둘러싼 담장이 함께 조성되는데 중심시설과 담장의 벽석을 평적함과 동시에 그 내부는 흙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중심시설의 출입부는 담장 남쪽에 20㎝ 정도의 유단식으로 조성되었다. 중심시설 담장의 네 모서리는 당초 간보에서는 초석으로 인식하였지만, 담장 모서리의 면맞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초석이라면 그 아래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적심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림 3]의 左上에서 보듯 중심시설의 담장 벽석의 모서리이며, 그 아래로 할석이 2단 가량 평적되어 있으므로 적심보다는 석축의 면맞춤 상태로 봄이 한층 자연스럽다.

기단부는 중심시설을 둘러싼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담장의 최하단석에 인접하여 바닥석을 두르고 가장자리는 초석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단의 남쪽은 초석과 담장 사이에 특별한 부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공석 2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2매의 입석은 중심시설의 입구와 초석의 기둥 사이에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쪽의 중심시설 바깥으로는 좌우 2매의 초석이 열을 이루는데, 현재로서는 보고자의 견해와 같이 잠정 북쪽 출입시설의 초석으로 보는 편이 낫지 않나 싶다. 기



[도면 4] 칠도하자 유적의 공간구성 추정안

단의 초석과 중심시설 담장 사이의 폭이 협소한 점과 황갈색 니질 杯의 노출 정황 등은 그러한 가능성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초석 상부로 기와건물이 조성된 유적의 남쪽과 북쪽은 자연경사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계단 상단과 기단의 남쪽은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부석하여 외관을 조성하였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보았을 때 기단부의 남쪽 초석 바깥과 계단의 최상단 좌측 사이에는 부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위는 길이 1.7m · 너비 0.6m 정도이다.

자연경사면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조성된 계단석 주변에서 비석 파편이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부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방형의 공간에는 비석이 놓여져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碑座의 역할을 했을 가공된 할석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碑身만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유적의 공간을 재구성하면 [그림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의 폐기 양상과 관련하여 보고문에는 발굴조사 당시 층위에 대한 기술이 확인되는데, 기단부 할석 상부로 최대 4㎝ 정도의 두께로 소토층이 퇴적되어 있었고 그 위로 와적[瓦礫]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소토층 내에서는 목판과 짚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벽체의 구축 사실을 일러주며, 화재 등의 연유로 자연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출토유물의 연대와 성격 검토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와당 · 평기와 · 치미편 등의 기와류와 토기, 풍탁 등 비교적 다양한 유물들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유물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덧붙여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유적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비석의 파편도 일부 출토되어서 이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와

1985년 수습조사와 1990년 발굴조사 당시 가장 많은 출토 수량을 보이는데 암막새와 수막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암막새는 단부에 사선 방향의 각목문이 앞뒤로 부가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대롱(구멍)문 · 사엽문 등의 도안이 시문되거나 지두문이 압인되어 있다. 이는 정동귀의 a형식으로 분류되며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의 넓은 시간 폭을 갖는 것으로 이해(정동귀 2015)된다.

수막새는 역심엽협의 연판(수대)문 · 변형연문 · 권운유정문 · 연뢰문 등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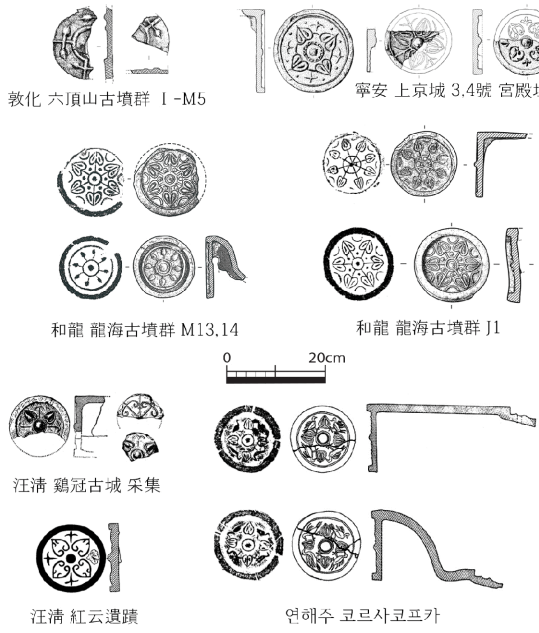
된다. 이와 비교되는 자료로 역심엽형 연판이 4분할된 와당은 敦化 六頂山 I-M5(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汪清 紅云遺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9), 寧安 上京城 3 · 4號 宮殿址(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출토품과 비교된다. 그러나 연판이 역심엽형이 아닌 단판형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연뢰문은 和龍 龍海古墳群 M13 · 14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자방과 연판이 연결되는 문양에서



[도면 5] 칠도하자 유적 수습 및 출토유물 일괄(縮尺不同,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 吉林市博物館 1993 에서 재편집)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역심엽형 연판+鳥文' 와당은 연해주 코르사코프가 출토품과 유사하다.

칠도하자 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와 관련하여 宋玉彬은 열판문(연판문 · 변형연문)과 사분법 구도 와당의 형태적 특징은 고구려 문화 요소의 영향이 유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유적에 사용된 와당의 연대를 성왕 대화여가 상경으로 환도한 시점[復還上京, 794년]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연판수대문(역심엽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연대의 하한은 문왕 대흠무의 집권 시기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宋玉彬 2023: 245).



[도면 6] 칠도하자 유적 출토 수막새의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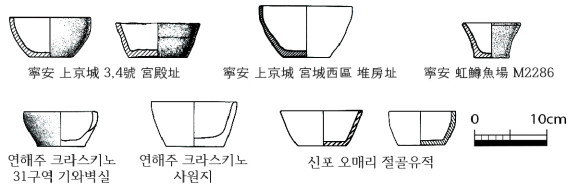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암막새와 수막새의 선행 연구성과를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와 수막새는 8세기 후반 혹은 그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파편으로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8엽으로 복원되는 연뢰문이 龍海古墳群 M13 · 14호 출토품과 비교되는데, 龍海古墳群 M13 · 14호가 강왕 대숭린의 능으로 비정(최정범 2025)됨을 염두에 둔다면 9세기 전반까지 연대를 하향시켜 볼 여지도 상존한다.

2. 토기

고운 니질 점토로 제작된 황갈색의 杯로 30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기단부 북쪽과 북동쪽 모서리에 3개 군으로 군집을 이룬 상태로 개별 개체가 직치되어 있거나 몇 개체가 겹쳐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일부 杯의 내부에서는 식품이 탄화된 흔적도 일부 잔존한 상태였다. 구체적인 토기군의 출토 지점은 기단부 북쪽의 중앙 초석 사이에서

1개의 군을 이루고 그에서 서쪽으로 1m 떨어진 지점, 그리고 그에서 다시 서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군집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10여 개의 杯가 겹쳐져 있거나 단독 직치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적이 점유되던 와중에 모종의 연유로 갑작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杯는 전반적으로 평저이며 구순의 형태와 외반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크기는 기고 5.5~6.5㎝, 구경 10~10.5㎝, 저경 6.5㎝로 전반적으로 규격의 대차는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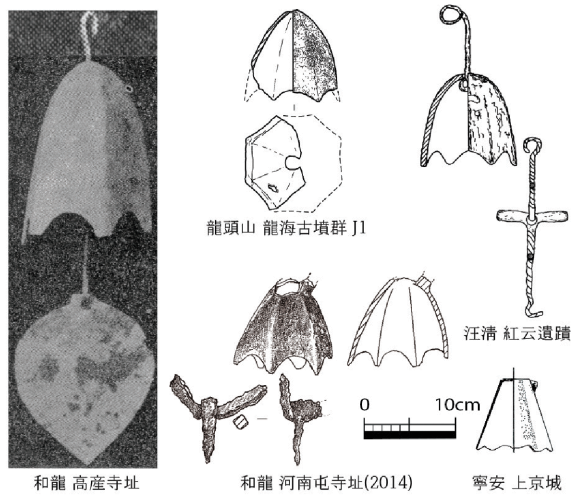
이와 유사한 杯는 발해 영역 내에서 간헐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기고 4.9~7.2㎝, 구경 9.4~13.0㎝, 저경 5.9~8.0㎝로 칠도하자 유적 출토품과 대차가 없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연대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다만 上京城 3,4호 宮殿址 출토 杯는 앞 절에서 살펴본 4분할 역심엽형 암막새와 공반되었으므로 8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할 수 있다. 크라스키노 31구역 기와벽실에서는 8세기 중엽-9세기 전반의 邢窯 백자 구연부편이 공반(崔正凡 2022: 122)되었고, 크라스키노 사원지 출토품은 거란계토기 · 사이부일면편호와 공반된 점을 고려하면 9세기 후반-10세기 중엽 경으로 비정(홍보식 2016: 172~175)된다.



[도면 7] 칠도하자 유적 출토 杯의 비교자료

3. 풍탁

유적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철제이며 주조로 제작된 탁신은 절반 가량만 잔존한다. 연결고리는 탁신에서 30㎝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풍탁의 형태와 유물 출토 당시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면 본래 하나의 유물이 폐기과정 중 분리된 것으로 판단



[도면 8] 칠도하자 유적 출토 풍탁의 비교자료

된다. 현재까지 발해 유적에서 풍탁의 출토 사례는 손에 꼽히는데 和龍 高産寺刹址(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何明 1985), 河南屯寺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外 2017) 등의 사찰유적과 龍頭山 龍海古墳群 J1의 의례유적, 汪清 紅云遺蹟, 上京城(付慶滿 外(방학봉 역) 1993) 등 사찰 혹은 의례와 관련된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풍탁이 사찰의 전각 처마 끝이나 탑의 옥개석 끝에 달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莊嚴具이자 불교의 梵音具(서미미 2021)라는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풍탁의 출토 사실은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4. 계단 주변 수습 碑片

1990년의 발굴조사 당시 2개의 비석편이 수습되었다. 상대적으로 큰 碑片은 계단 위쪽의 첫째 단과 둘째 단의 사이에서 비문의 면이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갈색 화강암 재질이며 뒷면과 측면은 잘 다듬어진 상태이다. 잔존 폭 50㎝ · 잔존 높이 55㎝ · 두께 5㎝ 정도이다. 잔존 비면의 상부에는 9행으로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으며, 각 행의 글자 수는 균일하지 않다. 비문의 글자들은 희미하여 명확하게 판독되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만 희미하게 식별 가능하며 서체는 해서와 예서의 중간이다. 글자 크기는 4×4㎝ 정도이다. 하단으로 본문보다 조금 크게 '行業淨神…'의 문자가 식별되며 글자 크기는 7×7㎝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碑片은 계단 아래 둘째 단의 서쪽에서 발견되었고 재질은 상대적으로 큰 碑片과 대차가 없다. 이 碑片에서는 '寸'이 식별된다. 두 碑片은 동일한 비석의 파편으로 추정된다(吉林市地方志編輯委員會 1994: 189).

이상에서 보듯 건물지의 계단 주변에서 수습된 碑片에서 5자 정도의 글자가 식별되었는데, 특히 '行業淨神…'의 구절이 확인되고, 이는 유적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큰 비문에서 식별되는 '行業淨神…'을 行業과 淨神으로 나누고, 이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는지 唐代 묘지명의 사례들과 비교 검토[3]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行業은 '…儒分八並 潤行業於謨謀…[4] (유학8파의 학문에 견줄만한 식견과

3) 이하의 묘지명 원전 내용은 浙江大学图书馆 古籍碑帖研究与保护中心에서 제공하는 中國歷代墓志數據庫(http://csid.zju.edu.cn/tomb/stone)에 게시된 탁본 사진과 판독문을 참고하였다.

4) 「大唐故護軍李君墓誌銘并序」(665年)

사려 깊은 지혜로 행실이 아름답고 윤택했다)', '…優遊泯物 洞澈止持 威儀行業 為時之師…[5] (여유롭게 노닐며 나와 사물의 구분을 없애고 마음을 맑게 통찰하며 그침과 지킴을 온전히 하니 단정한 풍모와 바른 행실은 이 시대의 스승이 될 만하다)', '…於公行業 素所詳悉 得實刻銘…[6] (공의 행적을 소상히 알고 있으므로 사실만을 담아 비석에 새긴다)', '…故得備詳府君之行業約以文誌…[7] (그러므로 부군의 행적을 자세히 갖추어 알 수 있기에 이를 글로써 요약하여 기록한다)', '…以先師之行業玄懿…[8] (스승의 행적이 그윽하고 아름답기에)'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 비문들에서 行業은 모두 행적이나 행실 등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된다.

반면 淨神은 行業에 비해 사용례가 희소한데, '…鎭心境以仁山 淨神源以德水…[9] (어짊을 산처럼 굳건히 삼아 마음의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덕성을 물처럼 맑게 끌어올려 정신의 근원을 정화하였다)', '…淸淨神靈 庶幾銘曰…[10] (깨끗하고 신령스러운 영전에 마음을 담아 본격적인 찬가를 읊는다)'와 같이 말 그대로 정신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心本淸淨而無境者也…[11]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해서 경계가 없다)'와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나 개별적으로 깨끗함, 신통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파손된 비문의 '行業淨神…'은 행위와 정신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의미로 '行業 / 淨神…'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 혹은 앞서 살펴본 「百岩大师碑」의 용례를 염두에 둔다면 '行業淨 / 神…'으로 '행업이 맑고, 정신은…' 정도의 해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원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행동과 정신에 관련된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상에서 보듯 칠도하자 유적은 단일 유구임에도 불구하고 암막새 · 수막새 · 수키와 등의 와전류와 30여 점의 토기 杯, 풍탁, 碑片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와 곱새로 지붕이 장식되고 풍탁이 매달려 있으며 비석이 확인되는 점은 건물지의 위계와 성격을 가늠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유적의 연대는

---

5) 「有唐東都安國寺故上座韋和上墓誌銘」(785年)
6) 「唐故衡王府長史致仕石府君墓誌銘」(808年)
7) 「唐故揚州大都督府士曹參軍張府君合祔墓誌銘」(811年)
8) 「安邑縣報國寺故開法大德泛舟禪師塔銘」(822年)
9) 「大唐故處士京兆田君墓誌銘并序」(668年)
10) 「唐故張禪師墓誌銘」(768年)
11) 「唐故章敬寺百岩大师碑铭」(815年)

현재로서는 수막새의 와당 문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8세기 중엽~9세기 전반을 칠도하자 유적의 점유 기간으로 보아도 좋다.

Ⅳ. 蛟河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1. 기존 견해의 재검토

이상에서는 교하 칠도하자 유적의 보고문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유적의 입지와 유구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하여 재검토 해 보았다. 이에 칠도하자 유적은 자연구릉 정상부에 단독 조성된 특수한 목적의 건물지로서, 와당과 치미 등의 장식기와가 사용되었고 풍탁 등이 공반된 점으로 미루어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유적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적의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터인데, 발굴조사 이후 최근까지 머리말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유적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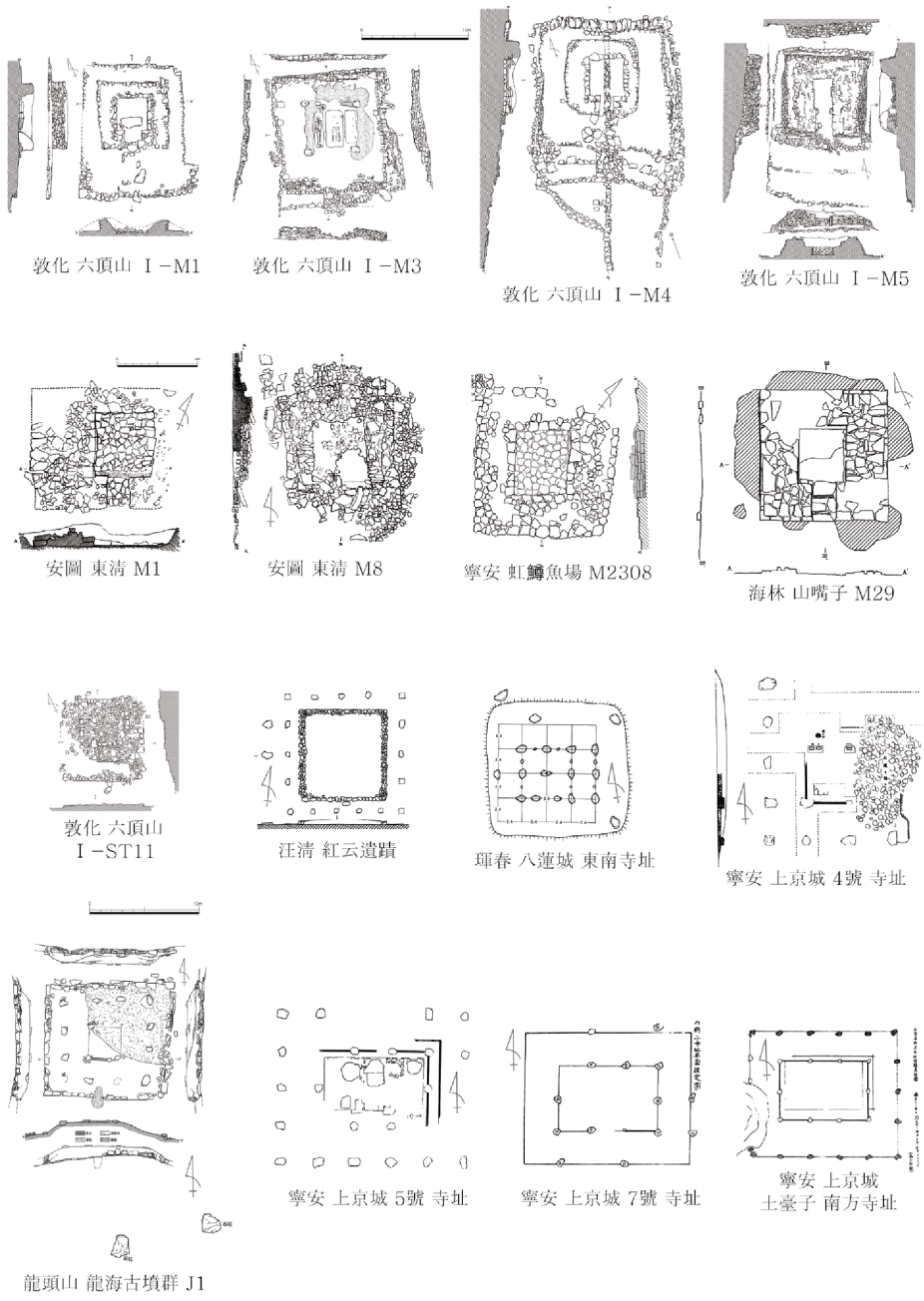
[표 1]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 고분의 규모 비교

유구	기단부 규모(㎝)		주체부 규모(㎝)	
	길이	너비	길이	너비
교하 칠도하자	740	740	160	100
六頂山 Ⅰ-M1	1240	950	300	290
六頂山 Ⅰ-M4	1200	1300	350	320
六頂山 Ⅰ-M5	950	930	280	170
東淸 M1	560	300	270	260
東淸 M8	680	570	290	270
虹鱒漁場 M2308	696	736	320	260
山嘴子 M29	660	650	270	230
三道中學 M2	650	710	320	290

먼저 고분으로 보는 견해인데, 앞서 언급하였듯 彭善國(2010) · 王志剛(2014) · 宋玉彬(2023)과 구난희(2019) · 박유정(2025)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견해로, 중심시설 중앙에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고, 유구의 전반적인 형태가 묘상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체부 내에서 인골이나 부장품 등 매장과 관련된 징후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암묵적으로 고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교하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와 비교해 볼 만한 유적으로 敦化 六頂山 Ⅰ-M1 · 3 · 4 · 5, 安圖 東淸 M1 · 8, 寧安 虹鱒漁場 M2308(黑龍江省文

物考古研究所 2009), 海林 山嘴子 M29(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三道中學 M2(魏存成 2024)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매장주체부를 둘러싸고 기단이 조



[도면 9]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되는 고분 및 사원유적

성된 형태이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270~350㎝ · 너비 170~320㎝인 반면, 칠도하자 유적의 주체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칠도하자 유적의 기단부 규모가 安圖 東淸, 寧安 虹鱒漁場, 海林 山嘴子 · 三道中學 유적보다 큰 데 반해 주체부의 규모가 소형인 점에서 칠도하자 유적을 확실하게 고분으로 보는 데 주저하게 된다. 또한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기단의 앞으로 7단의 계단이 조성된 점에서도 비교되는 고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덧붙여 칠도하자 유적이 고분이라면 그 주변으로 중 · 소형의 고분이 밀집되어 분포하거나, 능선을 달리하여 일정 규모의 고분군이 존재함이 자연스러울 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칠도하자 유적 반경 5㎞ 내에 발해 고분군으로 특정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까지 지표 및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결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칠도하자 유적 주변에서 발해 고분군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지표 및 발굴조사 결과만을 두고 보건대 칠도하자 유적을 반드시 고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12]이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당시 계단 주변에서 출토된 비석 파편의 존재인데,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이 고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묘지명의 파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4기의 묘지명(효의황후 · 순목황후 · 정혜공주 · 정효공주)과 비교할 때 서체의 크기(1.4~2.0㎝) 면에서 칠도하자 유적 출토품을 묘지명으로 보기 주저된다. 오히려 상경성 2호 궁전지에서 출토된 陶版位(5.2㎝)와 鴻臚井石刻(3.7㎝)의 글자 크기와 근사하거나 큰 점은 칠도하자 유적의 碑片을 반드시 묘지명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찰 등의 종교시설로 보는 견해인데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자들의 견해와 이를 따른 연구들(方學鳳(林相俓 譯) 1998; 양은경 2010)에서는 대체로 칠도하자 유적을 사찰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되는 유적으로 汪淸 紅云遺蹟, 琿春 八連城 東南寺址(齋藤優 1978), 寧安 上京城 4 · 5 · 7 · 土臺子 南方寺址(東亞考古學會 1939; 田村晃一 2005) 등이 참고된다.

이 유적들은 평면 回子形이라는 데서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팔련성과 상경성 일대의 사찰지에서 보듯 중앙의 主佛像이 봉안되는 공간은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12) 한편 吉林省 和龍의 서고성 남쪽에 단독 조성된 河南屯古墳이 존재한다. 그러나 河南屯古墳에서는 매장주체부와 그 내부에 대장식구 등의 부장 유물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성격 등을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과는 성격이 다른 단독 고분에 해당하므로 동일선상에서 고분으로 이해하기에는 주저된다.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반 사찰지는 건물지의 중앙이 높게 조성된 데 반해 칠도하자 유적은 기반층을 굴착하고 반지하식의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칠도하자 유적이 금당지와 같은 사찰로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2. 七道河子 유적의 재인식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며, 그와 비견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데, 고분이나 사찰로 명료하게 구분하기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의례와 관련된 유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殯殿으로 사용된 공간이거나 정기적인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祀廟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敦化 六頂山 Ⅰ-ST11, 龍頭山 龍海古墳群 J1은 칠도하자 유적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六頂山 Ⅰ-ST11은 1구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약 24m 떨어진 지점에 Ⅰ-M4호가 위치한다. 이 유구에 대한 해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면 回子形으로 길이 7.4m · 너비 7.5m이며 상부에서 토기편과 관정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구의 남동쪽으로 유사한 형태의 방형집석유구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의례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龍海古墳群 J1은 용해고분군의 북동쪽 끝의 2호 대지상에 단독 조성되었으며 평면 回子形이며 길이 8.2m · 너비 8m이다. 내부는 한 변 2.8m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유구의 주변에서는 수막새 · 수키와 · 평기와 등의 와전류와 금동장식 · 풍탁 · 철정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특히 건물지 남동쪽에 초석 2기가 확인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 축선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판단된다. 이 유구에서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 · 4호 대지와 5호 대지의 동쪽 일부가 조망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殯殿이나 왕실 제사가 이루어지던 祀廟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제기(彭善國 2025: 53; 최정범 2025: 183~185)된다.

이상의 六頂山 Ⅰ-ST11호와 龍頭山 龍海古墳群 J1호의 평면 형태와 규모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중심시설의 반지하식 시설의 유무에서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다만 龍海古墳群 J1호의 남동쪽에 위치한 출입시설로서 초석의 존재는 칠도하자 유적의 출입 시설로서 계단이 조성된 점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피장자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던 殯葬의 장소로 기능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순목황후 묘지명의 '以延平二年四月廿四日崩 殯于鮮卑不易山原(연평2년 4월 24일에 돌아가시니, 선비 불이산 언덕에 임시로 모셨다)'는 기록이 새삼 주목된다. 순목황후가 용두산고분에 안장되기 전에 안치된 곳인 '선비 불이산'의 위치와 관련하여 도성인 상경용천부의 부근(彭善國 2025: 51) · 발해 경내의 모처(강진원 2025: 102) · 거란의 땅이거나 요동의 변경 어딘가일 가능성(권은주 2025: 38~39) · 선비와 오환의 발상지인 선비산과 오환산 가운데 선비산(宋基豪 2025: 24)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위치가 어디이든 최종 매장지가 아닌 점은 자명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임시 안치되었던 것으로 봄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칠도하자 유적이 사망한 피장자가 최종 매장지에 안장되기 전까지 임시 안치된 장소인 殯殿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만하다. 유적의 평면 형태와 출토 유물군이 龍海古墳群 J1호와 비교되는 점, 중심시설의 규모가 길이 160㎝ · 너비 100㎝임을 염두에 둔다면 목관 1개 정도의 안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殯殿이라고 할 때, 유적 반경 5㎞ 안팎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발해고분군의 분포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13], 칠도하자 유적의 중심시설에서 葬具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殯殿의 성격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친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칠도하자 유적은 祀廟와 같은 의례적 성격의 건물지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육정산과 용두산의 의례 관련 유구와의 유사성과 출토유물군의 성격, 殯殿의 가능성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추론할 만한 문헌 기록의 존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해와 관련된 기록에는 의례를 추론해 볼 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 중 淫祀(祠)[14]에 대한 내

13) 고분(군)의 경우 지표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蛟河市 일대에 정밀지표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지표조사 결과를 두고 고분군의 부재를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칠도하자 유적 주변에서 지표 및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이 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면 유적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이에 대해 『禮記』 曲禮 下에는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이라 하여 제사 이행자의 본분에 상응하지 않은 제사를 의미한다(정서윤 2024: 150~151).

용에 새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불교를 믿지만 淫祀(祠)가 많고 여러 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사서에 따라 후속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周書』와 『北史』에서는 나무를 조각하여 부여신(하백의 딸)을 만들어 모시는 곳과 그 아들인 登高(高登)신을 모시는데, 모두 官司를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수호[15]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6세기 전반 이후 시조의 권위에 기대어 정국 쇄신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한 결과로 시조의 신성성을 왕이 직접 체득하고, 친사의 행행에 따른 제의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한 특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강진원 2021: 162~178).

한편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왕이 직접 영성 · 일 · 가한 · 기자신을 섬기며 제사 지내는 모습[16]이 확인된다. 이는 7세기 이후 새로이 나타난 현상으로 종교적 권위를 통해 여러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고구려 왕과, 그 구심력으로 어려움을 무마시키려는 귀족 세력의 이해가 합치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강진원 2021: 94~107).

이상과 같이 고구려 중앙에서 음사를 주관해 왔던 것으로 봄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그러한 현상이 고구려의 도성과 그 주변의 중앙 지역에만 관찰되는 현상인지, 고구려의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는지는 기록 자체만으로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료로 遼東城 경내에 존재한 朱蒙祠의 존재[17]가 주목된다. 갑옷과 창을 神物로 제사 지내던 요동성을 고구려가 장악한 이후 고구려인이 유입되며 주몽 신앙이 퍼지고, 어느 시기에 그 전 시기부터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믿어지던 신물과 주몽을 연관지어 숭배케 되었던 것으로 요동성 지역과 주민의 고구려화를 의미한다(노태돈 1999: 366).

---

15)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 上 高麗, "敬信佛法 尤好淫祀. 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登高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高麗, "信佛法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 朱蒙云".

16) 『舊唐書』 卷一百九十九 上 列傳 第一百四十九 上 東夷 高麗, "其俗多淫祀, 事靈星神, 日神, 可汗神, 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伍 東夷 高麗, "俗多淫祠 祀靈星及日, 箕子, 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隧, 每十月 王皆自祭."

17)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伍 東夷 高麗, "(貞觀)十九年…(遼東)城有朱蒙祠, 祠有鎖甲銛矛, 妄言前燕世天所降 方圍急, 飾美女以媚神, 誣言朱蒙悅, 城必完."
『册府元龜』 卷第三百六十九 將帥部三十 攻取第二 李勣, "高麗大城皆立朱蒙廟 蓋基先祖. 聞兵將至, 粉飾美女 進朱蒙爲婦, 日搥牛以祭之 夷巫鼓舞 云朱蒙大悅 城必克全"

이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주몽에게 제사지내던 사당이 고구려의 지방인 요동성 내에 존재했다는 점이며, 『册府元龜』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 지방 거점의 大城들에 어떠한 형태로든 朱蒙祠의 존재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원칙적으로 유교적 예제와 맞지 않으나 주몽의 권위를 통하여 지역 지배를 공고의 하려는 의도(강진원 2021: 264~266)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념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왕이 제사를 주관하며 관사를 설치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관리된 중앙과는 달리 지방 거점 지역에 조성된 주몽사의 관리와 제사 주관은 지방의 褥薩이 중앙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한편 고려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宣和奉使高麗圖經』[18]에 묘사된 東神祠는 정전에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 만든 여인 형태의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19]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고구려의 朱蒙祠에서 고려의 東神祠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깎아 만든 神像이 안치된 공간의 존재는 주목할만하다.

현재로서는 발해 자체의 사실을 전하는 문헌 기록상에는 祀廟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흐름상 고구려와 고려에서 祀廟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존재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20]

칠도하자 유적이 祀廟로 기능하였다면 길이 160㎝ · 너비 100㎝의 협소한 반지하상의 중심시설 내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의 대상이 모셔지고, 그 입구의 좌우로 높이 1.2m 가량의 石柱가 장식되며 외곽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의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

[표 2] 칠도하자 유적과 비교 유구의 규모 비교

유구	기단부 규모(㎝)	
	길이	너비
교하 칠도하자	740	740
六頂山 Ⅰ-ST11	740	750
龍海古墳群 J1	820	800
경주 동산리 산47-1	530	560
상주 청하리	600	570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id/cnkd)

1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十七 祠宇 東神祠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帝幕蔽之, 不令人見神像. 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 舊例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20)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해 의례 유적의 존재 여부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 유적과의 비교와 동시기 당,신라의 의례 관련 유적들과 상호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발해 유적의 특수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추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동과 정신에 관련된 '行業淨神…'의 비석의 출토 정황과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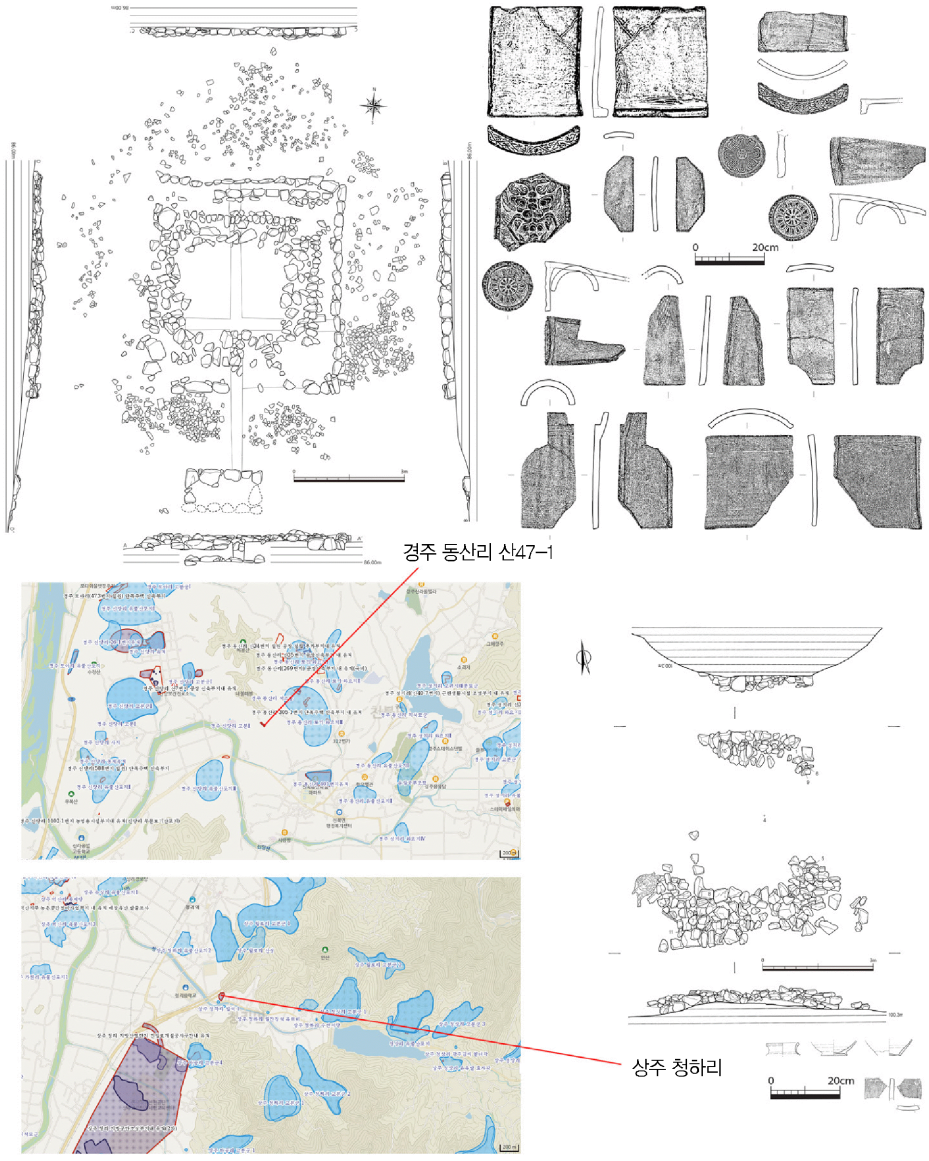
다만 칠도하자 유적이 의례 대상을 안치한 의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발해 유적에서는 이와 비교할만한 사례들이 쉬이 찾아지지는 않는다. 반면 동시기 통일신라의 유적에서는 이에 견주어 볼 만한 사례들이 확인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유적으로 서쪽으로 형산강이 흐른다. 반경 5㎞ 이내에는 신당리고분군과 성지리고분군 등이 인접하다. 구릉 정상부 아래의 비교적 완만한 남사면 구릉 정상부의 기반층을 일부 절토하고 주변을 정지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길이 5.3m · 너비 5.6m의 방형기단을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면에 배례석이 별도로 부가되어 있다. 유물은 기단석열을 따라 암막새 · 수막새 · 귀면와 · 암키와 · 수키와 등 각종 와전류가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대체로 9세기초(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로 비정된다.

상주 청하리 유적은 서쪽으로 병성천이 흐르며 반경 5㎞ 이내에 마공리 · 청리 고분군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의 기반층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방형기단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동 · 서측 석렬이 일부 유실되어 평면 형태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잔존 규모는 길이 6m · 너비 5.7m 정도이다. 유물은 대부분 파편의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기의 호편과 대부완편, 중판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8~9세기 무렵 유적이 운용(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듯 평면 回子形의 방형 건물지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점은 칠도하자 유적과 입지나 유구의 형태 면에서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 상주 청하리 유적은 고분과 관련된 의례용 건물의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귀족들과 같은 유력 혈족의 家廟로 추정(차순철 · 박영효 2022)되기도 한다.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을 발해 유적과 직접 결부시켜 이해하는 데 나름의 한계는 있으나 구릉 정상부에 평면 回子形의 건물지가 단독 조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와 관련된 기능을 하였다는 점은 칠도하자를 비롯한 발해의 의례 관련 유적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참고자료로 비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고구려 말기 淫祀 · 朱蒙祠와 관련된 기록들과 고려 東神祠의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발해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유적으로 敦化 六頂山 I-ST11, 龍頭山 龍海



[도면 10] 통일신라 祀廟 유적의 사례 (유적분포현황: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 참조)

古墳群 J1과 더불어 蛟河 七道河子 유적은 발해 의례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새로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어떠하든 상경용천부에서 부여부로 향하는 거란도 노선상에 위치(윤재운 2026: 80~83)한 의례공간으로서의 칠도하자 유적에는 사람과 숭배 대상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종교전문가(사제)와 비-인간 요소를 신성한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신성의 경관, 인간의 봉헌을 물질화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질문화로서의 의례용 용품과 신화적 이야기와 의례가 공존(이성주 2023: 9)했을 것이다. 특히 칠도하자 유적을 사원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 종교의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구조를 통해 얽혀 있는 포괄적 양식의 공간으로 같은 근린집단에 살거나, 같은 농지를 경작하거나, 그 밖의 유대를 가진 가족들로 구성된 집단들의 공동체적 장소로 기능(Clifford Geertz(문옥표 譯) 1998: 213~214)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 유적이 家廟나 殯殿이라면, 七道河村 일대에 몇 그룹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할 터이나, 현재까지 발해 고분군의 분포 가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의례가 행해지던 祀廟라고 한다면, 그에 모셔졌던 대상은 누구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규명하기에는 발해 자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칠도하자 유적은 기왕의 견해에서처럼 사찰이나 고분으로 보기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오히려 유적의 입지나 유사 유구들의 비교를 통해 의례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이에 殯殿 혹은 祀廟일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한편 칠도하자 유적 반경 5㎞ 이내에 현재까지 뚜렷한 발해 유적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칠도하자 유적이 명확하게 殯殿인지 祀廟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나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유적의 입지와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미루어 어떠한 형태로든 의례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문제들은 향후 증대되는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Ⅴ. 맺음말

中國 吉林省 蛟河市 天崗鎭 七道河子村에 위치하는 유적은 七道河村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七道河와 冰葫蘆溝河가 牤牛河로 합수하는 북안의 높게 솟은 산기슭 사이 작은 산등성이인 北大山 자락에 위치한다. 유적의 남쪽으로 5m 떨어져 松花江의 지류인 牤牛河가 흐르며, 서쪽으로 吉林市, 동쪽으로 蛟河市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보고자는 건축부재 등이 발해 유물에 근사하므로 칠도하자촌 유적을 사찰 등의 건축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경용천부에서 遼의 임황도성으로 향하는 거란

도 상에 유적이 위치하므로 역참 혹은 모종의 종교적 성격의 건축유적으로 보거나 고분으로 보는 등 유적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칠도하자 유적의 조사 내용 자체를 재검토하여 유구의 구조와 특질을 살피기에 앞서 유적의 성격과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굳이 중심시설[天井] · 기단부[地面鋪石] · 초석[柱础石] · 계단[級石] · 지반보강시설[護坡石]로 환치하여 살펴보았다.

유물은 와당 · 평기와 · 치미편 등의 기와류와 토기, 풍탁 등 비교적 다양한 유물들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암막새는 단부에 사선 방향의 각목문이 앞뒤로 부가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대롱(구멍)문 · 사엽문 등의 도안이 시문되거나 지두문이 압인되어 있다. 수막새는 역심엽협의 연판(수대)문 · 변형연문 · 권운유정문 · 연뢰문 등이 확인된다. 선행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암막새와 수막새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비정된다. 토기는 황갈색의 杯로 30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기단부 북쪽과 북동쪽 모서리에 3개 군으로 군집을 이룬 상태로 개별 개체가 직치되어 있거나 몇 개체가 겹쳐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한편 莊嚴具이자 불교의 梵音具인 풍탁과 '行業淨神…'名 碑片은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으로 보기에는 주체부의 규모가 소형인 점에서 확실하게 고분으로 보는 데 주저하게 된다. 또한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기단의 앞으로 7단의 계단이 조성된 점에서도 비교되는 고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칠도하자 유적이 고분이라 한다면, 그 주변으로 중 · 소형의 고분이 밀집되어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거나, 능선을 달리하여 일정 규모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유적 반경 5㎞ 내에 발해 고분군으로 특정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사찰 등의 종교시설로 보는 견해인데, 평면 回子形이라는 데서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팔련성과 상경성 일대의 사찰지에서 보듯 중앙의 主佛像이 봉안되는 공간은 칠도하자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일반 사찰지의 중앙이 높게 조성된 데 반해 칠도하자 유적은 기반층을 굴착하고 반지하식의 형태로 조성되었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칠도하자 유적이 금당지와 같은 사찰로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결국 칠도하자 유적을 고분이나 사찰로 명료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광의의 관점에서 의례와 관련된 유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六頂山 I-ST11, 龍海古墳群 J1이 형태와 구조 면에서 칠도하자 유적과 근사한 모습을 띤다. 그렇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의례와 관련된 공간이거나 피장자의 시신을 임시

로 안치하던 殯葬의 장소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殯殿이라면 七道河村 일대에 몇 그룹의 고분군이 존재해야 할 터이나, 현재까지 발해 고분군의 분포 가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의 의례 관련 기록들을 염두에 둔다면 칠도하자 유적은 반지하상의 중심시설 내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의례의 대상이 모셔지고, 입구의 좌우로 높이 1.2m 가량의 石柱가 장식되며 외곽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의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祀廟라면 그에 모셔졌던 대상은 누구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규명하기에는 발해 자체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는 칠도하자 유적의 성격을 의례와 관련된 건축물로 殯葬의 장소 혹은 祀廟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친다. 이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향후 증대되는 발굴조사 자료의 증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발해 의례의 고고학적 연구를 화두로 여기며 이를 장기 지속적인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6. 8. 26 | **심사완료일** 2026. 9. 20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周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册府元龜』 (中華書局 標點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id/cnkd)

浙江大学图书馆 古籍碑帖研究与保护中心 中國歷代墓志數據庫(http://csid.zju.edu.cn/tomb/stone)

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_____, 2025, 「순목황후 묘지명」과 9세기 초 발해의 풍경」, 『한국고대사탐구』5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1, 『尙州 遠墻里 · 靑下里 遺蹟』.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硏究」, 『한국고대사탐구』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권은주, 2025,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東北亞歷史論叢』90, 동북아역사재단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박유정, 2025,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의 사례와 보고서의 '묘상건축'의 인식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90호, 동북아역사재단.

方學鳳(林相份 譯), 1998, 『渤海의 佛敎遺蹟과 遺物』, 書景文化社.

付慶滿 外(방학봉 역), 1993, 「발해국의 서울 상경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발해사연구』3, 연변대학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미미, 2021, 「한반도 출토 풍탁의 특징과 전개양상」, 『고고광장』제29호, 부산고고학연구회.

宋基豪, 2025, 「龍頭山 古墳群 발굴보고서의 검토」, 『震檀學報』125, 震檀學會.

양은경, 2010, 「渤海 上京城 佛敎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 『東北亞歷史論叢』27, 동북아역사재단.

연변박물관, 1993,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3, 연변대학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재운, 2026, 『발해로드-당,거란,신라,일본으로 가는 길』, 평사리.

이성주, 2023, 「종교와 의례의 고고학」, 『종교와 의례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2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정동귀, 2015, 「발해 암막새에 대한 고찰」, 『高句麗渤海硏究』第52輯, 高句麗渤海學會.

정서윤, 2024, 「고려시대 '泛祀'의 용례와 관념 재검토」, 『韓國史學史學報』50, 韓國史學史學會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21, 『발해 고고학』,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6, 진인진.

차순철 · 박영효, 2022, 「통일신라시대 家廟 검토」, 『한국고대사탐구』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崔正凡, 2022, 「渤海 年代決定資料와 曆年代」, 『한국상고사학보』제118호,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25, 「용두산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과 능원」, 『東北亞歷史論叢』90, 동북아역사재단.

Clifford Geertz(문옥표 譯), 1998, 『문화의 해석』, 까치.

홍보식, 2016,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생산과 공급 시론」, 『한국고대사탐구』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吉林大學邊疆考古硏究中心 外, 2017, 「吉林和龍"河南屯古城"復查簡報」, 『文物』12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1999, 「吉林汪淸縣紅云渤海建築遺址的發掘」, 『考古』6期.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頂山渤海墓葬』,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和龍縣文物志』.

_____, 1987, 『蛟河縣文物志』.

吉林市地方志編輯委員會, 1994, 『吉林省志 文物志』, 吉林文史出版社

吉林市博物館, 1993,「吉林省蛟河市七道河村渤海建築遺址清理簡報」,『考古』2期.
宋玉彬, 2023,『渤海瓦當研究』, 文物出版社.
王志剛, 2014,「"冢上作屋"的考古學詮釋」,『考古』6期.
魏存成, 2008,『渤海考古』, 文物出版社.
_____, 2024,「黑龍江省海林三道中學渤海墓葬發掘記」,『邊疆考古研究』35, 科學出版社.
鄭永振, 1983,「和龍縣龍海古迹調查」,『黑龍江文物叢刊』2期
彭善國, 2010,「蛟河七道河村渤海遺址屬性辨析」,『東北史地』3期.
_____, 2025,「龍頭山渤海王室貴族墓地札記」,『地域文化研究』2025 · 06.
何明, 1985,「吉林和龍高産渤海寺廟址」,『北方文物』4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a,『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_____, 2009b,『寧安虹鱒魚場』, 文物出版社.
_____, 2012,「黑龍江省海林市山嘴子渤海墓葬」,『北方文物』1期.

東亞考古學會, 1939,『東京城』,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伍册.
田村晃一, 2005,「渤海上京龍泉府址の考古學的檢討」,『東アジアの都城と渤海』, 財團法人東洋文庫.
齋藤優, 1978,『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07

A Re-evaluation of the Bohai Qidaohezi Site in Jiaohe City, Jilin Province

Choi, Jung-Bum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Team Leader, Hanbit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site, situated in Qidaohezi Village, Tiangang Town, Jiaohe City, Jilin Province, is located independently at the foot of Mount Beidai on the northern bank of the Wangyou River. To date, scholarly consensus remains divided regarding the nature of the site, with hypotheses ranging from a post station and a Buddhist temple site to a burial complex. Accounting for these competing views, this study presents a rigorous re-examination of the site's structural layout and recovered artifact assemblage based on the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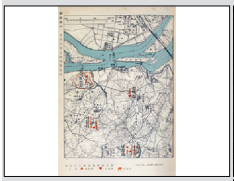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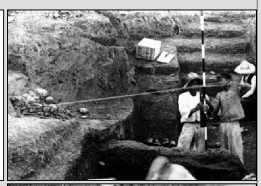
The structural remains consist of a building site featuring a concentric square layout (回字形), inside which a semi-subterranean stone chamber serves as the central feature. This central facility is bounded by plinth stones and enclosure walls, with a staircase constructed along the natural southward slope. The artifact assemblage includes concave eave tiles, convex eave tiles, chimi fragments, stemmed cups, and bronze wind bells, dating the site broadly from the mid-8th to the early 9th century. Notably, a stele fragment bearing the Chinese inscription "行業淨神…" was recovered near the staircase.

Based on its structural and artifact typologies, the Qidaohezi site exhibits strong morphological parallels with Feature I-ST11 at the Liudingshan site in Dunhua and Tomb J1 of the Longhai Tomb Group on Mount Longtou.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itu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vered material cultur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site likely functioned as a ceremonial facility—such as a place for provisional burial rites (殯葬) or an ancestral shrine (祀廟). Drawing upon precedents from Goguryeo traditions, the possibility that it served as a royal shrine dedicated to the founder or sovereign rulers of the Balhae Kingdom warrants serious consideration.

Key words : Balhae, Site in Qidaohezi Village, Tomb, Buddhist Temple, Provisional burial rites, Ancestral Shrin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41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Excavation of the Nangnang Tombs in Pye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se of Its Findings

김 해 경 건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의 변천

Ⅲ.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위계가 적용된 발굴 전개 양상

Ⅳ.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낙랑 유구를 대하는 태도

Ⅴ. 결론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군 조사는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발굴'의 대표적 사례이다. 발굴 주체는 세키노 다다시의 초기 조사에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 고적조사과, 외부 자금이 투입된 발굴, 조선고적연구회로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다. 발굴 과정에서는 일본인이 조사와 실무를 주도하고 조선인은 주로 인부로 참여하는 위계적 분업 구조가 나타났다. 조사자들은 측량과 시굴을 통해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유구의 확인에 따라 발굴을 확대하였다. 출토 유물은 수리와 정리를 거쳐 평양부립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에 전시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관리되었다. 한편 고분의 학술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도굴과 도난도 증가하였으며, 총독부와 조사기관은 울타리 설치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에도 유구와 유물이 공공의 문화유산으로 편입되는 공공화와, 사적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유화가 병존하였다. 또한 낙랑고분군은 박물관 전시와 관광지도 · 안내서 · 대중서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면서 관람과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대상화는 낙랑에 대한 일제의 규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낙랑고분군의 발굴은 단순한 고고학적 조사를 넘어 발굴 · 보존 · 전시 · 출판 · 관광을 상호 연계하여 낙랑을 식민지적 지식과 문화유산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

주제어 : 낙랑고분군, 고적조사, 근대적 발굴, 도굴과 도난, 문화유산의 대상화

Ⅰ. 서론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발굴(發掘)'은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냄"으로 정의된다. 근래 고고학 분야의 발굴은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 복원 ·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종합정비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한국고고학사전』은 최초의 발굴조사로 1909년 평양 석암리 고분을 거론한다. 일본 연구자들이 실시한 조선고적조사는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사였다. 그렇다면 발굴은 어떠한 주체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가? 발굴된 유구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애초에 그곳에 유구가 매장되어 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발굴된 장소는 이후 어떻게 보존되었으며, 혹여 활용된 사례가 있었는가에 주목했다. 이에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 발굴의 전개 양상, 발굴 이후 발굴 유구를 대하는 태도와 발굴지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평양 낙랑고분군이다. 낙랑고분군은 1909년 석암리 조사 이후 해방 이전까지 비교적 꾸준히 발굴조사가 이어진 사례로서, 일제강점기 발굴의 제도적 체계, 현장 운영의 실제, 그리고 그 영향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한 대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발굴 유구는 전시와 책자 발간, 관광 대상지로 홍보되어 발굴 유구의 대중적 소비와도 맞닿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낙랑고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구 및 유물 자료를 토대로 낙랑문화를 해석하는 방향에서 축적되어 왔다(강현숙: 2007; 김근식: 2017; 김성한: 2024; 양은경: 2021; 이경미: 1992; 오영찬: 2008; 오택현: 2022; 윤용구: 2010; 이나경: 2021, 정인성: 2004, 2011; 조윤재: 2017; 주경미: 2015). 이 가운데 낙랑고분 벽화에 대한 연구로는 안정준(2021), 이유리(2017), 조우연(2008)이 있고, 이장(移葬) 문화에 대해서는 高久健二(2000)의 논의가, 낙랑의 지배층과 관련된 주요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호규(2009)의 연구가 있다. 한편 발굴과 관련하여 발굴 주체와 발굴 시기를 구분하고 그 성격을 검토한 연구로는 오영찬(2004, 2013)과 정인성(2006, 2011)이 주목된다. 특히 오영찬의 시대 구분은 참고할 만하나, 고적조사과와 조선고적연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3기로 설정함으로써 시기 구분의 기준이 특정 기관에 집중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출토 유구

의 유형화와 편년,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대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의 제도적 · 행정적 연계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굴 조사의 양상을 포괄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발굴 이후 유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대중화에 대한 언급은 도외시 되었다. 이처럼 발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동안 낙랑고분군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책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일제강점기 관련 서류, 그리고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관련 대중서, 당시 미디어인 신문기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신문기사는 공문에 의한 공식적 내용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 시대적 상황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표 1]에 제시한 문헌군은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조사 성과를 정리한 발굴 보고서 및 간행물로서, 출토 유구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참여자, 공정표, 발굴 수행 과정 등 현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해당 문헌에 수록된 지도, 작도 도면, 현장 사진과 같은 도상자료는 당시 발굴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표 1] 평양 낙랑고분군 발굴 보고서와 관련 문서

no	명칭	발간연도	발행처	비고
1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917년	京城: 朝鮮総督府	
2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년	京城: 朝鮮総督府	
3	『古蹟調査特別報告. 第1-2册』	1919년	京城: 朝鮮総督府	
4	『古蹟調査特別報告.第4册.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1927년	朝鮮総督府	
5	『樂浪』 樂浪 昭和 5	1930년(昭和 5年)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刀江書院	
6	『樂浪彩篋冢; 樂浪王光墓. 1-2』	1934년	朝鮮古蹟研究會	
7	『樂浪彩篋塚』	1934년(昭和 9年)	朝鮮古蹟研究會	
8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8年度)』	1934년(昭和 9年)	朝鮮古蹟研究會	
9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9年度)』	1935년(昭和 10年)	朝鮮古蹟研究會	
10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10年度)』	1936년(昭和 11年)	朝鮮古蹟研究會	
11	「古蹟調査報告. 第1册.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古蹟調査報告』	1935년	京城 : 朝鮮総督府	
12	『樂浪古蹟案內』	1928년	私立三惠學校	
13	「平壤府立圖書館要覽」	1931년	『平壤府立圖書館要覽』	
14	『陳列品繪葉書』	-	『平壤府立圖書館要覽』	

특히 유리건판 사진은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와 작업 양상을 식별하여 추출하였으며, 보고서의 서술 및 도면 정보와 대조하여 자료 간 정합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박물관 진열 목록은 발굴 유구를 어떠한 관점으로 수집하여 선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낙랑고분군에 대한 대중서의 내용 분석은 일제가 낙랑고분군을 어떻게 해석하고 홍보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수행된 '발굴'은 단순한 유물의 물리적 수습 행위가 아니라, 당시의 법령과 행정 절차, 학술적 기준에 따라 조직되고 실행된 제도적 행위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발굴은 관련 법령과 행정체계의 규정 아래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 방법, 유물의 처리와 관리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발굴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 근대 고고학의 제도와 방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실증적 접근으로 의의가 있다.

Ⅱ.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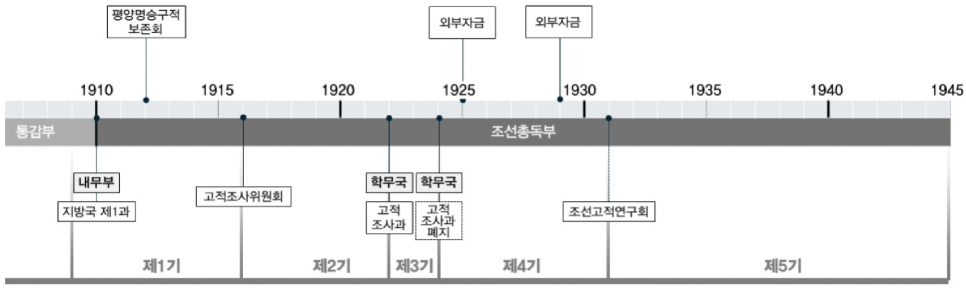
1. '근대적 발굴' 개념의 도입과 식민지 조선의 고고학

발굴은 18세기 이전,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골동품 수집(antiquarianism)의 단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지질학의 층위학(stratigraphy) 원리와 톰센(Christian J. Thomsen)의 삼시대법(Three-Age System)이 도입되면서, 발굴은 비로소 과학적 조사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Colin Renfrew & Paul Bahn 2016: 35~40). 20세기 초에는 휠러(Mortimer Wheeler)와 케니언(Kathleen Kenyon) 등에 의해 격자 발굴법(grid method) 등 정밀한 조사 기법이 정립되었고, 1949년 리비(Willard F. Libby)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radiocarbon dating) 발명은 연대 결정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적 전환점이 되었다(Brian Fagan 2004: 45~48; 이선복 2012: 210~215). 더 나아가 1960년대 이후 빈포드(Lewis R. Binford)를 중심으로 과정주의 고고학이 대두하면서, 발굴은 단순한 유물 수습 행위를 넘어 고대 사회의 문화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적 과학 연구로 확장되었다(Bruce G. Trigger 2006: 394~400).

한국의 발굴 역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식민 지배의 명분을 구성하기 위해 낙랑 및 신라 고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면서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김원용 1986: 12~14)고 평가받는다. 해방 이후 1946년 경주 호우총 발굴을 계기로 비로소 한국 주체에 의한 최초의 학술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한국고고학회 2010: 23). 1970년대에는 무령왕릉과 천마총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발굴을 통해 조사 역량이 축적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개발과 함께 구제발굴(rescue excavation)이 보편화되면서 유적 조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최병현 2008: 8~10; 이선복 2012: 245~248). 2010년대에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과학적 분석 방법의 심화가 병행되면서, 현재는 보존과 연구를 위한 전문적 · 체계적 발굴 시스템이 정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문화재청 2011: 4~9). 이처럼 발굴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해방 이후의 전개에 집중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 당대의 제도적 체계와 사회 · 행정적 조건, 그리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발굴 도구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근대적 발굴'은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조사에서 허가, 예산, 인력 및 공정 편성 등 법과 행정 절차에 의해 발굴이 조직되고 집행된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발굴은 조사 설계에 따라 층위와 유구 단위를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수행되는 굴착을 전제로 한다. 현장에서는 도면 · 지도 · 사진 · 일지 등 기록을 통해 출토 위치와 상호 맥락을 보존 ·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리 · 분석 및 보고서 편찬을 통해 조사 결과가 공유되어 재검증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낙랑고분군 발굴의 전개를 발굴 주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림 1]과 같이 각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발굴 주체의 시기별 변천

2. 제1기 : 식민지 행정체계의 정비와 초기 발굴(1909~1916)

1909년 평양과 경주에서 고고학 연구자에 의해 최초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해당 조사들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 그리고 출토 유물의 일본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규명되지 않았다(정인성 2017: 18).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 고적조사사업은 탁지부 건축소에서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로 이관되었다. 이후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구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가 조사를 수행했고, 약식보고서인 『(彙報) 朝鮮遺蹟調査略報告』와 『朝鮮美術の研究 續編』 등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조사 유적 및 유구의 목록과 등급을 제시한 수준으로 학술성이 담보된 정식 발굴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사전조사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학무부 편집과가 담당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 조사라는 성격을 지녔다(早乙女雅博 1997). 현지조사는 1914년까지 매년 실시되었고, 1915년에는 보충조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추진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3).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1912년 7월 13일 민간단체로 조직된 '평양명승구적보존회'의 결성이다. 평양부윤이 회장이며, 임원 구성은 행정당국 관계자와 재류 일본인 단체 간부, 재계 인사 등 일본인이 다수이고, 조선인도 일부 포함되었다(이순자 2007: 348~350). 평양명승구적보존회는 고적의 유지와 보존을 핵심사업으로 모란대 일대의 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고적 조사, 그리고 평양의 역사와 전설에 관한 출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존치된 이 단체는 발굴 유구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평양부립박물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제2기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주도 발굴(1916~1921)

191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했다. 일반조사는 한사군 지역, 고구려시대 및 선사 유적과 유물이 대상이며, 황해도 · 평안남북도 · 경기도 · 충청도가 조사 범위였다. 당해 연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이 원칙이며, 조사 기간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였다. 특별조사는 시급히 연내 발굴조사가 요구와 박물관 진열품

수집 목적일 경우에 한해 실시되었다(이순자 2007: 45).

조선총독부는 1916년 4월 26일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고, 같은 해 7월 「보존규칙」을 발표하였다. 훈령 제29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11조)을 공포하여, 유적 · 유물의 조사 · 보존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전담기구 조직을 병행하였다. 고적조사위원회는 고적조사의 지정 · 처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존 방침 결정을 핵심 임무로 하였고, 총독부의 고적조사비 지원을 바탕으로 조사 · 보존 · 등록 · 출판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정무총감으로 하고, 위원은 총독부 관계국의 고등관과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촉탁을 두었다. 또한 총독부 고등관 가운데 간사를 임명하여 서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기 고적조사 및 사료조사에 촉탁으로 참여했던 일본내 대학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조사 인력과 사업 운영에서 일정한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4. 제3기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와 상설 행정조직의 발굴(1921~1924)

1921년 10월 11일 조선총독부 관보의 훈령에 따라 기존 종교과가 고적조사과로 개편 · 신설되었다(「동아일보」 1921.10.1). 고적조사과 업무는 박물관계 · 고적계 · 고사사(古社寺)계로 구분하였고, 발굴 업무는 고적계가 담당하였다. 고적계는 고적의 조사 · 발굴, 유물 수집, 실측을 비롯하여 고적의 보존 · 수리, 고적 등록 및 관련 사무, 고적 도서와 고적조사보고서의 편집 · 인쇄, 기타 고적 및 유물의 보존 사무를 관장하였다. 고적조사과의 사업 기획과 실제 업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가운데 「大正12年度 古蹟調査科事業計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세부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작성 시점은 1922년 말 또는 1923년 초로 추정된다(김대환 2015: 128).

1923년 고적조사과의 사업 추진 내용에서 세키노 다다시는 낙랑군 및 고구려 유적 조사를, 도리이 류조는 평안남북도 지역의 선사 조사를,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함경남도의 고려시대 성지 연구를 담당했다. 또한 본부 위원은 대구 지역의 고분 발굴을 수행하였다. 1924년에는 낙랑고분군의 지속 발굴, 석총 조사, 경주 부근 고적조사 등이 계획되었으나(「조선일보」 1924.4.22.), 같은 해 11월 고적조사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학무국에 병합되었다(「동아일보」 1924.11.15.).

5. 제4기 : 외부자금이 투입된 발굴(1925~1930)

1924년 고적조사과가 폐지 후 고적조사는 총독부 예산이 아니라 외부 자금 또는 사적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1925년 평양의 낙랑 '왕우묘'로 불린 석암리 205호분과 1929년 경주 서봉총 남분 발굴이다. 석암리 205호분 발굴 경비는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 후작이 동경제국대학에 제공한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조사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가 주관하였다. 이 발굴은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틀어 조선총독부 또는 총독부 외곽 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가 아닌 외부 기관이 주도한 사례이다.

외부 자금에 의한 발굴 허가와 단기간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총독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식민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법령 및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1963년에 발간한 책자에서는 석암리 205호분 발굴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수사관 신분이었으나, 자신 이력서에서 '왕우묘' 발굴에 참가하였다고 명시했다(藤田亮策 1963: 696). 해당 발굴의 추진과정에는 은사인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요청이 작용했다(김대환 2016: 121).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경제대 문학부가 담당했음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1926년에는 대동강 남부 일대에 분포한 낙랑고분군의 현황이 지도화되었다.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와 노모리 켄(野守建)은 리(里) 단위로 고분의 수와 종류 등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각 고분에 세부 번호를 부여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1: 176). 이때 부여된 번호 체계는 이후 조사 · 연구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6. 제5기 : 조선고적연구회와 민관 복합 발굴 체제(1931~1945)

1930년대에 들어 조선총독부의 재정 긴축정책으로 고적조사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구로이타 가쓰미는 재벌과 귀족층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1931년 8월 경주와 평양에 '조선고적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 사무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내에 두었고, 사업운영은 찬조하는 유지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했다. 조선고적연구

회는 조선총독부의 기능을 사실상 대행하며 조선고적조사사업을 수행했다. 한편 조선고적연구회 규칙 제10조는 "사업 시행에 채집된 유물은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할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물의 처분 권한을 연구회 내부 의결에 부여함으로써 유구 · 유물의 일본 반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대한 전반적 기획과 대외적 조정은 구로이타가 담당하였고, 사업 전반의 실질적 총괄은 후지타 료사쿠가 수행하였다(오영찬 2011: 228). 또한 1931년 이후에는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실무 담당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해방 이전까지 고적조사사업의 대부분은 조선고적연구회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위계가 적용된 발굴 전개 양상

1. 발굴 주체의 변천에 따른 발굴팀 구성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1]의 구분 기준에서 발굴은 제1기 세키노 다다시, 제2기 고적조사위원회, 제3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제4기 외부 자금,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해 진행되었다. 다만 제1기는 아직 발굴팀이 조직적으로 편성 · 운영되었다기보다 고건축 중심의 조사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일부 핵심 인물이 이후 시기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본 장에서는 제2기와 제5기의 발굴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2기에 해당하는 『(大正伍年度)古蹟調査報告』에 따르면, 1차 연도 발굴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 이다. 발굴조사위원은 세키노 다다시, 구로이타 가쓰미, 이마니시 류(今西龍),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등 4명과 보조 인력으로 촉탁 야쓰이 세이이치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2명이었다. 제도와 사진 업무를 위해 박물관 직원 4명이 분속 동행하였고, 토목국 영선과 기수 1명과 평남도청 기수 1명이 추가로 보조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조사위원을 중심으로 4개 팀을 편성하여 팀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朝鮮總督府 1917: 15~16).

세키노 다다시 팀은 1916년 9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양 낙랑군과 고구려

[표 2] 고적조사위원회의 1916년 조사 일정(출처: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를 기준으로 작성)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10월	15	도쿄 출발		11월	11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체재	12월	6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6				12	송림총 발굴	경성 체재		7	휴지	휴지
	17	경성 도착			13	평양 이동	경성 체재		8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8	경성 체재			14	석암리 발굴	평양 도착		9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9	개성 조사			15	강연	대동강변 고분 조사		10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0	평양 도착			16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1	안학궁지 조사	이동
	21	대동강변 고분조사			17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2	평양 성벽 조사	평양 성벽 조사
	22	대동강변 고분조사			18	석암리 1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3	평양 정전 조사	평양 정전, 왜성 조사
	23	대동강변 고분조사			19	석암리 6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4	경성 도착	용강군 온정 이동
	24	정백리고분 3기 실측			20	석암리 6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5	예천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5	정백리 발굴 착수			21	창광산 정전 조사	창광산 정전 조사		16	순흥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6	왕평총 발굴			22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7	부석사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7	왕평총 발굴			23	발굴품 정리	대동강변 고분 조사		18	소수서원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8	왕평총 발굴			24	발굴품 정리	고와편 분류		19	예천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9	전자총 · 송림총 사굴			25	발굴품 정리	고와편 분류		20	예천 출발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30	발굴 순시			26	휴지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1	진남포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11월	1	파괴총 관찰			27	숙천 이동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2	용원면 갑총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	정백리 발굴			28	북창면 송계동 고분조사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3	용강군 용월면 고분조사	용강군 용월면 고분 조사
	3	송림총 목과 관찰			29	평양 도착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4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4	정백리 을총 발굴			30	장수원 이동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5	낙랑고분 보고서 작성	약보고서 작성
	5	정백리 을총 발굴			31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6	평양 도착	평양 도착
	6	휴지		12월	1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7	주궁 도착	주궁 도착
	7	정백리 갑총 발굴	도쿄 출발		2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8	경성도착	경성 도착
	8	보산진 조사			3	휴지	휴지		29	총독부 박물관	총독부 박물관
	9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도착		4	대성산성 조사	대성산성 조사		30	총독부 박물관	총독부 박물관
	10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체재		5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유적 · 유물 조사를 수행했다. 해당지역 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다. 낙랑고분 발굴은 정백리와 석암리 고분 10기였으며, 발굴조사는 약 한 달 내에 종료될 정도로 단기간에 수행되었다. 특히 석암리 9호분에서는 황금제띠고리 등 주요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조사 성과의 대표사례였다. [표 2]를 보면 이때 발굴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유적을 조사하는 순회형 조사 방식이였고, 이는 유적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유적을 층적으로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차 연도 조사는 1917년 5월 7일에 개시되어 1918년 1월 14일에 종료되었다. 조사위원은 구로이타 가쓰미, 세키노 다다시, 이마니시 류, 도리이 류조, 야쓰이 세이이와 같은 5인이며, 측량 · 제도 · 촬영 업무를 위해 박물관 직원 4명, 토목국 직원 1명, 임시 고용인 1명이 동행하였다. 또한 통역을 담당하는 중추원 소속 직원 2명이 포함되었다. 1차 연도와 비교할 때 조사위원의 구성은 대체로 동일하나, 현장 운영과 기록 등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이 확충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조사는 조사위원이 팀장을 맡아 담당 지역과 대상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구로이타 가쓰미와 이마니시 류는 가야 유적을, 도리이 류조는 경상도 지역의 석기시대 유적을, 야쓰이 세이이치는 한사군 및 백제 유적을, 세키노 다다시는 고구려 유적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1918년에는 발굴조사원을 증원하여 조사원 6명을 편성하고, 각 조사원에게 측량 · 제도 · 촬영 등을 담당할 보조 인력 2명씩을 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도제국대학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를 가야지역 발굴에, 동경제국대학의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는 경주 일대 발굴 조사에 참여했다.

제5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이후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외곽 조직인 조선고적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낙랑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가 소화 6년(1931)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는 발굴의 추진과정과 조사 체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사는 조선고적연구회 평양연구소가 수행하였고, 한(漢) 낙랑군 시기 유적 조사는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았다. 발굴 대상지는 [그림 2]와 [표 3]처럼 석암리 255 · 257호분, 정백리 4호분, 남정리 53호분, 도제리 20호분, 토성리 일대이다. 조사 계획은 1935년 6월부터 수립 · 추진되었으며, 조사에는 조선총독부 소속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무촉탁 노모리 겐(野守健),

[표 3] 1935년 발굴 공정표(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를 기반으로 작성)

명칭	구조	조사담당자							9월	10월
		小場	榧本	澤	田窪	梅原	駒井	野守		
석암리 255호분	전곽	■	■	■					■	■
석암리 257호분	목곽	■	■	■					■	■
정백리 4호분	목곽	■	■	■	■				■	■
남정리 53호분	전곽				■	■			■	■
도제리 20호분	전곽				■	■			■	■
토성지					■		■	■	■	■

사와 순이치(澤俊一), 가야모토 가메지로(榧本龜次郎)와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부수(副手)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 동방문화학원 동경연구소 조수 타키 료이치(瀧遼一), 조선고적연구회 촉탁 다쿠보 신고(田窪眞吳), 그리고 고고학자 우메하라 스에지가 합류했다. 조사단은 평양 소재 조선곡산회사 사택을 숙소로 제공받았으며, 조사원들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집결하였다. 발굴은 9월 1일에 개시되어 약 2개월간 진행된 뒤 11월 상순에 종료되었다.

936년 조사 조직은 1935년 편제와 대체로 동일하다. 조사 운영은 후지타 료사쿠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며, 오바 쓰네키치가 조사 주임으로서 조사 전반을 총괄·집행하였다. 또한 오바와 우메하라 스에지를 중심으로 한 인원들이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하라다 요시토가 착수하여 중요한 성과를 거둔 토성지 발굴조



a: 1935년 발굴 위치도 | b: 석암리 255호분 전경 | c: 석암리 257호분 전경 | d: 정백리 4호분 전경 | e: 토성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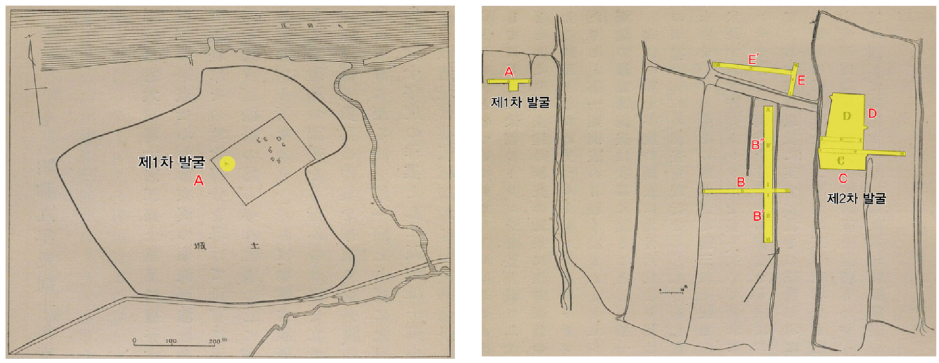
[그림 2] 1935년 발굴 조사 장소(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사도 지속되었다. 오바 쓰네키치와 우메하라 스에지는 전곽분(塼槨墳) 조사팀과 목곽분(木槨墳) 조사팀을 편성하는 한편, 별도로 토성 조사반을 조직하여 조사 대상을 병행하여 분담하였다. 하라다 요시토는 공무상의 사정으로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시찰 업무를 담당했다. 실무 운영은 오바 쓰네키치가 총괄하는 체계에서 고마이 가즈치카, 다쿠보 신고, 노모리 겐, 타키 료이치 등이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일정 수준의 협력 체계가 가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그림 2a]에서처럼 각 조사 지점이 비교적 인접한 거리에 분포하여 상호 협업이 가능한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2. 낙랑고분군 토성리 발굴 현장으로 본 발굴 과정

낙랑토성의 발굴 허가 후 측량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발굴을 전개했다. 『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의 내용에서 해당 발굴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했다.

제1차 발굴은 1935년 4월 9일에 착수하였다. 조사단은 우선 구암(狗巖) 남측 관유지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지점은 지표면에서 약 10cm만 굴착해도 암반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굴을 중지하였다. 이후 남측 고분 및 서측 고분 일대를 시굴(試掘)한 결과, 조사 대상 구역을 고분과 밭고랑 일대로 확정하였다. 조사단은 먼저 북부에서 지세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길이 20m의 트렌치를 굴착하고, 이를 임시로 A트렌치로 명명하였다. 이어 4월 13일부터는 조사 지점을 A트렌치 동측의 묘지로 이동하여, 동측 경사면의 밭을 선정한 뒤 A트렌치와 거의 동



a: 제1차 발굴 위치　　b: 제2차 발굴 위치

[그림 3] 토성리 발굴(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일한 방향으로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해당 트렌치는 서측부터 2m 간격으로 구획을 나누어 조성되었으며, B트렌치로 칭하였다. B트렌치에서 규칙적으로 석재를 깔아 겹쳐 놓은 흔적이 확인되자, 조사단은 해당 구역의 폭을 4m로 확장하고 B트렌치에서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를 연장하였다. 이 연장 구간은 남측을 B′, 북측을 B″로 구분하였다. 이어 4월 20일부터는 B′-B″ 트렌치의 동측에 C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C트렌치는 동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폭 2m, 길이 40m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묘광(墓壙)이 확인되었다. 또한 C트렌치 북측에는 이에 평행하도록 폭 2m의 트렌치를 추가로 굴착하여 길이 20m에 이르게 한 후 D트렌치로 명명하였다. 조사단은 묘광이 확인된 밭 구역에 대해 전면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트렌치와 D트렌치 사이에 남아 있던 미굴착 구역을 연결하여 확장했다. 다만 제1기 조사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밭의 파종 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일대의 정밀조사는 제2기로 이월하고 1차 발굴을 종료했다.

제2차 발굴조사는 1935년 9월 6일에 재개되었다. 조사단은 전회에 중지했던 중앙 묘광 소재 밭의 조사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해당 밭의 농산물 수확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묘지 동북부에서 시굴을 실시했다. 그 결과 B′-B″ 트렌치와 평행하게 폭 2m · 길이 약 16m의 트렌치를 굴착하고, 여기에 직각으로 폭 2m · 길이 36m의 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각각 E 및 E′ 트렌치로 명명하였다. 또한 9월 13일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묘광이 확인되는 밭으로 조사 지점을 이동하였다. 이때 C트렌치 남변과 연결되는 밭에는 폭 8m · 길이 20m 규모의 구역을, D트렌치 북변에 접한 밭에는 20m 사방 구역을 각각 구획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3b).

공정표를 보면 발굴 당시 북서쪽 고분은 전년도 도굴로 인해 전곽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완형이라는 전제 아래 발굴을 개시하였다. 9월 4일 외형 실측을 완료한 뒤 5일부터 중앙부 굴착에 착수하였으나, 약 4m 깊이에 이를 때까지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아 한때 목곽묘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9월 8일에는 발굴갱 남서 모서리에서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분곽 일부가 확인되었고, 남측에 연도(羨道)를 추정하여 18일까지 하부 토사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인근에서 완형의 측실 천정 외면이 노출되면서, 당초 추정과 상이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때 곽(槨)은 동서를 주축으로 하는 서향 구조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단은 발굴갱의 확장을 결정하였다. 토사 제거를 지속한 결과 20일에는 양실 천정 부분의 외면이 확인되었다. 전실은 천정이 유실된 상태였고, 그 틈으로 유입된 토사가 양실 내부를 채우고 있으며, 후실은 토압으로 붕

괴된 상태였다.

이후 상반부 외형을 실측한 뒤 주변 굴착 범위를 확대하면서 토사를 제거했다. 난공사에 가까운 작업을 거쳐 10월 17일에는 봉분 정상 아래 약 9m 깊이에 위치한 곽상(槨床) 부근까지 접근하였다. 후실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이틀간 주칠(朱漆)로 칠한 곽의 잔해, 고경(古鏡) 조각 5점, 화폐류 등을 수습했다. 이어 전실로 조사 범위를 옮겼으며, 다수의 부장품을 확인하여 수습했고, 이는 약 7일이 소요되었다. 28일부터는 실측에 착수하여 30일에 이르러 작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되메우기는 11월에 다쿠보의 감독 아래 시행되었고, 토성리 발굴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발굴은 조선총독부의 허가 이후 수립된 초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성격과 보존 상태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과 굴착 범위의 확장이 수시로 결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 발굴 현장 사진으로 본 일제강점기 발굴 도구

일제강점기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발굴 대상 지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 · 구역 설정 도구, 둘째, 표토 및 퇴적층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 제거 도구, 셋째, 유구와 유물의 윤곽을 노출하고 세부를 처리하기 위한 정밀 작업 도구, 넷째, 조사 성과를 기록하고 유구 · 유물의 상태를 유지 · 관리하기 위한 기록 · 측량 · 보존 도구이



a: 정백리 127호분 b: 낙랑연구소 현장 푯말 c: 석암리 200호분 개토제 d: 정백리 4호분 트렌치 측량

e: 정백리 8호분 측량도구 f: 남정리 116호분 기중기 g: 남정리 출토 목마 복원 h: 유리건판 사진 촬영

[그림 4] 낙랑고분군 발굴 현장 도구

(a: 건판 32605, b: 건판 13083, c: 건판 30590, d: 건판 12534, e: 건판 26753, f: 건판 10169, g: 건판 26634, h:건판 10075)

다. 도구 체계의 검토는 당시 발굴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발굴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개토제는 발굴 조사의 본격화 이전에 시행되는 제의 절차로, 물리적 굴착에 앞서 토지를 관장하는 신에게 지표의 개방을 고하는 의례 행위이다. 개토제 이후에는 현장 발굴을 위한 측량이 실시되었다. [그림 4d와 e]에는 평판측량에 사용되는 삼각대와 관측 대상 지점의 높이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표식인 스타프(staff)가 확인된다. 또한 발굴팀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기능을 담당하는 천막을 설치하였고, 발굴 구역의 경계는 새끼줄과 말뚝을 이용해 설정하였다. 발굴 유구가 무거울 경우에는 기중기 형식이 도입되기도 했고(그림 4f), 발굴된 유구는 실내로 옮겨져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그림 4g). 발굴 과정의 기록을 위해 유리건판 사진 촬영이 도입되었다(그림 4h).

본격적인 발굴은 지표를 굴착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표토층이나 성토층처럼 두껍고 단단한 층을 신속히 파쇄하고 흙을 이완시키기 위해 곡괭이를 사용하였으며(그림 5a), 곡괭이로 풀어낸 흙을 퍼내거나 작업면을 평탄하게 정리할 때는 삽을 활용(그림 5b)하였다. 또한 유구의 경계나 벽체 주변 등 협소한 구간에서 토사를 정교하게 제거하기 위해 호미를 사용(그림 5c)하였다. 중간에 나무 뿌리 등의 제거를 위해 손도끼가 동원되기도 한다. 한편,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발굴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대나무 바구니나 지게 등을 이용하였다. 남정리 116호분의 경우 내부에 물이 고여 있어 배수기가 도입되기도 했다(그림 5f).



a: 정백리 4호분의 곡괭이 b: 석암리 255호분의 삽 c: 낙랑토성의 호미 d: 석암리 20호의 토사 제거

e: 도제리 50호의 지게 활용 f: 남정리 116호분의 배수 g: 정백리 17호분의 측량 h: 정백리 17호분의 측량

[그림 5] 발굴현장의 도구

(a: 건판 32606, b: 건판 12512, c: 건판 12327, d: 건판 19544, e: 건판 12475, f: 건판 10088, g: 건판 33069, h: 건판 32994)

땅을 굴착한 후에도 유구를 정밀하게 실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발굴 현장에서는 방안을 설정하여 유구의 위치와 형태를 기록하고, 줄자 · 연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으로 실측하였다. [그림 5h]는 '+'자로 구획한 방안사 위에 사람이 실측하기 위하여 구부린 모습이며, 왼쪽에는 실측할 때 쓰이는 줄자가 보인다. [그림 5g]는 측량 레벨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일정 값에 맞게 방안사의 높이를 조절하며, 이때 함척으로 폴대를 사용했다.

이어 본격적인 발굴에서는 토양에 묻은 유구 표면과 미세한 토사를 제거하여 출토 상황을 최대한 손상 없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붓, 딱딱하게 굳은 흙을 미세하게 쪼개거나, 유구와 붙어 있는 덩어리 토양을 조금씩 분리할 때 사용한 목제 스틱, 유구 · 유물의 길이, 두께, 간격을 계측하여 평면도 · 단면도와 대조하기 위한 줄자 · 접이자 · 캘리퍼스와 도구 이외에도 유구물세척용 물그릇, 유구을 담기 위한 상자 등이 있다(그림 6 참조).



a: 정백리 127호분 발굴 도구　　b: 정백리 219호분 발굴 도구

[그림 6] 발굴 현장의 발굴 도구(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일제강점기 발굴과 관련된 유리건판 사진은 발굴 현장에 참여한 인물의 복장과 소지 도구를 통해 당시의 역할 분담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양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측량 및 조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갖춘 모습인 반면, 조선인 인부들은 저고리와 바지 차림으로 삽 · 곡괭이 · 지게 등 굴착과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발굴 현장에서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굴착과 운반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복장과 도구의 차이가 인물의 위치 및 행동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리건판 사

진은 발굴 현장의 분업 구조와 참여 주체 간 역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는 당시 고고학적 조사가 전문적인 조사 체계와 실제적 발굴 노동력의 분리가 있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일본인이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Ⅳ.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낙랑 유구를 대하는 태도

1. 발굴 후 유물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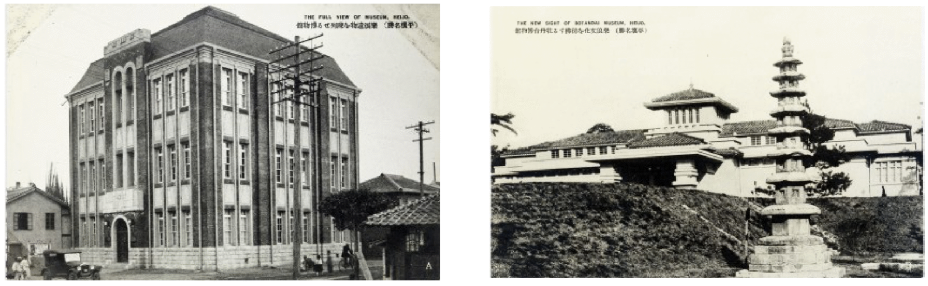
발굴 이후에는 유물과 유구의 보존 처리 과정이 진행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기와 자기류는 현장에서 붓으로 세척한 뒤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소장 및 전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유구의 경우에는 현장 보존 또는 별도의 보존 처리가 요구되었다. 발간된 보고서에는 유구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현장 존치, 일정 수준의 보존 조치를 전제로 한 존치, 그리고 인골 처리와 관련된 보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32년 총독부박물관 촉탁 오바 쓰네키치가 발굴한 정백리 127호분에서 여성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인골은 '완전한 형태'로 경성제대 의학부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박사의 교실에 보존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인골은 젤라틴을 사용하여 고결(固結) 처리한 것으로 서술했다(「조선일보」 1932.10.29.). 1941년 『삼천리』 제13권 제11호에는 남정리 116호분(채협총)이 목곽이 거의 완전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평양 박물관 뜰 안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했다.

1935년 조사보고서를 보면 발견된 유물은 조사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평양부립박물관 내 평양연구소, 경성총독부박물관, 그리고 도쿄와 교토 등지의 연구원들이 나누어 맡아 정리 작업한 후 상세한 보고서의 공표 순서였다.

낙랑고분에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 유구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감정과 평가 절차가 뒤따랐다. 1925년 「동아일보」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유구를 감정하지 못하고, 일본 내지의 학자들이 감정을 담당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논조를 전했다(「동아일보」 1925.12.4.). 더불어 '되무덤이에서, 낙랑고분의 출토품'이라는 제목으로 낙랑 유구를 연재 형식으로 소개했다(「동아일보」 1924.12.6.). '되무덤이'는 대동강 연안의 낙랑

고분을 지칭하던 당대 용례로, 낙랑 유적을 한(漢)계 문화의 수입 혹은 중국 문화의 연장선으로 위치시키는 인식과 결부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명명 방식은 낙랑고분을 '조선의 자생적 문화'로 보기보다 외래 기원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강화하며, 동시에 출토 유구의 해석 권한이 식민지 내부가 아니라 내지 학계로 수렴되는 지식 권력의 비대칭을 드러낸다.

1924년 신문 기사를 보면 낙랑고적 조사를 통해 확보된 유구는 조선총독부박물관과 평양부청 각각 보관하였으며, 자료의 목록화를 위해 '낙랑조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24.12.4.). 낙랑고분군 발굴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일반적 공개는 1928년까지는 평양부 욱정(旭町) 도서관 3층을 임시 진열실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7a 참조). 이후 1931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재정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이에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설치 기성회'가 조직되었으며 평양명승구적보존회도 협력하였다. 기성회는 건설 작업을 구적보존회에 일임하고, 건물 완공 후에는 부립박물관으로 개관한 뒤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매일신보」 1933.8.31.). 박물관은 1932년 7월 18일 기공식을 거쳐 1933년 9월 18일 준공되었으며(그림 7), 전시 내용은 석기시대에서 금속문화 단계, 한대 낙랑군 문화의 전개, 고구려 흥왕기,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한 신라 · 고려 · 조선 문화로 구성되었다. 1937년에는 '고구려고분벽화전'과 '청일전쟁자료전'을 개최하여, 평양이 낙랑시대뿐 아니라 고구려시대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을 각인시키는 '격전지'였음을 부각시켰다(이순자 2021: 356-358).



a: 도서관 2층 평양박물관　　b: 신축된 평양부립박물관

[그림 7] 평양부립박물관의 변천(출처: 일제강점기 엽서)

2. 발굴 이전 도굴과 발굴 이후 도난

1912년 9월 세키노 다다시가 벽화고분으로 알려진 강서 3기 고분을 조사했는데, 사전조사에서 이미 발굴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早乙女雅博 1997: 62). 평양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있기 전부터 일제는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도굴꾼들에 의한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전문 학자에 의한 '합법적인' 고적 조사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문화유산은 도굴과 훼손 위험에 노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5개년 고적조사사업에서도 도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916년 조사 시기에는 당시 "낙랑고분에는 순금 보화가 무더기로 묻혀 있다."는 소문이 국내는 물론 일본인들 사이에 나돌면서 고려자기를 도굴하던 도굴꾼들이 대거 평양 일대로 몰렸다. "평양 부내에는 갑자기 낙랑열이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낙랑 명성이 천하에 떨쳐 퍼지게 되어(八田蒼明, 1934)"라는 내용처럼 발굴이 난굴로 전개되었다. 1925년 신문기사를 보면 고분도굴은 '평양에 들어온 일본인에게 알게된 조선인까지 확산'되었음을 지적했다(「동아일보」 1925.12.20.). 이에 세키노 다다시는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關野貞 1941: 256).

> **도굴로 인하여 평양 방면의 발굴이 곤란**하였다. 작년 봄(1916)에 토민들의 도굴이 시작되어 그 출토품을 호사가들이 다투어 구하는 바람에 날로 도굴이 장려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미 50~60 의 고분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우리가 작년 10월에 평양에 거할 때 이러한 출토 유물의 양이 많음과 진귀한 것을 보고 놀랐다. … **토민들의 도굴로 귀중한 유적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애석하여** 도 청, 부청 당국자에게 일층 취체(取締)를 엄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독부에 대해서는 속히 적당한 조사 방침을 취해줄 것을 진언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 낙랑고분군 도굴 보도는 빈번하게 확인된다(「경성일보」 1924.4.25.; 「경성일보」 1925.1.7.; 「동아일보」 1925.5.16.; 「경성일보」 1925.10.23.; 「조선일보」 1928.10.5.; 「조선신문」 1929.6.2.; 「조선일보」 1929.6.4.; 「조선일보」 1930.12.14.; 「조선일보」 1931.11.9.; 「조선신문」 1931.11.18.). 도굴 방지를 위해 발굴지에 기마순사를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했다는 기사도 있으며(「동아일보」 1925.6.11.), 도굴 과정에서 도굴꾼이 생매장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조선일

보」 1928.10.5.). 1936년에는 신규 발굴 낙랑고분군도 내장품이 도굴된 상태였다고 했다(「조선신문」 1936.5.23.).

1941년 『삼천리』 제13권 제11호는 대동강 남부의 낙랑고분군에 대해 "도굴당한 것도 적지 않다"고 서술하였다.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에서 낙랑고분에서는 금 · 은 · 동 제품 등 부장품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그 가운데 이미 50~60기의 고분이 도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낙랑고분군이 당시 개성 지역과 유사한 양상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도청 및 부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국이 엄중한 단속을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오히려 관직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출토품을 대중보다 앞서 확보하려 다투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발굴품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중 소실되는 사건도 있다(「동아일보」 1920.6.13.; 「동아일보」 1924.8.17.). 이처럼 낙랑고분군은 도굴 여부에 따라 '도굴분'과 '미도굴분'으로 구분할 정도로 도굴 문제가 만연했고, 이는 고분 출토 유물이 고가에 불법 거래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평양 일대에서는 고분 도굴뿐만 아니라 사찰 및 고적의 문화유산 도난 사건이 빈번했다. 1930년대 신문 기사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문화유산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1931년 용강 보림사(寶林寺)에서는 200원 상당의 고종(古鐘)이 도난당했으며(「조선일보」 1931.8.29), 이듬해인 1932년에는 강서대묘(강서세무덤)의 철책과 철문을 파괴하고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고분 내부의 벽화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안내판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조선일보」 1932.3.25.).

도난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규모도 커졌다. 1934년 6월에는 다시 보림사에서 사원 개축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작된 지 600년이 넘은 금도금 목제 입상 2기가 도난당했고(「동아일보」 1934.6.29.), 같은 해 10월에 용강군 신덕사(神德寺)는 국보적 가치를 지닌 고려시대 황금 불상(당시 7만 원 상당 평가)을 도난당했다(「조선일보」 1934.10.9.). 앞선 보림사와 목제 입상 도난 사건 모두 언제 유물이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방치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낙랑고분군을 비롯한 평양 일대의 주요 사찰과 고적들이 일상적 도굴과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자, 1937년 평양부에서는 평양명승구적보승회에 국보적 가치가 있는 사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성 통첩을 내리기도 했다(「조선일보」 1937.3.29.).

야외의 고적지에 비해 평양부립박물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1938년 8월 21일에 평양부립박물관 소

[표 4] 평양부립박물관 도난품 목록

no	유구명	소유	추정가	no	유구명	소유	추정가
1	금동웅족낙랑출토품 (金銅熊足樂浪出土品二個) 2개	총독부	500원	12	개조금구 1개	박물관	20원
2	석암리 낙랑고분 출토 태족모형 (態足模型)	박물관	20원	13	철(鐵) 대리미 1개	제강씨 (諸岡氏)	30원
3	금동이(金銅耳)쉬쉬개 한쌍	박물관	50원	14	동(銅) 대리미 1개	평남교육회	100원
4	칠갑금구(漆匣金具) 1개	박물관	70원	15	철비(鐵轡)	박물관	10원
5	금동수면(金銅獸面)	박물관	30원	16	총구(銃具) 1개	박물관	5원
6	금동괴수장품(金銅怪獸裝置品) 1개	교도씨 (橋都氏)	100원	17	금동(金銅) 귀거리	중미씨 (中尾氏)	20원
7	금동 호형(虎形) 2개	교도씨 (橋都氏)	100원	18	금동 귀거리 1개	궁천씨 (宮川氏)	20원
8	금동병(金銅鉼) 4개	낙강씨 (諾岡氏)	20원	19	금동 귀거리 1쌍	박물관	30원
9	칠갑금구(漆匣金具) 5개	교도씨 (橋都氏)	300원	20	금 귀거리 1쌍	시전씨 (柴田氏)	300원
10	개조금구(蓋蚤金具)	시전씨 (柴田氏)	50원	21	금동흠(金銅飮) 1개	박물관	25원
11	개조금구 1개	중미씨 (中尾氏)	20원	22	금동식(金銅飾) 고리 두태도(頭太刀) 1개	박물관	30원

장품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박물관 지붕의 천장 유리판을 깨고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보다는 금제품 22점만을 표적으로 훔쳐 갔다. 당시 언론과 학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범인들이 유물의 시대적 · 학술적 가치보다는 금붙이로서의 중량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을 위해 유물의 원형을 훼손할 가능성이었다(「동아일보」 1938.8.21.). 당시 도난당한 유물의 목록은 [표 4]와 같다(「매일신보」 1938.8.22.).

[표 4]에 명시된 도난품의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물품 중에는 조선총독부나 평양부립박물관, 평남교육회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소장품도 있었으나, 평양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 개인이 소유한 유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공공시설인 박물관에 일본인 거주민들의 개인 소장품이 기탁되어 전시 및 보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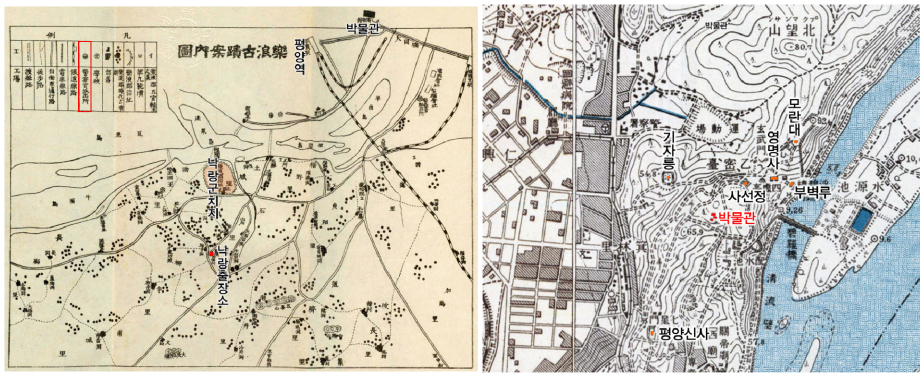
3. 도굴과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

1920년대에 이르러 낙랑고분 출토 유물의 가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 일대는 관람의 명소로 부상함과 동시에 금전적 이익을 노린 도굴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고적 관리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지역에 전승되는 미신을 활용하여 도굴을 방지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1928년에 발간된 『樂浪古蹟案內』의 '유물과 미신' 항목에는 낙랑군 치지(治址) 부근에 전해지는 세 가지 금기가 소개되어 있다. 성터나 고분의 벽돌 및 석재를 집으로 가져가 장식이나 건축 자재로 쓰면 온 가족에게 화(禍)가 미치거나 대가 끊기고, 고분이나 밭에서 나온 유물을 방 안에 들이면 악귀(惡魔)가 붙어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고분을 파헤치려 하면 벼락과 폭우가 쏟아지거나, 고분 속에서 아귀(餓鬼)가 나타나 기절하거나 미치광이가 된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는 낙랑 유적을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는 민간 신앙을 일종의 감시 및 제재 기제로 삼아, 유구를 훼손해선 안 될 공유 자원으로 인식시키려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현실적인 생계나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1923년부터 1925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한 도굴의 주범은 대부분 도덕이나 미신보다 당장의 생계가 시급했던 토막민이나 빈민층이었으며, 이들은 적발 시 징역이나 구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아가 1928년 즈음에는 평양의 일부 자산가들과 지팡이를 짚고 유적지를 유람하는 호사가들 사이에서 유물 수집 열풍이 불면서,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도굴이 성행했다.

이처럼 심리적 방어 기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보존이 불가능해지자, 일제 당국은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동군 토성면 낙랑고적 일대의 도굴이 심각해지자, 경찰 당국은 낮에는 기마순사를, 밤에는 사복 경관을 순찰에 투입하고 엄중한 처벌을 공표했다(「조선일보」 1925.4.3.). 1926년에는 고분 도굴 단속을 위해 낙랑연구소의 주도로 경관 파출소가 설치되기도 했으며(그림 8a 참조), 이 파출소는 1939년 8월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어, 1933년 8월 낙랑 발굴 고적 석표가 건립되었고, 1934년에는 고적보존회가 낙랑 토성지를 고적으로 정식 지정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34.5.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순찰만으로는 근본적인 사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유적 보호와 지역민의 생존권이 토지 소유권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충돌했기 때문



a: 경관출장소 b: 평양박물관 위치

[그림 8] 낙랑고적 안내도(a: 『樂浪古蹟案內』, b: 미국 스탠포드 도서관)

이다. 1927년 4월 10일 자 평안남도가 조선총독부에 보낸 「낙랑사적의 보존에 관한 건」(학무국 공문 제235호)에 이러한 한계가 잘 드러난다. 이 공문에서는 석암리에 파출소를 특설해 단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적 보존을 위해서는 고분 일대에서의 경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사적들이 대부분 민간 소유의 경작지에 산재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컸으며, 토성리 일대에는 일부 외국인이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이었다. 이에 당국은 영구히 보존할 핵심 구역은 국비를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경작 중인 수확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함과 동시에 지세(地稅) 등을 면제해 주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4. 공공의 박물관 전시와 유구의 사유화

오바 쓰네키치는 1916년 낙랑고분조사를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고분 발굴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석암리 20호, 52호, 194호, 200호분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칠기류는 도쿄로 이송되었다. 이후 도쿄미술학교 칠공과 교수인 롯카쿠 시스이(六角紫水)와 오바 쓰네키치의 수리 · 복원 작업을 거쳐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었다.

1928년 도서관 겸 박물관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1933년 정식 박물관 개관 이후까지 유물 기증과 구입은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문서에 기록된 개인으로부터의 낙랑 유물 수집 내역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6년 야마다 가네지로(山田金次郎)가 토성동에서 발견된 낙랑 기와 등의 기증을 비롯하여, 1927년 무카이 나

리마사(向井業昌)로부터 낙랑 동인(銅印)과 왕부인신동인(王扶印信銅印), 1930년 이케우치 도라키치(池內虎吉)로부터 동제박산로 등, 1931년과 1934년 김성도(金聖道)로부터 낙랑전과 낙랑대윤장(大尹章) 등, 1937년 아베 센이치(阿部千一)로부터 낙랑상방경 등을 구입했다는 의결서가 확인된다.

1931년에 발간된 『平壤府立圖書館要覽』을 보면 도서관과 공존했던 박물관 진열품이 확인된다. 이때 겸용 박물관이었지만 각종 유물을 수집하고 진열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고고박물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1928년 8월 10일 개관 당초에는 부내(府內)의 고미술 애호가의 수집 소장품과 평안남도교육회 및 기타 부내 여러 학교 등의 소장품을 기탁받아 진열했다. 단지 평양 일대의 출토 유물뿐만 아니라 경주 신라의 유물 등의 기증이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을 제공했다. 1929년 4월 16일에는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친왕(高松宮宣仁親王), 9월 7일에는 칸인노미야 코토히토 친왕(閑院宮載仁親王)이 관람하여 당시 평양부립박물관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 1930년 봄과 여름에는 오바 쓰네키치가 강서 고구려왕 고분벽화 모사를 완성하자, 같은 해 7월 6일 평양부립박물관 주최로 전람회를 열었는데 1,3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진열품에는 부내 우치다 로쿠오(內田錄雄)와 토미타 신지(富田晋二) 등의 기증, 경주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와 미쓰나리 쇼이치(光成勝一)로부터 신라 와당과 전(塼) 등의 기증이 있었다. 진열장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사장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가 기부했다. 당시 박물관 소장품과 기탁품은 2,065점이었으며, 관람실 진열은 680여 점으로 수시로 교체 전시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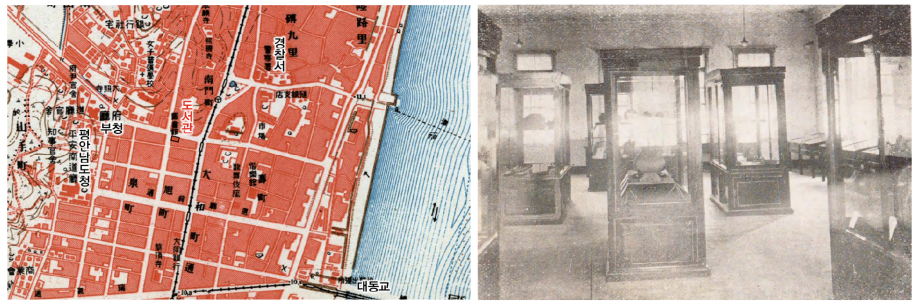
이러한 발굴과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평양부립박물관은 '낙랑 문화의 전당'을 표방하며 1933년 10월 7일 개관했다(「동아일보」 1934.5.4.). 개관 이후 박물관의 공간 구성 방식은 1935년 신문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화제가 된 전곽 고분과 목곽 고분을 나란히 복원해 두었으며, 입구 현관에는 한 쌍의 고구려 석구(石狗)를 배치했다. 내부 정면에는 경성에 거주하던 마쓰모토 요사부로(松本與三郎)가 기증한 조선 후기 '평양전도'와 비행 제6연대 사진반이 촬영한 평양 시가지 항공사진을 상하로 나란히 걸어, 관람객이 '신구(新舊) 평양'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연출했다. 좌측 방은 보온, 보습, 차광 시설을 완비한 칠기 보존실로 꾸며 왕우묘(王旰墓)와 채협총(彩篋塚) 출토품 등 칠기류를 전시 및 보관했다. 전시 기법에서도 기존의 연대순 진열 방식을 넘어 한사군(漢四郡) 관련 기본 자료들을 테마별로 진열했다. 이 과정에서 낙랑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 유물들은 파편 상태가 아

닌 복원 및 재현을 거친 상태로 전시되어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기와와 전돌 등도 다양한 종류를 전시했다. 우측에 연구실로 쓰이던 방은 벽화실로 개조하였는데, 향후 강서고분이 폐쇄될 경우 그 내부의 벽화 모사도를 진열할 계획(「조선신문」 1935.6.6.)이라고 했다.

이때 개인이 기증한 유물이 어떠한 경로로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문서상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도굴과 골동품 거래를 일삼고 발굴조사 성과를 사유화한 뒤 귀국한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의 사례(藤井和夫, 2024)로 볼 때, 평양의 낙랑 유구 역시 이와 유사한 불법적 과정을 거쳐 사유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물 수집은 일제강점기 초기 박물관의 설립과 골동상들의 활약이 맞물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요시쿠라 본노(吉倉凡農)가 1904년 간행한 『企業案內實利之朝鮮』에서 조선 진출 시 성공할 유망 업종 중 하나로 '골동상'을 꼽은 것은 당시 상황이 유추된다. 더불어 최대 서화 수집처로서 1909년 이왕가박물관의 등장 또한 유물 거래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쳤다.

평양 일대의 도굴 실태는 평양부립박물관장을 지낸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朝鮮」 제205호(1932년 6월)에 기고한 「古墳發掘漫談」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강제 병합을 전후로 일본인들이 조선의 시골 구석까지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도굴의 참상'이 빚어졌다고 회고했다. 일확천금을 노린 자들은 '금사발이 묻혀 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금닭이 묘 속에서 운다'는 전설을 좇아 고분을 금광 파듯 파헤쳤으며, 심지어 각지에 주둔하던 헌병들조차 이들과 결탁해 행동을 같이했다고 털어놓았다.

결과적으로 평양부립박물관에 소장된 낙랑 유물 중 상당수는 '도굴꾼-골동상-개인 수장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사유화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 도서관 위치(1932년 지도)　　b: 박물관 진열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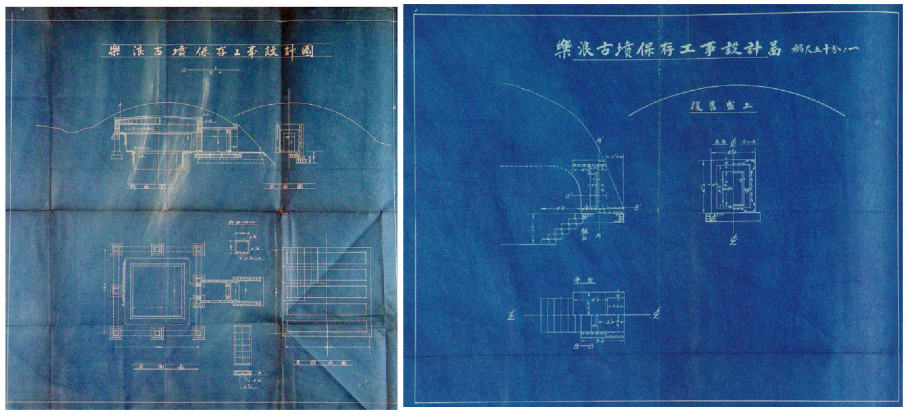
[그림 9] 평양도서관 및 박물관(a : 개인 소장, b: 『平壤府立圖書館要覽』)

즉, 박물관이 공적 전시를 명목으로 이러한 사적 소유물들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음으로써, 유물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박물관 전시로 활용하는 구조가 작동했다.

5. 관광코스로서의 대상화된 발굴 현장

낙랑고분군의 발굴 범위가 확대되고 그 성과가 당대 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면서, 발굴 현장은 단순한 학술 조사 공간을 넘어 일반 대중이 관람하는 일종의 공개 장소이자 관광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1926년 철도국이 '반도의 명승'이라는 기획 아래 각 지방의 후보지 42곳을 투표로 선정해 발표했을 때, 낙랑고분은 대표적인 명승고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동아일보」 1926.5.8.). 발굴이 한창이던 시기에 조선총독이 직접 현장을 시찰(「경성일보」 1925.11.6.)한 사실 또한, 이곳이 식민 권력의 통치 담론 속에서 일정한 정치적 · 문화적 상징성을 획득해 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발굴현장이 관광 명소로 부상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존 및 개축 공사가 수반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과 도면에 따르면, 도쿄제국대학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의 주도로 발굴된 낙랑고분에 대한 보존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926년 2월 5일에 착공하여 3월 31일에 준공된 이 공사에는 일반 공사비와 내부 전등 설비를 포함해 총 1,588원 40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당시 공사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실 상부의 조적조 지붕틀을 '콘크리트' 구조로 개축했다는 점이다. 시방서를 살펴보면 흙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통로 벽의 기초와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며, 벽체에는 원활한 배수를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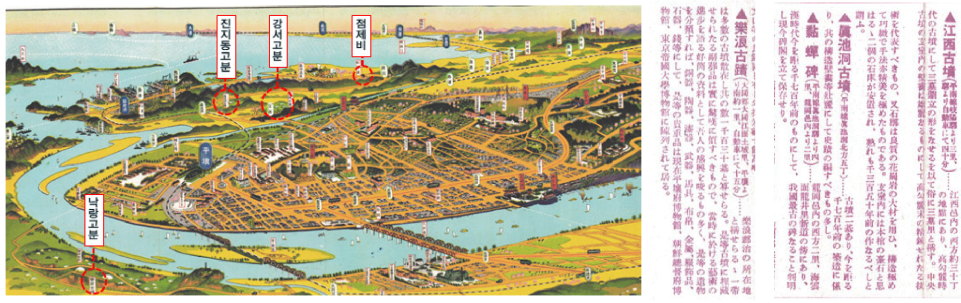
a: 1926년 낙랑고분 보존공사　　b: 1926년 낙랑고분 보존공사

[그림 10] 낙랑고적 보존공사(a: A064-004-17-001, b: A064-004-012-001)

파이프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는 벽돌 구조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전도(顚倒)를 방지하기 위한 근대적 기술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무덤 입구에는 출입문을 달고 간판을 세웠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잔디를 식재했다(그림 10). 이러한 일련의 토목 및 정비 공사는 유적의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 향후 관광의 대상지가 될 경우를 대비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각적인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목적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29년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가 제작한 관광지도를 보면 평양 외곽에 위치한 강서고분군, 낙랑고분군, 진지동 고분 등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 평양 방문자가 해당 유적을 관광 동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덧붙은 설명은 낙랑고분군의 규모인 1,130여 기와 함께 북방계 청동 단갑(短甲), 철검 등의 출토를 언급하며, 이를 발달한 제동술(製銅術)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서술한다. 또한 팔각와당을 비롯해 동경, 옥류(玉類), 칠기, 무기, 마구, 금령(金鈴), 복식품, 철기, 포백(布帛), 각종 기물 등의 출토품이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동경제국대학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안내한다. 강서고분군에 대해서는 평남선 인근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이며, '삼묘리'로 불리는 3기의 고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진지동 고분은 2기로 구성되며 약 1,700년 전 축조로 서술되어 있고, 점제비는 약 1,700년 전에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소개했다(그림 11).

이와 같은 자료는 발굴 성과가 학술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광과 홍보의 서사로 재구성되어 관광지로 대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아가 출토품이 박물관의 진열을 통해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발굴 현장 자체가 방문을 유인하는 매력 자원으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a: 1929년 평양 관광지도　　b: 발굴조사된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림 11] 관광지도에서 등장하는 낙랑 유적(출처: 개인 소장)

당시 발굴 현장은 유람코스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부내 기림리의 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태우고 낙랑고분을 구경하러 간다고 서술했다(「동아일보」 1929.10.24.).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제도화된 관광 동선 구상으로 확장된다. 대성산과 낙랑 고적을 순회하는 '유람 버스'를 부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평양부가 포기하였고, 민간 업체인 '킹택시'에게 인가되었다(「조선일보」 1937.1.14.). 이는 1930년대 평양부 차원에서 관광 사업이 기획될 정도로, 낙랑 유적지 일대가 상당한 방문 수요가 전제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평양 관광지에 대한 일부 서술은 기생 문화와 결부되어 재현되었다. 『모던일본 조선판』(1939)에 수록된 가토 다케오의 단편 「평양」은 평양을 방문한 '나'가 조선인 기생을 대동하여 낙랑유적 발굴현장을 찾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때 발굴 현장이 관광적 경험의 장소로 호출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조선은 불가사의한 곳이야, 같은 땅속에 이렇게 2천년 전의 문화가 잠들어 있고 동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무한한 미래가 묻혀 있거든."** "그렇군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발굴되는 모습이 재미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H군이 끄덕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차××의 저고리 고름을 잡아당기며, "이봐, 자네. 이 하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뭐라고요?" 더위에 헐떡이던 그녀의 가슴은 탄력있는 기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엔 무엇이 묻혀 있냐고? 그걸 발굴하는 것이 자네의 임무일세."

『삼천리』 제13권 제11호에는 매일신보 기자를 역임한 소설가인 정인택(鄭人澤)의 "낙랑고분군 기타"라는 기행문이 있다.

> **낙랑고분군의 발굴현장을 보려는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인고로 이튿날 나는 박물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약속하고 아침 일즉이 숙사를 나왔습니다.** 아직 하늘은 찌뿌드하나 엷은 햇살까지 비치는 꼴이 구진 비는 아마 개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곡(日穀) 앞에서 **「뻐스」를 내려 정백리(貞栢里)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 **새로 파헤친 새빨간 흙 자리가 발굴을 시작한 고분**인가 봅니다. 그 중간에 조출한 천막이 보입니다. … 국보급의 일품이 출토하였다하나 내가 갔을 때는 아직 발굴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이라 볼만한 것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 대정 5년 이래 소천(小泉) 평양박물관장이 주체가 되어 매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낙랑군치지(樂浪郡治址)

라는 토성을 중심으로 선형으로 축재된 고분군 총 수는 실로 **1,400 여기에 달하고, 현재까지에 발굴을 끝마친것은 겨우 100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발굴 대원들의 고심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낙랑고분군 발굴 현장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적고 있다.이때 방문자들은 근대적 토목 기술로 통제되고 연출된 발굴 현장을 직접 경관으로 체험하면서, 일제가 부여한 낙랑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었다.

평양 낙랑고분군 유구의 공간 정치와 대중적 활용 기획은 일제강점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1944년 조선총독부 내부에서 발송된「낙랑토성의 공원 조성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이 이를 방증한다. 공원화 계획은 태평양전쟁 말기의 전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고적을 대중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식민주의적 역사 인식을 일상적 경관 속에 뿌리내리려 했던 일제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6. 대중서『낙랑고적안내』의 편찬과 낙랑 유물의 대중적 소개인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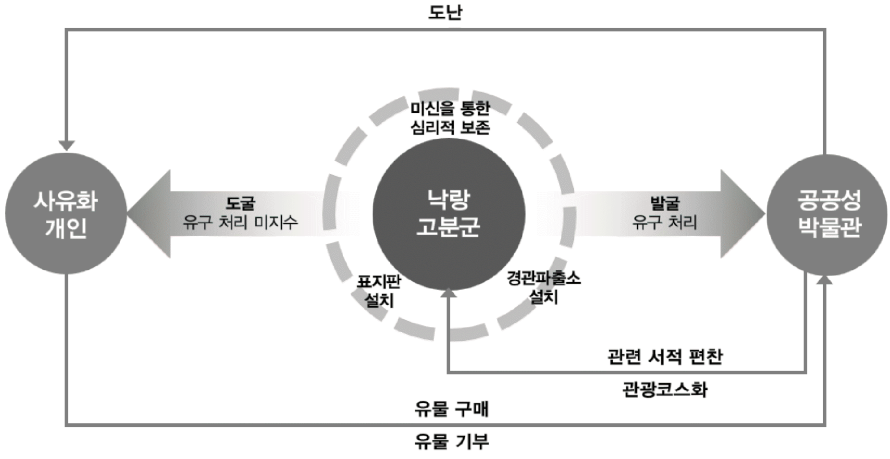
1928년에는 일반 대중과 관광객을 위한 해설서인『樂浪古蹟案內』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김성도(金聖道)가 편집 겸 발행을 맡았으며, 사립삼혜학교(私立三惠學校)를 통해 발행되었다. 책의 서문에 밝힌 편찬 동기를 살펴보면 당시 고고학적 지식의 유통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낙랑군 유적과 유물에 관해서는 관련 분야의 권위자인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도쿄제국대학 사학회(史學會)가 발간할 예정이던 1925년(대정 14년) 발굴 보고서, 평양공립고등여학교장 히로세 겐지(廣瀨憲二)의『歷史の平壤』등 다양한 전문 서적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학술 서적들은 가격이 비싸고 일반 대중이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편저자 김성도는 낙랑고분을 찾는 일반 견학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전문 자료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재편집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선사학회가 편찬한『朝鮮史講座』와 조선총독부의『樂浪郡時代の遺蹟』본문, 그리고 고분 조사 특별 보고서 중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특히 이 안내서에는 각 유적지별 유물 목록뿐만 아니라 '낙랑유물배치도' 및 '낙랑고적안내도'가 도면으로 상세하게 삽입되어 있어, 현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각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다.

대중서 발간과 더불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그림엽서첩(그림 12)으로 제작

<table>
<tr><td row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b: 평양박물관 전경</td><td>c: 채협총목곽</td><td>d: 대정14년발굴
왕우묘출토(채문칠우)</td><td>e: 대동역부근 출토
(고구려 봉황문석대)</td></tr>
<tr><td>a: 엽서 표지</td><td>
f: 본 박물관 장(동제초두)</td><td>
g:대동군 미림리 출토
(석검)</td><td>
h:교도방수씨
(橋都芳樹氏) 출진
(금동제 마면)</td><td>
I: 부전진이씨
(富田晋二氏)
출진(동종)</td></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k: 낙랑군치지토성내출토
(낙랑 예관 와당,
부전진이씨 출진)</td><td>l: 고구려 석조 불좌상
(제강영치씨
(諸岡榮治氏) 출진)</td><td>m: 금동 인면금구
(교도방수씨 출진)</td><td>n: 녹유도아
(綠釉陶鵝,
제강영치씨 출진)</td></tr>
<tr><td>j : 엽서 표지</td><td>
o: 장의자손사룡경
(長宜子孫四龍鏡,
(교도방수씨 출진))</td><td>
p: 쌍유세문경범
(雙紐細文鏡範)
맹산군봉일면출토</td><td>
q: 고구려 귀와(鬼瓦)
대동군토성리 출토
(부전진이씨 출진)</td><td>
r: 효문묘
(孝文廟) 동종
(대동역 부근 출토)</td></tr>
</table>

[그림 12] 평양부립박물관 진열품 엽서



[그림 13] 낙랑고분군의 유구를 대하는 태도

되어 홍보되고 소비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엽서에 수록된 유물 설명에는 출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유물을 전시에 제공한 기증자의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낙랑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이 대중화되는 과정 이면에, 유물을 사적으로 취득하고 향유하던 식민지 일본인들의 소유 구조가 긴밀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낙랑고분군 발굴 이후 진행된 유구에 대한 태도에 개념도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Ⅴ. 결론

일제강점기에 수행된 '발굴'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나 기술적 차원의 수행을 넘어, 당대의 법령 및 행정 절차라는 '시대적 기준' 하에 조직되고 집행하여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발굴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근대 고고학의 형성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낙랑고분군을 대상으로 발굴 과정의 전개 양상과 활용 과정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 '근대적 발굴'은 낙랑고분군 조사에서 발굴이 법령과 행정 절차에 의해 조직 · 집행된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랑고분군에 대한 발굴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발굴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위치지을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발굴의 주체는 세키노 다다시 중심의 초기 조사를 시작으로, 제2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제3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제4기 외부 자금 투입에 의한 발굴,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로 단계적으로 전환되었다. 발굴팀 구성과 운영을 제2기 고적조사위원회와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 계획 수립과 실무의 총괄은 대체로 일본인이 담당한 반면, 통역 및 현장 굴착을 수행하는 인부에는 조선인이 포함되는 위계적 분업 구조가 확인되었다.

셋째, 조사 절차는 유적 확인 및 기초 측량을 선행한 후,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구역을 재설정하고 굴착 범위를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장비는 평판측량

기 · 폴대 · 줄자 · 대나무자 등 측량 기자재를 기반으로 하였고, 현장 토층 및 제반여건에 따라 곡괭이 · 삽 · 호미 · 손도끼 등 굴착 도구를 선별적으로 병용했다. 유물의 노출 및 세척을 위해 붓과 물 등의 소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유구의 이송이나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중기 및 배수 펌프와 같은 지원 장비를 운용하였다.

넷째, 발굴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보존 처리가 이루어졌다. 고분의 경우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보수 후 개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출토 유물은 수리와 정리 과정을 거쳐 평양부립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관리 · 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

다섯째, 낙랑고분군의 학술적 ·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발굴 이전의 도굴과 발굴 이후의 도난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와 조사기관은 도굴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미신적 인식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발굴 현장에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했다.

여섯째, 낙랑고분군의 유물 보호와 관리의 강화는 한편으로 유적과 유물이 공공의 문화재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즉, 낙랑고분군은 박물관의 전시 대상이 되는 한편, 발굴된 유구와 유물의 일부는 사적 소유와 거래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적 문화재와 사유화된 문화재라는 상반된 양상이 병존하였다.

일곱째, 낙랑고분군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지도와 안내서, 대중서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고분과 유물은 고고학적 조사 대상에서 관광과 교육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낙랑고분군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는 전시 · 출판 · 관광이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상화되어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의 발굴은 단순한 고고학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적의 발굴과 보존, 박물관 전시, 출판과 관광을 연계하여 낙랑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식민지적 지식과 문화유산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의 발굴조사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절차적 틀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다루는 제도적 원리와 그 성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사유화와 도난이 빈번했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출토유물의 국유화와 공공화를 통해 국가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남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평양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현재까지 소장 · 관리되고 있는 유물과 관련 자료를 실견하고, 분단 이후 남북한이 동일한 식민지기 발굴 유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 · 해석 · 관리해 왔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 체계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6. 8. 20 | **심사완료일** 2026. 9. 19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화당의 변천 연구」, 『韓國考古學報』 65.

高久健二, 2000, 「樂浪 채협총(南井里116號墳)의 埋葬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그 復元的 硏究와 諸問題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査」의 기억 : 『韓紅葉』과 谷井濟一의 조사기록』, 국립유산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2021,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41輯, 평양 오야리 18~21 · 25호분 – 유구편』.

김은식, 2017, 「德興里壁畵古墳의 仙人 · 玉女圖 硏究」, 『동아시아고대학』 45.

김대환, 2015,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의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1.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모던일본사, 2020, 『잡지《모던일본 조선판 1939(완역)》』, 어문학자.

문화재청, 20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해설서』, 문화재청.

안정준, 2017, 「'덕흥리벽화고분'의 현실 동벽에 묘사된 '칠보행사도'의 성격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57.

양은경, 2021, 「흉노 고분 출토 칠이배 : 생산, 유통 그리고 용도」, 『한국상고사학보 114.

여호규,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 ·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硏究』 53.

오영찬, 200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樂浪古墳 資料와 硏究現況」, 『韓國古代史硏究』 34.

_____, 2008, 「낙랑과 고구려의 象形土器 : 부뚜막 明器를 중심으로」, 『丹豪文化硏究』 12.

_____, 2011, 「낙랑 금은제교구(金銀製鉸具)의 제작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72.

_____, 2013, 「낙랑칠기 연구와 식민지주의」, 『백제문화』 1(49).

오택현, 2022, 「평양 정백동 · 정오동 출토 낙랑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29.

윤용구, 2010, 「낙랑 · 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硏究』 57.

이경미, 1992,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對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1.

이나경, 2021,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의 교역 양상 검토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22.

이선복, 2012, 『고고학 개론』, 이론과 실천.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유리, 2017,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난 집안-평양 간의 교류관계 연구: 옥도리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문화비평』 8.

정인성, 2004, 「樂浪土城의「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충남대학교 百濟硏究』 40.

_____, 2006, 「관야정의 낙랑유적 조사 · 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기억 1」, 『호남고고학보』 24.

_____, 20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71.

_____, 2017,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과 낙랑」,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1.

조우연 . 2008, 「4~5세기 중엽, 평양지역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향에 관한 시론-동암리벽화고분, 고산동 7 · 10호벽화고분의 묘향과 집안세력의 구 낙랑 · 대방지역 진출 시기에 대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19.

조윤재, 2017, 「古代 中國 鎭의 변용과 낙랑고분 출토 鎭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36.

주경미, 2015, 「낙랑 고분 출토 금은제 공예품의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 15.

최병현, 2008, 「한국 고고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고고학보』 67.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1930.『樂浪』 樂浪 昭和 5, 刀江書院.
藤田亮策, 1931,「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조선』 199.
私立三惠學校, 1928,『樂浪古蹟案內』, 平壤: 私立三惠學校.
田中修二, 1995,「入江波光の法隆寺金堂壁模寫に就いて」,『成城美學美術史』 3.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8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彩篋塚』,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彩篋冢: 樂浪王光墓. 1-2』,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5,『古蹟調査報告. 第1册.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古蹟調査報告』, 京城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研究會, 1935,『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9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6,『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總督府, 1917,『(大正伍年度)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19,『古蹟調査特別報告. 第1-2册』,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7,『古蹟調査特別報告.第4册.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朝鮮總督府.
早乙女雅博, 1997,『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オン』, 東京大學出版社.
八田蒼明, 1934,『樂浪と傳說の平壤』, 평양연구소.
平壤府立博物館, 1931,『平壤府立圖書館要覽』.
Brian Fagan, 2004, *Archaeology*: A Brief Introduction. Routledge.
Bruce G. Trigger,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in Renfrew & Paul Bahn, 2016,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7th edition.), Thames&Hudson.

[신문 및 잡지]
「경성일보」 1924.4.25.
「경성일보」 1925.1.7.
「경성일보」 1925.10.23.
「경성일보」 1925.11.6.
「동아일보」 1920.6.13.
「동아일보」 1921.10.1.
「동아일보」 1924.8.17.
「동아일보」 1924.11.15.
「동아일보」 1924.12.6.
「동아일보」 1925.5.16.
「동아일보」 1925.6.11.
「동아일보」 1925.12.4.
「동아일보」 1925.12.20.
「동아일보」 1926.5.8.
「동아일보」 1929.10.24.

「동아일보」 1934.5.4.
「동아일보」 1934.6.29.
「매일신보」 1933.8.31.
「조선신문」 1929.6.2.
「조선신문」 1931.11.18.
「조선신문」 1935.6.6.
「조선신문」 1936.5.23.
「조선일보」 1924.4.22.
「조선일보」 1924.12.4.
「조선일보」 1925.4.3.
「조선일보」 1928.10.5.
「조선일보」 1929.6.4.
「조선일보」 1930.12.14.
「조선일보」 1931.8.29.
「조선일보」 1931.11.9.
「조선일보」 1932.3.25.
「조선일보」 1933.2.21.
「조선일보」 1934.10.9.
「조선일보」 1937.3.29.
『삼천리』 제13권 제11호, 1941.
『「朝鮮』 제205호, 1932.6.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41

Excavation of the Nangnang Tombs in Pye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se of Its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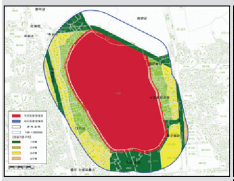
Kim, Hai-Gyoung(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Sun(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e investigation of the Lelang (Nangnang) tombs in Py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a representative case of "modern excavation," carried out systematically under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gents of excavation shifted in stages: from Sekino Tadashi's early surveys, to the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and the Sec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under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to excavations funded from outside sources, and finally to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Korean Antiquities (Chōsen Koseki Kenkyūkai). The excavations followed a hierarchical division of labor in which Japanese staff directed the research and fieldwork while Koreans took part mainly as laborers. Investigators defined the scope of each survey through mapping and test trenching, then extended the excavation as features were confirmed. Excavated artifacts were repaired and organized, then displayed at institutions such as the Pyongyang Municipal Museum and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Chōsen, and some were taken to Japan and kept there. As the scholarly value of the tombs gained attention, looting and theft also increased, and the Government-General and the investigating bodies tightened physical control, for example by erecting fences. Even as protection and management were strengthened, however, two processes coexisted: the incorporation of features and artifacts into public cultural heritage, and their privatization as objects of private ownership and trade. The Lelang tombs were

also introduced to the public through museum exhibitions, tourist maps, guidebooks, and popular publications, and so became objects of viewing and consumption. This objec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served to spread the colonial definition of Lelang imposed by Japan. In short, the excavation of the Lelang tombs went beyon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by linking excavation, preservation, exhibition, publication, and tourism, it incorporated Lelang into a system of colonial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Nangnang Tombs;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Modern Excavation, Looting and Theft, Objec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81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실제와 주요 쟁점의 진단

– 종묘의 현안과 고고유산의 과제를 중심으로 –

The Realitie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Diagnosis of Its Key Issues: Focusing on the Jongmyo Controversy and the Tasks for Archaeological Heritage

이 성 준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종묘 현안의 발단과 법적 경위

Ⅲ.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 현황

Ⅳ. 주요 쟁점

Ⅴ. 종묘 현안과 고고유산의 과제

Ⅵ.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 서울특별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로 촉발된 '종묘 이슈'를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고고유산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고고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종묘 이슈는 세계유산의 경관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권,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권한, 국제 규범의 국내법적 이행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안으로서,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매장유산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률의 조문과 그 해석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먼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위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5년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조항 삭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한 이후, 정부가 제시한 현행법상의 조치들은 서울시의 동의, 미제정 고시의 선행,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착공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이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점, 그리고 「매장유산법」에 따른 발굴조사 절차의 미완료가 오히려 사업 진행을 차단하는 실효적인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관 논쟁에 가려져 고고학계가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영역, 즉 서울 도심에서 발굴되는 한양도성 500년의 도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주목하였다. 보존과 개발을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한 '공평룰'의 개념과 성과를 공평 1·2·4지구(센트로폴리스)와 공평 15·16지구(G1서울)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공평룰의 제도적 안정화, 전시관 조성의 질적 기준 마련,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국 종묘 이슈는 지상의 경관과 지하의 유산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틀이 미비한 사안이며,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고학계의 전문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종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공평룰, 고고유산

Ⅰ. 머리말

2025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계기로 촉발된 소위 '종묘 이슈'는 세계유산의 경관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권,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권한, 국제 규범의 국내법적 이행이라는 쟁점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안이다. 그 전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률의 조문과 해석이 논란의 중심에 놓였으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언론보도만으로는 그 법리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고고학계의 구성원들이 종묘 이슈의 법제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사실관계 위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경관 문제에 집중된 논의에서 고고학계가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영역, 즉 서울 도심의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한양도성 500년의 도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하는 실천적 과제를 환기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아 온 '공평룰'의 구조와 성과를 검토하고, 고고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종묘 현안의 발단과 법적 경위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세계 건축계가 '동양의 파르테논'으로 평가하는 탁월한 건축유산이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기존의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표 1, 그림 1). 이것은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2018년에 합의하여 확정한 기준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한 조치였다(경향신문 2025-11-03; 매일경제 2025-11-03; 문화일보 2025-11-03; 서울신문 2025-11-04; 중앙일보 2025-11-03; 한국일보 202 5-11-03).

서울시의 변경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10월 4일 이를 공포한 것에 근거한다(표 2). 당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의 없이 조례안을 공포하였다(표 3).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종묘' 앞 142m 고층 건물 들어서나

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
청계천 변 최고 높이 71.3m→141.9m
국가유산청 "앞방석 고시 깊은 유감"

한국 첫 세계유산 자격 앞당겨 우려
'검토 강풍' 아파트 논란 재현 가능성

종묘 전경

종묘

종묘로 1(율곡로)

종묘로 13m → 98.7m

청계천변 71.3m → 141.9m

종로

청계천

세운4구역

을지로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입구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로5가

세종대로

서울시청

2023. 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도심은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그림 1] 서울시의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기준 변경(서울신문 2025-11-04)

조례안 공포 직후인 10월 6일, 문화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요청하였고,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으나, 서울시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장관은 10월 17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5년 11월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

[표 1] 2025년 10월 서울시가 변경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기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36호(2025.10.3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Ⅱ. 세운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3.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변경

다. 정비계획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기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세운4구역	32,223.7	대지	29,854.7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공동주택, 업무, 판매, 문화및집회시설 등	60이하 (저층부 80이하)	• 기준 : 600이하 • 허용 : 700이하 • 상한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70이하 (문화재 심의 높이기준 적용)	-
변경	세운4구역	32,222.4	대지	31,108.0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업무시설	60이하	• 기준 : 600이하 • 허용 : 800이하 • 상한 : 1,094이하	145이하 (종로변 101이하, 청계천변 145이하)	-

[표 2] 2023년 10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의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7.2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940호, 2023.10.4., 일부개정]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3 (생 략)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3 (생 략) ⑤ 삭제 <2023.10.4.>

종묘 코앞 142m 빌딩 들어서나…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판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의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유네스코나 당국과의 협의 없이 고층 빌딩 건립 등의 재정비계획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계에선 역사 경관 및 문화유산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보호 개정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제경토해야 한다는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에 문제 부는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보호구역 밖 개발 규제)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무슨 소송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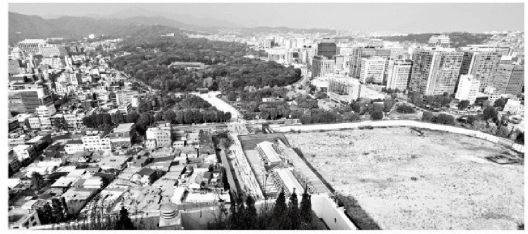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서울시의회서 해당 조항 삭제하자 문체부 "국가유산청과 협의" 소송

대법원 결론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니다" 판단 시 "세운4구역 재개발 속도" 환영

어떤 문제 있나

유산청-지자체 협의 관계 꼬여 일방적 재개발 몰고 티종 위험 유산청장 "세계유산 취소 우려"



대법원이 6일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장 문화재보호법과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인근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묘 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세운4구역 오른쪽 아래 공터와 종묘의 모습. 김경호 기자 kevin@hani.co.kr

회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울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져 200여년간 경제의 중심지였던 세운4구역의 재정비 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변의 최고 높이는 55m에서 96.7m로, 청계 전변은 71.9m에서 161.9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지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반면 문화재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암묵적으로 작동해왔던 업의 관례를 사실상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례 개정이 문화유산 주변 건축·개발 때 비껴의 인근 일부에도 적용되면 '보존 영향 검토'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 이로 인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개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우려와 관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 다고 해도 해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 판결을 내세워 종묘와 불과 15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초고층 빌딩군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해현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여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쩔 게 되나"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며 "심토 깊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학유산위원인 강동진 건설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군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서로 상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추가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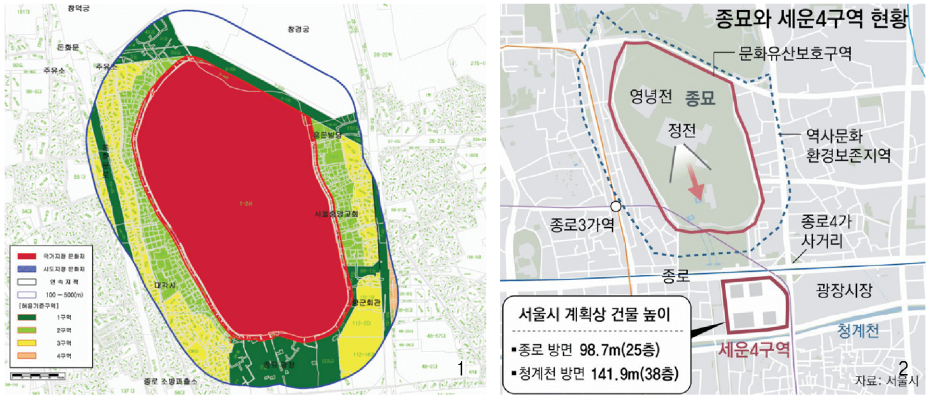
노형석 오연서 장수경 기자 nuge@hani.co.kr

[그림 2] 대법원의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의결 적법 판결(한겨레 2025-11-07)

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되므로(표 3), 조례안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 조례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그림 2, 대법원 2025).

이 소송은 국가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서울시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시 ·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원고가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1 · 2심 없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표 3).

대법원의 판결로,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외곽 경계로부터 100m) 외부에 있는 세운4구역(외곽 경계로부터 약 180m)의 건축물 높이 기준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그림 3, 연합뉴스 2025-11-06; 이데일리 2025-11-06; 한겨레 2025-11-06; 한국일보 2025-11-06).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시 · 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되, 그 범위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3).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지정유산은 100m, 시지정유산은 50m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그림 3]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와 세운4구역의 위치
(1. 종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7), 2. 동아일보(2025-11-18))

[표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표 4]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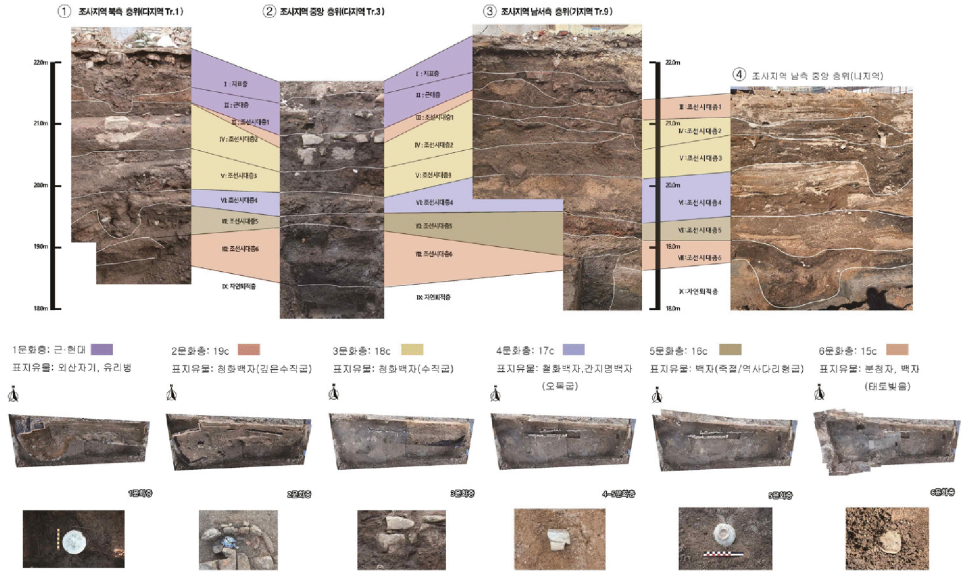
(표 4), 이는 부산 · 광주 · 대전광역시가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200m, 녹지 · 농림지역 등 300~500m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Ⅲ.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 현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중 총 31,042.4㎡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울문화유산연구원(가지역), 한강문화유산연구원(나지역), 수도문물연구원(다지역)이 수행하였다(그림 4). 2008년 지표조사를 거쳐 2022년 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2024년 현장조사가 마무리되어 현재는 복토된 상태이다. 2024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전문가 검토회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존조치 방안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확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문화재청 2024a: 10~11).



[그림 4] 유적의 위치 및 주변환경(1. 카카오맵 위성사진(2024), 2. 항공사진(1954))



[그림 5] 유적의 기준 층위(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6: 23)



사거리 도로와 동서 이문지(가지역)



15세기 배수로 목책시설(가지역)



동물뼈 출토 상황(가지역)



17세기 석축 배수로(나지역)

[그림 6] 주요 유구 현황(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86; 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6: 75 · 85)



청동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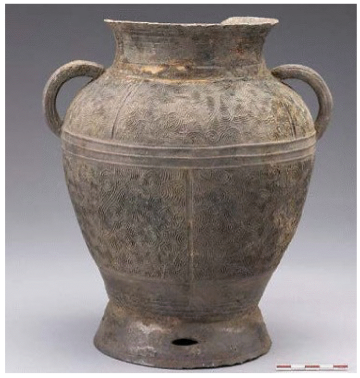




청동제기 세부



『宗廟儀軌(1667)』 수록 洗



청동제기



『宗廟儀軌(1667)』 수록 壺尊



金銅龍頭裝飾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銅龍頭裝飾

[그림 7] 16~17세기 건물지(나지역) 출토 주요 유물(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57~59 · 73)

세운4구역 유적은 왕실 제례공간(종묘), 중앙관청(御營廳, 한성부 관아), 상업시설(시전), 민간 거주지역이 공존하였던 한양도성의 핵심 지역이다. 문화층은 근대층(일제강점기)과 조선시대 1~5층(19~15세기)의 6개 층으로 구분된다(그림 5).

가장 주목되는 것은 15세기에 中路 규모의 도로가 교차하여 사거리를 형성한 지역으로, 16세기부터 이 사거리의 동쪽과 서쪽에 里門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 이문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5部 52坊 체제에서 방과 그 하위 단위인 契의 경계에 설치되었던 시설이다(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6: 88~89). 그리고 16세기 건물지에서 출토된 壺尊, 17세기 건물지 출토 金銅龍頭裝飾과 洗 등은 이 지역의 사회적 위상을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되는 중요 유물이다(그림 7, 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62). 한편, 소의 두개골을 비롯하여 최소 7~8개체분의 소가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기 이상의 수혈도 확인되었는데, 절단이나 가열의 흔적이 없는 온전한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그림 6). 종묘와 연관된 제사 의례의 잔존물일 가능성과 함께, 인근에 청계천의 馬廛橋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유적에서는 15세기부터 근대까지 건물지, 도로, 배수로, 우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가 6개 문화층에 걸쳐 종합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서 배수로와 중로급 도로가 약 500년간 유지 · 보수되며 사용되었다는 점은 도성 기반 시설의 높은 연속성을 방증한다. 이러한 성과가 기존의 한양도성 관련 발굴조사 자료와 함께 연구된다면, 한성부의 도시계획, 기반 시설의 관리, 주거 문화의 변화상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98; 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6: 89).

Ⅳ. 주요 쟁점

1.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의 즉각 대응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25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연합뉴스 2025-11-11; 한국일보 2025-11-11), 11월 10일에는 국무총리가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하였다(그림 8, 경향신문 2025-11-10; 문화일보 2025-11-10; 서울경제 2025-11-10; 세계일보 2025-11-10; 조선일보 2025-11-11).


숲총리도 가세한 종묘 앞 재개발 공방… 與 "공개 토론하자"

세운 4구역 재정비 두고 충돌

종묘 찾은 김민석 총리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해제를 보여 야에게해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에 대해 김 총리는 "서울시 시장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숲 "서울시 일방 처리할 사안 아냐"
與 "도시의 흉물 방치가 온당한가"

정치권 "내년 서울시장 선거 두고 야야 후보군 간 기싸움 시작된 것"

[그림 8] 국무총리의 종묘 방문(조선일보 2025-11-11)

당시 언급된 현행법상의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2025-11-17). 첫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재지정으로,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존지역의 범위를 외곽 경계 500m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표 3). 둘째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조치로,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있으면 건설공사

[표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급한 현행법이 허용하는 조치의 근거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외곽 경계 외부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이 허가 대상 행위로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표 5).

그러나 두 조치가 실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먼저 보존지역 범위의 재지정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며,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장이 일방적으로 보존지역을 확대할 수는 없고, 서울시장과의 협의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종묘의 보존지역을 100m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0m 바깥의 규제 조항을 삭제한

당사자이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삭제가 적법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세운4구역이 포함되도록 보존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조치에는 법리적 취약성이 있다. 「문화유산법」 제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의 훼손 등이 우려될 때 국가유산청장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운4구역은 매장유산의 보존조치가 결정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건설공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조치를 지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한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5호를 적용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지역 외부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의 특정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고시는 조례 삭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여 삭제 이전과 동일한 효력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보존지역 외부에 대한 고시의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을 겨냥한 행정재량의 일탈 ·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현행법상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보존지역 재지정), 새로운 행정행위의 선행(고시 제정),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의 현실화(건설공사 착공)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유산청이 국내법적 조치 대신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적 절차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배경이 된다.

2. 유네스코의 개입과 세계유산영향평가 논쟁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였는데(동아일보 2025-11-17; 매일경제 2025-11-16; 세계일보 2025-11-15; 세계일보 2025-11-17; 연합뉴스 2025-11-17; 중앙일보 2025-11-17), 이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표 6). 11월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여, 세운4구역의 고층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 ②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유산청은 같은 날 이 내용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행위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문화재청 2024b: 68 · 111).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각국에 도입이 권고되어 왔으며, 2022년 UNESCO · ICOMOS · ICCROM · IUCN이 공동 지침서를 발간하면서 2023년부터 사실상 의무화되었다. 「세계유산법」 제3조제3호도 이에 상응하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표 6).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은 물론,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므로, 국내법상 영향평가를 강제할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유산법」 부칙 제2조가 '이 법의 시행(2024.11.1. 기준) 이전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경향신문 2025-11-17; 문화일보 2025-11-14; 조선일보 2025-11-14; 중앙일보 2025-11-14; 한겨레 2025-11-14; 한국일보 2025-11-14).

「세계유산법」 제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안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제1항)과, 지구 밖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제2항)을 함께 두고 있다(표 6). 서울시의 주장은 이 문언 구조에 근거한다. 행정법상 '요청'은 명령 · 지시 · 처분과 구별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같은 법에는 요청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이행 강제 수단도 없다. 벌칙(제2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지구 안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점 역시 입법 의도가 지구 밖의 강제력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더라도, 국가유산청장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지구 밖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영향이 지구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서

[표 6] 유네스코의 지침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유네스코)

118bis. 운영지침 179항과 180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세계유산 내 혹은 주변에서 진행될 개발 사업과 활동에 대해 사전 전제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유산영향평가, 전략적 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들을 통해 개발 대안을 찾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구역 내 혹은 주변 환경에서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가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꾀하고, 재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유산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172.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 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통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가령 특정 사업에 대한 기본 문서 작성 전) 또한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시의 해석대로 이 요청이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입법 취지 자체가 몰각된다. 따라서 이 요청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작용이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자유가 있더라도, 그 거부는 후속 행정절차(매장유산 보존조치 완료, 통합심의, 건축허가 등)의 타당성 판단이나 국제적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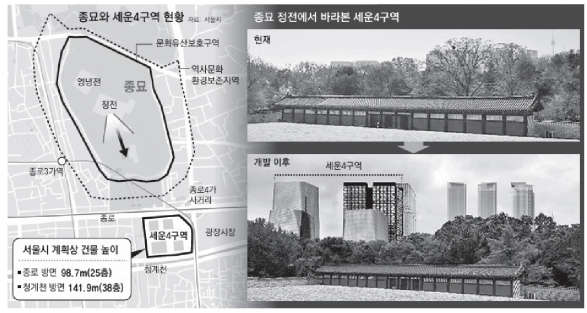
세운4구역 사업은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2년 철거 및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세계유산법」 부칙 제2조의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같은 사업 추진 단계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축허가나 현상변경 허가처럼 착공 직전의 최종 인허가를 의미한다.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세운4구역은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제2조는 오히려 이 사업에 영향평가가 적용된다는 원칙적 규범으로 작동한다(그림 9).

2026년 5월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SH공사, 종로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을 발송하였다(경향신문 2026-05-07; 연합뉴스 2026-05-07; 한겨레 2026-05-07; 한국일보 2026-05-07). 종묘 관련 사업

종묘 앞 재개발땐 고개 돌리면 '빌딩벽'… 서울시 "정면선 안보여"

(세운4구역)

서울시 종묘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종묘 왼쪽방향 5개 빌딩 모두 보여
유산청 "유네스코, 영향평가 요구"
市 "시야각 30도 밖 위치, 개발가능"
김민석 "광화문에 받들어 총 조형물"
종묘-한강버스 이어 서울시정 비판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 높이의 빌딩 허용 계획을 심의할 당시 종묘 정전에서 계획된 빌딩의 절반 이상이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준에 따라 정한 계획이고, 4구역이 종묘의 정면 방향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 **"건물이 '빌딩벽' 만들어" vs '종묘 정면에선 안 보여'**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올해 7월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세운4구역 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시뮬레이션 내용이 담겼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4구역을 개발할 경우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 오피스 2개 동(20층·98.7m)은 상부 절반가량이, 청계천변 오피스·오피스텔 3개 동(최고 38층·141.9m)은 절반 이상이 모두 보인다. 4구역 맞은 을지트윈타워(33층)와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7층)이 수목선(나무 높이)과 거의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구역이 종묘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묘 정전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볼 때 4구역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안은 2014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권고 기준안보다 최고 높이가 29배 높이겠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종묘 경계에서 100m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양각' 규정을 확대 적용했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최소 173m 떨어진 만큼 최고 높이도 비례해서 높인 것이다. 반면 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명시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가는 엄격을 보장할 것"이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유산청 "영향평가 받아야" vs 서울시 "특정 사업 거냥"**

이날도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외교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 조정 회의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특정 사업을 겨냥해 행동에 나섰다"며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인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360도 경관을 모두 보호하자는 주장은 도심 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유산청 문화재위원인 장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서울이 600년 수도라는 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6·25전쟁 참전국 상징 공간으로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두고도 이날 갈등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받들어 총' 형상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에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종묘 앞 재개발 반대, 15일 한강버스 안전 점검 지시 등 서울시정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총리실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전쟁 산물로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bless@donga.com·이윤태·이지용 기자

[그림 9]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공방(동아일보 2025-11-18)

을 둘러싸고 처분적 성격의 공문이 발송된 것은 처음이다. 행정명령은 '요청'과 달리 상대방에게 법적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고, 불이행 시 인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수반될 수 있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결국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은 약 6개월간의 '요청'에 서울시가 불응하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단계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뉴스1 2026-05-10).

명령의 내용은 SH공사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할 것,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해 영향평가 완료 후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중에도 행정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6월 19일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그림 10). 그 핵심은 2025년 10월 서울시의 높이 기준에 따라 기존의 지하 6층·지상 20층을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상향한 것(용적률 348.13%p 증)이며, 박물관 기부채납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이 용도에 추가된 점도 주목된다(표 7). 이로써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국가유산위원회(매장유산분과)의 유적 보존방안 심의만



現 종로구청장 '종묘 앞 재개발' 인가… 차기 구청장 "직권남용" 반발

세운4구역 사업 놓고 또 충돌

서울 종로구가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구보(舊報)에 고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있는 낡은 상가·공장 등을 최고 38층(142m)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종로구가 인가 결정을 고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배장 유산 심의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인가 고시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임기 만료 11일을 앞두고 결정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이 "7월 1일 취임 때까지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동조하는 직원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가 업무는 도시계획과장의 결재 사항이지만 정 구청장은 지난 18일 직접 안을 만들고 결재까지 했다고 한다. 도시계획과장은 휴가 중이었다고 한다. 종로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가를 신청한 지 2개월이 지났고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강한 상황"이라며 "정 구청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취임하면 결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정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종로구의 인가 처분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기치지 않아 국가유산기본법과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유산청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끝난 뒤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인가를 해준 종로구에 감사한다"며 "정부가 종로구의 인가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운4구역 재개발의 행정 절차는 한 발 더 나아갔지만 법적 공방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산청의 자문 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가 재등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2년 세운4구역에선 도로, 배수 시설 등 유산이 발굴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산청, 주민들과 협의해 종묘도 보존하고 낙후한 도심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노후 상가와 공장 등이 밀집해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근처라는 이유로 최고 높이가 55~71.9m로 제한됐고,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작년 10월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시는 종묘 쪽 건물의 최고 높이는 98.7m로, 청계천 쪽은 141.9m로 완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문체부·유산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문체부·유산청은 "고층 건물을 세우면 종묘 경관을 해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에서 173~199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밖에 있다"며 "슬럼화된 서울 도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0여 년간 재개발 사업이 차질도 못 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민들은 작년 12월 국가와 하민 유산청장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최연진·김경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입장 차

국가유산청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	정문헌 현 종로구청장
-인가 전 세계유산영향평가부터 받아야 -종로구 인가 처분은 국가유산기본법 도시정비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정관에 직권 취소 요청할 것	-종로구에 "7월 1일 취임 전까지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압박 전달 -취임하면 결재 과정 따져보고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크게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주민들 인가 요구 무시할 수 없어

종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예상 조감도

작년 11월 공중에서 내려다본 서울 종로구 종묘(사진 아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빈 땅이 세운4구역이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종로구는 19일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구보에 고시했다.

[그림 10] 종로구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조선일보 2026-06-20)

을 남겨둔 상태가 되었다(경향신문 2026-06-19; 매일경제 2026-06-18; 세계일보 2026-06-20; 조선일보 2026-06-20; 한겨레 2026-06-18).

[표 7] 2026년 6월 종로구가 변경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09호(2026.6.19.)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건축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용 적 률	660.10%	1,008.23%	(증) 348.13%
규 모	지하 : 6층	지하 7층	(증) 지하 1개층
	지상 : 20층	지상 38층	(증) 지상 18개층
최고높이	종로변 : 54.30m	종로변 : 98.70m	(증) 종로변 : 44.4m
	청계천변 : 71.80m	청계천변 : 141.90m	(증) 청계천변 : 70.1m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기부채납(박물관)에 따른 용도 추가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발

2026년 2월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경향신문 2026-03-10; 세계일보 2026-03-10). 이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8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이견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관계 부처의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정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불이행 시 국무총리의 행정조정권에 따른 후속 조치(중지 · 취소 등)가 가능하다(표 8).

전례로는 2022년 세계유산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입주 이후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사용검사(준공 직전의 최종 점검 절차) 처리의 유보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신청은 각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행정안전부 2022: 79; 세계일보 2026-03-10).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김포 장릉과 같은 사유로 각하되어야 하며(경향신문 2026-03-10; 매일경제 2025-12-29; 문화일보 2025-12-29; 아시아경제 2025-12-29; 조선일보 2025-12-29), 국무총리가 이미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조정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11).



유산청, '종묘앞 재개발' 행정조정 신청

정부행정조정위에 안건 제출
서울시는 "조정대상 아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 행정조정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권한 부족과 운영세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난해 12월 세운상가에서 촬영한 세운4구역과 종묘. 한창호 기자

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공식적인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신청을 각하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자체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이 충돌할 때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세운4구역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유정·한창호 기자

[그림 11] 국가유산청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매일경제 2026-03-11)

김포 장릉의 전례를 고려하면, 세운4구역 사안이 실질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김포 장릉은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철거의 실익이 없었던 반면, 세

[표 8]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조정 절차

지방자치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표 9]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시추조사 행위를 고발한 근거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4구역은 착공 이전이어서 사전 조정의 실익이 있고 유네스코가 공식 서한으로 사업 승인 중단과 영향평가 실시를 직접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6년 3월 11~12일 SH공사가 세운4구역 부지 내 11개 지점에서 시추조사(직경 80㎜·깊이 38m)를 실시한 사실이 3월 13일 국가유산청의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3월 16일 국가유산청은 SH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경향신문 2026-03-16; 동아일보 2026-03-16; 문화일보 2026-03-16; 중앙일보 2026-03-16; 한겨레 2026-03-16; 한국일보 2026-03-16).

이 유적은 보존조치가 결정되지 않아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의 완료 조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한다. 「매장유산법」 제31조제2항은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표 9), 국가유산청은 사전 협의나 승인 없는 시추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지반조사가 설계 단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고, 발굴조사는 현장에서 이미 마무리되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복토까지 실시되었으므로, 현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발굴이 종료되고 복토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행정절차의 미완료를 이유로 시추조사를 불허하는 것이 「매장유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장유산 실무에서 '발굴조사의 완료'는 조사기관의 현장 작업 종료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 심의와 행정적 완료 통보까지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은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고발은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법」만으로는 세운4구역 사안을 관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장유산법」의 발굴조사 절차가 사업 진행을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Ⅴ. 종묘 현안과 고고유산의 과제

1. 고고학계가 주목해야 할 지향점

종묘 이슈의 핵심 쟁점인 경관 보호와 건축물 높이 규제는 상당 부분 「문화유산

법」과 「세계유산법」의 영역에 속하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정치적 · 법률적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2025년 11월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27개 학회 및 6개 협회의 공동성명서 발표는 문화유산 분야 학술단체의 연대로서 의미 있는 행동이었으나, 경관 훼손 여부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고고학적 조사 · 연구보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분야의 쟁점에 가깝다.

따라서 고고유산 전문가 집단으로서 고고학계가 이번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묘 이슈가 경관 문제에 집중되는 사이, 세운4구역의 6개 문화층에서 발굴된 도시 유적의 보존방안은 현장조사 종료 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으며, 정식 발굴조사보고서는 「매장유산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미완료로 인해 현재로서는 발간될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적의 중요한 맥락이 개발 논리에 묻히거나 행정적 교착 상태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야말로 고고학계의 본령일 것이다.

다만 발굴된 유적의 후속 처리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 자체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적 제안이 중요하다. 서울 도심의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한양도성 관련 중요 유적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고고학계가 종묘 이슈를 계기로 집중하여야 할 과제이다.

2. 공평룰의 개념과 작동 구조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정립되었던 소위 '공평룰'이다(그림 12). 공평룰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고고유산을 그 자리에 보존하되,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관 협력 모델이다(매일경제 2021-07-02; 조선일보 2021-07-03; 한겨레 2015-04-30; 한겨레 2018-09-20).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자는 사업부지에서 발굴된 주요 유구를 건축물 지하층에 보존하고 도시유적전시관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며, 서울시는 그 대가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층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개발사업자는 3~5개 층의 추가 임대 면적으로 사업성을 보전하고, 서울시는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1개 층 규모의 역사문화 전시공간을 확보하며, 보존조치 대상 유구는 발굴된

자리에서 시민에게 공개된다(서울특별시 2017: 66~67). 이러한 구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 서울시의「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근거한다(표 10).

[표 10] 공평룰 적용의 법률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구조가 주목받는 이유는 보존과 개발을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있다. 종래 발굴유적의 보존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의미하였으나, 공평룰은 보존이 오히려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00년전 조선시대 마을 흔적이 그대로 1일 서울 회대 우주 전시장인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조선 시대 도시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2015년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중 발견해 원형 보전한 이곳은 종로 센트로폴리스 지하 1층에 3817㎡(약 11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충우 기자)

공사중 유물에 땅주인 울상? … '공평동 룰'에 방긋

유적 전면 보전해 공공성 강화
용적률 추가로 건물은 높아져
센트로폴리스 개발 사례 눈길

건물 공사 도중 지하에서 유적을 발견하면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걸까. 지난달 20일 서울 인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옛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땅 밑에서 혼민정음 창제 당시 금속활자와 시대상을 보여주는 집터 등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종로 센트로폴리스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문화계에서 일명 '공평동 룰(rule)'로 통하는 사례다.

센트로폴리스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공평동 5-1 일대)에 들어선 지하 8층~지상 26층 상업시설로 2018년 공사를 마쳤다.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했는데 2015년 땅 공사를 시작하자 지하에 파묻힌 108개동 건물 터, 골목길 등 유구와 함께 1000여 점 넘는 생활유물이 나타났다. 여기에 청동화로, 거울 등 옛 유물부터 일제강점기 담배가게 간판 등 시기를 아우르는 문화층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 도중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이를 국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발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데다 문화재 역시 모두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발견은 시행자 측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시행자 측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풀어 나갔다. 먼저 대단위로 발굴된 도로·골목·집터는 원위치에 보존하고 건물 지하 1층을 '공평도시유적전시관'으로 가꿔 옛 집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지하 공간 활용이 일부 불가능해진 시행자 측에는 손실을 고려한 뒤 용적률 200%를 더 부여해 기존 계획인 22층보다 4층이나 더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여를 '공평동 룰'로 규정하고 앞으로 도시 개발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관리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이번에 금속활자 등 유물이 발견된 인사동 사례 역시 공평동 룰에 부합해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은 탑골공원(종로구 삼일대로 401-20 일대) 인근으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피맛길 등 역사성을 고려해 건축 배치와 규모를 규정한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조선 시대 배수로·주거지·공동우물에다 핵국보급 가치가 있는 금속활자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전면 보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동에 새로 지을 업무시설 지하에는 센트로폴리스처럼 유적 전시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단 기존에 진행됐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준공 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유물 발굴은 두 달가량 더 진행한 후 오피스 건물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부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단계"라며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지현·이속복 기자

[그림 12] 서울시의 도심 개발에서 발굴유적 보존 및 관리의 원칙으로 주목받았던 공평룰(매일경제 2021-07-02)

3. 공평룰의 첫 적용: 공평도시유적전시관(센트로폴리스)

공평룰의 첫 적용 사례는 2018년 9월 개관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다. 종로구 공평동 5-1 일대(공평 1 · 2 · 4지구)에서는 2015년에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108동의 건물지와 골목길 등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고, 학계는 이를 '시간 박물관'으로 평가하며 전면 보존을 주장하였다(조선일보 2021-07-03).

서울시는 발굴된 도로 · 골목 · 건물지를 그 자리에 보존하고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도시유적전시관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대신,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200%를 추가 부여하여 당초 22층에서 26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완공된 종로 센트로폴리스 지하 1층의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연면적 3,817㎡)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3). 전시관은 16~17세기 건물지와 약 42m 길이의 골목길을 실제 걸어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세 채의 가옥을 실물 · 1/10 축소 · VR로 복원하였으며,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면서 종로 일대의 주요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보존 공존의 첫 삽, 되살아난 서울 600년 역사

노형석의 시사 문화재

서울 도심 26층 신축 빌딩 지하에
공평도시유적 전시관 개관
한양~경성 선조들 삶 엿볼 수 있는
시장터·판아·절터·골목길 등 복원

발굴 유적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건축주엔 용적률 상향 혜택 준
'공평둘 룰'로 개발-보존 공존 시도

강제성 없어 재개발마다 협상 공치
유적 파냈다가 인공복원 방식이라
역사적 진정성 온전한 확보도 과제

전시관 안쪽에 지하철 이문안길 작은 집 구역의 모습이다. 마루 바닥에 흔들과 마루, 마감이 등에 드러난 조선 전기 한옥터가 있고, 위쪽 유리 데크 위에 대한 한옥집을 복원했다.

전통 온돌터 유적과 복원 모형.

옛 이문안길 2m 넓는 석축이 잘에 있다.

"250년 전 영조 임금이 즐겨 걸어갔을 길입니다. 세손이던 정조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느끼는 흐뭇으로 말했다. 그가 실망했던 기억은 없는 지하 전시관에서 가장 깊숙한 안쪽에 있는 10여m의 옛길이었다.

약 3m 높이의 조선시대 석축이 양옆에 들어선 이 길은 '이문안길'이라고 불렸다. 오늘날 서울 한도심 종각에서 동북쪽의 이사동 대화빌딩으로 이어지는 꽤 통로로 옛 구간 일부다. 폭 5m를 조금 넘는 길의 북쪽 끝은 17~18세기 인조의 외할아버지였던 송인 구사한이 살았던, 명사들로의 저택을 담한 인조가 반정으로 광위에 오르기 전 성장기를 보낸 집이다.

주변 소방으로 정돈 주거지(적선)가 아니라는 흔들렉스에 시달린다 얼조는 비오한 저지의 인조에게 친밀감을 느꼈는지 이문안길을 통해 그의 장이를 자주 찾았다. 장이엔 연못에 '경불지'란 전설 이름까지 하사했다. 이 장이는 구영랑 매국노 이완용의 집으로 변했다가, 192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일었던 식당 태화관이 됐고, 여성교육시설인 기독교 감리회의 태화회관 등으로 같은듯다가 80년대 들어 태화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12일 종각 부근 공평동 아큐에 문을 연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약적된 600년 조선시대와 근대기 서울 도심의 겨변사와 그 곳을 오간 사람들의 두수한 얼화를 품은 국내 최대 도시 유적 박물관이다. 20층 산축건물인 센트로폴레스 지하 1층의 3000㎡ 넘는 면적에 시장터와 관아, 주거한옥터, 골목길들이 오밀조밀 들어찬 16~17세기 조선 한성의 도심부가 드러났다. 2014~15년 발굴된 공평동 조선시대 도시유적을 정제로 보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을 염두 둔 것이다.

이들건설계 전시관 중심을 가로지르는 전통골목길은 작업 전물 수 있다. 주변에 굵직한 식주 담장과 기단, 남매우, 배수로 등이 흩어진 시설과 집터들의 존재이 스치간다. 그 시절 안내판 몇자로 출장거렸던 빈화가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동감이 전해진다. 흔석, 적심석, 마루, 돈돌 등이 남아 있는 곳으로 작은 주거터 3곳은 유적 옆에 복원을 만들어 당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투겨나 잠한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브이아르(VR) 체험공간을 만들었다. 어둡안간 가옥의 경우는 유적 위에 바로와 사람뿐 등 실제 양옥 구조를 짐작히 잡아주다 각기 다르게 복원해놓았다.

"양도적 스페이스"이란 건축사가 조대모 경북대 교수의 표현대로 인구 전탄이 넘는 대도시 도심에 대형 현장전시관이 출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만큼 서울시가 도심 공적 보존 활용을 높고 깊은 시혜적 오을 기지며 교훈을 얻었기에 아뀐 전시관이 탄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00억대 들어 정리된 재개발과 서울시민 지하의 굳기사비, 옛 공대문등장 집대의 여도감비 유적 등 무수한 도시 유적이 번 골뭍지만, 부분이전, 부분 복원, 철거 등에 그치 소중한 유적이 산단 부분 사장되는 아픔을 겪은 탓이다. 이번에 들어선 전시관은 과거 사례들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크게 늘려 지상 4개층을 더 짓게 해주고 지하 1층을 전시관으로 기부채납받는 절충으로 빚었단 결과물이다. 시 측은 도심정비 사업에서 별굴 뛰는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려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저 참여를 여깁어내는 '공평둘 룰'을 만들어 냈다고 자평한다.

그럼에도 약날 반죽하기엔 여러 갠계와 까대가 녹록지 않다. '공평둘 룰'은 강제성 없는 타협사항이다 보니 모두 이익을 줄지, 중구 등의 도심 재개발 꽉 비슷한 유적이 나오면 모두 이번 협상 범이으로 보존해야 할지 고민거리다. 공평도시관 또한 디테기술 때 유적들을 바꾼다나 더니 기대와 많부 리기도 했고 공적 보존 활용을 높고 깊은 시혜적 오을 기지며 교훈을 얻었기에 아뀐 전시관이 탄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00억대 들어 정리된 재개발과 서울시민 지하의 굳기사비, 옛 공대문등장 집대의 여도감비 유적 등 무수한 도시 유적이 번 골뭍지만, 부분이전, 부분 복원, 철거 등에 그치 소중한 유적이 산단 부분 사장되는 아픔을 겪은 탓이다. 이번에 들어선 전시관은 과거 사례들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크게 늘려 지상 4개층을 더 짓게 해주고 지하 1층을 전시관으로 기부채납받는 절충으로 빚었단 결과물이다. 시 측은 도심정비 사업에서 별굴 뛰는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려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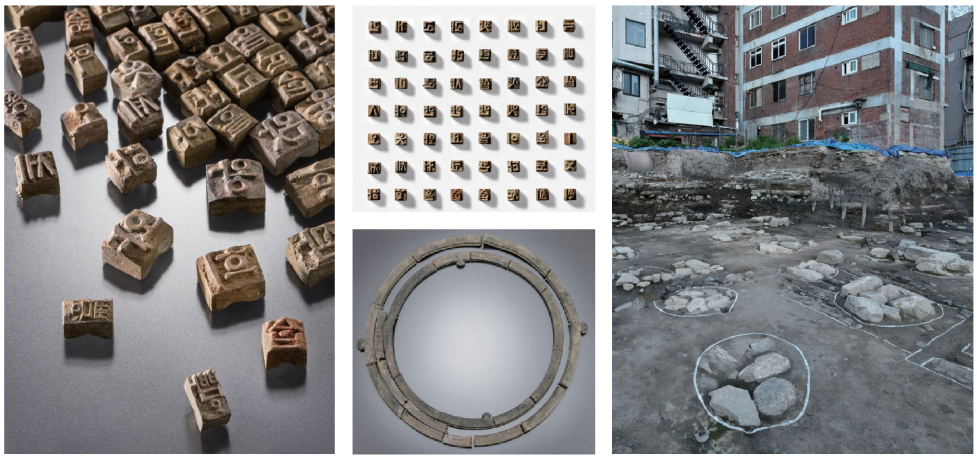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그림 13] 공평룰의 첫 사례 센트로폴리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개관(한겨레 2018-09-20)

4. 공평룰의 확대: 인사도시유적전시관(G1서울)

공평룰이 더 큰 규모로 적용된 사례가 2026년 4월 준공된 공평 15 · 16지구의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이다(한국경제 2026-04-18; 헤럴드경제 2026-04-18). 인사동 87번지 일원의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 · 건축 혁신안' 1호 사업으로, 착공 전 발굴조사에서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특히 훈민정음 창제 당시 東國正韻의 표기가 반영된 금속활자 약 1,600점, 해시계와 물시계의 부품, 총통 등 국보급 금속 유물이 대량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그림 14).

개발사업자가 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대신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 당초 지하 8층 · 지상 17층(높이 70m, 용적률 803%)으로 계획되었던 건물은 지하 8층 · 지상 25층(높이 104m, 용적률 1,052%)으로 확대되었다. 지하 1층 전체에 조성된 4,745㎡ 규모의 도시유적전시관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의 약 1.24배에 달하는 서울 도심 최대의 유적전시 공간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도 '역사 유적을 품은 프라임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림 15, 매일경제 2025-12-29; 이데일리 2025-12-29).



[그림 14] 공평 15 · 16지구 유적과 출토된 15세기 한글 금속활자 및 日星定時儀의 부속품
(국립고궁박물관 2021: 5 · 12 · 28 · 40)



‘훈민정음 유적’ 품은 오피스… 종로 ‘공평15·16지구’ 준공

<금속활자 1600여점>

최고 25층 - 업무·상업시설 2개동
역사성 반영한 ‘혼합형 정비’ 적용

서울 종로구 인사동 파고다공원 옆에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0만㎡ 이상 규모)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사진)이 마무리됐다.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내 지하철 1·3·5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데다 문화적 가치가 큰 열린 공간 등이 조성돼 주목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사동 공평15·16지구 재개발 사업(G1 서울)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심업무지구에 준공한 첫 업무시설이다. 총공사비는 3600억원 규모다.

이 건물은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업무·상업시설 2개 동에 연면적 14만3400㎡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3·5호선 종로3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임차 수요를 고려해 활용도 높은 대형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1호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혼합형 정비기법’이 적용된 게 특징이다.

이 사업은 착공 전 문화재 조사에서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됐다. 훈민정음 금속활자 1600여 점이 발견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건물 지하 1층에 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고 저층부 개방형 공간을 함께 마련해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완성했다. 건물에는 야간 전력으로 물을 얼음 상태로 저장했다가 주간 냉방에 활용하는 빙축열 보일러, 지열 냉난방, 변풍량 디퓨저 등 고효율 설비가 적용됐다.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회사 측은 중대재해 없이 44개월이 넘 공기를 3개월가량 단축했고 골조 시공 전 과정을 촬영해 기록하는 등 품질과 공사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평15·16지구 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주관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시상에서 민간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평15·16지구는 역사성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오피스 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프라임 오피스를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그림 15] 공평룰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받는 공평 15 · 16지구의 G1서울 준공(한국경제 2026-04-18)

5. 시사점과 제도화의 방향

공평룰의 사례는 세운4구역 현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운4구역에서 확인된 15세기 이래의 동서 배수로, 도로와 사거리, 이문지 등은 한양도성의 도시계획과 행정구역 체계를 실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공평룰을 모델로 재개발 건축물의 지하에 보존되고 전시관으로 조성된다면, 경관 논쟁과는 별개로 고고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고고학계가 연대하여 현실화하여야 할 제도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평룰의 제도적 안정화이다. 현재 공평룰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개별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교체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

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 유구가 발굴될 때 유적전시관 조성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장치를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시관 조성의 질적 기준 마련이다. 유적전시관이 형식적인 기부채납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시 콘텐츠의 질적 수준, 학술적 정확성, 시민 접근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는 고고학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야 할 분야이며, 국가유산위원회가 유적의 보존방안을 심의하는 준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적 · 재정적 지원이다. 유적전시관의 운영과 유지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조성 비용은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충당하되, 운영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 비용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묘 이슈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 개발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상의 경관과 지하의 유산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적 틀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공평룰의 가능성은 공평 1 · 2 · 4지구에서 확인되었고, 공평 15 · 16지구에서 반복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공공 부문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司僕寺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종로구가 유적전시관의 규모를 확대한 것도 참고가 된다(경향신문 2023-11-17).

다만, 공평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고고유산의 현지보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그 적용은 건축물의 규모와 개발밀도의 상승을 수반한다. 따라서 종묘 주변처럼 높이와 밀도가 경관 논쟁의 핵심인 지역에서는 고고유산 보존의 대안이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라는 가치와 다시 맞물릴 수 있다. 이 경우 공평룰은 매장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개발 주체와 협의할 수 있는 유효한 지렛대이기는 하지만, 경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두 가치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고고학계 역시 이 접점을 주시하면서 매장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물 높이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힌 점은, 두 가치의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고유산이 보존과 개발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된다(뉴스1 2026-05-10).

Ⅵ. 맺음말

종묘 이슈는 단순한 재개발 분쟁이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 보호 법제의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안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점, 보존지역 밖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규제 수단이 상대방의 동의나 미제정 고시에 의존하는 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집행 기반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이원 구조로 설계되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의 강제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백의 의미는 국내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025년 11월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공식 서한을 통해 영향평가의 실시와 사업 승인 중단을 권고하였으며(아시아경제 2026-03-16; 헤럴드경제 2026-03-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운영지침 제172항에 따라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경향신문 2026-05-11; 한국일보 2026-05-11). 국내법의 문언상 영향평가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시각은 법리적으로 일정 부분 타당하나, 영향평가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국제 규범으로써 2023년 이후 사실상 의무화된 절차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임을 감안하면, 자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쟁점 이전에 국가적 신뢰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쟁점 속에서 고고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지상의 경관 논쟁 이면에 있는 지하의 유산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변모시키는 실천적 과제에 있다. 공평룰은 보존과 개발을 상생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그 적용이 개발밀도의 상승을 수반하는 만큼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조율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15세기 이래의 도시 유적과 한양도성의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다층적 문화상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야말로 종묘 이슈를 계기로 고고학계가 집중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고고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6년 한국고고학회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문화유산과 한국사회 : 전지적 고고학 시점』의 주제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투고일 2026. 8. 24 | **심사완료일** 2026. 9. 18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국립고궁박물관, 2021,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대법원, 2025,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5.11.6. 선고 2023추5160 판결

문화재청, 2024a,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위원회

_____, 2024b,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7, 『공평백서: 공평지구 도심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동행』

(재)수도문물연구원, 2026, 『서울 예지동(47번지 일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다지역)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재)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26,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나지역) 내 유적 매장유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재)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6, 『서울 예지동(81번지 일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가지역)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협력 · 분쟁조정 업무 편람』

[언론기사]

2015-04-30, 한겨레, '조선의 폼페이' 공평동 유적 고스란히 보전

2018-09-20, 한겨레, 개발-보존 공존의 첫 삽, 되살아난 서울 600년 역사

2021-07-02, 매일경제, 공사중 유물에 땅주인 울상? … '공평동 룰'에 방긋

2021-07-03, 조선일보, 종로는 '조선의 폼페이' … 왜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나

2023-11-17, 경향신문, 호암아트홀 대지 절반 '녹지' … 종로구청 신청시는 유적전시관 '2배'로

2025-11-03, 경향신문, 종묘 맞은편, 하늘까지 가리는 142m 빌딩? … '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 우려

2025-11-03, 매일경제,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완화 … 국가유산청은 또 '태클'

2025-11-03, 문화일보, 종묘 맞은편 초고층 빌딩 짓나 … '왕릉뷰 아파트' 논란 재현 우려

2025-11-03, 중앙일보, 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 '제2 왕릉뷰' 논란 터졌다, 무슨 일

2025-11-03, 한국일보, '제2 왕릉뷰 아파트?' 세계유산 종묘 앞에 41층 아파트 짓나

2025-11-04, 서울신문, 제2의 왕릉뷰 아파트? … '종묘' 앞 142m 고층 건물 들어서나

2025-11-06, 연합뉴스,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없이 추진"

2025-11-06, 이데일리, '종묘 앞 초고층' 세운4구역 재개발 파란불 … "2030년 완공 예정"

2025-11-06, 한겨레, 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길 트인 서울시 즉각 환영

2025-11-06, 한국일보, 서울시의회 "문화재 조례 개정 유효 판결 환영" … 종묘 앞 '세운4구역' 탄력

2025-11-07, 한겨레, 종묘 코앞 142m 빌딩 들어서나 …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원

2025-11-10, 경향신문, '종묘뷰 고층 빌딩' 놓고 김민석 "논시안" 오세훈 "공개토론"

2025-11-10, 문화일보, 김민석 · 오세훈 때아닌 '종묘대전' … 金 "서울시, 밀어붙일 사안 아냐" vs 吳 "공개토론 하자"

2025-11-10, 서울경제, 김민석 총리 "종묘 인근 재개발, 문화 · 경제 · 미래 모두 망칠 수도 … 공론화 통해 해결해야"

2025-11-10, 세계일보, '종묘 앞 개발' 吳 저격한 金총리 … 2026년 선거 앞두고 본격 견제구

2025-11-11, 연합뉴스, 최휘영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냐"

2025-11-11, 조선일보, 金총리도 가세한 종묘 앞 재개발 공방 … 吳 "공개 토론하자"

2025-11-11, 한국일보, 최휘영 "종묘 보존 방법 강구,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 아냐"
2025-11-14, 문화일보, 종묘 '세계유산지구' 논란 … 서울시 "여태 지정도 없이 평가 요구한 건 모순"
2025-11-14, 조선일보,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서울시 "국가유산청, 그간 법적 기반도 없이 유산평가 요구했나"
2025-11-14, 조선일보, 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영향 없어"
2025-11-14, 중앙일보, 서울시 "국가유산청, 30년째 제대로 절차 안 밟아"
2025-11-14, 한겨레,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하자 … 서울시 "영향평가 준비없이 이행만 요구"
2025-11-14, 한국일보,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 서울시 "그간 영향평가 요구할 근거 없었단 방증"
2025-11-15, 세계일보, 종묘 개발 놓고 치열해지는 서울시 대 국가유산청 논쟁
2025-11-16, 매일경제, "여태 뭐하다 이제야" … 국가유산청 뒷북 행정에 서울시는 '답답' 주민들 '분통'
2025-11-17, 경향신문,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 서울시 · 문체부 왜 싸울까
2025-11-17, 동아일보,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종묘앞 고층개발에 강력한 조치 요구"
2025-11-17, 세계일보, 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 잃을 것처럼 호도 말아야"
2025-11-17, 연합뉴스,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승인 중지 요청"
2025-11-17, 연합뉴스, '종묘 사수' 천명한 최휘영 장관 "헌행법이 정한 조치 다 할 것"
2025-11-17, 중앙일보,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에 '강력한 조치 필요' 경고"
2025-11-18, 동아일보, 종묘 앞 재개발땐 고개 돌리면 '빌딩벽' … 서울시 "정면선 안보여"
2025-12-29, 매일경제,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2025-12-29, 매일경제, JLL 코리아, CBD 최대 규모 재개발 오피스 'G1서울' 자산관리 수주
2025-12-29, 문화일보, 세운4구역 주민들, '종묘 경관 훼손' 제동에 국가 상대 160억 손배소
2025-12-29, 아시아경제, 세운4구역 주민, 국가 ·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에 손배소 … "횡포로 착공조차 못 해"
2025-12-29, 이데일리, JLL 코리아, 서울 도심 최대 재개발 오피스 'G1서울' 자산관리 수주
2025-12-29, 조선일보,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6-03-10, 경향신문,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조정 신청에 … 서울시 "공정성 · 객관성 훼손"
2026-03-10, 세계일보, 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행정조정 신청
2026-03-11, 매일경제, 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행정조정 신청
2026-03-16, 경향신문, 법적 발굴조사 안 끝났는데 … 종묘 앞에 구멍 뚫은 SH공사 고발한 국가유산청
2026-03-16, 동아일보, 국가유산청 "SH공사, 종묘 인근 11곳 무허가 시추" 고발
2026-03-16, 문화일보,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에 SH 고발 … "세운4구역 인가 중단" 촉구
2026-03-16, 아시아경제, 종묘 '세계유산 박탈' 경고장 날린 유네스코 …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최후통첩
2026-03-16, 중앙일보, 종묘 앞 세운4구역 불법 기습시추 … 국가유산청, SH공사 고발
2026-03-16, 한겨레, 서울시 SH, 종묘 앞 '유물의 땅' 재개발터 11곳 몰래 팠다
2026-03-16, 한국일보, 종묘 앞 재개발 결국 고발전 … 유산청, SH 형사 조치 · 유네스코 경고
2026-03-16, 헤럴드경제, 위기의 종묘 … 유네스코 "3월까지 서울시 영향평가 확답 없으면 위원회 상정"
2026-04-18, 한국경제, '훈민정음 유적' 품은 오피스 … 종로 '공평 15 · 16지구' 준공
2026-04-18, 헤럴드경제, 현대엔지니어링, 인사동 '공평 15 · 16지구' 공기 앞당겨 준공
2026-05-07, 경향신문,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시에 첫 행정 조치
2026-05-07, 연합뉴스,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시에 명령
2026-05-07, 한겨레,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라" …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첫 행정명령

2026-05-07, 한국일보, 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라" 서울시에 명령
2026-05-10, 뉴스1, 허민 청장 "높이 71.9m 고집 안 해 … 높이 조정 가능성 열려 있다"
2026-05-11, 경향신문, "종묘 앞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추가 입장문
2026-05-11, 한국일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종묘 앞 개발 결정 전 유산영향평가 이행 재차 촉구
2026-06-18, 매일경제, 종로구청,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2026-06-18, 한겨레, 정부 명령 어기고 … 곧 퇴임 종로구청장, 종묘 앞 '35층 건물' 인가
2026-06-19, 경향신문, 퇴임 11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인가 강행
2026-06-20, 세계일보, 종로구,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고시 … 갈등 격화 예고
2026-06-20, 조선일보, 現 종로구청장 '종묘 앞 재개발' 인가 … 차기 구청장 "직권남용" 반발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81

The Realitie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Diagnosis of Its Key Issues:

Focusing on the Jongmyo Controversy and the Tasks for Archaeological Heritage

Lee, Sungjoon(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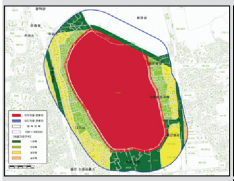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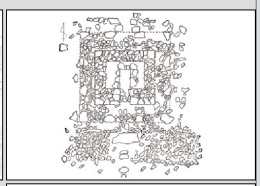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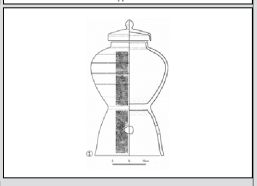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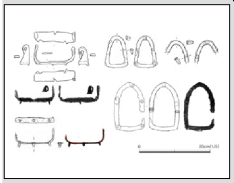
This study examines the so-called "Jongmyo issue" - triggered in 2025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vised notification of the redevelopment promotion plan for Seun District 4 -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 and explores the practical tasks to which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as a body of experts on archaeological heritage, can contribute. The Jongmyo issue is a complex matter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of landscape protection for World Heritage, the ordinance-making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gulatory powe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the provisions and interpretation of multiple statutes - the Cultural Heritage Act, the World Heritage Act,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 lie at the center of the dispute.

The study first organizes the issues raised over the course of events on a factual basis grounded in the relevant statutes. It finds that, following the 2025 Supreme Court ruling affirming the legal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s repeal of the ordinance provision, the measures the government invoked under existing law each carry structural limitations, as they presuppose the consent of Seoul, the prior enactment of a not-yet-issued public notice, or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that has not yet occurred. It further shows that heritage impact assessment, designed as a dual structure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provisions, has limited enforceability outside

the World Heritage District, and that the incompletion of excavation procedures under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Act has instead come to function as an effective regulatory means of halting the project.

On this basis, the study turns to a domain relatively overlooked by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amid the landscape debate: how to preserve the 500 years of urban remains of Hanyangdoseong, the Joseon capital, excavated in central Seoul, and to transform them into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at citizens can enjoy. Examining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achievements of the "Gongpyeong Rule" – which converts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from a zero-sum into a positive-sum structure – through the cases of Gongpyeong District 1 · 2 · 4 (Centropolis) and District 15 · 16 (G1 Seoul), it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tabilizing the Gongpyeong Rule in law, establishing qualitative standards for exhibition halls, and secur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nclusion, the Jongmyo issue reveals the absence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inking integratively about the landscape above ground and the heritage below, and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must marshal its professional capacities to fill that gap.

Key words : Jongmyo, Seun District 4, 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Gongpyeong Rule, Archaeological Heritage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硏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硏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 · 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
2.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 동향과 자료 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논문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 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 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 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硏究』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硏究』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硏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Ⅰ.,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 · 성춘향 2008), (이몽룡 · 성춘향 2008b), (이몽룡 · 성춘향

2008: 3), (이몽룡 · 성춘향 2008: 5~7) 등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은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槪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査報告 第三十三册 .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硏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r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 세로 20.5㎝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 오른쪽 30㎜, 아래쪽 13㎜, 꼬리말 17.5㎜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6) 目 · 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8) 표 · 도면 · 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yobo196.medone.co.kr)에 회원가입 후 매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논문 한글파일과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中央考古硏究』 연구윤리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硏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 · 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